

50
년을
넘어
100년으로

50년을 넘어 100년으로

全南大學校 山岳會 五十年史

全南大學校山岳會

全南大學校山岳會



ISBN 978-89-957398-1-5 03040

50년을 넘어 100년으로

전남대학교 산악회 오십년사

전남대학교 산악회

50년을 넘어 100년으로

전남대학교 산악회 오십년사

초판1쇄 인쇄일 | 2008년 12월 27일
초판1쇄 발행일 | 2008년 12월 30일

편집 | 전남대학교 산악회
펴낸곳 | 남도기업사

주소 |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57 번지
전화 | (062) 228-2114
팩스 | (062) 228-2908
e-mail | 123namdo@hanmail.net

ISBN | 978-89-957398-1-5 03040



••• 산악회기 및 빼지 •••



●●● 전남대학교 산악회가 ●●●



밤이 오는 이침해를 바리보면서 우리 모두 정상향해 올리갑시다
타 모르는 항연의 물 바라보면서 우리 모두 손을 잡고 노래 합시다



정과정이와한모임 사람의모임 오 전대산악회
몇몇하고우렁차게 울리는소리 오 전대산악회



힘찬힘찬우리발길 힘찬힘찬우리신우



힘찬힘찬우리발길 절실을향하이
점상에옹알네

50년을 넘어 100년으로



이정옥

전남대학교 OB산악회 회장

전남대학교 산악회가 빌족한 아래 어느덧 반백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지난 50년을 되돌아보면 참으로 값진 일도 많았고 보람찬 일, 안타까운 일도 많았습니다.

그간 회 자체적으로는 알프스 3대 북벽 히말라야 초오유 에베레스트 가셔브룸 등 해외원정등반을 통해 국내 산악계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됐습니다. 또 국내 각 원정대에 기라성같은 회원들을 파견해 광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며 전남대산악회의 위상을 널리 알리기도 했습니다. 세계최고봉 에베레스트 등정자를 단일산악회로는 드물게 3명이나 배출했고 특히 고 이현조 회원은 세계 최난의 장벽 낭가파르밧 루팔벽 등정 등 세계 산악사에 내로라하는 금자탑을 쌓기도 했습니다.

그간의 활발한 활동은 회원들이 십시일반이라는 희생을 감내하면서 담보해낸 것들이어서 그 가치가 더 크다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올해 등반한 가셔브룸 I, II 원정등반의 경우 비록 정상등정은 못했지만 재학생 신예등반기들이 대거 참여했다는데서 의미가 깊습니다.

세계최강을 갈구하던 일본의 대학산악문화가 사멸하고 한국의 유명 대학산악부도 회원확보의 부재속에 설 땅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본회의 발전은 본받을만한 모델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한때 28개 대학산악부가 활동하던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도 몇몇 4년제 대학교를 제외하고는 회원이 전무한 상태로 지역 학생산악운동도 사양길로 접어들었습니다. 최근에는 등산학교 입교생의 절반을 저희 전남대학교 산악회 후배들이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우리산악회가 이러한 악조건 속에서 더욱 견재하면서 제2의 전성기를 구가하는데는 아카데믹 알파니즘과 끈끈한 형제애라는 초창기 때의 청립정신이 면면히 세대를 넘어 후배들에게 전달되는데 따른 것이라고 자평합니다.

우리산악회의 가장 큰 자산이자 버팀목은 바로 회원간의 애정일 것입니다. 선배는 후배를 아껴주고 후배는 선배를 존경하는 전통적인 대학산악인의 모습속에 기수를 넘어 나이를 넘어 우리는 형 동생으로 영원한 자일의정을 나눌 것입니다.

회원여러분, 이제 이러한 장점을 더욱 승화시켜 50년을 넘어 100년을 향해가는 전남대학교 산악회로 발전해 나가야겠습니다.

50세를 먹다보니 선배와 후배들 간 세대차도 커지고 문화의 벽도 있는게 사실입니다.

때로는 회원간 불협화음이 발생할 수도, 추구하는 산행이 달라 질 수도 있습니다. 세상이 확 변하고 있으니 산악회도 옛것만을 고수할 수는 없는 노릇이겠지요. 선배들의 꿈과 정열 눈물이 서려있는 키슬 링도 뭉칙한 우드하켄과 우드피켈 다헤진 크레타도 사라진지 오릅니다.

하지만 50년전 선배가 걸었던 춘계 추계훈련등반 하게 동계 장기등반 등 전남대학교 산악회의 정신을 지탱해주는 산행의 언덕을 후배들이 똑같이 오르는 한 자일의 정은 더욱 단단해지고 우드피켈은 더욱 날카로워 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금번 50년사 발간이 전남대학교 산악회의 전통과 명예 알피니즘 우리들의 혼재애를 더욱 빛나게 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어쩌면 이번 50년사는 개척자적 정신으로 전남대학교 산악회를 탄생시키고 발전시키면서 후배들의 인생전반에 ‘나는 전남대학교 산악회원’이라는 대단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해 준 선배님들의 노고에 대해 보답하고 보은하고자 하는 후배들이 현정하는 의미도 깊습니다.

10년 뒤 산악회 회갑연에는 60년차 선후배들이 한데 어우러져 세대를 넘어 평생 춤을 추는 큰잔치가 열릴 것입니다. 그 여느 단체에서는 볼 수 없는 우리 단체만의 매력을 발산하며 자타의 부러움을 사는 명실상부한 한국 최고의 산악동아리로 자리매김 될 것입니다.

본 산악회가 아름드리 나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토대를 만들어주신 선배님들과 울창한 나뭇가지를 드리워준 후배님들께 50년사 발간을 계기로 머리 숙여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100년을 가는 동안 우리 산악회는 그 어떤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고 뿌리깊은 100년 송으로 성장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먼 훗날 사랑스런 후배들의 이름으로 씌어질 1백년사는 지금의 재학생들이 최고선배로 참여할 것입니다. 그들에 의해 기록되고 전승될 1백년시를 통해 우리들은 죽어서도 영원히 살아있는 전남대학교산악인이라는 이름으로 존재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흘러간 별들



정순택

전남대학교 산악회 50년사
발간추진위원장

50년 긴 세월이다. 사람도 많이 가고 등산의 사조도 바뀌고 등반형태도 변하였다. 등산하는 사람은 산과 등산의 이치로 세상을 보듯, 전남대학교 50년사에 산을 다녔던 우리의 눈으로 보았던 세계를 담으려 하였다. 높이 오를수록 시계가 넓어지고 보이지 않던 미지의 등산세계가 펼쳐진다. 역사가 쌓일수록 모험과 도전의 역사와 다른 지고지순한 구도자의 정신세계가 산과 맞닫는다.

이번 6월 1일을 산악인 추모의 날로 정하고 무등산 의상봉에서 전남대학교 OB산악회가 주관하여 저승의 먼 산으로 긴 산행을 떠난 김용석 신귀현 이방기 임춘재 김승철 최행준 이현조의 기억을 새로이 하였다. 흘러간 별이라 하였다. 전남대학교 산악회를 창립하고 산악회가 배출한 세계적인 산악인이었다. 유성처럼 한 순간 번쩍이다 사라져버린 그들의 기억이 이어질 수 있을까 생각하며 이 책을 발간한다. 역사는 사람이 만든다. 말로리와 같이 애베레스트 북릉 8,500m에서 사라진 옥스퍼드 대학생 어빈은 1999년 75년만에 부활하였다. 역사는 사건이 많고 얘깃거리가 많고 감동적이고 슬픈 사연이 많아야 한다. 산악사는 고산등정과 등정자의 영광을 담은 기록이기보다는 삶과 죽음사이에서 오직 올라야한다는 목표를 위한 처절한 투쟁의 기록이며 엘레지이다. 히말라야는 ‘눈이 있는 곳’. 이들의 죽음이 있고 눈 속에 사라진 이들이 50년사를 만들었고 전남대학교 50년 산악사에 빛을 더하였다.

전남대학교 산악회 창립 50주년 기념사업의 일환으로 전남대산악회 50년사를 발간하기로 한 2007년 4월 17일의 전남대학교 OB산악회 운영위원회의 지명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1년 후인 4월까지 원고를 수합하여 창립기념일인 2008년 6월 4일에 또 다른 50년 기념사업인 가셔브룸 I, II 원정발대식에 맞춰 발간하였으면 하였지만 이제야 발간하게 되었다.

내 탓도 크지만 누구 탓이라고도 못 하겠다. 자료와 원고를 의뢰받은 산악인들이 자기일이라고 할 우리 회의 중추적인 동량 회원이기에 더욱 그렇다. 산엔 열심이었으면서도 고고한 선비처럼 기록을 남기지 않은 악우들이 미웠다. 송희태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노고에 감사드리고 다만 죄스러울 뿐이다. 전남대학교 산악회 50년사가 한때 들소처럼 열정을 터웠던 우리의 기록으로 사랑받고 산악사의 자료가 되기를 바란다.

산악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전남대학교 산악회 50년사’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한 조직이 50년 넘는 세월동안 명맥을, 그것도 튼실하게 유지하기란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전남대학교 산악회는 그런 점에서 선·후배들에게 전범을 제공해주었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떻게 50년의 세월을 한결 같은 모습을 유지하게 되었을까? 많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선, 산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가능했을 거라 여깁니다. 강한 도전의식을 뒷받침해 준 인내심이 누구보다 컸을 것입니다. 때론, 생사를 넘나들며 가슴을 뜨겁게 데워 준 동료애를 가졌을 것입니다. 또한, 수많은 봉우리와 계곡을 품에 안으며 자연스레 너른 품과 호연지기를 길렀을 것입니다. 자연의 섭리도 몸소 체득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분들이 함께 하는 자리엔 이기심이나 시기, 질투 같은 못된 마음이 들어설 자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못지않게 모교사랑이 그 바탕에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고 확신합니다. 처음엔 취미나 관심사로 만나게 되고, 거기에서 우정을 싹 틔웠을 것입니다. 그 우정은 ‘전남대학교’라는 또 다른 동지애로 커졌을 터이고, 모교 그 이름 아래 삶과 죽음의 경계도 훌쩍 넘어설 수 있는 사람들도 생겨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숭고한 애교심에 모두 숙연해지고, 그 마음으로 하나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전남대학교 산악회가 우리 곁에서, 우리 마음 속에서 영원히 함께 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곧 모교는 60주년을 맞습니다. 개교 55년 때 세계의 지붕인 에베레스트를 등정하여 전남대인의 기개를 맘껏 펼쳐 주셨던 그 감동을 다시 맛 볼 수 있기를 희망하며, 전남대학교 산악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늘 건강하고, 행복한 삶되십시오.
감사합니다.



김윤수

전남대학교 총장



모두가 함께하는 산악회가 되기를



강정채

전남대학교 제17대 총장

전남대학교산악회. 그 이름만 들어도 가슴이 벅찹니다.

50년. 모교와 함께 해 온 그 역사가 너무도 소중하고, 너무도 자랑스럽기 때문입니다.

특히, 개교 55년을 맞아 세계의 지붕인 초모랑마(8,850m)를 등정한 날은 평생 잊지 못할 것입니다. 전남대학교를 선명하게 아로새긴 녹색 깃발이 세계의 지붕에서 휘날리는 장면에선 눈물바람 했던 기억이 납니다. 무엇보다 가슴 조리며 애타게 무사귀환을 바랬는데 뜻대로 이뤄져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도 기뻤습니다. 무엇이든 할 수 있겠다는 자신감을 가졌고, 큰 용기와 희망을 얻었습니다. 아마, 그 때 우리 모두 그런 마음이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우리 삶의 텃줄이며, 터전인 산을 오르내리며, 우린 참으로 많은 걸 배웠습니다. 자연은 물론이고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작은 가슴을 넓게 키웠고, 결코 굴하지 않는 인내와 끈기도 길렸습니다. 우리 산하, 우리 것에 대한 자긍심과 사랑도 키웠습니다. 무엇보다 동고동락하며 애교심과 선후배간의 친한 우정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지금까지도 서로 만나, 말없이 나누는 악수와 포옹엔 진한 사람 내음과 뜨거운 동지애가 전해져옵니다.

비록 생업의 현장은 다르고, 세월의 흐름에 따라 생김새도 변했지만 그 마음, 그 정신은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리고 멋지고, 훌륭한 전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혼신해주신 선배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하고 싶습니다. 또한 산을 사랑하고 배우고 있는 후배님들에게도 이번 50년사의 발간이 전남대학교 산악회에 대한 자긍심이 돌아지는 일이 되었다고 보며 항상 배움의 자세로 모두가 함께하는 전남대학교 산악회가 반세기를 넘어 100년을 향해 깃꼿하게 산을 오르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학문적인 산행을 선도하는 산악회

전남대학교 산악회 창립 50주년과 「전남대학교산악회 50년사」발간
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나라의 산악 활동이 적극적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것은 산악지
대인 환경적 요인에도 있겠지만, 전남대학교 산악회를 비롯한 대학 산
악부의 새로운 것을 추구하는 도전정신과 학문적 접근을 통한 적극적
인 활동이 모태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특히 1958년 창립 이래 광주·전남 산악계 발전에 큰 기여를 하면서
많은 산악인을 배출하고, 지금까지 꾸준하게 활동하고 있는 전남대학
교 산악회는 우리나라 대학 산악부의 역사에 길이 빛날 것이며 앞으로
도 더욱 일찬 도전이 계속 이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귀중한 자료들을 찾아내 50년 산악회의 역사를 정리하여 책으로 발
간하게 된 것은 전남대학교 산악회를 창립하여 지금까지 이끌어 온 회
원의 노고와 큰 뜻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며, 50년의 역사를 하나의 책
으로 출간함은 전남대학교 산악회의 자랑은 물론 전국 대학산악부에서
도 몇 안되는 중요한 기록이라 생각됩니다.

지금은 자연을 정복의 대상이 아니라, 보전해 더불어 같이 가야 할
삶의 터전으로 인식하는 시대입니다. 50년을 맞이한 전남대학교 산악
회는 최고나 최초가 아니라 균형과 조화를 추구하면서 학문적인 산행
을 선도하는데 앞장서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도 쉽게 생각할 수 없는 5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전남대학교
산악회 50년사」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50년사 발간을 계기로 더욱 발
전하는 전남대학교 산악회가 되기를 바라며 회원 여러분께 건강과 행
복이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인정

사단법인 대한산악연맹 회장

세계속의 산악회로 뻗어나가길



최경주

(사) 대한산악연맹
광주광역시연맹 회장

전남대학교 산악회 창립 50주년과 「전남대학교 산악회 50년사」 발간을 광주지역 모든 산악인과 더불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우리 광주산악연맹과 역사를 같이하는 전남대학교 산악회는 58년 창립 이후 지금까지 광주지역 산악계의 중심에 서서 큰 줄기를 형성하면서 광주·전남의 산악 발전에 큰 기여를 하였습니다. 많은 산악인을 배출하면서도 초창기 산악회의 초석을 다졌던 귀중한 자료들을 정리하여 「전남대학교 산악회 50년사」를 발간하게 됨을 광주지역 산악인을 대신하여 다시금 축하드립니다.

50년이 지나온 오늘날까지 전남대학교 산악회는 정통의 알피니즘과 끊임없는 도전의 산악활동을 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대학산악부의 선도로서 전국의 수많은 봉우리에 새겨진 전남대학교 산악회 회원들의 발자취와 히말라야 8,000미터 고봉에서 전남대학교 산악회 회원님들의 거친 숨소리가 들리는 듯하여 그간의 활동에 경하의 마음과 찬사를 드립니다.

뜻 깊은 창립 50주년을 맞이하여 우리 모두 초창기 산악 선배님들의 노고를 잊지 않으면서 회원 모두가 합심 단결하여 세계속의 전남대학교 산악회로 힘차게 뻗어나갈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지나온 발자취를 돌이켜 볼 수 있는 「전남대학교 산악회 50년사」 발간을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정옥회장님을 비롯한 임원들의 노고에 격려와 박수를 보내며, 전남대학교 산악회의 앞날에 무궁한 발전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지혜와 열정을 가진 산악회가 되길

실로 감회가 깊습니다.

우리 전남대학교 산악회가 어언 50년의 역사를 기록하게 되었다니 말입니다. 강산이 다섯 차례나 변하는 긴 세월동안에 변함없이 아무 때 라도 어디서든 연락하고 만날 수 있고 많이 있든 적든 크고 작든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형님동생으로 넉넉하게 살아온 사람들이 우리 산악회입니다.

내가 살아오면서 참으로 자랑스러웠던 우리의 동아리가 아닙니까!!



김훈봉

전남대학교 산악회 3기(59학번)

산악운동이 아직 우리에게 생소하였던 1958년에 전남대학교 산악회가 창립되어 오늘이 있기까지 기여한 일들을 일일이 기록할 수야 없겠지만 산악운동의 저변확대에서부터 더 높고 협한 등반에 이르기까지 우리 흔적은 역사와 전통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것이 세월인가

한구석이라도 남아 있어야 할 우리들의 끈끈한 정은 흘러가고 인적은 드문드문 없어져 찾을 길이 없으니 보고 싶구나.

지난날의 흔적을 찾아 기록으로 남기는 50년사를 일차게 만들어 우리 자랑스러운 전남대학교 산악회의 전통을 더욱 빛내고 미래에 대한 각오를 새롭게 다지는 계기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간의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해온 정순택 추진위원장과 편집위원들 전남대학교 OB산악회 이정옥 회장에게 감사와 경의를 전하면서 50년 사발간을 축하 합니다.

끝으로 후배들에게 부탁하고자 합니다.

보다 높고 협한 등반도 중요하지만 우리에게 진실한 것은 형님과 동생이 함께하는 지혜와 열정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 모두 전남대학교와 우리 산악회의 무궁한 발전과 친란한 앞날 을 위하여 합장합시다.

高山花

김현곤

前 전남대학교 산악회 지도교수



봄에는 꽃이 피고
여름에도 꽃이 피고
아무렴 가을에도
그렇게 피는 거야.

모진 동백꽃은
봄 눈 속에 피어나고
매화는 더 모질어
한 겨울 눈 속에...

그렇지. 아가씨
산이 좋은 아가씨
높은 산 눈 속에
피어나는 꽃도 있지.

눈 속에 피어나는
높은 산 꽃들엔
눈발 속 봄이 가고
여름 가을 오고 가지.

저녁노을 한숨져도
아침노을 웃음 지며
얼끔 빛깔 무지개가
그네들의 꿈일 거야.

눈매 고운 별들이
마음속님일 거야.
둥근 달 떠오르면
안기어 웃을 거야.

산이 좋은 아가씨.
손에 손을 잡고
높은 산 아니 가련.
눈 속 꽃들 아니 보련.

높은 산 하늘 밑
외로이 사는 꽃들
함께 울어주렴.
함께 웃어주렴.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1961. 팔공산 60km 극복등행대회



1962. 무등산 등산대회



1964. 무등산 입석대 암벽등반



1962. 도봉산 특수체육대회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1964. 무등산 등행대회



1964. 전남학생산악연맹 결성 준비모임



1964. 전국특수체육회 창립기념 시범등행대회



1964. 전남대학교 졸업식



1964. 총장로 시가행진



1964. 산악강습회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1965. 교육감기 도청 시가행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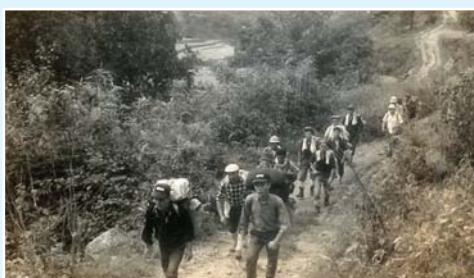
1965. 60km 극복등행대회



1965. 전남 학생산악연맹 무등산 합동등반



1965. 60km 극복등행대회 장비검사



1966. 지리산 종주등반



1965. 지리산 제석단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1965. 팔공산 60km 극복등행대회



1965. 지리산 적설 기등반
폭설로 순창에서부터 마천까지 달구지를 이용
짐을 수송하는 중



1965. 지리산 적설 기등반
마천 줄다리 – 지금은 교량을 가설하여 버스가
다닌다.



1965. 지리산 적설 기등반
1m 이상의 눈이 내려 교통두절과 입산금지령이
내려진 상태에서 등반을 강행함.



1966. 지리산 종주등반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1966. 무주구천동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경상북도 합동
하계산간학교



1966. 지리산 종주등반



1966. 한국특수체육회 주최 설악산 동계등반



1966. 60km 극복등행대회



1966. 60km 극복등행대회 종합2등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1969. 북한산 임백환 송희범 이정옥



1968. 마라도-향로봉 국토종주 3000리



1968-1972. 마라도-향로봉 국토종주
3000리 행사를 마치고
설악산에서



1968. 남원 광한루
대한산악연맹 주최
마라도-향로봉 통일의 의지 국토
종주3000리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1970. 관악산
전국 범산악인 대회



1972. 향로봉
1968-1972. 국토종주 3000리 마지막날
향로봉에서 각 지부 대표들.



1971. 적설기 자리산 종주등반



1970. 적설기 자리산 등반



1971. 적설기 자리산 종주등반



1971. 자리산 천왕봉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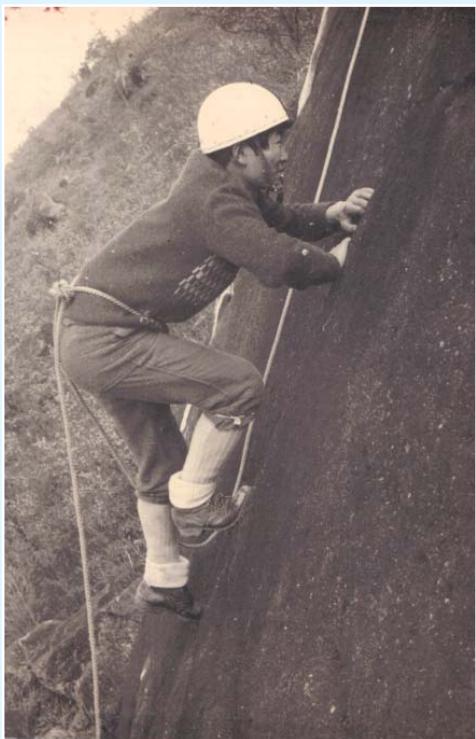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1972. 월출산 암벽등반



1971. 지리산 적설기 집중식 등반



1970. 국회의장기 무등산등산대회



1971. 지리산 종주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1972. 지리산



1972. 지리산



1973. 60km 극복등행대회 개막식



1973. 60km 극복등행대회



1973. 60km 극복등행대회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1971. 하계 (설악산 12선녀탕)



60km 극복등행대회 장비검사



1971. 하계 (설악산 봉정암)



60km 극복등행대회 (대구 팔공산)



1972. 동계 발대식 (지리산 적설기 등반)



등산대회 개회식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무등산 등산대회



시가행진



70년 12회 60km 극복등행대회 우승하고



지리산 주능선 세석



1969. 설악제 (설악산)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1980. 신입생 환영등반



1981. 동계등산학교 (지리산)



1981. 하계장기등반 (오대산 비로봉)



1983. 하계장기등반 (26기 단체사진)



1984. 대통령기 등산대회 (마산)



1981. 하계 산간학교 (지리산)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1981. 무등산 새인봉



1986. 토왕폭 등반



1987. 전남북대 합동등반 (전주 만덕산)



1986. 하계장기등반 (설악산)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1983. 하계장기등반 (소백산맥 종주)



1985. 장비전시회



1985. 지리산 칠선계곡



1984. 하계장기등반 (설악산 울산암)



1986. 춘계훈련등반 (지리산 30기단체사진)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1986. 춘계훈련등반 (지리산 세석평전)



1987. 동계훈련등반 (설악산)



1987. 하계장기등반 (소백산맥 종주)



1987. 암벽학교 끝나고 (월출산)



1988. 동계장기등반 (설악산 양폭산장)



1988. 일상다반사 (제2수원지 추정)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1990. 춘계훈련등반 (지리산 뱀사골)



1990. 하계장기등반 (대운동장 출발)



1993 하계장기등반 (설악산 칠형제봉 릿지)



1991. 하계장기등반 (백두대간 종주)



1993. 하계장기등반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1995. 하계장기등반



1998. 춘계훈련등반



2000. 동계장기등반



2000. 동계장기등반



1998. 하계장기등반



1999. 춘계훈련등반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01. 김훈봉선배님 회갑기념등반 (무등산)



2002. 십년지우 하계등반 (설악산 천화대)



2003. 하계장기등반 (설악산 울산암)



2003. 하계장기등반 (설악산 천화대)



2004. 하계장기등반(남덕유산 할미봉 낙석사고)



2005. 하계장기등반 (점봉산)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1960년대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06. 초모랑마 훈련등반 (한라산)



2003. 신입생 환경등반



2007. 하계장기등반 (덕유산)



2002. 전남북대 합동등반 (무등산)



2005. 낭가파르밧 루꼴벽 등정 (이현조)



2005. 전조대 체육 대회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1982년 하계 일본 북알프스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1989년 마라도에서 백두산까지



국토 최남단 마라도 출발



중간 경유지 (무등산)



백두산 장백폭포



백두산 등반중



백두산 등반중



1989.11.27. 백두산 정상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1991년 동계 일본 북알프스



원정훈련 (학교 동산)



일본 나리따 공항



능선까지 레슬중 휴식



능선에 막영지 구축(텐트 2, 설동 1)



오수고악(3,190m) 정상 (한국설암산악회와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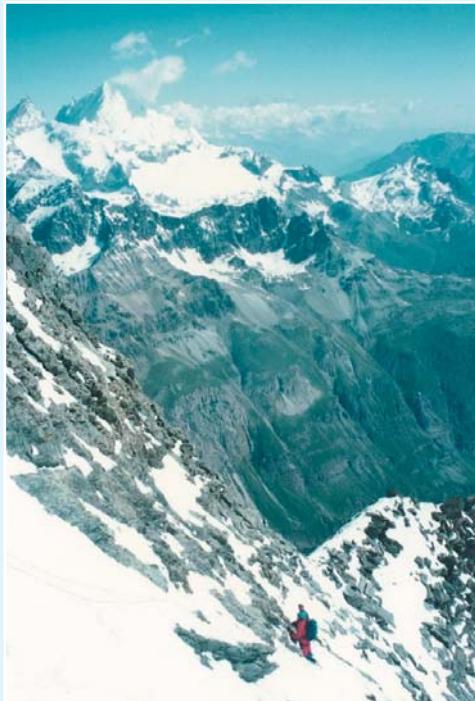
오수고악(3,190m) 정상 (29기 고최행준)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1993년 알프스 3대북벽



발대식 (문준연 고일주 문귀현 백두인 고최행준
임우근)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1997년 초오유



1997. 8. 정상등정



귀국 환영회 (광주공항)



등반



캠프2 전경



라마제 지내는 모습



무선교신중인 이정옥 원정대장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2006년 초모랑마



2006. 5.16. 초모랑마 정상



BaseCamp(5,200m) 설치



고소 적응훈련



ABC(6,400m) 전경



Camp 5 (8,300m)



ABC 귀환

사진으로 보는 50년사

2008년 가셔브를 I, II



인천공항에 배웅나온 회원들과 함께



카라반 (도로가 끊겨 포터들을 고용하여 수송)



C1으로 가는 아이스풀지대



C1 직전의 플라토 구간



G2 바나나릿지 초입부



G2 정상공격을 나가는 김가영대원



목 차

제1장 전남대학교 산악회 창립과 발전

제1절 전남대학교 산악회(CNUAC) / 45

제2절 전남대학교 산악회 여명기 / 48

제3절 1960년대 / 56

제4절 1970년대 / 77

제5절 1980년대 / 93

제6절 1990년대 / 101

제7절 1998년~2007년 / 117

제2장 총장기 CROSS-COUNTRY 대회

제1절 CROSS-COUNTRY 대회 / 141

제2절 창립의 배경 / 143

제3절 대회요강 변천 / 145

제3장 하계,동계 장기등반

제1절 장기등반의 의미 / 153

제2절 대상지 / 164

제3절 등반기 / 169

제4장 해외 원정등반

- 제1절 해외원정과 히말라야 등반사 / 219
- 제2절 미라도에서 백두산까지 / 229
- 제3절 '91 전남대학교 산악회 일본 북알프스 동계 원정등반대 / 232
- 제4절 '93 전남대학교 알프스 3대 북벽 원정대 / 238
- 제5절 전남대학교 개교 45주년 기념
'97 한국 초오유 원정대 / 247
- 제6절 전남대학교 개교 55년 및 총동창회 창립 50주년 기념
'2006 전남대학교 초모랑미(에베레스트) 원정대 / 259
- 제7절 전남대학교 산악회 창립 50주년 기념
'2008 한국 전남대학교 가셔브롬 I, II 원정대 / 262

제5장 우리들의 이야기 / 277

제6장 부 록

- 제1절 전남대학교 산악회 회칙 / 307
- 제2절 전남대학교 OB산악회의 창립 / 309
- 제3절 전남대학교 OB산악회 회칙 / 310
- 제4절 전남대학교 산악회 역대 임원 / 317
- 제5절 전남대학교 OB산악회 역대 회장 / 320
- 제6절 전남대학교 산악회 회원 명단 / 321
- 제7절 전남대학교 산악회를 빛내주신 분 / 339



제 1 장

전남대학교 산악회 창립과 발전

제1절 전남대학교 산악회(CNUAC)

제2절 전남대학교 산악회 여명기

제3절 1960년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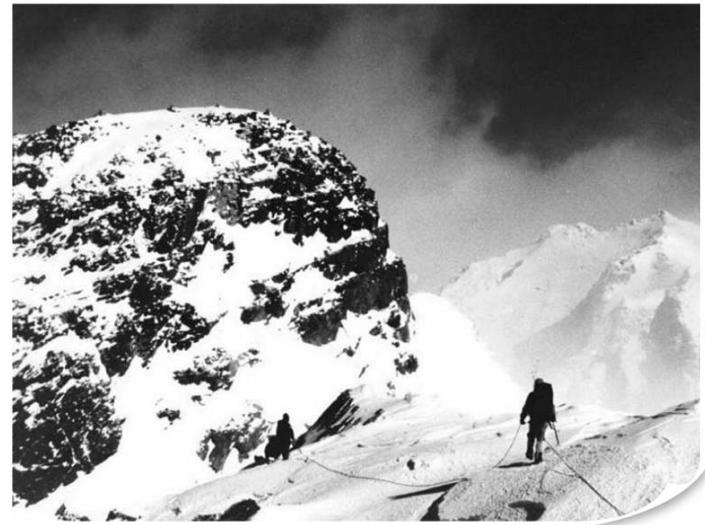
제4절 1970년대

제5절 1980년대

제6절 1990년대

제7절 1998년~2007년





제1장. 전남대학교 산악회 창립과 발전

제1절. 전남대학교 산악회 (CNUAC)

전남대학교 산악회는 1957년 전남대학교 교수와 대학원생, 학생이 1957년 주말등산모임으로 조직한 자유등반회를 모체로 하여 1958년 6월 4일 전남대학교 산악반으로 창립하여 2008년으로 반세기가 되었다. 1959년 기존의 문리과대학 산악부를 중심으로 전남대학교 산악부로 개칭하였고 1960년 4월 공과대학, 농과대학, 법과대학에 산악부, 1961년 상과대학 산악회가 조직되었다. 1961년 기존의 5개 단과대학 산악부를 개편하고 5개 단과대학 산악회를 연합하여 전남대학교산악회(CNUAC)로 조직되었다. 의과대학 산악회가 합류하여 6개 단과대학 산악회 연합체로 발전하였으며, 1962년 전남학생산악연맹 창립을 주도하였다. 1972년 단과대학산악회가 해체되고 전남대학교 단일 산악회로 개편되어 현재까지 전남대학교의 역사와 함께 해오고 있다.

창립 후 무등산 정례등행회를 통하여 무등산 월례등반을 실시하고 등반로를 개척하였으며, 1958년 한라산등반, 1959년 지리산등반, 1960년 1월 월출산 적설기등반을 시작으로 매년 한라산, 지리산, 설악산에서 하계훈련등반과 동계등반을 실시하여 오고 있다. 전남대학교 산악부는 한국산악회의 죄영식씨를 초빙하여 1959년 7월 19일 무등산 규봉에서 광주 최초의 록 클라이밍 강습회를 가졌고. 1961년 4월 1일부터 2일까지 1박 2일로 대학산악부 출신인 한국산악회의 남궁기, 이은종, 송구섭을 강사로 모셔 무등산 새인봉에서 암벽등반 지도를 받아 기술등반의 길을 열었다.

1960년 6월 광주지역의 중고등학교를 순회 방문하여 등산에 관한 강습회를 열어 학생산악운동을 시작하였으며 등산과 산악운동의 보급에 선구자 역할을 하였고, 1963년 전남대학교 산악회의 기관지로 악우(岳友)를 창간하여 계속 발간하여 오고 있으며, 등산과 산악 세미나와 심포지엄, 장비와 사진전시회를 매년 개최하고, 광주등산학교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광주·전남학생산악운동의 중추적 기능을 하고 있다.

1961년부터 대구팔공산에서 개최되는 학생의 날 기념 전국60km극복등행대회에 매년 참여하고 있으며 1970년 제12회 대회와 1973년 제15회 대회에서 남자대학부에서 우승하여 종합우승을 차지하기도 하였다. 1961년부터의 전남일보 주최의 무등산등행대회, 1962년 도봉산특수

체육동산대회에 참여하고 1984년 대한산악연맹이 주최한 제17회 대통령배 전국동산대회에서 남자대학부 우승을 차지하여 전남대학교와 산악회의 실력을 과시하였으며, 2001년 제34회 대회와 2002년 제35회 대회, 2003년 제36회 대회에서 여자대학부 1위를 거양하여 여자산악회원의 기량을 떨쳤다.

전남대학교 산악회는 전남대학교 개교 14주년을 기념하여 1966년 6월 9일 전남대학교 총장기 생탈 제1회 무등산 크로스 컨츄리(Cross country)대회를 개최하여 등산인구의 저변확대와 등반기술의 향상에 기여하였다. 이 대회는 참가범위를 전남대학교 재학생으로 한정하여 시작하였으나 1968년 전남대학교 재학생과 전남의 남자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남 제1회 · 교내 제3회로 개칭하여 계속되었으며, 1969년에는 여자고등학생을 포함하는 대회로 확대시켰다. 1971년의 6회 대회부터 전라남 · 북도 남녀 고교 · 대학의 크로스 컨츄리대회로 발전시켜 제43회 대회(2008년) 까지 지속되고 있어 매년 전남대학교 OB산악회원들과 함께 할 자리가 되고 있으며, 그 후 많은 크로스 컨츄리대회의 모형이 되었다. 그러나 43년을 계속하여 온 대회에 걸 맞지 않게 대회의 사료와 시상기록이 정리되어있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1965년 5월 무등산의 중머리재와 늦재 이상의 등산로가 잠정 폐쇄 되고 1966년 장불재 입석대 서석대와 무등산의 정상의 등산이 불가능하게 되어, 워킹중심으로 운영되던 전남대학교 산악회는 무등산에서 더 오를 곳이 없어지게 되어 무등산을 떠나 산악회 운영방법과 등반형태의 변화를 강요받았으며 무대를 암장이 발달한 월출산과 지리산 설악산 한라산 인수봉으로 옮겼다. 무등산의 폐쇄는 장기산행과 록 · 크라이밍과 인공등반으로 자연스럽게 유도하였으며 산악회원들도 워킹그룹과 클라이머 그룹으로 구분되어 정통산악인 또는 알피니즘의 논란이 계속되면서 클라이밍 클럽이 출현하고 전남대학교 산악회가 회원의 수에서 위축되는 시련을 겪었다. 1999년 전남대학교 산악회관내에 인공암장을 축조하여 스포츠클라이밍을 선도하였고 산실의 역할을 하고 있다.

1970년 전남대학교 OB산악회원 신귀현이 대만 옥산을 등반하였다. 최창돈이 1971년 제1차 마나슬루원정대(대장 김정섭)에 참여하여 해외등반에 눈을 돌렸으며, 또한 인스브룩 등산학교를 수료하고 로체를 원정하였다. 김하경은 1977년 '77한국 한국에베레스트 원정대(대장 김영도)' 의 훈련대원으로 에베레스트 원정훈련 전 과정을 마쳤다. 1981년 정순택은 제5회 고자이쇼 다케 전일본암등경기회에 참가하고 북알프스를 등반하였으며, 1986년 김하경과 윤석기는 히말라야 랑탕리릉을 정찰하였다.

1982년 8월 일본 북알프스 원정(대장 박명선)으로 전남대학교 산악회 최초의 해외원정대를 꾸렸다. 1987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산악회의 히말라야 렌포강 원정대(대장 윤재룡, 조석필)가 우리대학의 히말라야시대를 열었다. 1989년 백두산등반, 동년의 광주전남산악연맹의 동계에베레스트 원정대(대장 김하경)에 많은 재학생 회원과 OB회원이 참여하였으며, 1990년 대만 옥산을 등반(대장 최동식, 박향식)하고, 1991년 동계 일본 북알프스등반, 1993년 6월 유럽알프스 3대 북벽(대장 임우근)을 올랐다. 1997년 개교45주년을 기념하여 히말라야 초오유(대장 이정옥)를 등정하고, 2006년 초모랑마(대장 백두인)를 등정하였고, 2008년 가셔브룸 I, II 봉(대장 김영필)을 원정등반하여, 박현주 이현조 유명희 김성석 이형관등 최고의 전문산악인을 배출하였다.

1978년 6월의 창립 20주년 기념행사는 에베레스트 등정에 성공한 ‘77 한국 에베레스트원정대’의 김영도 대장, 대원을 초청하여 감격을 나누고, 1988년 6월의 30주년 기념행사는 ’86 한국 K2원정대(대장 김병준)’와 같이 하였으며 2008년 6월 전남대학교 산악회 창립 50주년을 맞는다.

제2절. 전남대학교 산악회 여명기 (1957-1960)

1. 창립의 배경

전남대학교는 1944년에 창설된 광주의학전문학교와 해방 후 창립된 광주농업전문학교, 대성대학, 목포상업전문학교를 모체로 하여 의과대학 공과대학 농과대학 문리과대학 상과대학의 5개 대학으로 1951년 6월 9일 개교하였으며 1955년 첫 졸업생을 배출하여 대학으로서의 면모를 갖춰가고 있었다.

해방으로부터 전남대학교가 개교한 50년대 초반까지 등산은 엄두도 못내는 시기였다. 산에서 사람이 무서운 시대였다. 산에 가는 사람은 따로 있었다. 해방 후의 거의 10년 동안 광주 주변의 산들은 사람의 발길이 끊긴 체, 정적이 감돌았다. 산에 인적이 없고 일반인들은 산에 갈 수 없었으나 산엔 사람들이 있었고 산들은 산사람들의 세상이었다. 일본의 통치와 계속 이어진 전쟁으로 국토와 산은 평화되고 동족상잔으로 죽은자와 죽인자의 질시로 인심은 흥흉하고 사람들의 심성은 황량하던 때이다. 한국전쟁후의 가난과 갈등과 증오에 얼룩진 군상들과 낮에는 경찰, 밤엔 산사람에 시달리다, 농촌의 전통사회가 붕괴되면서 일자리를 찾아 모두들 광주로 몰리면서 광주는 갑자기 비대하여지고 전남대학교가 남도지역의 학술 문화의 구심점이 되었다. 광주에는 피폐하여진 시민들의 마음과 피난민의 피곤한 피난살이를 위로하여 줄 무등산이 가까이 있었고 전남대학교 산악회가 태동할 요람이 되었다. 그러나 무등산을 비롯한 전국의 산들은 일제의 침탈과 한국전쟁의 토벌작전과 연료로 그늘을 만들어 줄 변변한 나무 한 그루 없이 헐벗었고 해방 후의 사회분위기와 산들의 형편이 등산이나 산악활동을 받아들일 수 없는 분위기였다.

한편 많은 인사들이 망명지와 객지에서 돌아오고 형무소의 문이 열려 많은 인재들이 주의 주장을 내세우며 각종 사회단체들을 급조하고, 대학문이 열리면서 자연을 조사하고 잊었던 조국을 탐색하자는 지식인 그룹도 탄생하였다. 이 무렵 한국산악회는 1946년부터 1955년까지의 10년간 11차에 걸쳐 의욕적으로 전개하여 온 국토구명사업은 그 동안 산악인 학자 문화인등 각계 인사 연 339명이 참여하여 산악 동호인의 영역을 확장시켰으나 광주·전남지역에서 활동하는 산악인으로서 이 사업에 참여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국토구명사업이 태백산맥 소백산맥 차령 산맥의 3대 산맥을 중심으로 학술조사가 진행되고, 한라산 설악산 등 41개 산, 21개 도서해역 탐사가 광범위하게 전개되었다. 그러나 1947년 노고단에서 스키대회가 개최되고, 1949년 흑산

도, 추자도 등의 다도해 학술조사 등이 있었을 뿐 전남지역에서 등산과 관계된 활동은 없었다.

국토구명사업이 끝나고, 한국산악회는 1956년 4월 15일부터 20일까지 광주에서 한국산악회 제1차 적설기 한라산 등반대의 전국 순회 보고회를 가졌다. 적설기 등반대는 한국산악회가 국토구명사업의 후속사업으로 추진하여 1956년 1월 3일부터 1월 24일까지 제1차 훈련을 한라산에서 실시하고 그 보고회를 서울 동화백화점에서 개최한 후 대구, 부산에 이어 광주에서 전국 순회 전시회를 열었다. 등산에 관심 있는 사람들만이 아니라 많은 학생과 일반시민이 참여한 가운데 열려 행사는 대 성황이었다. 산악운동의 이해를 돋고 산악운동 방향의 일단을 계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광주지방의 산악열기를 고조시켰으며 전남대학교 산악회의 발족을 촉진하였다.

대형 적설기 등반사진 12매, 전지크기의 사진 35매와 동계등산장비 83점 그리고 학술자료 80여점이 전시되고 홍종인회장, 이승녕교수, 김정태선생 등 당대의 최고 산악인의 산악강좌가 있었고, 한라산 적설기 등반보고강연과 컬러 슬라이드 보고도 있었다. 광주지방 최초의 산악행사로서 등산하는 사람들에게 경이적이었다. 광주에 온 일행 중 홍종인 회장과 김근원, 윤두선 선생은 광주의 김학준, 박선흥, 강동수, 강희복 선생과 4월 20일 곡우날, 경찰관 3명을 앞세우고 1박 2일의 노고단 산행을 하는 기회를 가졌다.

광주의 산악인과 서울 산악인 사이의 처음 교류이었다. 한라산 적설기 보고회와 이 노고단산행은 광주지방 산악회 창립의 기폭제가 되었으며 산악운동의 기틀을 제공하였다.

이 시기는 민주화 서구세력 물질문명이 진입하는 우리 역사상 가장 심한 격동기로 해방, 전쟁, 폭력, 폭동, 사상의 갈등, 증오로 가득 차고 전화의 비극 속에 절규하던 시기였다.

산사람들이 우리의 산을 독점하고 있는 동안, 세계 산악계는 히말라야 고봉들이 경쟁적으로 등정되고 있었다. 1949년 네팔왕국의 외국인 입산금지가 해제되면서 히말라야 고산등반이 활기를 띠고 1950년 6월 3일 8,000m급 안나푸르나가 초등정 되고, 1953년 5월 29일, 에베레스트 초등정이 이루어진 것이다. 세계의 지붕 히말라야에 준엄하고 냉혹하게 군림하는 8,000m 이상의 거봉들을 등정하려는 인류의 집념어린 이상이 실현된 시기이기도 하다.

2. 자유등반회와 전남대학교 산악반

가) 자유등반회

사회와 전남대학교가 안정되고 질서를 회복하여 1954, 5년부터 무등산을 중심으로 산행이 시작되었다. 예전엔 원족, 소풍으로 자주 올랐던 무등산의 실체를 보고 싶고, 폐허가 된 무등산을 안타까워하는 지식인들이 무등산을 오르기 시작하고 자연스럽게 동호인모임을 만들었다.

그 대표적인 등산단체가 전남대학교에서 철학과 교수인 정종 교수가 주도하여 1957년 발족한 자유등반회였다. 정종 교수는 1956년 10월 13일 수락산우회를 조직하여 산악활동을 하면서 매 학기 강의가 끝나면 고재기 교수와 같이 수강생들을 인솔하여 무등산으로 안내하였으며 이



자유등반회를 모체로
하여 전남대학교 산악
반이 조직되었다.

1957년 12월 1일

정종 교수와 당시 대
학원 2년생인 문형만,
김우태와 의과대학의
철학 수강생들, 철학
과 4년 최재근과 3년
정종구, 정치외교학과
2학년생인 김용석이

주축으로 무등산에서 제1차 자유등반을 실시하고, 계속하여 12월 15일 제2차 자유등반회를 무등산에서 가지고 매주 무등산 산행을 정례화 하였다. 정종, 이을호교수 외에 박광, 조명원, 지춘상, 이원태, 이광우 등 대학원생이 참여하고 김용석이 학생을 리드하였다. 그 후 자유등반회는 활기를 띠어 교수와 학생 외에 일반인의 참여도도 높아져 이을호, 고재기, 이가형, 최금동, 박규환, 홍순탁 등 전남대학교 교수와 장준한, 정근모, 오종태, 손상우, 배필상, 배성식 등 광주 지역 교육계 명사들이 단골로 참여하여 학생들의 활동을 복 돌아주었다. 이와 같은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대학산악부가 조직되었다.

전남대학교 산악반의 태동에는 광주를 방문한 위의 한국산악회의 산악인들과 이은상, 정종, 고재기 선생의 영향이 매우 커다. 광주산악계에 크게 영향을 준 이은상 선생은 호남신문사의

사장으로 여론을 주도하고, 정종 선생, 고재기 선생들도 전남대학교의 교수로 부임하여 전남대학교 산악회 창립의 기틀이 마련되었다.

노산 이은상 선생은 1903년 마산에서 대한제국 국민으로 태어나 서울과 일본에서 청년기를 보내고 이화여전교수와 동아일보 기자, 조선일보 편집고문으로 일하다 옥중생활을 거쳐 1945년 해방이 되자 미군정치하의 광주에 정착하여 호남신문사 사장으로 취임하였다. 광주지방의 언론과 학술 문화의 중심축이 되었고 후일 1967년의 7대에서부터 11대까지를 한국산악회의 회장을 연임한 한국 산악계의 거목인 노산 선생이 그의 40대 장년기를 광주에서 보내게 된 것은 광주의 사회와 문화, 신질서의식형성, 산과 등산관에 직간접으로 큰 영향을 주었다. 그는 이미 시인, 학자, 시조작가, 이충무공과 독립운동연구가, 언론인으로서 일가를 이루고 있었다. 노산은 30대에 백두산, 금강산, 묘향산, 설악산, 한라산, 지리산들을 답사하고 시와 시조, 수필, 기행문을 남겨 놓고 있었으며 광주에 체류하면서 그가 답사한 우리의 산과 강을 시조로 엮어 조국강산을 노래하고 무등산을 예찬하였으며 전남대학교의 교기를 작사 하였다.

나) 전남대학교 산악반과 규봉 록클라이밍

1958년 6월 4일의 무등산 자유등반회에서의 일이다. 1958년 6월 4일 전남대학교 문리과대학 정치외교학과 김용석, 신귀현, 김종규가 주축이 되어 정종, 고재기 교수를 지도교수로 모시고 전남대학교 산악반을 결성하였다.

이것이 광주지방 최초의 대학 산악클럽이 되었으며, 오늘 날 전남대학교 산악회로 발전하였다. 당시 정치외교학과 3학년이었던 김용석(1956년 입학)과 같은 과의 2학년 신귀현(1957년 입학)은 대학산악부 이후 전남대학교와 전남 산악계의 활동에 깊이 관여하여 왔다. 특히 신귀현은 대한산악연맹의 창립에 전남 대표로서 산파역을 하였으며 60년대 전남 산악계를 주도하였다. 여기에 철학과 4학년 정종구, 광주서중의 동기인 기양도(정외과 1년), 박석일(사학과 1년) 등이 참여하여 무등산 정례 등행회를 개최하면서 창립초기 회원모집을 위하여 홍보하고 자금을 각출하여 공동장비를 구입하였다.

6월 4일 창립한 전남대학교 산악반은 한라산 등반을 창립 등반으로 계획하고 대원선발과 등행준비에 서둘러 1958년 7월 27일부터 8월 2일까지 정종, 고재기 교수와 김용석과 신귀현은 산악반을 인솔하여 목포에서 안성호를 타고 제주도 한라산을 등반하였다.

전남대학교 산악반 최초의 해외원정인 셈이다. 제주시에서 관음사를 거쳐 개미동을 타고 한

라산정상을 오르고, 서귀포로 하산하여 돌아오는 6박 7일의 산행이었다. 이 산행에서 대원 1명이 허기에 지쳐 식사를 기다리지 못하고, 허기진 배에 공동 비상식으로 준비 한 냉어리 진 미군 캔 버터를 먹고 급체하여 고재기 교수가 미군이 관장용으로 사용하는 주사로 처치하여 치료하였다. 급체를 관장약으로 처치하였다 하여 고재기 지도교수는 사표를 내지 않아도 되었고 한때 명의가 되었다.

전남대학교 산악부로
발전한 1959년에 한국산악
회는 지리산에 제4회 해양
산악훈련단을 파견하였고
광주·전남의 산악인들과
다시 접촉하게 되었다.

해양산악훈련단 훈련은
1959년 8월 1일부터 8월
16일까지 실시되었으며 이



들은 지리산의 노고단을 거쳐 천왕봉을 오르고 법계사를 거쳐 금산까지의 산악훈련을 실시하였다. 홍종인 한국산악회 회장을 단장으로 하여 전남대학교를 비롯한 등 4개 대학과 6개 고교생 총 36명이 참가하였다. 이 훈련단에 안종남, 전담, 이병구, 강병광, 윤두선, 김경호, 최영식, 이문행, 안병주, 최인갑, 이하영 등 서울의 엘리트 산악인들이 대거 참여하여 광주와 구례의 젊은 산악인들과 산행을 같이하고 친목을 돋독이 할 수 있었으며 전남대학교 산악부원들이 서울의 산악운동과 산악문화를 접하는 호기가 되었다.

산악훈련 준비차 광주에 먼저 내려온 한국산악회 최영식(1975~1980 한산이사, 1990~1995 한산감사) 선생을 전남대학교 산악부가 초청하여 1959년 7월 19일 무등산 규봉에서 광주 최초의 록 클라이밍 강습회를 가졌다. 정종, 고재기 교수와 배필상이 참석하고 김용석, 신규현, 기양도, 임춘재, 박종현, 김훈봉이 참가하여 자일 매듭법, 확보, 암등과 하강, 침니통과 등을 실기로 가르치고 배웠다.

이 훈련방법과 기술이 후일 광주 암벽등반의 원전이 되었으며 광주에서 유일하게 나이론 자일(일본 동경제망회사제)을 갖고 있던 기양도는 그 자일을 아무에게나 빌려주지 않아 그 주가가 매우 높았다. 자일을 빌리지 못하면 보이스카웃의 대마자일이나 군용 나이론 보조자일을 여

리 겹으로 겹쳐 사용하는 방법밖에 없었다.

창립멤버들인 정종 교수는 동국대학으로, 신귀현은 재학 중 군에 입대하였으며, 김용석은 1960년 졸업하고 군대를 거쳐 장흥으로 내려갔다. 기양도는 후에 전남대학교 대학원으로 복귀하였으나 성균관대학으로 전학 가고, 박석일은 붉은 다우다 윈드자켓 입고 나흘로 산행으로 빠져나가 자연스럽게 임춘재, 박종현, 김훈봉, 김윤환, 오민자, 김승철, 최동식, 김용옥, 남상만, 장하송, 김수현, 박윤걸, 정순택으로 전남대학교 학생산악활동의 맥이 이어지고 이들이 선진 산악기술도입에 앞장섰다.

다) 지도교수와 산악 정신론

전남대학교 산악회는 창립 때부터 창립동기가 그리하였듯 특이한 정신으로 무장하였으며 지도교수의 철학적 등산관이 면면이 이어져 오고 있다.

초기의 지도교수였던 정종, 고재기 교수의 산관과 등산철학이 전남대학교 산악회의 기본정신이 되었다. 산을 삶과 결부시켜 산을 통하여 존재를 확인하는 철학적 접근으로 산을 다니고 산악회를 운영하였다. 경성보육학교 교감으로 지내던 정종선생이 해방을 맞고 1945년 고향 찾아 영광중학교 교감으로 부임하여 오고 고재기 선생은 만주의 신경(장춘)에서 매일신보 기자생활을 하다 광주서중학교 교사로 부임하여 왔다. 정종 선생과 고재기 선생은 곧 이어 광주로 내려온 노산선생을 맞이하고 산과 인생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정종선생은 1915년 물무산, 관람산, 성산, 우산으로 둘러싸인 산골 영광에서 태어나 연실봉에 올라 무등산을 바라보며 자랐다. 서울의 중앙불교전문학교(동국대학 전신)와 동경대학에서 철학을 공부하면서 겨울의 금강산에 삭발 입산하여 월여를 지내기도 하고 노고단을 오르고 천왕봉을 종주하기도 하였다. 동경 유학중엔 일본의 관동평야와 三原화산을 접하면서 등산을 산악정신론으로 철학적 접근을 시도하고 해석하려고 하였다. ‘위대한 인간이란 무엇인가?’ ‘위대한 인간의 존재방식이 무엇인가?’ ‘위대한 인간이 되기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를 묻고, 위대한 젊은이



야말로 위대한 인간이라고 하였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하여 ‘위대한 젊은이를 만들어야 하겠다.’는 교육자의 본질을 도출하고 적극적이고 도전적인 학생산악운동에서 그 구체적인 실현방법을 찾으려 하였다. 등산과 철학의 접목을 시도한 것이다.

그의 이러한 노력은 그가 1948년 광주공립의학전문학교(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전신)를 거쳐 1952년 전남대학교로 옮겨 철학개론을 강의하면서 실현되었다. 1956년 10월 13일 수락산우회를 조직하여 산악활동을 하면서 매 학기 강의가 끝나면 수강생들을 고재기 선생과 같이 인솔하여 무등산으로 안내하였으며 후일 1957년 12월 1일 자유등반회로 발전시켰다. 공식적으로 산악반 지도교수를 맡은 기간은 1년이지만 전남대학교 산악회를 창립하고 산악회를 개인한 도전 의식을 갖고 동지적 조직으로 체계화 하는 이론적 기반을 마련하였다. 1958년 동국대학교로 직장을 옮겨서도 그의 노력은 계속되어 동국대학교 산악부의 지주가 되었으며 서울과 광주를 오르내리며 광주의 고재기, 오종태, 손상우, 박상식, 최금동, 이을호, 장준한, 배필상, 신귀현, 김용석 등과 산행을 계속하였다.

정종 교수의 전출로 단독 지도교수가 된 고재기 교수는 1917년 창평에서 태어나 광주시 북동에서 자랐다. 노산 보다는 14년이 뒤지고 정종선생 보다는 2살 아래다. 광주고보(광주 서중·일고의 전신)를 거쳐 보성전문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하였다. 보성전문을 졸업하고 보전 도서관에서 2년여 근무하다 1939년 만주 신경에서 만선일보 학예부기자로 기자생활을 시작하여 해방이 될 때까지 매일신문기자로 활동하였다. 해방이 되어 광주로 환향하였다. 광주서중에서 합평을 거쳐 광주고등학교 교사로 재직하고 1955년 목포상과대학(전남대학교 상과대학 전신)으로 옮겨 1961년 전남대학교 상과대학 학장으로 봉직하였다. 고재기선생은 광주에 돌아와 양림동과 서울 아현동의 노산댁을 방문하고 처가 동네의 정종선생과도 깊은 인연을 맺어 평생을 산친구로 지내었다. 고재기선생은 전남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면서부터 본격적으로 산악활동을 시작하여 전남대학교 산악부와 무등산악회를 창설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였다. 1958년 전남대학교 산악반을 조직하고 지도교수로 8년 동안 지도하였으며, 그 후 1983년 전남대학을 그만둘 때까지 공동지도교수를 맡아 산악인들의 사표가 되시어 수많은 산악인을 배출하였다. 또 전남대학교 산악회와 관계가 밀접한 무등산악회의 창립이후 후임 박선흥회장에게 인계할 때까지 13년간 회장직을 맡기도 하였다. 고재기선생님은 철저한 산악정신과 등산관을 갖고, 해외등반사와 최신의 해외 산악계의 동향에 관한 해박한 지식과 광범위한 정보로 후학들을 질책하기도 하고 지도하고 다그쳤다. 바르지 않다거나, 원칙에서 벗어나거나, 정확하지 않는 것을 못 보는

선비정신에다, 또 잘못을 보고 그냥 지나치지 않는 철저한 원칙주의자였다. 따라서 지금 나이가 60이 넘은 광주의 산악인들도 고재기 선생 앞에선 언행을 조심한다. 자신과 남에게 그만치 엄격하고, 원칙을 정하고 스스로를 다스린다. 산이 그러한 것인지, 법학을 전공한 기자출신이 어 선지도 모르겠다. 이제 그 싫어하시던 TV로 일본방송도 보시고, 오늘날까지 50년 동안 산을 통하여 맷은 산사람들과의 인연을 아끼며 건강하게 등산과 산악활동을 계속하시는 광주·전남산악계의 지주이시다.

라) 선배와 지도교수

전남대학교 산악회의 큰 특징은 오늘까지 동아리 지도교수제를 유지하고 있고 그 지도교수의 지도력을 인정하여 그 영향력은 막강하다. 고재기 교수가 지도하던 산악회는 1967년부터 복수 지도교수제를 채택하여 1967년엔 김용선(사범대) 교수, 1968년엔 이방기(법대) 교수, 1969년엔 송정현(문리대) 교수가 지도교수로 참여하고, 70년대엔 윤재룡(의대), 박옥규(의대), 김현곤(문리대), 정정의(문리대), 송기숙(문리대) 교수가 참여하여 막강한 지도교수단을 구성하였다. 이방기, 김현곤 교수는 후일 전남학생산악연맹회장과 광주·전남산악연맹회장을 역임하고, 김용선교수는 남도대학 총장을 역임하였고, 윤재룡교수(전 서남대 총장)는 지리산 종주동반 10시간 43분의 기록을 갖고 있으며 1987년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산악회의 히말라야 렌포강 원정대를 이끌었다. 윤교수는 1979년 10월 7일 6시에 25kg의 베낭을 메고 중산리의 법계사를 출발하여 천왕봉을 오르고 세석평전을 거쳐 오후 3시 35분 노고산장의 합태식 선생을 만난 다음 4시 43분에 화엄사 공원관리사무소로 하산하였다. 10시간 43분이었다. 60분 걷고 1분 쉬는 운행으로 그의 강인한 체력과 의지는 모두를 놀라게 하였다.

전남대학교의 산악부 지도교수는 하나같이 학생에게 봉동이를 들 수 있는 스승이었고 베테랑 산악인이었다. 윤재룡 김용선 박옥규 이방기 교수에 이어, 2001년 2월 10일 남창골에서 전남대학교 OB산악회(회장 정순택)가 마련한 김현곤 교수의 정년퇴임 송공연을 끝으로 6, 70년 대 지도교수님들이 모두 전남대학교을 떠난 아쉬움을 금할 길이 없고 건강과 산운을 빌 뿐이다.

제3절. 1960년대

1. 전남대학교 산악부와 선진 산악계와의 교류

전남대학교 산악반은 1959년 7월 산악부로 개칭되고 산악부원의 수도 60명에 이를 만큼 성장하였다. 1956년 적설기 한라산 등정보고회가 전남 산악계를 깨웠다면 1959년의 해양훈련단과의 지리산 합동등반은 산악조직과 운영의 묘를 터득하게 하고 알피니즘 세계로의 길을 열었다.

전남대학교 산악부는 한국산악회가 지리산에서 개최한 제4회 해양산악훈련단 훈련에 정종 교수와 함께 신귀현, 김용석, 최홍열, 곽종철, 김종규, 기양도가 참여하여 처음으로 대외적인 행사에 동참하고 서울의 산악인들과 교류하였다. 8월 1일 노고단을 지나 8월 5일 천왕봉을 오르고, 6일 남해로 가는 훈련단과 헤어졌다. 그러나 이 행사에 참여한 몇몇 대원은 한국산악회의 해양산악훈련인 것도 모른 채, 지리산등반으로만 알고 다녀온 짧은 1주일의 훈련이고 산행이었지만 이 행사에서 돌아 온 대원들은 등산용어와 등산복장에서부터 달라졌다. 개화된 것이다. 며칠사이에 산과 산악운동의 전문가가 되어 돌아왔고, 조직의 재정비가 시급한 과제가 되었으며 기술등반과 알피니즘 구현이 새 명제가 되었다.

1960년 1월 김용석과 신귀현은 월출산에서 2박 3일의 적설기 훈련에 참여하고, 8월엔 한라산 등반에 참여하는 등 두 사람이 가장 왕성하게 활동한 시기이다.

1960년 하계방학 중 8월 2일부터 10일까지의 장기 산행이었다. 정종교수가 인솔하여 오종태, 박상식, 윤재원, 조경자, 박영, 조영, 김문순 등 10명이 참가하여 서귀포에서 등반을 시작하여 백록담, 개미등, 죽성리로 하산하여 8월 9일의 보름달을 목포행 가야호 선상에서 즐겼다. 8월 5일의 폭우 속에 환자가 발생하여 조난 직전의 상황에도 처하고, 한여름에 비와 우박을 맞으며 산행하여 책과 얘기로만 듣던 산의 날씨를 체험하고, 두고두고 등산학교의 강의안으로 삼았다.

1960년 4월 공과대학, 법과대학에 산악부가 조직되었다.

전남대학교 산악부는 산악운동의 확산과 고등학교산악반의 육성에도 큰 관심을 가졌다. 1960년 6월 4일 광주일고, 광주사례지오여고, 광주승의실고를 순회 방문하여 장비전시회를 개최하고, 김용석 신귀현 기양도 임춘재 김훈봉의 산악강좌를 열어 큰 호응을 얻고 고등학교산악반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하였다.

1960년 12월 기양도(정외 3)가 제2대 산악부장에 취임하고, 1961년 5월 임춘재(광산 3)가 제3대 산악부장을 맡았다.

그 해 1961년 6월 전남대학교 산악회로 개칭하고 산악회의 세 확장을 위하여 기존의 단과대학 산악부를 개편하여 산악회를 조직하였다. 이에 따라 1961년 상과대학 산악회(초대회장 김훈봉, 상학 3)가 조직되고 1962년 4월에 공과대학산악회(초대회장 남상만, 화공 2), 5월에 농과대학산악회(초대회장 박종현, 임학 4)를 창립하여 종합대학의 산악회로서 체재를 갖추었다.

1961년 4월 1일부터 2일까지 1박 2일로 대학산악부 출신인 한국산악회의 남궁기, 이은종, 송구섭을 초빙하여 무등산 새인봉에서 암벽등반 지도를 받고 실기훈련을 하였다. 강사로 초청된 송구섭은 경기고와 서울공대 산악동호인 라테르네 멤버이고, 이은종은 서울공대를 졸업하고 독일과 합작으로 창설중인 광주인근의 호남비료에 근무하면서, 연수차 독일에 체재하는 동안 1959년 스위스 로렌라우어 등산학교 개교 20주년 행사에 한국산악회 축하사절로 참가하였다가 로렌라우어 등산학교에서 교습을 받은 정통 클라이머 이었으나, 이번 행사에는 참석하지 못하였다.

이은종은 이에 앞서 고재기교수, 기양도와 새인봉 선두암에서 하강훈련을 지도한 바 있어 서로 친숙하여진 관계였다. 한국전력에 근무하던 남궁기는 후일 한국산악회의 해외원정대 부대장으로 적설기 설악산 해외원정 훈련 중 조난당한 산악인이다. 당대의 최고급의 전문산악인을 초빙한 것이다.

이 행사는 무등산악회와 공동으로 개최하여 무등산악회의 고재기, 박선홍, 오종태, 이남열, 최명섭등과 전남대학교 산악회의 임춘재, 김훈봉, 박종현, 김승철, 최동식, 김용옥, 박윤성, 남상만, 장하송, 서찬식 등 뿐 만 아니라 고등학교산악반과 일반 산악인들도 다수 참가하여 대 성황을 이루었다.

1962년 9월 김승철(법학 3)이 제4대 산악회장을 맡았다. 공과대학은 박윤성 김경명, 심봉섭, 서찬식, 박원정 외에 금속공학과를 중심으로 장하송, 한상철, 정수현, 조병덕들이 장하송 사단을 구성하고 문리과대학의 박윤걸, 농과대학은 최동식, 김용옥을 중심으로 이정훈, 김수봉, 이안숙, 김재형, 최정순, 황순자, 황정순, 김영부, 김정, 문규한, 박육재, 정순택, 정기팔, 허정식, 변동환, 최순기, 임복길, 위재원, 김재희, 이직창, 유길평 등이 참여하여 매주 산행과 장비문제로 박종현의 벼슬연구실을 찾았다.

1962년 군사정부의 교육정책에 의하여 전북대학과 구조 조정하여 전남대학은 문리과대학,

농과대학, 법과대학의 3개 단과대학만 신입생을 받고, 공과대학과 상과대학은 신입생 모집이 중지되어 전남대학교 산악회 회원구성도 균형을 잃었다. 이듬해 두 대학이 부활되었다. 이 무렵 전남대학의 유력 동아리인 밀알회와 SCA, 적십자회와 보이스카웃에서도 등산을 중심으로 한 산악반을 조직하여 활동하였다.

2. 대구 팔공산대회

광주 · 전남산악계는 어느 대회보다도 팔공산의 전국60km극복등행대회에 깊은 애정과 관심을 갖고, 대구산악인에게 고마워하고 있으며 1960년의 제2회 대회부터 매년 심판과 선수들을 파견하여 오고 있다. 이 영향으로 광주 · 전남의 초창기 산악사는 대구의 얘기로 시작하며 그것을 자랑으로 여긴다. 전남대학교 산악회에 지대한 영향을 주어 초기 산악회원들에 회자되는 대구 팔공산대회는 경북학생산악연맹이 팔공산에서 1959년 11월 3일 「학생의 날」을 기념하여 제1회 전국60km극복등행대회를 개최하였다. 이 대회는 광주에서 발발한 광주학생독립운동을 기념하여 열림으로 광주와는 남다른 의미가 있었다.

산악인이 국가와 국토를 지켜야 한다는 지사적 산악인들이 그들의 꿈을 산에서 실현하려는 시대가 있었다. 11월 3일은 광주학생독립운동의 '이름 없는 별들'을 추모하고 기념하기 위하여 1953년 10월 제정한 학생의 날이다. 광주학생독립운동은 기미독립운동후의 10년인 1929년 11월 3일 광주고등보통학교(광주 서중, 광주일고의 전신)학생들을 중심으로 광주 시민 학생 천 여명이 광주 시가지를 누비며 일제 탄압과 굴욕적인 식민지교육을 규탄하는 시가행진을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항일 독립운동이 파급되어 1930년 3월까지 전국의 194 개교 54,000여명이 참가한 거국적 독립운동이었다. 6 · 10반세사건의 연속선상에서 일어난 3 · 1운동 후 10년 만에 일어난 최대의 민족투쟁이었다.

경북산악회를 중심으로 한 대구 · 경북의 산악인들이 이 날을 기념하는 「학생의 날」을 맞아 등산경기를 통하여 광주학생사건의 정신을 새롭게 하여 민족정기를 드높이고 인내력과 투지력, 협동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1959년의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매년 10월에 3박 4일 동안 팔공산에서 개최한 대회이다.

제3회 대회가 열린 1961년 10월 21일-24일의 대회에 전남대학교 산악회가 선수를 출전시켰다. 전남대학교 산악회가 등산대회라는 경기에 처음 참가한 것이며 전남지역 산악인의 최초의 출전이었다. 1962년 10월 20일-23일의 제4회 대회에도 전남대학교 산악회가 참가하여 산악

운동과 등산에 관한 체계를 세우던 광주·전남의 산악계는 이 대회를 통하여 산악운동의 전개 방향과 산악회의 운영, 등산대회의 운영방법과 등산장비, 등산식량, 등산기술, 산악정신을 도입하는데 열의를 다하였다.

1961년의 제3회 대회에 참가한 선수는 당시 전남산악계의 리더들인 임춘재(공대3)를 대장으로 하여 김훈봉(상대3), 김승철(법대2), 박윤성(공대1), 서찬식(공대1)이 출전하였다.

4회 대회에는 서찬식(공대2)이 대장을 맡아 심용택(상대2)과 농과대학의 1학년들인 정순택, 정기팔, 허정식이 출전하였다. 임춘재는 1962년에 전남학생산악연맹 창립의 산파역이 되고, 김훈봉은 90년대에 광주·전남 산악연맹 회장, 2000년대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산악회 창립회장으로 왕성한 정력을 보이며 산악계의 지주로 존재하고, 김승철은 광주일보 편집국장과 대한산악연맹 부회장으로 새천년의 한국산악운동의 중책을 맡았었다. 정순택은 1981년부터 대한산악연맹의 이사와 운영위원으로, 90년대 광주·전남산악연맹회장, 대한산악연맹 부회장으로 활동하였다. 김용석은 일찍이 작고하고 호남대학교수를 정년퇴직한 신귀현과 3회와 4회 대회에 출전하였던 임춘재 김승철은 전남대학교 산악회에 신화를 남기고 타계하였다. 좋은 사람들은 광주를 떠나고 몇이서 고향을 지키고 있다. 1962년 가을은 팔공산대회와 도봉산 특수체육대회가 겹쳐 선수선발과 장비확보와 준비로 부산을 떨던 시기였다.

1964년 제6회 대회에 전남대학교의 김장영(공대) 장기수(공대) 송용남(문리대) 이영석(농대) 박하연(농대)이 참가하였다. 김장영은 1965년 전남대학교 산악회장을 맡아 제7회 대회에 송용남(문리대) 장기수(공대) 임영호 임근태(공대)등과 제8회 대회에는 박향식(공대) 최영진(섬유3)들과 1962년부터 계속 선수로 참가하는 기록을 세웠다.

1967년 제9회 대회에도 전남대학교 산악회는 김장영 최영진 황윤홍(농2) 박향식(광산2) 김재일 서정원 박인진 차운재 박장일 오민교 신연식 박재황 정금성 박종민 장연우 박병석 등 선수 5명과 옵서버 16명 등 대거 21명이 참가하였으나 구보상만 수상하게 되어 심판의 평가결과에 이의를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대회 참가를 회피하여 2년 간 제10회와 제11회 팔공산대회에 출전하지 않았다.

1970년 10월29일부터 11월1일에 개최된 제12회 대회에 전남대학교 산악회가 다시 이 대회에 참가하였다. 농과대학 산악회장인 이정옥(임학2)을 대장으로 하여 김나연(자원2) 양형열(금속2) 김명곤(수의2)이 참가하여 대회참가 10년 만에 전남대학교 산악회(회장 최창돈)가 우승기를 가져왔다.

김장영은 1964년 전남대학교에 입학하여 대장을 맡아 1964년의 6회 대회와 7회 대회에 계속 참가하는 열의를 보였으며, 전국60km극복등행대회의 최다 출전선수가 되었다. 최창돈은 70년대 초에 마나슬루 2차 원정에 참여하여 히말라야로의 길을 열었으며 클라이머 클럽인 바자울 창립을 주도하였다.

3. 대구산악계와의 인연

광주학생독립운동이 전국적인 학생운동일지라도 명칭이 광주학생사건인데 매년 이 날을 기념하여 대구의 산악인들이 오늘날까지 계속하여 전국 등산대회를 개최하여주는 고마움에 광주 산악인들은 항상 고마워하고 있다. 그리고 이 대회를 시작할 때부터 ‘이제 광주에서 이 대회를 개최하면 어떻겠느냐’ 또는 ‘이 대회를 광주와 대구에서 매년 번갈아 가면서 개최하자’는 의견에 선뜻 응하지 못한 체 50년이 넘게 빚을 지면서 지내온다. 그리고 이 대회가 그 긴 역사 속에서 3박 4일의 경기기간이 1박 2일로, 16km구보경기가 8km로 단축되어 초기의 이념이 퇴색한 듯하여, 학생들의 과외활동 여건과 산악계의 열의를 아쉬워한다.

전남대학교 산악회가 대구지역의 산악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는 또 하나의 계기는 김기문과의 만남이다. 대구산악운동의 핵심인 경북대학교의 김기문이 광주에서 군대생활을 하면서 광주의 산악인들과 자주 접촉한 인연이 계기를 만들었다. 1961년 상무대에서 군 복무하던 경북의 김기문을 위문하기 위하여 광주에 온 경북대학교 산악회의 서해창과 임문현은 전남대학교의 임춘재, 김승철과 함께 입석대에서 록 클라이밍을 하고 광산동 김승철의 집에서 유숙하면서 밤새도록 산과 등산, 알피니즘의 얘기로 새우며 한국의 산악운동, 경북지방의 산악운동과 앞으로의 광주지방 산악운동의 방향과 전개에 대하여 토론하였다. 경북학생산악연맹과 경북대학교 산악회는 1960년부터 가야산 하계산간학교를 시작으로 2회(1961년)는 금오산, 3회(1962년)는 소백산 회방사에서 개최하여 산악활동의 체계화와 확산에 노력하고 있었다. 1961년 7월 25일부터 8월 1일까지 금오산 채미정 부근에서 개최된 제2회 하계산간학교에 전남대학교 산악부장인 임춘재와 법대의 김승철이 참가하여 등산학교의 체제와 교과과정 및 운영방법을 배워왔다.

1962년 폭우속의 소백산 회방사 마당과 법당에서 1962년 7월 28일부터 8월 3일까지 열린 제3회 하계산간학교에는 당시의 오종태 무등산악회 부회장과 전남대학교의 신귀현과 김승철, 정순태이 참석하여 선진 산악운동과 등반기술을 배워오고, 이 산악운동 체제를 전남학생산악연맹을 조직하여 보급하고자 하였다.

산간학교가 열린 희방사까지 가기만도 어려운 길이었다. 광주에서 27일 7시 호남선 기차로 출발하여 대전에서 경부선으로 갈아타고, 대구에 세벽에 도착하여 28일 8시 하계산간학교 일행 70여명과 지방간선 영천행으로 출발하여 다시 중앙선으로 바꾸어 타 희방사역에 오후 3시에 내려, 희방사까지 6km의 길을 걸어 6시에 캠프사이트에 도착하였으니 광주를 출발하여 24시간이 소요된 긴 여정이었다. 광주와 대구는 면 길이었으나 산에서 맷은 끈질긴 인연으로 멀다 하지 않고 오고 갔다.

4. 도봉산 전국학생특수체육대회

군사정부 때인 1962년 10월7~8일 1박2일의 일정으로 한국특수체육회가 주최한 제1회 전국 특수체육회 도봉산 등산대회에 전남대학교 산악회의 A·B 두 팀이 참가하여 서울로의 길을 열었다. 전남대학교 산악회는 남상만 박윤성 서찬식 박원정이 A팀, 최동식 김용옥 김윤환 김윤걸이 B팀으로 출전하였다. 전남대A팀은 남상만을 대장으로 한 공과대학 2학년 회원이 참가하고 B팀은 농대 3학년 최동식을 대장으로 하여 상대와 문리대 회원으로 구성되었다. 10월7일 오전 8시30분 중앙청에 집결하여 오전9시 개회식을 갖고 오전10시 출발하여 서울운동장에 다시 집결, 오후 1시10분 자동차편으로 광릉고교로 이동해 점심식사를 하였다. 오후 2시10분 광릉임업시험장을 견학한 후 막영을 하고 오후 5시에 장비검사를 받았다. 식사 후 오후 8시부터 캠프파이어에서 전남대학을 비롯한 각 팀의 소개와 여흥을 가졌다. 이때 등산대회에 출전하기 위하여 양동시장에서 키슬링을 새로 맞춤 제작하고, 외국 등산잡지에 소개된 곤색 니커보كر즈를 만들어 입고 출전하여 새로운 패션으로 대회 참가자들의 인기를 모았었다. 다음날 오전 5시에 기상, 8시에 산행을 시작하여 광릉림~소리봉~입암리~장수원을 경유해 도봉산 입구에 들어 쌍룡사 계곡에서 중식을 하였다. 망월사~천죽사를 거쳐 도봉리로 하산하여 버스편으로 서울시민회관에 도착하여 해산하였다. 9일 오후4시 30분 중앙청의 폐회식에서 모범상을 수상했으나 시상식에 참석하지 않고 야간열차 편으로 광주로 돌아왔다.

1963년 제2회 대회에도 전남대학교 산악회는 남상만 산악회장이 대장으로 장하송(공대 3), 허정식과 정기팔(농대 2)을 출전시켰다. 이때 동국대 산악회, 서울농대 산악회, 이화여대 산악부 등 서울의 대학산악부와 우의를 다질 좋은 기회가 되었다.

5. 전남학생산악연맹창립

도봉산의 특수체육대회와 팔공산대회를 다녀온 전남대학교 산악회원들은 학생산악연맹의 창립이 시급한 일이었다. 위의 두 대회들이 학생산악연맹에 의하여 운영되고 학생산악운동의 활성화가 산악운동을 지속적으로 지탱하는 힘이라는 것을 실감하였다. 그러나 당시 대학이라곤 전남대학과 조선대학 그리고 2년제의 광주사범대학이 있을 뿐이었다. 전남대학과 광주사범대학(광주교육대학 전신)에는 산악회가 결성되었고 조선대는 등산클럽은 있었으나 정규 산악회로 조직되지 않았었다. 전남대학의 임춘재는 조선대와 광주사대의 대표와 공동명의의 전남 학생산악연맹의 발기취지문을 석판으로 인쇄하여 돌리고, 1962년 10월 30일 금남로의 보이스 카웃 콘세트 건물에서 3개 대학과 광주일고, 광주공고산악부로 전남학생산악연맹 창립총회를 가져 6장 26조의 회칙을 통과시키고 임원을 선출하였다. 초대회장엔 박인천 광주상공회의소 회장이, 부회장엔 이남열 무등산악회 부회장이 추대되고 대표상임위원엔 전남대학의 임춘재, 고등학교 상임위원은 광주일고 3학년인 김장영이 지명되었다. 초대 박인천 회장은 ‘달리는 호남천리 곳곳마다 광주여객’의 사장으로 무등산개발추진위원회 회장을 맡아 광주 산수동에서 원효사까지 도로를 개설하고, 원효계곡 의상봉 아래에 1961년 무등산 산장호텔을 건축하면서 무등산을 개발하기에 많은 노력을 하던 중이었다. 박회장은 준공된 호텔의 원효계곡 건너편에 200여평의 학생산악연맹 캠프사이트를 마련하여 주었다. 이 캠프사이트에 철제의 작은 입간판을 세우고 학생산악연맹의 야영장과 의상봉 스라브연습 베이스로 오래 이용되었으나, 이전등기가 되지 않고 개발붐에 밀려 자연스럽게 철수되었다. 초기의 전남학생산악연맹은 적극적으로 참여한 단체가 전남대 광주일고 광주공고정도이어서 거의 모든 행사가 전남대학교 산악회의 행사와 합동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었다.

제2대 회장으로 조선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최정기 공화당 전남도당위원장은 추대하고 오종태, 신귀현, 김장영이 방문하여 취임승락을 받으려 하였으나 확답을 얻지 못하고, 1964년 3대 회장으로 산악활동을 계속하여 온 손상우 사장(무등산악회, 광주냉동, 광주직의공사, 백마메리 앤스공업사)과 부회장으로 최명섭 합동통신 전남지사장을 추대하고, 사무실을 구 법원통에 있는 최명섭 부회장의 합동통신 전남지사의 2층 사무실로 정하였다. 손상우 회장은 1970년까지 회장을 맡았다.

학생산악연맹을 운영하는 실무 책임자인 대표상임위원으로는 초대 임춘재의 뒤를 이어 1963년 남상만(전남대), 1964년 정순택(전남대), 1965년-1966년 김장영(전남대)이 선출되었

다.

1966년 경북 전북 전남의 3개 도 학생산악연맹(학산)이 공동으로 개최한 산간학교가 1966년 7월말부터 8월초까지 6박7일 동안 무주구천동의 공신국민학교에서 개설되어 전남대학교 산악회도 OB인 김훈봉, 정순택과 산악회장이면서 전남학생산악연맹의 대표상임위원인김장영 회장이 회원 8명과 조선대 광주일고 광주공고산악부의 40여명이 참가하여 전주와 대구의 산친구들과 교류하는 좋은 기회였다. 이 행사는 3개도의 학산이 긴밀하게 협조하고 공조하는 계기가 되었다.

1967년의 대표상임위원은 1965년 창립한 조선대학교 산악회의 서용욱이 국제예식장에서 열린 총회에서 경선하여, 투표로 선출되었다. 뒤를 이어 1968년엔 박향식(전남대), 1970년 최창돈(전남대), 1971년 김상문(조선대)으로 이어져 70년대를 맞게 되지만 이후 10년간 전남학생산악연맹은 1969년 창립된 전남산악연맹의 활동에 합류하게 되어 긴 잠을 자게 된다. 등산활동을 통하여 학생산악회 상호간의 정보교환과 산악인의 정신을 고취시키고 산악일반에 관하여 연구하고 등반훈련을 통해 인내와 감투극복정신을 함양함과 아울러 산악운동을 통한 영원한 젊음의 구현을 목적으로 창립한 전남학생산악연맹이 꿈을 접은 체 긴 휴면기에 든 것이다. 1960년대 후반에 들어 고등학교 산악부의 활동이 정지되어 학생산악연맹은 대학학생산악연맹으로 개편되어 활동의 영역이 축소되었으며 대학산악부는 고등학교산악부로부터 교육된 회원의 수혈을 받을 수 없게 된 것도 학생산악연맹이 침체의 길로 들어서게 한 원인이 되었다.

6. 소식지 岳友 창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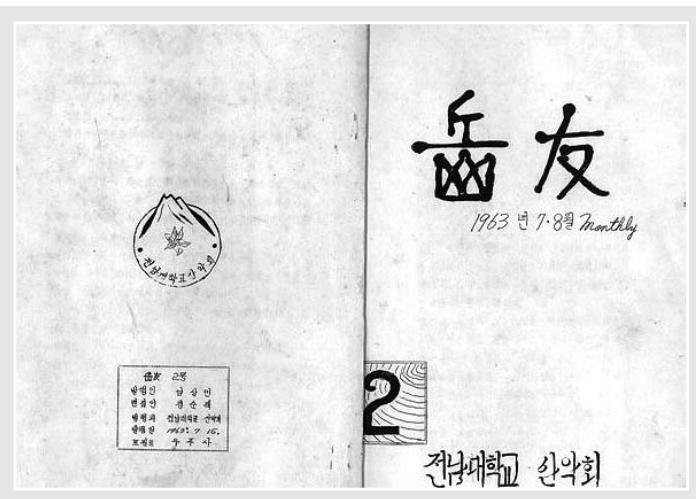
한 걸음 또 한 걸음 올랐다. 심장은 심하게 뛰며 숨이 헐떡이었다. 호흡이 가라 안기를 바라며 계속 걸었다. 이러한 수천의 발자국은 내가 20여 년 동안 가졌던 꿈의 하나를 실현시켜 준 것이다. 나는 23,000피트 에베레스트 노스 콜의 빙설 위를 걷고 있다. 에베레스트의 북면은 오후의 따사한 햇볕을 담뿍 받으며 내 앞에 엎드려 있다.

전남대학교의「岳友」(약우)지 창간호에 당시 라이프지에 투고된 W.W.Sayre의 ‘에베레스트 습격대’를 남상만회장이 번역하여 재재한 연재물의 서두이다. 소식지는 그 모임의 성격을 단적으로 표방한다. 조직이 확산되고 안정기반에 들어선 전남대학교 산악회가 히말라야의 고산 거벽에 관한 강한 의지를 표현한 기획기사이다.

1963년 6월 15일 30면 동사판의 기관지인 월보「岳友」(약우)를 창간하였다. 월보로 창간하

였으나 년보가 되고 그것도 거르는 경우가 많지만 오늘까지 계속 발간되고 있다.

1963년 4월 17일의 정기총회는 4대 김승철 회장의 후임으로 남상만(공대 3)을 5대회장으로 선임하고 총무로 정순택(농대 2)을 지명하였다. 남상만회장은 누문동 집에 산악회 캠프를 차리고, 고등학교와 공대에서 산악활동을 하여온 경륜을 펼치면서 월보창간, 공동장비 확보, 전남 지역 산의 학술조사, 산악장비 전시회, 산악강습회, 10월의 산악제, 12월의 적설기 등반등 의욕적인 사업계획을 세우고 그 첫 사업으로 6월에 월보「岳友」를 창간하고, 7월에 30면의 7·8월 월보「岳友」2호를 발간하였다.



「岳友」창간호는 첫 면에

아마놀드의 산시를 실어
하얀산에 대한 동경을 담
았다. 이어 그때까지 정리
되지 않은 전남대학교 산
악회의 기록을 조사하여
전남대학교 산악회의 이력
을 정리하여 게재하였으
며, 한국산악회에서 제정
하여 배포한 '등산하는 사

람들의 계명', 연재물인 신귀현의 독도법, 산악회소식, 무등산지도 등을 내용으로 하여 소식지와 등산교육겸용의 취지를 살렸다.

당시엔 1960년에 창간된 서울 문리대산악회와 부산산악회의 월보를 통하여 산악회의 동정을 전해 볼 수 있었을 뿐이었고, 일본의 산악잡지 외엔 등산에 관한 국내 서적과 자료가 부족하여 경북학생산악연맹이 1961년 펴낸 최초의 산지인 「山岳」(산악, 268면, 1961. 5. 10)과 1962년 손경석선생의 「山岳百科」(산악백과, 4·6판 462면, 1962. 7. 2), 경희대의 박철암교수가 1962년에 다울라기리 Ⅱ봉을 정찰등반하고 돌아와 단행본으로 발간 한 「히말라야」(4·6판 316면, 1963. 12. 9)가 산악인에겐 경전처럼 여겨지고 애독되었을 정도이다. 수락산우회는 1964년에 최초의 산악동인지 「山」(산, 50면, 1964. 3. 1)을 창간하여 전국 산악단체의 활동내역과 정보를 제공하여 중요한 자료로 삼았다.

전남대학교 산악회는 1964년 3월 28일 보이스카웃에서 열린 정기총회에서 회장으로 정순택

(농대 3), 총무에 김장영(공대 1)을 선출하고 각 단과대학 산악회장도 공대 정수현(4), 농대 정기 팔(3), 문리대 박윤걸(3), 상대 심용택(4), 여학생회장 황순자(농4)를 선임하여 명실 공히 종합대학산악회로서의 조직을 강화하여 60년대 전반기를 마쳤다. 1964년 문리대 박석일, 농대 최동식 김용옥, 상대의 김윤환 오민자가 졸업하고, 임종률 김옥수 정권섭 김명호 기승종 김규수 오걸 최정부 이영석 박하연 이상열 김경숙 김정애 이정자 오양자 염연자 명칠덕 장기수 임영호들이 전남대학교 산악회에서 짚음을 불태웠다.

1964년 10월 10일~11일에 무등산 세인봉에서 전남대학교 산악회 추계산악강습회를 참가비 30원으로 열었다. 고재기 지도교수의 산악일반론, 무등산악회 이남열의 산악인의 자세, 김승철 OB의 산음악과 등산장비, 남상만 전회장의 등산식량, 신귀현OB의 독도법과 실기, 신귀현, 기양도, 김승철의 암벽등반강의와 실기로 진행되었으며 이 교과목들이 이때의 산악강좌 전형이었다.

뒤를 이어 김장영(공대 1965~1966), 박명선(문리대 1967), 박향식(공대 1968), 김용우(법대 1969), 최창돈(문리대 1970), 이정옥(농대 1971)이 각 년도에 전남대학교 산악회장을 맡고, 박하연, 이영석, 박종민, 강정채, 박장일, 정금성, 차운제, 윤병하, 신용구, 김태순, 오민교, 장연우, 조영무, 박인진, 지덕신, 박춘화, 김재율, 윤영준, 박병석, 정창영, 정태영, 박현문, 김재일, 신한봉, 정찬승, 제갈호일, 김하경, 조은채, 이정상, 송희범, 임백환, 최정호, 신연식, 박효숙, 신정순, 김명숙, 양형렬, 김나연, 유종태, 윤정자, 고명권, 박순형, 국연근, 박재황, 윤상현, 이준호, 윤기현, 윤영대, 정부홍, 김춘성, 김선지, 심근 등 기라성 같은 대학산악부원이 활동하던 전성기를 갖고, 70학번인 공대의 김평중(공대, 토목)에게 1972년의 산악회장을 인계하고 60년대의 산악활동을 정리한다.

그 후 박향식(1975~1980), 신한봉(1981~1983), 송희범(1984), 이정옥(1985~1992)이 광주·전남 산악연맹의 전무이사, 박명선, 김재율, 김하경, 이정옥은 광주학생산악연맹 회장, 김용우는 대한산악연맹 등반기술분과위원(1985~1988), 대한산악연맹 상임이사와 청소년지도위원장(1994~1997)으로 우리나라의 산악운동을 주도하였다.

7. 전남대학교 의과대학 산악회

전남대학교 의대산악회는 의예과 시절부터 강정채 김하경 윤기현등에 의하여 의과대학내의 동호인형태로 등산반을 조직하여 전남대학교 산악회와 공동으로 산악활동을 하거나 독자적으

로 산행을 하여오다 1971년 윤기현(의예2) 강대석 김익성 김옹기(의예1)등이 전남대학교 크로스컨츄리 대회의 참기를 계기로 양병익 교수를 모시고 전남대학교 의예과산악회를 발족 시켰으며 1972년부터 회지 무돌을 발간하였다.

1972년 김하경 윤영준(의학3) 박강식 박재황 박제천(의학2) 윤기현(의학1)등이 윤재룡 교수를 지도교수로 모시고 전남대학교 의대산악회를 창립하여 전남대학교 산악회와 의대내의 기존 등산서클로부터 독립하였으며 간호학과를 포함하여 의욕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 산악회1기인 김하경(전 광주학생산악연맹회장)은 1977년 '77한국 에베레스트 원정대'의 최종 대원선발에서 제외되어 천추의 한을 씹고 있다. 1986년 김하경과 윤석기가 히말라야의 랑탕리룽을 정찰하고, 1987년 윤재룡교수를 원정대장으로 하여 조석필이 꾸린 렌포강원정대는 권현 홍운기 이정훈 김수현과 함께 서벽을 초등하여 정상에 오르는 쾌거를 이루었으며 위계룡(전 전남학생산악연맹회장)은 빛고을 산악회의 브로드피크원정대와 전남산악연맹의 칸첸중가원정대를 꾸려 등정에 성공하였다.

8. 산악회원 증명서 지리산·한라산 등반

초기에 전남대학교 산악회의 가장 큰 행사는 지리산과 한라산, 가야산 노령산맥종주 등의 장기등반이었다. 설악산은 교통문제로 엄두도 못 내고 지리산이나 한라산은 다녀와야 산악인 대접을 받고 회원으로 떳떳할 수 있었다. 지리산이나 한라산 등반이 요즘의 히말라야 트래킹 정도는 되겠다.

전남대학교 산악회는 창립하자 곧 한라산(1958년 8월, 1960년 8월, 1961년 8월)과 지리산(1959년 8월, 1961년 8월)을 등반하고 1962년엔 1월 29일부터 2월 4일까지 무등산악회와 합동으로 동계 한라산등반을 하였다. 7월에 농대산악회(최동식 김용옥 등)가 지리산을, 8월엔 전대산악회(김훈봉 고무석 최원열 등)와 일고산악회(최임일 등)가 합동으로 한라산을, 공대산악회(박윤성 장하송 등)가 한라산을 등반한 후 바로 지리산을 A조(박윤성 장하송 한상철 조병덕), B조(서찬식 박원정 등)로 나누어 등반하였으나 모두가 어려운 산행이었다. 특히 한라산등반은 배가 격일로 목포를 출항하고, 하계등반은 자칫 태풍과 겹쳐 발목을 잡았으며, 제주에 식량이 넉넉하지 않아 많은 일회를 남기고 있다.

전남대학교 산악회의 8월 한라산 등반도 그런 경우다. 등반대는 농대산악회장 박종현이 고무석 최원열 김수봉 정광진(고인) 한희수 와 상대의 정광근 김상인과 대를 꾸렸으나 대장의 불

참으로 김훈봉을 대장으로 하여 광주를 출발하였다. 목포에서 태풍으로 뮤인 제주행 배를 기다리며, 광주일고의 최임일 권현채 조광용 박원영 등 7명을 만나 합동등반이 이루어졌다. 목포에서 격일제로 운항하는 경주호를 3일이나 기다려 가까스로 승선하여 제주에 도착하였으나, 마침 8월 2일의 태풍으로 물이 분 탐라계곡을 건너려던 전남공대 오태근(장성)이 조난을 당하여, 도립병원 영안실 안치된 시신을 조문하고 조난상황을 조사하였다.

전남대학교 학생이 한라산에서 처음으로 조난을 당한 것이다. 김훈봉대장이 무등산악회로 전보를 보내 최명섭선생이 전남대 앰브란스를 목포부두에 대어 영구를 후송할 수 있었고, 하산 하여서도 일행 15명이 같이 승선하지 못하였다. 전남대생 7명은 먼저 배를 타고, 남은 8명은 경리를 맡은 고무석과 최원열의 인솔로 여분의 쌀을 팔아 돈을 구하여 부둣가의 광주집에서 2일을 기다려서야 목포행 경주호를 탈 수 있었다. 대장은 영풍상사의 목포지사장인 무등산악회원에게서 돈을 구하여 2일 후에 목포로 들어오는 대원들을 맞았다.

한라산 등반은 모두 이렇게 어렵게 진행되었다.

9. 산악회원 메달 무등산등산대회

광주지역에 1961년 최초로 등산대회가 열리었다. 침체된 이 고장 산악인의 사기를 북돋우고 등산의 근본이념을 재확인하여 극복정신과 투지력을 함양함으로서 내일의 굳건한 역군을 양성하기 위한 취지로 제1회 무등산 등산대회가 1961년 11월12일 개최되었다.

이 무등산 등산대회는 전남대학교 산악회를 활성화 시키는 전기가 되었으며 등산대회 참가는 한라산 지리산등반과 함께 전남대학교 산악회원의 자격증과 훈장이 되었다. 이 시기에 이웃의 전라북도에서도 전북학생산악연맹이 주최하고 전주산악회가 주관한 시범 등산대회가 열렸다. 전남일보(현 광주일보)주최 제1회 무등산 등산대회는 전남대학교 산악회가 주관하고 전남북 지구 계엄사무소와 재건국민운동 전남도지부, 전남 문교사회국이 후원하였다. 대회는 일반·대학부, 남자 중·고등부, 여자대학·고등부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경기는 5인1조 단체경기로 28팀 140명이 참가하였다. 이 대회에 참가했던 사람들은 70년대 직장산악회와 일반산악회를 주도하여 그들의 영향력은 매우 컸으며 지금 거의 50대 산악인들로 직간접으로 산악계와 연계되어 활동하고 있다.

대학부에 전남대학교 공과대학팀과 농과대학의 A·B·C팀, 상과대학 A·B팀 조선대 문리대, 광주사대가 출전하였고, 일반부로 자이언트, 충장로, 조선대 약대P클럽이 참가해 열전을

펼쳤다. 당일 오전 9시에 주최 측인 전남일보에 집합하여 장비검사와 중량심사로 대회가 시작되었다. 광주 지역 최초의 등산대회인 이대회의 운영방법은 이후 20여 년 지속된 광주 지역 등산대회의 운영지침이 되었기에 자세하게 기록한다. 기본장비로는 ① 1식분의 식량과 부식, 취사도구 ② 내의 및 수통 ③ 우장 ④ 1식분 휘발유 또는 기타 연료 ⑤ 팀 표식기를 준비하도록 하고, 총 중량은 3관(11.25kg)으로 고시하여, 대회 전날까지 신입금(1000환)을 내면 참가신청이 되고 대회 전날 오후 6시에 주장회의를 가졌다. 입장식은 오전 10시30분에 가져 송호림 도지사의 격려사와 전남대학교 교수 고재기 심판장의 심판요령과 주의 사항에 대한 설명이 있었다. 입장식 후 현병 백차의 선도로 금남로와 충장로를 지나 학동 삼거리까지 줄과 열을 맞추어 시가행진을 하고, 학동 삼거리에서 산행을 시작하여 중심사와 중머리재를 거쳐 샘골에서 각 조별로 점심 취사를 하고 심판들은 취사준비와 식사상태를 평가하였다. 선수들이 취사도구를 준비하기 위해 광주 지방의 휘발유버너와 코펠, 반합이 모두 집결됐으나 그 수가 크게 부족하여 솔을 걸고 나무로 취사하는 팀도 많았다. 좁은 골짜기가 연기로 자욱한 밤 짓는 풍경은 중세 서구인들의 부족생활과 짐시족을 연상케 하였다.

식단도 팀별로 다양했으나 광주여고 E팀의 혼식밥과 광주여고 A팀과 간호고의 재건밥은 심판들의 관심을 끌었다. 당시의 사회상과 이 대회의 열기를 짐작케 한다.

점심식사 후 오후 2시까지 팀별 레크리에이션 시간을 갖고 장불재~입석을 거쳐 무등산 인왕봉에 올라 참가자 모두가 정상 답사식을 가졌다. 오후3시30분 정상을 출발하여 삼밭실~늦재~바람고개에서 중심사 입구로 하산, 오후 4시40분 제1수원지에서 장비와 중량검사를 하고 추첨에 의하여 남자부는 팀간 1분 간격으로 출발하여 구보로, 여자부는 도보로 학동을 경유하여 7km거리의 전남일보사옥에 골인하여, 어두워져 가는 늦가을 오후 6시에 시상식을 가졌다.

전남대학교 공과대학팀이 일반·대학부 우승을 하였다. 여자부는 전남대학교가 훨쓸었다. 우승은 전남대학교 의과대학부속 간호고가 차지하였으며, 2등은 농과대학 밀알회, 3등은 상과대학 여자부이었다. 구보부문은 일반부의 자이언트팀이 31분 기록으로 구보상을 차지했다.

일반·대학부에서 준우승을 하고 구보상을 받은 자이언트팀은 대학 혼성팀으로 구성하여 최동식(전남대 수의학과) 장상백(한양대) 이봉규(광주사대 체육과)등이 출전하였다.

이 대회에서 농과대학과 상과대학의 여대생들이 의욕적으로 참가하였으며 특히 농과대학 산악부원인 이안숙 최경순 황순지 등 여대생회원을 참가시킨 밀알회는 이 대회 이후 등산대회 참가와 등산활동을 연간사업계획에 반영하여 활발하게 활동하였으며 계속 이 대회에 선수를 출

전시켰다.

상과대학 여학생부는 오민자, 이경자등 7명의 여학생이 한중길(무역1)을 안내자로 산행에 열심이었으며 이 대회에서 3등으로 입상하였다. 대회 심사기준은 협동상태, 극복인내상태, 중량, 장비, 언어, 행동, 복장, 여가선용, 취사, 7km 경보기록 등을 대상으로 등산활동의 전반을 평점하였다. 오늘날과는 사뭇 다르게 진지하였다.

대회가 계속되는 동안 무등산 정상 등정이 불가능하여져, 하산 코스가 원효사로 바뀌어 경보거리가 13km로 길어졌으나 심사기준은 크게 바뀌지 않았다.

1962년 6월 3일의 제2회 대회는 무등산악회로 주관 단체가 바뀌어 열려 전남대학교 공과대학산악회가 우수상을 수상하고, 제3회 대회는 일정을 세 차례나 바꾸어 1963년 5월 11일 무등산악회와 전남학생산악연맹 공동 주관으로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서 전남대학교 농과대학산악회가 최우수상을 문리과대학산악회가 준우수, 경보상은 공과대학산악회가 차지하였다. 제2회 대회 때는 참가비가 1,000환이었으나 제3회 때는 화폐개혁으로 200원이었다. 1964년의 제4회 대회에서 공과대학산악회가 최우수, 농과대학산악회가 우수상을 수상하였으며 여자대학부에서도 농과대학산악회가 최우상을 수상하였다.

4회째 계속되어오던 전남일보(현 광주일보)가 주최한 무등산등행대회가 1964년 시작한 한국특수체육회 전남지부 시범등산대회로 1965년 이후 중단되었으며 1970년 5월에야 5회 대회가 속개되었다. 이 대회를 통하여 많은 산악인이 배출되었고, 대회 참가경력과 좋은 기억들을 자랑스럽게 생각한다.

이에 앞서 전북에서도 같은 형태의 대회인 한국특수체육회 전북지부 발족 기념 제1회 집중식 시범등산대회(대회장 김용환)가 1964년 11월 5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운장산에서 열렸다. 산악회장인 정순택을 대장으로 정기팔 김장영 박하연 이상열이 우정참가하고, 제2회 대회에도 전남대학은 김장영 산악회장을 대장으로 하여 장기수 송용남 박종민 박하연이 참가하였다.

10. 무등산 입산 통제와 암벽등반

1965년의 무등산의 입산통제 조치는 산악회원에게 혁명이었으며 전남대학교 산악회의 방향을 크게 변화시켰다. 1960년대에 전국의 산과 정상들이 군사 요충지가 되어 군의 시설이 들어서면서民間인의 출입이 금지되고 군의 물자 보급을 위한 수송로들이 개설되었다.

광주의 무등산도 1965년 5월 16일에 무등산등산로를 잠정폐쇄하고 무등산정상에 정상경비

대를 위한 건물2동과 반공포여단 233대대를 주둔시키기 위하여 1207공병대가 6월부터 부대건
물공사를 시작하였다. 군사시설이 완공되어 군이 주둔하면서 1966년 7월 1일 무등산의 중머리



무등산 천왕봉

재와 원효사의 늦재에 초병을 배치하고
민간인의 접근을 전면 통제하였다. 장불
재를 포함한 서석대 입석 규봉 등의 정상
권 등산이 불가능하였고, 산악행사와 특
별한 경우에만 출입이 허가되었으나, 그
것도 장불재 위로의 등산은 금지되었다.
그 후 중봉에서 천왕봉 사이에 70여 동의
건축물과 10여개의 송신·중계탑이 들어
서고, 원효계곡 주차장에서 이들 군시설

까지 산허리를 타고 8.8km의 군과 통신시설의 수송로를 개설하였다. 따라서 무등산은 586미터
의 중머리재와 동화사터가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봉우리가 되었다.

이후 산악인들은 원효와 용추계곡에서 계곡등반 핑계 삼아 소일하거나 일부는 세인봉 의상
봉의 암장을 택하거나 아예 무등산을 떠나 월출산의 바위를 찾아 나섰다. 이제까지의 워킹중심
으로 운영되던 산악회들은 무등산에서 더 오를 곳이 없어지게 되고 산악회 운영방법과 등반형
태의 변화를 강요받았으며 이에 대한 회원사이의 논쟁은 표면화되었다.

산악회의 방향 설정을 위한 논의가 그치지 않고 분쟁이 계속되고 분파가 생기며 더러는 산악
회가 나누어진다. 산악회는 무엇을 하여야하며 그의 목표는 무엇인가. 산악회는 어떠한 조직이
며 산은 우리에게 무엇인가. 산을 등지고 앞을 돌아 흘러가는 강을 보며 살아온 우리에게 산은
어떤 존재인가에서 경모의 대상인가, 아니면 개발과 정복의 대상인가로 시작된 논쟁들이 불을
튀겼다. 산악회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뉘게 되었다. 국토와 자연을 배우고 사랑하며 꾸준한 산
행을 통하여 건전한 정서와 체력을 함양하고 산악인과 사회를 계도하자는 워킹그룹의 의견과
등반이론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훈련하여 하얀산, 고봉, 오지, 극지에서의 인간의 한계에 도전
하면서 미지의 인간영역을 추구하는 서구의 알피니즘이 현대의 등반사조이고 이것을 산악회의
목표로 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팽팽하였다. 고봉과 하얀산이 없는 우리의 여건에서 낮은 산은
높게, 쉬운 산은 어렵게 오르는 자세로 산행을 하여야 한다며, 산행계획 단계에서부터 이견을
보이곤 하였다. 한쪽을 보수적이라 하고 다른 쪽을 혁牲형이라고 서로 비난하였다. 그리고

답사와 워킹중심의 산악활동에 반기를 들었다. 무등산의 폐쇄는 록·클라이밍과 인공등반을 자연스럽게 유도하였으며 산악인들도 워킹그룹과 클라이머그룹으로 구분되어 정통산악인 또는 알파니즘의 시비가 계속되고 클라이머클럽의 출현을 재촉하였다. 제갈호일 최창돈 김용우 정태영 박현문 김재일 신한봉 조은채 송희범 김하경 등은 바위 찾아가고 현문과 춘화의 사랑은 익는다.

11. 등산대회 논란과 전남대 크로스컨츄리대회

전남일보등산대회와 후속의 특수체육등산대회가 6년째 계속되면서 대회방식에 식상한 대학 산악부들이 등산대회의 불가론과 무용론을 제기하면서 전남대학교 산악회 김장영 회장은 전남 대학교 개교 14주년을 기념하여 1966년 6월 9일 제1회 무등산 크로스 컨츄리(Cross country) 대회를 개최하였다.

참가범위를 전남대학교 재학생으로 한정하여 여자부 3kg, 남자부는 5kg의 납작이나 세미삭을 지고 여·남팀은 각각 3인과 4인이 1조가 되어, 전남대 운동장을 출발하여 학동 삼거리에서부터 숭의목장 세인봉 중머리재를 돌아 중심사 제1수원지로 하산하여 도청에서 대학 운동장까지 구보로 돌아오는 기록경기였다.

대회장은 박하욱 총장, 부대회장은 고재기교수, 심판장은 정순택, 기록은 이영석 오중록이 맡고 심천섭 장기수 박하연 김승현 이행주 오재남 이재년 박일규가 심판으로 활동하고 우승 준우승 감투상을 시상하였다. 이 대회는 1968년 전남대 재학생과 전남의 남자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전남 제1회·교내 제3회로 개창하여 계속되었으며, 1969년에는 여자고등학생을 포함하는 대회로 확대시켰다. 1971년의 6회 대회부터 전라남·북도 남녀 고교·대학의 크로스컨츄리 대회로 발전시켜 오늘날까지 지속되고 있어 매년 전남대학교 OB산악회원들이 함께 할 자리가 되고 있으며, 그 후 많은 크로스컨츄리대회의 모형이 되었다. 그러나 43년을 계속하여 온 대회에 걸맞지 않게 이대회의 사료와 시상기록이 정리되어있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12. 산간학교와 리더세미나

1968년 8월 2일부터 8일까지 대한산악연맹(회장 이은상)이 속리산에서 개강한 하계산간학교에 전남대학교 산악회원과 지도교수 김용선교수, OB인 신귀현 김승철 장하송이 조선대산악회 광주일고 광주상고 사례지오고 숭일고산악회원 등과 같이 30명이 대거 참석하였고, 9월 10

일부터 11일까지 1박2일로 개최한 한국산악회와 조선일보사기 주관한 20대 명산순례계획에 제4대로 참여하여 배석구선생 일행과 무등산을 올랐다.

1969년 10월 27일의 제2회 20대 명산순례에도 장하송 등이 무등산 등행에 참가하였다.

대한산악연맹(회장 최두고)이 주최하는 제1회 리더세미나가 1969년 11월 4~8일에 도봉산 오봉에서 열려 OB 신귀현 장하송이 참여하고, 전남대학교 산악회의 김용우 송희범 등이 수강하고 리더수료증을 받았으며, 이어 8~9일에 개최된 대한산악연맹의 범산악인대회에 참석하였다.

다음해인 1970년 7월 말부터 8월 1일까지 임랑(좌천)에서 대한산악연맹(회장 최두고)의 제11회 하계산간학교에 전남대학교 산악회의 이방기 교수와 최창돈 박명선 김용우 송희범 김나연 양형열 김평중 이준호 오경희 등이 참가하여 리더증을 교부받았다. 최창돈 회장이 김용선 이방기 김현곤지도교수와 함께 30여 명의 대원과 덕유산을 등반하고, 포항 보경사를 거쳐 울릉도를 다녀오는 장기간 산행으로 식량과 부식이 거의 없이 임랑산간학교에 입교하여 많은 궁색한 일화를 남기고 있다. 이 산간학교에는 고 고상돈 대장도 청주연초제조창 소속으로 입교하였다. 산간학교의 학생장을 맡은 전남대의 송희범이 부산의 선배에게 대들다 철수한다며 짐을 꾸리고, 전경과의 패싸움으로 성산, 박진이 경찰의 스트라이커 앞자리에 버틴 채 경찰서에 들어가, 국회 황소산악회의 힘을 빌리는 일화를 만들었다.

1970년 11월 19일과 20일에 관악산에서 열린 제2회 리더세미나에는 최창돈 김태순 박명선 박향식 이정옥 등이 참가하였다.

13. 국토종주 삼천리

대한산악연맹(회장 이은상)은 1968년 산악인이 온 국민의 의지를 대신하여 국토통일의 염원을 싣고 제주도의 마라도로부터 휴전선의 향로봉까지 각도의 산악회가 리레이방법으로 3년에 걸쳐 종주하는 의욕적인 '국토종주 3,000리' 사업을 착수하였다. 국토종주는 각도의 산악회가 그 지역의 산업자원과 국립공원 명승지 고적을 답사하고 식물상과 자연경관을 조사하면서 명산을 등반하고 인접 산악회에 「통일에의 의지」기를 인계하면서 진행되었다. 제주산악회 무등산악회 전북산악연맹 경북산악연맹의 주관하여 제주도의 마라도에서 7월 10일에 시작한 1차년도 사업은 한라산 유달산(목포) 무등산(광주) 지리산 장안산 무룡산 덕유산 북덕유 대둔산 황학산을 거쳐 7월 31일 추풍령까지 종주되었다.

무등산악회에서 활동한 신귀현, 임춘재, 김훈봉, 최동식, 김승철, 장하송, 박원정, 정순택, 정기팔, 김장영 등 전남대학교 산악회OB회원들이 참가하였다. 무등산악회원, 목포시 관계자들과 7월 12일 목포 유달산의 유선각에서 제주산악회로부터 「국토종주 삼천리 통일에의 의지」기와 「마라도의 흙」「한라산 에델바이스(솜다리)」를 인계 받았다. 13일 무등산을 등반하고, 화엄사 노고단을 거쳐 비바람 속에 18일 지리산 천왕봉을 답사하고 백무동으로 하산하여 7월 20일 전북 남원의 광한루에서 전북산악연맹에 전달하였으며 전북연맹은 무주구천동에서 경북의 조병우대에 인계하였다.

향로봉까지 마지막 구간의 국토종주에도 전남의 대표로 김장영과 김용우 회원이 참가하였다. 서울의 중앙청에서 「국토종주 삼천리 통일에의 의지」기를 인계받아, 기념비와 같이 군용 쓰리쿼터로 향로봉에 올라 기념비를 세우고, 통일의 날에 이북을 산들을 답파하고 백두산까지 종주하기를 기약하였다. 김장영과 김용우는 향로봉에서 돌아오는 길에 서남능에서 개최되고 있는 보이스카웃의 챔보리대회에서 박향식과 함께 1주일간 봉사하고 돌아왔다.

대한산악연맹은 1997년 아시아산악연맹(UIAA)회장을 겸하던 당시의 임철순 회장이 중국동산협회의 曾曜生회장을 통하여 북측과 북경에서 접촉하면서 국토종주 삼천리사업을 의제의 하나로 거론하였다. 1996년 창립한 북쪽의 DRP Korea Mountaineering Association의 조용남 회장(국토환경장관), 리이남 전무, 박명구, 조승훈, 김관철 부회장과 만나 향로봉에서 백두산까지의 여정을 남북공동으로 계속하여 국토종주삼천리 행진을 완수하자고 제안하였으나 즉답은 얻지 못하고, 남북관계의 개선에 따라 통일에 앞서 이 계획을 계속 추진하기로만 합의하였다.

14. 전남대 11차 학술조사단의 한라산 · 홍도기행

1969년 전남대학교 산악회(회장 김용우)는 7월 12일부터 23일까지 11차 하계 한라산등반 및 홍도 학술조사단을 파견하였다. 대장은 김용우회장 진행은 박현문총무 기록은 송희범 단과대 산악회장인 유종걸(공대) 김재일(농대) 이병기(문리대) 이정상(법대) 윤성중(상대) 박원집(의대) 김점순(간호대)이 각 단과대학의 책임을 맡았다.

지도교수단과 전임 산악회장인 박향식과 함께 전남대학교 산악회사상 최대 규모인 57명이 7월 12일 목포로 출발하였으나 폭풍우로 제주로 가는 배가 출항하지 않아 지도교수인 김용선 이방기 정종구교수는 한일호텔로 모시고 학생들은 OB인 정순택의 집에서 취사하며 숙박하였다. 폭우가 쏟아지는 여름철 비좁은 집에서 문리대의 박정숙 등 여학생 15명이 포함된 54명에

다 12일간의 장기산행을 위한 엄청난 짐으로 북새통이었으나 다다미방에서 벌린 막걸리파티와 아리랑복동이 마냥 좋았다. 밤을 세우며 배운 ‘산포도처녀’는 오늘날도 산악부의 애창곡으로 이어오고 있다.

7월 13일 제주로 들어가 관음사에서 용진각을 거쳐 백록담에 오르고 남성대 서귀포로 하산하여, 17일 목포로 돌아왔다. 다음날 18일에 흑산도를 거쳐 홍도로 들어가 22일까지 5일간의 학술조사를 마치고 23일에 목포로 나왔으나 역무원과의 트러블로 8시47분 완행기차를 타지 못하고 2등차 편으로 광주에 돌아오면서 많은 사연을 남겼다.

마침 루이 암스트롱의 달 착륙선 컬럼비아가 모선 아폴로와 도킹하고 시속 5,000km로 지구로 귀환 중이었다.

이 학술조사단이 제11차이기에 앞서 이루어 진 10차례의 학술조사단 기록을 수집하지 못하여 아쉽고, 옛 자료들이 전남대학교 산악회 60년사에서는 모아지기를 기다린다.

15. 대한산악연맹의 대통령기 등산대회

박철암교수가 주도한 한국특수체육회는 1965년 10월 제1회 설악제를 개최하고 다음해 1966년 10월 제2회 설악제와 등산학교를 열었으며 1967년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북한산에서 한국특수체육회 등산대회를 개최하였다.

제1회 설악제에 전남대학교의 김장영, 조선대의 오세근(법정대) 민근규(문리대) 김창제(공대)가 참여하고 제2회 설악제엔 전남대학교의 김장영 박명선 박장일이 참석하여 봉정암과 대청봉에서 야영하면서 전국의 산악인들과 교류하였다.

1967년 한국특수체육회의 북한산대회에 김장영 박향식 황윤홍 최영진 김재일 박명선 조영무 등이 참가하였다. 경비가 부족하여 안양행 기차표로 송정리까지 오는 만용을 부리고, 송정리에서 광주까지는 입장권도 제대로 사지 않고 돌아왔다.

1969년 10월 3일-5일의 설악산악회 주최 제4회 설악제에 김용선교수와 전남대학교 산악회가 참가하였다. 대한산악연맹이 1964년에 시작한 국회의장기 전국등산대회가 4년간 열리지 못하고 제2회 대회가 1968년에야 4월 27일부터 28일까지 북한산에서 속개되었다. 전남대학교 산악회는 김장영을 대장으로 하여 공대의 박향식 최영진과 황윤홍과 김재일 박명선 조영무가 선수와 읍서버로 출전하였다.

1969년 4월13일 임시총회에서 전남대학교 산악회장에 김용우(법학 3)를 선출하였다. 같은

해 4월 26일부터 27일까지 열린 제3회 북한산대회에서는 신귀현이 심판으로 참가하고, 김용우 팀이 출전하여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1970년 4월의 4회 대한산악연맹 주최의 관악산대회에 신귀현이 심판으로, 송희범(법학2) 임 백환(화학2) 이정옥(임학1) 김희룡(광산1)의 출전하였으며, 1970년 5월에 전남일보의 제5회 무등산등산대회가 국회의장기와 문교부장관기를 유치하여 속개되었다. 5월 23일부터 25일까지 열린 이 대회는 국회의장기 쟁탈 전국등산대회로 확대되어 70개 팀 280명의 선수가 참가하였다. 이 대회에서 전남대학교 농과대학산악회가 최우수상 국회의장기를 받고, 공과대학이 준우수, 여자대학부에서 문리과대학산악회가 준우수상을 수상하였다.

1970년 5월 전북연맹의 대둔산 전국등산대회, 7월엔 금정산 하계산간학교가 열리고 대한산악연맹 충남연맹이 주최한 계룡산 전국등산대회가 10월에 개최되어 심판을 파견하고 11월엔 전남대학교산악회가 우승기를 차지한 팔공산 60km극복등산대회가 열렸다.

1970년 10월29일부터 11월1일에 개최된 제12회 대회에 전남대학교 산악회가 다시 이 대회에 참가하여, 대회참가 10년 만에 전남대학교 산악회(회장 최창돈)가 우승하고, 경북대학교 사범대학의 독무대이던 대회사상 처음으로 대회기가 대구 밖으로 나가게 되었다.

이 대회엔 전남대학교 농과대학 산악회장인 이정옥(임학2)을 대장으로 하여 김나연(자원2) 양형열(금속2) 김명곤(수의2)이 가산산성 파계사 수숫골의 3박4일 산행과 양형열이 16km를 구보하면서 금이빨을 빼뜨려 가며 달려 귀한 종합우승을 차지하고 60년대 60km극복 등행대회를 마무리 지었다.

산을 알되 아직 얻지 못한 산(知山之祥則 可謂之得山)은 재봉 고경명선생이 1574년에 기록한 무등산 등행기 「유서석록」의 경지이지만 아직 산을 모르고, 60년대 등산과 산악운동은 진지하였던 만큼 민중에게 뿌리를 내리지는 못하였다. 어려웠던 시절 워카에 등산복이 어색하고 재건운동과 새마을운동의 깃발사이를 지나는 등산길이 계면쩍었다. 유독 가뭄이 많았던 때 겨우 겨우 견디어 가는 시골을 색색의 등산복장으로 지나기가 주저되어 농가와 논밭을 피하여 멀리 우회하곤 하였다. 남녀혼성등산이 사각모 대학생들의 여유나 유산처럼 인식되어 야유를 받기도 하고 지탄이 되기도 하였으나 더러는 노력봉사하고 새참을 먹기도 하였다. 양동시장을 뛰어 군용장비를 조달하고 며칠 전부터 이집 저집을 돌며 장비를 수집하여 짐을 꾸린데다 몇십원의 버스비를 절약하기 위하여 10km정도는 훈련 삼아 구보로 때우는 산악인들을 이해하려고도 하지 않았다. 배 따뜻해서 하는 짓이지. 그러나 버스값 아껴 막걸리 마시는 맛은 그들도 몰랐

다. 산행을 마치곤 개선장군처럼 충장로를 활보하고 반성회를 한다며 영하당에서 토끼탕 하나 주문하고 춘장 시금치 당면 육수를 번갈아 부탁하여 엄청나게 마셔댄다. 하나같이 술을 잘 마셔 술을 못 마시면 산쟁이가 아니라고까지 하였다. 학동 삼거리에서 왕대포 한잔으로 해산하거나 담보라고는 손목시계뿐인 치지에 광일각 왕자관 예명 태동루의 짜장면을 자주 찾고 큰 행사라도 치르고 대접받는 참새집의 백반과 조일식당의 곰탕 설농탕은 특식이었다.

하루의 살림살이 어깨에 짊어지고 산사람 가는 곳은 낭만의 세계라네, 60년대 초에 부르던 ‘산으로 또 산으로’의 도입부분이다. 편하고 낭만적인 노래다. 그러나 60년대 후반엔 ‘검푸른 산악’ ‘자이안트’ ‘숨은 벽가’로 산노래에 힘이 실리고 거칠어졌다. 전하여다오 산우여 만약에 내가 죽는다면 전하여다오 아버님께 사내다웠다고…로, 유언을 하는 듯한 로제 뒤푸리의 가사와 애조에 비감하여 진다.

모두가 어렵던 60년대에 평생을 같이할 것처럼 산정을 나누던 몇 선후배와 산우들이 광주를 떠나거나 산과의 연을 끊어 더러는 왕래가 서먹하여진지 오래다. 누가 흘러간 별이라 하였다.

지면으로 얘기를 다하지 못하였고 다분히 기억과 개인 기록에 의지한 이 기록의 오류는 계속 정정되기를 바라며 이 연재가 옛 기억을 바르게 정리하는 자료가 되기를 바라며 글을 인계한다.

제4절. 1970년대

1. 72년 신입생 환영회

신입생들이 너무 많아 스쿨버스가 2대나 동원되었다. 무등산 산장에 있는 연맹 캠프장에 도착하여 간단한 산행을 한 후 선배님들이 정성스레 반찬과 도시락 등으로 마음의 점(점심)을 쳤었다.

지도교수님들과 OB 선배님들의 소개와 인사말씀이 끝나고 각자 자기소개와 장기 자랑을 하고 난 후 산 노래 부르기 등으로 정적인 1부 모임이 끝났다.

1부에서 특히 기억에 남는 것으로 지금은 고인이 되신 이방기 교수님은 작은 키에 체구도 작지만 힘은 어디서 나오시는지 전혀 지치는 법이 없으셨고 성품이 인자하시고 너그러우시며 속이 바다와 같이 넓으신 분이었다. 때로는 친구나 선배 같기도 했지만 아버님 같은 분이었다.

신입생들이 아직 등산복이나 등산화를 준비하지 못하고 교련복이나 체육복 등 기타 다양했다. 이방기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산에서 등산복이나 등산화를 신는 이유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등산을 효율적으로 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련복과 체육복은 산에서 입는 것이 아니고 교련시간과 체육시간에 입는 것이니 앞으로 산에서는 입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라고 강조하셨던 말씀이 지금도 귀에 생생하다.

이방기 교수님은 수많은 제자들이 주례를 부탁하면 많이 사양하시고 다른 교수님들을 소개하셨다. 그러나 산에서는 가끔 주례를 보셨던 모양이다. 나도 언젠가 장난으로 산에서 결혼식을 하였다. 물론 장난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그 당시 신부의 얼굴도 이름도 기억이 없다. 이방기 교수님이 주례를 보셨고 주례사를 하셨다. 결혼식은 비록 장난으로 하였지만 조금은 엄숙한척 했다. 처음에는 좋은 덕담을 하시다가 갑자기 ‘신랑은 주례를 존경하는가?’ 하시니까 당연히 신랑인 나는 ‘예’ 하였다. 다음 ‘신부는 주례를 사랑하는가?’ 하셨다. 신부는 당황하여 대답도 못하고 죄중을 웃음바다로 만들어 소위 요즘에 유행하는 웃음 치료를 하셨다.

김현곤 교수님은 입으로 연주하시는 만돌린을 연주하시는데 진짜 만돌린으로 연주하시는 것 같아서 듣는 사람 모두가 죄 죽은 듯이 조용하게 음악 감상을 하였다. 교수님의 만돌린 연주는 그야말로 감동을 주시었기 때문에 그 후 다른 산행에서도 교수님이 오시면 꼭 빠질 수 없었다. 심산 김현곤 교수님은 정년 후에도 쉬지 않으시고 ‘귀향의 범종소리’라는 시 전집을 발간하시느라고 건강이 악화되신 것 같습니다. 교수님 빨리 회복하시어 산행도 같이 하시고 입으로

연주하시는 반돌린의 고상한 운율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다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부에서는 역동적인 놀이로 주로 선배님들이 하셨고 신입생들은 구경만 했다. 말뚝박기라고 하는 놀이를 하는데 보통사람들이 운동장이나 뒷골목에서 했던 것과는 감히 상상도 비교도 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평상시 각종 운동과 산에서 단련된 몸으로 과연 선수들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아니 저럴 수가 있을까? 하고 감탄하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 말에 올라타는 사람은 보통 7~8m 탄력을 받아 뛰어와서 10여명의 말들 위로 공중 부양을 하여 제일 선두 말의 등에 머리로 내리 꽂거나 아니면 선두 말을 지지하고 서있는 사람의 가슴을 머리로 받아 버리면 바로 무너져 버렸다. 그러면 다음 사람들은 말에 올라 타볼 기회도 주지 않는다. 다음에 발에 올라타는 사람들도 공중으로 높이 부양하여 내리 꽂으니까 그 하중을 견디지 못하고 바로 무너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니 가위 바위 보로 승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적었다.

다음으로 체력 단련을 위하여 닭싸움을 하는데 신입생 이교태는 평소에 단련된 체력으로 감이 겁도 없이 OB선배님 중 제일 강하다는 송희범 선배님을 이기는 이변이 발생했다. 당연히 다른 선배님들도 상대가 될 수가 없었다. 난리가 났다. 이준호 선배는 패션하다고 생각하였는지 장난기가 발동하였는지는 모르나 돌을 숨겨 가지고 하자고 하였다. 이교태는 돌이 숨겨진 줄 모르고 위에서 내리 찍다가 상당기간 무릎이 아파 고생을 하였다. 신입생이 감이 겁도 없이 선배님들의 체면을 상하게 한 별로 생각하고 감내하였다.

3부에서는 신입생수가 너무나 많으니 선별해야 한다고 선착순을 몇 번 하였다. 산악회가 좋아서 선택 받으려고 열심히 달려서 통과했던 기억이 즐겁고 재미있는 추억으로 남는 신입생환영회였다.

2. 혹독한 훈련

거의 한 달에 한 번씩 정식 산행을 했었고 암벽등반은 수시로 다녔는데 매 산행마다 훈련 등반이었다. 훈련 등반이다 보니 말 그대로 여러 가지 훈련을 하였다. 하중 훈련과 구보를 동시에 하기 위하여 키슬링(배낭) 사이드에 돌로 채우고 증심사에서 학동 현준호씨 제각까지 구보를 한 것이 김제승의 기억에 생생하다고 한 것이 특히 힘들었던 모양이다.

조난에 대비하기 위하여 급식 훈련을 하는데 밥은 전혀 먹지 못하고 파고다빵(몽둥이빵)으로 끼니를 하고 훈련을 했던 기억은 특히 김정호와 김제승이가 잊을 수 없는 기억으로 남고 더

육 잊을 수 없는 사건은 고기를 전혀 먹지 않기 때문에 식사량이 많은 이용춘은 배가 고픈 것을 참지 못하고 김선지 선배의 텐트에 훈련용으로 숨겨둔 파고다 빵을 몰래 훔쳐 먹어버렸다.

김선지 선배는 노발대발하며 범인을 잡으려고 하였으나 김정호도 같이 먹었기 때문에 말도 못하고 숨기느라 힘이 들었다고 한다.

범인을 잡지 못하면 당연히 단체 기압으로 훈련의 강도는 더욱 심했다. 산행을 마치고 하산 할 때 그 별칙으로 등에 멘 키슬링 위에 한개 더 올리고, 그것도 부족하여 앞에도 한 개를 더 메고 바람 재에서부터 학동3거리 현준호씨 제각 앞까지 15분 안에 도착하면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는 선배님들의 말씀에 불시에 도둑이 되어 버린 우리 16기동기들은 배낭을 3개씩 메고 뛰



그림은 도강 훈련을 하는 사진으로 계곡물이 불어난 상태에서 계곡을 건너는 것은 위험한 일이다. 그러나 119구조대 등을 기다릴 수도 없고 다른 방법이 없을 때 할 수 없이 계곡을 건너야만 할 경우를 대비하여 하는 훈련으로 계곡물 상류에 막대기를 대고 건너는 모습이다.

기 시작하였다. 못 먹고 무거운 배낭이 3개씩이나 되니 27분이 소요되었다. 목표시간 15분 안에 도착하지 못했다고 또다시 학동 3거리에서 제1수원지 입구까지 선착순을 2번이나 하고 나니 깜깜한 밤이 되었고 우리들의 몸에서 나는 땀 냄새는 옆 사람의 코를 아주 심하고 불쾌하게 할 정도였다. 참석자 중 최고참이신 송희범 선배님께서는 고생했다고 제일극장 앞에 있는 투모루라는 맥주 집에서 맥주를 사주시었다. 우리들은 그 당시 학생들이라 향토 장학금이 부족하여 막걸리 이외는 감히 먹어보지 못했던 맥주였다. 그것도 예쁜 아가씨가 따라주니 아가씨 손이 약간만 스쳐도 전기가 통하여 감전되는 것 같았고 가슴도 두근두근하여 그야말로 황홀하였다.

우리들은 맥주를 마시면서도 이런 멋과 맛이 있으니 산악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을 큰 영광과 보람을 느낀다고들 이야기를 했었다.

김평중 선배는 군대 가서 유격대 조교를 하다가 휴가를 나왔는데 제2수원지에서 하는 훈련 등반에 참가하여 유격훈련을 시켰다. 종류도 다양했지만 그 중에서 특히 뒤로 누어서 두 다리를 기를 하였는데 복근을 단련시키는 훈련이었다. 훈련이 끝나고 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니 평소에 별로 그동안 쓰지 않았던 근육들이 놀라서 여러 군데가 아프기 시작했다. 특히 배의 근육

은 참기 어려울 정도로 고통이 심했다. 그런데 시내에서 막걸리 파티를 하면서 김평중 선배는 일부러 웃기는 이야기를 하면서 배가 아파서 웃지도 못하는 고통을 참고 있는 모습을 보고 즐기고 있는 것 같아서 얄미운 선배로 기억이 남는다. 그러나 직립 동물인 사람이 빈약하기 쉬운 허리를 보강하기 위하여서는 복근의 단련이 필수적이라는 사실은 안 다음부터는 얄미운 선배에서 고마운 선배로 바뀌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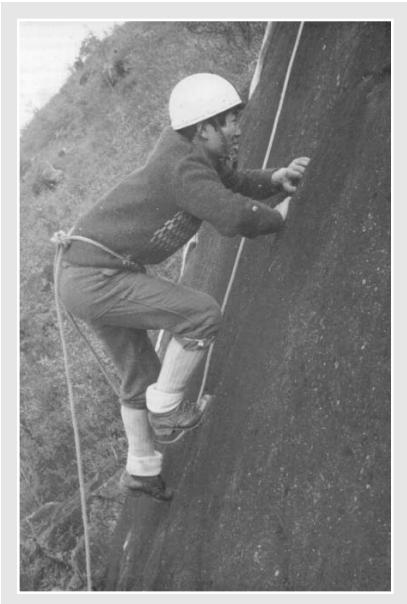
훈련등반은 지친 산행으로 피곤하여 막 꽂잠이 들려고 하면 신경질 나는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고 집합시키는 것이다. 집합도 그냥 집합이 아니고 ‘오른손에 코펠, 왼 발은 등산화, 오른발은 양말을 신고 본부 텐트에서 몇 시 방향으로 집합한다.’는 명령이 떨어지면 비몽사몽간에 집합하다보니 거의 모든 대원이 지적 사항이었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잠자다 텐트를 옮기는 훈련도 하였다. 또 야간 산행으로 목적지를 정하여 정해진 시간까지 갔다 오라는 담력 훈련을 할 때는 묘지 뒤나 무서울 만한 곳에는 어김없이 선배들이 숨어서 등골이 오싹하게 하였다. 담력훈련을 자주 하다 보니 요령이 생겨서 역습으로 묘지 뒤에 숨어 있는 선배들을 놀라게 하여 담력 훈련을 시키는 경우도 있었다.

이용행 선배는 훈련 등반하는 중에 아침 식사를 하다가 마침 라디오에서 나오는 교통 방송의 호루라기 소리를 듣고 깜짝 놀라서 밥 먹을 때는 개도 안 건들리는데 무슨 식사 중에도 소집이라고 신경질이 나서 숟가락을 던지고 텐트를 뛰쳐나와 보니 아무도 없었단다. 얼마나 긴장을 했던지 교통 방송의 호루라기 소리를 훈련등반의 호루라기 소리로 착각했던 것이다. 이 사실은 훈련등반이 얼마나 혹독한가를 증명하고도 남는다.

겨울에 차디찬 물속에 들어가는 훈련을 할 때는 사타구니의 예민한 부분들이 면도칼로 살을 찢는 것 같은 고통을 당하였다. 물에서 나오면 그러한 고통을 벗어나 보려고 몸을 문지르고 제자리 뛰기 등을 한다. 그러나 그보다 효과가 있는 것은 야전삼으로 엉덩이의 온도를 높이는 것이다. 서로 자진 신고를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모습이 얼마나 신기하였던지 지나가던 외국인이 사진 촬영을 하였다. 외국에게 까지 기록으로 남기고 싶지 않아서 촬영을 못하게 하였던 기억이 있다.

동기들 중에서 암벽을 잘한 사람 중에 이용춘이가 빠질 수 없다. 암벽은 주로 월출산으로 많이 갔다. 신입생 시절에는 암벽이 생소하고 호기심도 많았으며 불안하기도 하였다.

자일을 능수능란하게 다루기 위하여 여러 가지 매듭법 등 훈련을 하였고 암벽 등반 방식도 많이 훈련 받았다. 주로 선두는 김춘성, 이용행 선배가 많이 했었다. 이용춘이는 암벽도 잘하지



만 특히 심부름 등을 잘하여 최창돈 선배님으로부터 사랑을 독차지 하였다고 한다. 그림은 아마 이용춘이를 자신의 암벽등반 후계자로 키우기 위하여 사랑을 아끼지 않으셨던 최창돈 선배님인지 김평중 선배님인지 잘 모르겠는데 사진의 주인이 나타나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또 이용춘은 식사량이 많아서 정해진 식량으로 훈련을 할 때는 조원들을 생각하여 먹고 싶은 밥도 먹지 못하는 배고픈 설움을 참아야 고통을 당하는 일이 많았다. 그것은 아시던 이방기 교수님은 언젠가 월출산 훈련 등반할 때 이용춘에게 먹고 싶은 대로 먹을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라는 하명을 하셨다. 이용춘은 기

회를 놓치지 않고 5인용 코펠로 가득한 밥을 마파람에 계눈 감추듯이 다 먹어 치웠다. 그때부터 이용춘의 별명은 ‘5인용 한 코펠’인데 줄인 말로 ‘한 코펠’이 되었다.

이교태는 1학년 마지막 훈련등반을 하고 신고식을 해야 정식 산악회원이 되는데 집안 일이 바빠서 참가하지 못했다. 하지만 모든 일의 우선순위는 중요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평계 일 수도 있었던 것 같다. 마지막 훈련등반에 불참하면 산악회를 탈퇴할 수도 있었기 때문에 탈퇴하고 싶은 마음도 없었던 것은 아니다. 그 이유인즉 설악산 하계훈련등반 후 연산반도에서 열리는 산간학교에 참가 중 1년 선배 아무개의 횡포가 너무나 많은 충격과 고통이 주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산악회 탈퇴는 마음대로 할 수도 없었다. 그 이유는 훈련 마지막 날 이용행 선배가 이용춘 동기와 같이 무등산에서 유덕동까지 왔을 때 경운기 가지고 일하고 있었다. 이용행 선배와 진짜로 일이 바빠서 못 온 것인가 보려 왔단다. 일하는 모습을 보고도 하는 말이 ‘일이 바쁜 것은 평계고 신고식의 야전삽이 무서워 참가하지 않은 것이지’ 하면서 약을 올리고 기어이 데리고 가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한 덕분에 할 수 없이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갈 수밖에 없었다. 아버님은 바쁘시지만 자신이 일을 하신다고 하시면서 자식의 대학생활을 위하여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허락하여 주시었다.

지금 생각하면 무등산에서 유덕동까지 데리러 온 이용행 선배와 동기 이용춘에게 감사하고 또 데리고 오라고 한 선배님들과 동기들에게 감사한다.



1학년은 준회원이라 잘못하여도 2학년 선배들이 대신 맞았다. 어쩔 때는 선배들에게 미안하여 차라리 맞고 싶어도 1학년은 맞을 자격이 없었다. 털어서 먼지 나지 않는 사람은 없다고 매 산행마다 맞지 않고 그냥 지나갈 때가 거의 없었던 것 같다. 그림은 당사자들의 양해를 구하지 않고 올려서 미안하지만 가장 잘 맞고 잘 때리는 것으로 모범이 된다고 하여 대청봉에서 촬영한 김동신 선배의 뒷모습이다.

특히 암벽 등반을 가면 팬한 트집을 잡아서라도 맞았다. 좋게 이야기 하면 암벽 등반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정신 무장을 시킨다는 명목이다. 그도 그럴 것이 암벽 장비도 시간이 지

나면 폐기 처분을 하여야 하는데 학생들이라 경제 사정이 어렵다 보니 내구 연도가 지난 것을 사용할 수밖에 없어서 사고는 언제나 일어 날 수 있었다.

1학년을 마치고 2학년 진급할 때는 소위 신고식을 하는데 요령은 야전삽을 선배가 받기 좋게 들고 ‘전남대 산악회 16기 아무개는 15기 아무개선배님에게 신고합니다.’ 하고 야전삽을 주고 엎드린다. 야전삽을 받은 선배는 미리 약속한 5~6대씩 때린다. 선배들은 한 명당 5~6대씩 때리니 6명이면 30대를 맞았다. 신고식이 끝나면 뒤풀이는 선배들이 사주는 술로 위안을 삼는다. 김영기는 고통을 달래려고 얼마나 마셨던지 술을 먹다가 그대로 뒤로 넘어 지기도 했었다.

1학년 때 설악산 하계 훈련등반(10박 11일) 및 산간학교(4박 5일)의 15박 16일 장기 산행을 갔는데 16기는 김정호, 이도기, 이교태가 간 것으로 기억한다. 김정호 하는 말이 Summer School이 걸리지 않은 사람은 무조건 가야한다고 하여 자기는 다른 계획이 있었는데 할 수 없이 가게 되어 출발 전부터 불만이 없지 않았다고 한다.

설악산 하계 훈련등반 및 산간학교에서는 참가자 전원들의 오랜 기억에 남을 사건들이 많았다.

김정호의 ‘봉정암 직행 사건’부터 소개한다. 김정호는 조장 이용행과 같이 박명선 선배님 가게에서 외상으로 암벽장비를 준비하였다. 장기 등반 장비에 암벽 장비까지 포함되니 54kg의 김정호는 자기 체중보다 4kg이나 더 많은 58kg을 메고 등반을 해야만 했다. 가다가 쉬고 싶어

도 쉬었다 일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쉴 수도 없었다고 한다. 얼마나 힘이 들었는가를 상상하고 도 남는다. 체력의 한계를 느낀 김정호는 밥이라도 많이 먹어서 힘을 내려고 평소의 두 배씩 먹었다. 또 하중을 줄이려고 3인용 코펠에 쌀밥을 가득하고 호박2개, 감자4개, 양파2개로 된장국을 끓인다는 것이 국물이 없는 찌개를 끓이기도 한 적이 있다고 한다. 58kg을 짊어지고 외가평에서 백담사까지의 12Km를 쉬지도 못하고 줄곧 걷기만 하다 보니 그 고통과 어려움이 과히 짐작이 가고도 남는다.

마등령과 봉정암 갈림길에서 이용행 선배와 언쟁을 하면서까지 김정호는 도저히 힘들어 못 가겠으니 봉정암으로 바로 가자고 하였으나 조장인 이용행 선배는 허락하지 않았다. 할 수 없이 김정호는 조장의 명령을 거역하고 조장님 먼저 가면 따라 간다고 하고 혼자서 ‘봉정암 직행’이라는 메모를 남기고 봉정암으로 갔단다.

봉정암 사건은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었다. 김현곤 교수님이 김정호 결혼식의 주례사를 하실 때 봉정암 이야기 등으로 30분 이상을 하셨다. 신랑 김정호는 30분 이상을 서있기도 힘들었지만 일가친척들이 모두 모인 가운데에서 또 다시 봉정암 이야기가 나오니 민망하여 결혼식 중에 신랑이 주례선생님에게 감히 ‘교수님 이제 그만하시지요.’라고 말했지만 통하지 안했다고 한다. 따라서 그 스승에 그 제자라는 말이 나오기도 했다고 한다.

이도기는 평소에도 가끔 있었던 일이지만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20분 산행에 5분 정도 쉬는 데 막간을 이용하여 꿀맛 같은 단잠을 자곤 하였다. 그러니까 출발하려면 항상 ‘도기야 가지’하고 이도기의 잠부터 깨우고 나서 출발을 알리는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고 ‘전 대원 출발!’ 하였던 것 같다.

이교태는 1학년이지만 체력이 좋다고 4학년 이정옥 선배님과 둘이서 같이 죽음의 공룡능선 조에 속했다. 평상시에도 통행금지에 걸리면 이정옥 선배님 집에서 먹고 자는 신세를 많이 졌던 것으로 생각하는데, 출발 전에도 어김없이 이정옥 선배님 집에서 먹고 자고 준비를 하였다. 이정옥 선배님이 코치를 잘하여 짐의 무게를 많이 줄였으나 그래도 50Kg 정도는 되었다.

이교태 사건은 기차가 영등포역에 도착하였을 때 회장이며 등반 대장이던 김평중 선배가 ‘서울역에 거의 다 왔으니 내릴 준비를 하라’고 꿀맛 같은 새벽의 단잠을 깨웠다. 그러나 이교태는 비동사몽간에 서울역에 다 왔다는 말로 알아들었던 것이다. 정신을 차리려고 기차에서 내려 새벽 공기의 시원함을 느끼고 있는데 기차가 움직이기 시작하였다. 서울역에 도착했으니 가다 다시 서겠지 하고 기차를 타지 않았다.

기차는 떠났고 정신을 차려보니 서울역이 아니고 영등포역이었다. 비상금반 조금 가지고 아무 것도 없이 홀몸으로 떨어 졌으니 걱정이 태산 같았고 공포감까지 감돌았다. 참으로 난감하였다. 해결책을 찾기 위하여 모르면 물어가라는 말이 생각나서 역무원에게 사정이야기를 하였더니 원칙은 안 되지만 사정이 딱하였던지 다음 기차를 타고 가라고 알려 주었다.

덕분에 새마을호를 처음으로 타 보았다. 아침에 보는 배변 습관도 있었지만 이제는 안심이라 고 긴장이 해소되니 자연이 부르기 시작하였다. 배설의 기분을 즐기고 서울역에 도착하니 전 대원이 기다리고 있었다. 꾸중을 들을까 걱정을 하고 변명을 하였는데 역시 미련한 놈이 아니니 다음 기차를 타고 왔다고 하면서 너그럽게 그냥 넘어 갔다.

조금 있으니 평소부터 교류를 하던 경희대학교 산악회 회원들이 마중을 나와서 사준 설렁탕과 깍두기 맛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

산악회에 더욱 매력을 느낀 것은 어느 대학에서 산악회 활동을 하였어도 전국적으로 교류를 하니까 전국 대학 산악회가 하나 같이 서로 통하는 것 같아 산악회 활동에 보람을 느낄 수 있다 는 것이었다.

1학년 때는 체력단련이 되지 않고 요령이 없어서 유명산에 다녀와도 보이는 것이라고는 앞에 가는 선배의 발뒤꿈치뿐이라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어도 이정육 선배의 발뒤꿈 치만 보지 않으려고 노력한 덕분에 신선이 된 것 같았다. 아래 그림들 같은 운해 속을 걷기도 하고, 운해에 뛰어 들어 수영을 하고 싶은 충동을 느끼기도 하였다.



하게 설악산 훈련 등반에서 잊지 못할 사건들이 많았으나 특히 기억에 남는 것을 하나만 고르면 설악동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먹지 못하면 피로 회복도 느리고 병이 날수도 있기 때문에 평소 같으면 먹을 수 있는 양이고, 또 먹고 싶어서 한 밥이지만 너무 피곤하고 지쳐서 식욕이 떨어졌기 때문에 아무리 억지로라도 먹어 보려고 해도 입안에서 모래알들이 굴러다니는 것 같아 물을 맡아서 먹으려고 하여도 밥을 먹을 수가 없었다. 밥은 많이 남았고 여름이라 빨리 변하기 때문에 먹을 수 없는 밥은 버릴 수 밖에 없었다. 이것을 목격한 김용우 선배님이 떨어졌다.

밥을 버리다 걸린 사람들은 모두 갑자기 인간 병아리가 되었다. 왜냐하면 마치 병아리가 물 한 모금 먹고 하늘 한번 쳐다보는 식으로 노래 한곡 부르고 먹기 싫은 밥을 한 숟가락씩 먹어야 하는 곤욕을 당했기 때문이다.

하계 설악산 훈련등반을 마치고 전북 부안의 내소사에서 여름산간학교에 설악산 산행을 했던 전원이 다 같이 산간학교를 참석했다.

산간 학교 도착 첫날에는 친선 목적으로 말뚝 박기 시합이 있었는데 그날의 최고의 선수는 김평중 선배와 김선지 선배가 그날의 MVP가 되는 것 이었다 그 이유는 다른 대학 사람들은 손으로 말의 등을 누르고 뛰어 올라 타는 것인데 두 선배님들은 등도 누르지 않고 그대로 날아서 말을 지지하려고 서서 벼티는 말의 가슴을 머리로 받아버리던지, 아니면 공중 부양을 하여 상대방 말들의 허리나 등을 낚차를 이용하여 박았다. 그러면 말들은 당연히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바로 무너지는 것이었다.

둘째 날은 아풀로 눈병이 번졌는데 하필이면 어제의 MVP이었던 김평중 선배가 아풀로 눈병에 걸렸다. 한쪽 눈에 안대를 하고도 아랑곳하지 않고 의기양양하고 용감한 것이 마치 어제의 MVP가 변신하여 외눈박이 후크 선장이 된 것 같았다. 그리고 김정호는 내소사의 변소에 가서 별 희한한 일도 있었다면서 말도 않고 혼자서 웃기만 하는 것 이었다 나중에 알아본 즉 그때만 해도 내소사 화장실의 앞문이 없었다. 따라서 신문으로 앞을 가리고 볼일도 보고 신문도 보는 일석이조의 횡재를 하고 있는데 호랑이가 장가를 가는지 갑자기 소나기가 오는 것이었다. 무더운 여름에 웬 소나기야 하며 반가워서 여름에 제일 힘든 일 하나에 더하여 공부까지 하느라 훌리던 땀을 식히려고 소나기를 보기 위해서 앞을 가리고 있던 신문을 내려 보니 소나기는 오지 않았다. 하도 이상하여 살펴보니 앞 칸에서 어떤 여학생이 소변보는 소리가 소나기 소리로 들렸다고 한다. 과장은 좀 심한 것 같지만 젊은 나이에 참았던 배설의 기쁨이 그 정도는 되어야 힘든 산고의 고통도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니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는다. 그런데 과연 압력이 강하고 낙차가 심하면 소변 소리와 소나기 소리가 비슷할까요? 여러분이 상상의

나래를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3. 교외에 산악회관 운영

교내에 산악회관이 없어도 학생생활연구소에서 항상 모일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셨다. 그러나 다른 동아리들도 같이 이용을 하니까 불편한 점이 없는 것은 아니었다.

김춘성 총무님이 발의를 하여 교외에 전남대학교 산악회관을 운영해 보자는 것이었다. 김춘성 선배의 의견은 반영이 되었고 계림동의 2층 건물에다 전남대학교 산악회관이라는 현판식도 하였다.

산악회관이 교외에 있으니 새로 집을 장만한 것 같아서 월세나 전셋집을 전전하면서 당한 설움을 한방에 날려 버린 것 같아 좋았다. 편리한 점이 너무나 많았다. 남의 구애를 받지 않고 아무 때나 모일 수 있고 산에 가기 위한 준비를 할 때도 시내에서 하니 다른 학생들로부터 산에 미친 학생들이라는 따가운 시선도 피할 수 있었다. 특히 식당이나 술집에서 내는 자릿세를 절감할 수 있어서 산에 다니면서 드는 비용이 많아 부족한 향토 장학금을 보충하는데 도움이 되었다.

산악회관 운영 자금은 아마 김춘성 선배가 많이 부담한 것 같다. 왜냐하면 자신의 자취방을 회관으로 옮겨 생활하셨다. 그러나 회관은 바로 도로변이라 새벽까지 어찌나 시끄러운지 통행 금지에 걸려 어쩌다 한 번씩 자려면 잠을 깊은 잠을 잘 수가 없었다. 물론 시끄러우니 공부에 집중하기는 더욱 어려웠다. 그리고 보면 김춘성 선배는 산악회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을 한 사람 중에 둘째가라면 서러울 정도일 것 같다.

4. CROSS COUNTRY대회

일반적으로 산악회 회장을 맡으면 산악회 행사 중 제일 큰 행사인 총장기 쟁탈 전남북 고교 및 대학생 CROSS COUNTRY대회를 한번만 해도 되는데 나는 두 번이나 하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왼쪽 그림은 용봉축전의 일환으로 시가행진을 할 때 산악회도 참가하여 도청 앞을 지나가는 모습이다. 오른쪽 그림은 무려 한 달 정도 훈련을 하여 공과대학이 종합우승을 할 때의 결승점 바로 전 모습인데 변색이 되어 포토샵으로 작업을 하였지만 아직 미숙하여 뒤에 있는 두 사람의 얼굴을 알아보기 힘들어 설명을 하면 이용행 선배 바로 뒤가 김제승이고 그 옆이 이교태이다 이용행 선배 옆에는 중간에 탈락하여 산악회 정식 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실명은 생략



한다. 다른 해에 이용춘도 종합우승을 한 적이 있는데 사진이 없어서 여기에는 올리지 못한 것 이 아쉽다.

선배님들이 부러워하는 16기(김영기, 김제승, 김정호, 마영기, 이교태, 이도기, 이용춘)에서 김영기가 회장으로 인선되었을 때 김제승이 총무를 하면서 도와주었는데 사정상 김제승이 군 대에 입대를 하였기 때문에 여학생이 총무를 한 상태에서 하계 한라산 훈련 등반을 갔는데 김 영기 회장은 지도교수님과 선배님들로부터 불신을 당하였다.

15기 신갑웅 선배는 이교태에게 회장을 하라고 하였다. 그러나 회장 인선 과정에서 신갑웅 선배가 한 말도 있었고, 그동안 미진한 공부도 하고 싶으니 못한다고 하였다. 언제가 학교 당산 나무 집에서 오전부터 점심도 먹지 않고 저녁 6시 까지 술을 마시면서 회장을 하라고 하였으나 못한다고 하였다.

친구와 7시 시내에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겨우 자리를 피할 수 있었고 약속 장소에 친구를 만나러 가서 만난 것 까지만 기억을 하고 다음날 점심때까지 술이 깨지 않았고 두통이 심하여 도무지 기억이 나지 않아 친구에게 전화하여 알고 보니 시내에서 집에 까지 오면서 택시에 토하고 난리가 났다고 한다.

악몽의 그날은 술 먹고 처음으로 의식을 잃어버린 날이기도 하지만 가까운 친구에게 실수를 너무나 많이 하기도 한 날로 기억이 남는다. 가까운 친구에게 어찌나 미안한지 말로 표현할 수 없었다. 아마 그 뒤로 술을 먹으면서 취하지 않도록 노력하였고 취하더라도 의식을 잃지 않도록 하려고 노력을 하고 조심을 하였던 것 같다.

술 먹을 때 하는 말로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고, 술이 술을 먹고,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한다. 사람이 술을 먹을 때까지만 술을 먹으면 실수하는 일이 적어지는 것 같다.

며칠 후 그동안 미진했던 공부를 하려고 같이 도서관에 다니던 14기 김춘성 선배가 이야기 좀 하자고 하였다. 내용인즉 ‘우리는 전남대학교 산악회의 부름을 받았다. 할 수 없다. 선배인 내가 총무를 할 것이니 네가 회장을 해야 한다.’고 하시는 것이었다. 용납할 수가 없어서 거절하면서 꼭 그래야만 하냐고 반복하여 물어도 대답은 하나였다. 전남대학교 산악회를 위하여 우리가 희생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나는 더 이상 못한다고 벼틸 수가 없었다. 그래서 16기 이교태가 회장을 하고 14기 김춘성 선배가 총무를 하기로 하였다. 지금 생각하면 잘 한 결정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산에 다니다 미진한 전공 공부를 하여 자신의 진로를 찾으려고 하는 선배를 도와주지는 못하고 방해하였던 같은 생각이 든다. 한편 동기 김영기를 도와주지 못한 것도 후회하며 항상 김영기에게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

한학기가 지난 뒤의 일이라 우선 회칙 변경을 해야 했다. 그런데 복병이 있었다. 17기의 일부에서는 자기들의 회장 임기가 반년 늦어진다고 반발이 있었으나 시간이 자나면서 전체의 반발로 확산이 되었다.

설득하는 과정 중에 반발이 거세지자 선배님들로부터 17기 한 기수가 없어도 산악회는 존재하니 계속 반발하면 17기 전부를 제명시키라는 엄명이 떨어졌다. 결국은 각개전투 전법으로 격파하여 17기 전부를 제명시키는 불상사가 일어나지는 않았다. 회칙은 3학년 후 학기부터 4학년 후학기로 개정되었다.

5. 지리산 동계 적설기 등반

정식 산악회 활동을 하면서 훈련도 교육도 받지 않고 가벼운 마음으로 겨울에 산에 가서 사고가 많이 나기 때문에 부모님의 허락을 받기가 다른 산행에 비하여 어려움이 적지 않았다. 그러니 더욱 더 신경을 써서 준비를 해야 했었다. 또 위험하기도 하고 준비할 것도 많았다. 지리산 동계 적설기 훈련 등반 6박 7일을 가기 위하여 거의 한 달 이상 준비를 하였다.

산악회관이 교외에 있으니 적설기 준비할 때 더 큰 도움이 되었던 것 같다. 학생들이 돈이 없으니 적설기 훈련 등반에 필요한 장비를 사기가 쉽지 않아서 아이젠, 피켈 등은 선배님들에게 빌렸지만 설피를 만들기 위하여 산에서 나무를 구해다가 불로 구부리면서 만드는 과정은 자유로운 쓸 수 있는 넓은 공간이 필요했던 것 같다.

산에 갈 때마다 표식 천을 거의 만들었지만 적설기 등반에는 더욱 필요하였기 때문에 표식 천을 만들었다. 천을 사다 잘라서 지워지지 않는 잉크를 사용하여 ‘전남대학교 산악회’라는 기

다란 고무인을 찍었다. 천을 절단할 때 칼이나 가위로 자르면 천의 옆이 빠져서 쓸 수가 없었다. 그래서 전기인두로 절단하였다.

적설기 등반은 빙벽 등반과 설동을 만들기 위하여 적설량이 많은 시기와 장소를 택한 것이 지리산 철선 계곡이었다.

적설기 등반에서 특별하게 기억에 남는 것은 추운 곳에서 대변을 보는 것이 어렵다고 대변을 참기 위하여 곶감을 준비하여 먹었다. 곶감을 먹으니 과연 대변보는 횟수는 줄었다. 그러나 변비가 걸려 걸려서 대변보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고통은 심했고 냄새 또한 지독하였다. 또 하나 기억에 남는 것은 천왕봉을 공격할 때의 사건으로 숨겨도 되는데 솔직하고 순진한 17기 아무개 후배가 자진하여 고백한 사실로 얼마나 힘이 들었던지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배설이 되었다고 한다.

마지막으로 남는 기억은 우리는 일주일을 위하여 한 달 이상을 준비하여 갔는데 운동화나 짐지어 슬리퍼까지 신고 등에는 기타를 메고 온 사람들이 있었다. 참으로 어이가 없었다. 그런 사람들 때문에 동태 인간들이 탄생을 하고 정식 산악 훈련을 받은 산악회원들이 피해를 보기도 한다. 그 당시 적설기 사진이 없어서 참고로 보관 중인 다른 사진을 소개한다.



6. 전남학생산악연맹 맥 연결

전남학생산악연맹은 광주교육대학교, 전남대학교, 조선대학교의 학생들과 OB들로 매년 행사를 하다 맥이 끊어졌다.

여러 지도교수님들과 선배님들 몇 년 동안 맥이 끊어진 전남학생산악연맹에 대한 아쉬움이 많았고 맥을 연결해야 한다는 선배님들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한다.

1975년 당시 광주교육대학교 산악회 회장 서춘기, 총무 한송렬, 조선대학교 산악회 회장 전호권, 총무 송하중, 전남대학교 산악회 회장 이교태, 총무 마영기가 여러 차례 만나 전남학생산악연맹의 맥을 연결해야 한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려고 하였으나 아마 조선대학교가 조금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하지만 가는 길에 항상 광주교육대학교를 먼저 가서 같이 조선대학교로 갔던 것 같다. 그러니까 광주교육대학교 산악회 회장 서춘기와 총무 한송렬의 역할이 중요하고 협조가 잘 되었던 것 같다.

각자 자기 대학의 지도교수님들과 선배님들께도 전남학생산악연맹의 맥은 꼭 연결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여 그 필요성을 느끼도록 한 다음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도록 분위기가 조성되었다.

날짜와 장소를 정하여 소집만 하면 될 수 있도록 기초 작업을 한 것으로 안다. 다음 일은 후배들의 목으로 넘겼던 것으로 기억한다.

후배들은 이러한 사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자기들이 전남학생산악연맹의 맥을 연결했다고 한다. 그도 그럴 것이 전문대학들이 없었던 시절 3개 대학에서 번갈아 가면서 행사를 하다가 어느 대학인가 평크를 내서 전남학생산악연맹의 맥이 연결되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맥을 연결하려고 하니 3개 대학의 분위기 조성이 쉽지 만은 안했던 것 같다. 그러나 후배들은 전문대학을 포함하였으니 큰소리 칠만도 하다.

동기인 김정호는 군대를 전역 후 복학 하여 초대 회장을 하였는데 그때에는 광주서강전문대학과 광주동신전문대학(현 동강대학 자리), 광주보건전문대학들이 산악회를 신규로 조직하였다. 기존의 조선이공대학(조대 공전)을 포함하여 전남대, 조선대 산악회 회원들로 학생산악연맹을 결성 하여 카톨릭 센터 7층 대강당에서 창립총회를 실시하였다.

창립등반을 무등산 일원에서 할 때에는 참가한 총회원수는 340명 정도나 되었기 때문에 각 대학별로 산행코스를 정하여 산행기로 하였으나 조직력이 미약한 상태에서 많은 수가 산행에 참석하여 각 대학의 회장단들이 야전삽으로 두 차례나 얻어맞았는데도 본부의 진행요원들이 자신들의 얼굴을 정확하게 알지 못 한다는 맹점을 이용하여 각 대학의 남자회원들은 다른 대학의 예쁜 여자회원들과 같이 산행하고자하여 자기대학의 코스를 이탈하는 회원들이 많았으나 전부 통제할 수가 없었다.

산행 후 마무리로 옛 동구청 뒤편의 짱뚱어탕 집에서 막걸리와 식사의 값이 60만원이나 되었으나 각 대학별로 회비 거출이 어려워 김정호는 금호타이어에 입사한 후 월급을 타서 그 외

상값을 3년에 걸쳐서 갚았다니 무던하기도 하다.

언제가 월출산에서 학생산악연맹 합동등반을 한다기에 연맹의 맥을 연결하려고 노력한 나는
감회가 새로워 OB의 자격으로 참석하였다.

그날의 불침번 순서는 4년제 대학 위주로 편성되었다. 불침번 순서는 선배들의 예우 차원에
서 선배 위주로 편성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러나 특별한 경우는 선배들이 솔선수범하여 후배들
위주로 편성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한 것을 모르는 전문대학에서는 불침번 순서가 불공평하다
고 항의가 들어 왔다. 학생산악연맹회장인 김정호는 전문대학생들을 설득하다가 할 수 없이 본
부 진행 본부장 송희범 선배님께 전문대학생들의 불평이 있으니 개선하자고 건의를 했으나 건
의는 묵살되었다. 김정호는 자청하여 김용우 선배님에게 야전삽을 드렸다. 자기들을 대표하여
얻어맞는 회장을 보고도 반성하지 못한 전문대학생들은 심지어 하산하겠다고 하면서 반발이
심했다. 이러한 전문대학생들을 진정한 산악인으로 끌우기 위하여 고생한 동기 김정호의 노고
에 찬사를 보낸다.

7. 학생의 날 기념 국회의장기 쟁탈 60Km 국복등행대회

학생독립운동사건은 광주에서 일어났는데, 학생의 날 기념 학생의 날 기념 국회의장기 쟁탈
전국등산대회는 대구 팔공산 일원에서 하고 있었다.

이 대회는 5인 1조로 팔공산에서 3박 4일간 산행과 16km 구보로 되어 있었고 산행과 구보
의 점수를 합산하여 시상을 하였고, 구보는 16km나 되고 어려우니 따로 시상을 하였다.

홈그라운드 이점 등이 있어서 인지 종합우승이 다른 지역으로 나가본 본적이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13기 이정옥, 양형렬, 김나연, 고명권 선배님과 정식 산악회원이 아니기 때문에 실명을
생략한 선배님 한분이 포함하여 5명이 타 지역 선수들로서는 처음으로 종합 우승을 차지하는
이번을 일으켰다고 한다.

또 한 번의 이번은 이용행(15기), 김영기(16기), 이교태(16기), 이도기(16기), 전춘생(17기) 5
명의 선수가 산행 우승과 구보 1위를 차지하여 종합우승을 하였다. 이 대회에 참가하기 위하여
한 달 정도 훈련을 하였는데 김평중, 김선지, 김춘성, 이준호, 심근 선배들이 변갈아 가면서 국
밥을 사주시어 영향 보충을 하였던 것으로 특히 이용행 선배가 기억이 생생하다고 한다.

종합 우승의 영광을 차지한 것은 선수들이 끈질긴 승부 균성으로 열심히 했지만 멀리서 가까
이서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선배님들과 후배들의 도움이 크다고 생각한다. 같이 가신 선배

님으로는 김용우 선배님과 박향식 선배님이 대회 심판으로 참석하셨다. 그리고 김평중 선배와 이준호 선배는 감독과 코치를 번갈아 가면서 직접 진두지휘를 하며 지도하여 주셨다. 후배 송희태는 선수들과 선배님들의 손발이 되어 여러 가지 힘들 일들을 많이 하여 도움이 많았던 것으로 생각한다.

이도기는 훈련과정에서부터 무거운 짐을 지고 달렸기 때문에 등창이 나서 배를 붕대로 감고 점심을 먹은 것이 소화가 되지 않고 배가 아파서 도저히 구보를 할 수가 없었다고 한다. 4명을 먼저 보내고 혼자 뒤로 쳐져서 자기 때문에 우승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아무리 달려 보려고 하여도 달릴 수가 없어서 차라리 토해버리는 것이 현명한 생각이라고 판단하고 김평중 선배의 도움으로 억지로 토하고 나니 몸이 가벼워져서 먼저 간 4명과 합류하여 달릴 수 있었다. 그런데 결승점 1km 전에서 조장인 이용행선배가 피로가 누적되어 지치기 시작했는데 이도기가 부축하여 힘이 내면서 격려하여 구보 1위로 골인하였다.



좋은 텐트 칠 장소를 선점 후 선착순 텐트를 치고 막간을 이용하여 촬영



종합 우승을 하고 시상식을 하는 장면



전남대학교 본부 앞에서 총장님을 기다리면서 촬영



전남대학교 본부 앞에서 총장님을 기다리면서 촬영

제5절. 1980년대

1. 주요등반 및 행사

1982	일본 북알프스 등반
1986. 1. 28. 17:00	설악산 토왕폭 등반
1986 – 1988	무등산, 월출산, 유달산 암벽 개념도 작성
1988. 11. 19.	창립 30주년 기념세미나
1989. 11.	동계 백두산 등반
1989 – 1990	동계 에베레스트 원정대원 (정순택, 김하경, 정태영, 이정옥, 김인주, 장희, 이연근, 임우근, 한민수, 최행준)

2. 설악산 토왕폭 등반 성공 (1986. 1. 28. 17:00)

토왕폭등반은 히말라야를 꿈꾸는 대학산악부에게는 늘 마음에 두었던 목표이기도 하다. 서울에 거주하는 OB산악회 회원님들의 장비지원 아래 토왕폭등반은 조규상회원 중심으로 준비되었다. 86년 동계 설악산 등반대(이은수 외11명)는 20박 21일간의 일정으로 출발하여 양폭계곡에서 실시한 학생산악연맹 주최 동계등산학교에 참가하였고 수료후 토왕폭계곡으로 이동하여 등반을 시도하였다. 토왕폭 하단 좌벽 아래 동굴에서 전진캠프를 설치하였고, 상단등반시에는 중단 우측 설사면에 또 한번의 전진캠프를 설치하였다.

2008. 1. 26. 오후 1시 30분 서옥원(82학번)과 조규상(80학번)대원이 토왕폭 하단등반을 시작했다. 서옥원대원이 선등했으며 조규상대원이 후등했다. 등반을 마치고 하단 동굴 전진캠프에서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등반을 시도하려 하였으나 단독등반 시도팀이 있어 그의 등반 성공을 위해 상단 등반은 하루 연기했다. 1월 28일 4시 30분에 이은수(81학번)대원과 서옥원(82학번)이 중단의 파란 빙폭 등반이 시작되었다. 서옥원 대원이 선등을 했고 14시 35분 이은수 대원이 상단테라스에 도착하여 등반을 마쳤다(하단-서옥원 · 조규상, 상단-서옥원 · 이은수). 대학산악부로서 대단한 자부심을 갖게하는 날이 되었다.

새로 구입한 아이스햄머와 하켄(snag)의 도움으로 70m지점에서 두 대원이 한번 만났고, 아이스 하켄을 회수하면서 등반한 이은수대원이 17:00 정상에 도달하니 두 대원은 기쁨을 함께 했다.

3. 3권의 악우지 발간

1963년 6월 15일 30면 등사판으로 창간(創刊)되어 1980년 49쪽의 악우(岳友) 제6호(1980.

4. 15. 발행)지가 발간되었다.

"한발짝 앞으로 무한히 원을 그리기 위해서 우리는 팔을 앓아야한..." (윤미숙, 편집후기)

"1980년 1월 12일부터 20일까지 설악산 일원에서 개최된 6회 등산학교 동계반에 22기 이홍재군과 박현군이 참가 수료…… 짜집기 박은 수료증은 틀림없이 받았다고 강력히 주장"(산악회 소식)

"산에 미치다 보니 양동시장에 매일처럼 들리게 되고, 그때는 미군잉여 장비를 구하기 위해 양동시장을 도서관 드나들 듯 했다. 미군 파카에서 수통, 군화, 나침판에 이르기까지 군용장비가 고스란히 등산용으로 쓰였던 때였다"(OB산악회 회장 신귀현, 전남대학교 산악회발전사)

그 후로 174쪽의 악우(岳友) 제 7집(1986. 12월) 발행되었고, 196쪽 악우(岳友) 제 8집이 1987. 12월에 제 9집이 1989년에 발행되었다. 당시 산악회원들의 큰 숙제로 여겨져 2년후 1985년에 산악회 입학한 회원이 군복무를 마치고 4학년이 되던 해에 162쪽의 제10집(1991. 8월)이 출간되었다.

악우지 제7집의 출력방식은 그동안 등사판 방식에서 인쇄 활자본으로 바뀌어 출간되어 많은 분량을 담아냈다. 특히 하계 및 동계등반의 시간대별 일기식 표현의 글이 등재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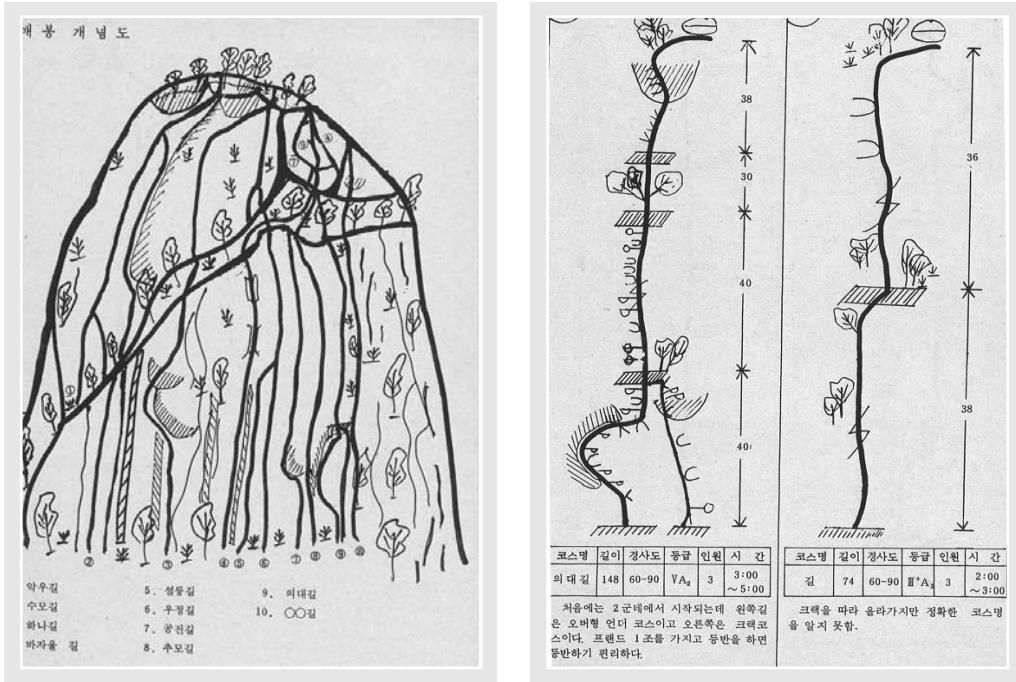
악우지의 모습은 회가, OB회장의 권두언, 재학생회장의 인사말, 지도교수 격려사로 서론이 편집되었고, 해외등반사 및 장비대한 외국서적의 번역과 당시의 등산사조에 평가 등을 담은 기획부분, 하계 및 동계 장기등반 보고서와 등산학교 보고서등으로 이루어진 등반보고서 부분, 첫 산행의 느낌을 시나 수필 등으로 문예부분, 끝으로 년간 산행일지와 다음연도 산행계획 그리고 OB회원을 포함한 회원 주소록을 담은 부록편으로 편집되었다.

여러 연유로 현재의(2008년) OB회원명부에는 없지만 첫 산행의 느낌, 장기산행의 기록, 시나 수필을 등재한 당시의 회원의 이름을 볼 수가 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리워지고, 서로 연락하지 않고 있는 당시의 많은 회원들과의 만남은 50년사를 발간하면서 앞으로 풀어야 할 큰 숙제라 여겨진다.

"훈련 등반을 마치고, 몸체만한 배낭을 깽깽대며 터미널까지 걸어가는 모습에 걱정하는 언니의 눈초리를 뒤로 한 채 진주행 버스에 몸을 실었다. 떠나기전 선배들의 경험담과 내리는 비는 나를 더욱 더 불안스럽게 했다. 라면으로 점심을 먹고 돈키호테의 심복 산초가 입었을 것 같

은 판초우의를 입고, 산악회 입회후 첫 등반길에 올랐다. 중략”(악우 제 10집 수필)

특히 7집과 8집에는 86~87년 2년에 걸쳐 무등산, 월출산, 유달산의 암벽등반 코스를 측정하여 암벽의 형태, 위치, 방향, 자연조건 등을 상황에 따라 일정한 기준을 두어 코스명, 길이, 경사도, 등급, 등반시간(3인기준)과 개념도를 포함했다.



4. 전남대학교 산악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1988. 11. 19)

전남대학교 산악회 창립 30주년 기념행사가 1988년 11월 19일 공과대학 VTR실에서 300여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자축행사를 갖었다. 1부에서는 정종교수의 30년 희고사, 산악운동의 발전방향(정순택), 자연보호와 산악운동(김병준) 등 주제발표가 있었다. 2부에서는 본교 운동장에서 다과회 및 캠프파이어 행사로 성황리에 행사가 진행되었다.

30주년 기념 행사이후 백두산 등반, 그렇게 하고 싶었던 알프스 3대 북벽 등반, 히말라야 원정대를 꾸렸고 최고봉 에베레스트가 등정되었다.

5. 여성회원의 증가

지방대학국립대학의 여건과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급격하게 증가되면서 산악부 여성회원 입

회자도 급격하게 증가되기 시작하였다. 장기등반과 고된 훈련 등 남성위주의 산악회 분위기도 회원확보가 중요한 사업으로 진행되면서 여성회원도 적극 받아들여지게 되었고 어느 산행 때는 대장을 제외하고는 모두가 여성회원만 가는 산행도 있었다. 그렇지만 열의가 대단한 여성회원들의 고충도 많았다.

휴일이면 가볍게 근교의 산을 오르는 것은 찬성하면서도 여성이 중량의 배낭을 메고 장기산행을 한다거나 암벽을 하는 모습들을 보고는 가시가 박힌 말들을 한마디씩 하고 하는게 오늘의 여성 산악회원들의 현실이다. –중략– 가장 평등하다는 대학 그것도 남녀임을 가장 가리지 않은다는 산악회에서 왜 아직도 여성 회원들의 위치는 불확실한가? (악우 제10집. 산악회에서 여성의 위치)

27기 강미라 회원은 대학에서 진행하는 크로스컨츄리 뿐만 아니라 조선대, 목포대에서 주최하는 등반대회에서 우승하기도 했다. 그후 우리 여성회원들이 대통령등반대회서 우승하는 일도 여성산악회원의 증가가 발도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학생이라는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사회적 제약이 있었던지 들어오는 신입생의 숫자에 비해 4학년까지 함께하는 회원이 극히 적었던 것은 남학생이 회원이 한명이 아쉬운 지금(2008년) 현실을 감안하면 회원관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했어야 한다고 보아진다.

남학생 동기들의 군 복무 등으로 그 기수의 역할 혼자 다 해내는 여자 회원도 있었다. 그 대표적 회원이 공화심(28기) 회원이다. 바로 아래 기수(29기)와 그 다음(30기) 회원의 많은 수를 다 감당해 냈다. 장기 등반시 조장의 역할 뿐만 아니라 술 마시고 나서 술값이 모자라 해결해 달라고 도움을 요청하는 일이 많았는데 웃는 얼굴로 다 해결해 주었으니 후배들에게는 선배보다는 누나, 어머니 같았다. 한번은 돈이 없다고 집에 있는 통장을 들고 나와 통장을 주인에게 맡기고 후배들 술값을 해결 하였으니 말이다. 2학년의 역할은 신입회원을 조장이 될 때까지 산을 알려주고 이끌어 주어야하는 큰 임무가 주어지는데 큰 배낭을 메고 맨 앞에 섰고, 힘든 산행중에 1학년의 불만을 다 이해하고 밥하고 배낭 꾸리는 교육을 다 해냈으니 참 대단한 회원이었다.

6. 산행행사 행태

신입생이 입회하면 춘계등반을 마쳐야 회원으로 암묵적 동의가 있었고 하계나 동계장기등반을 마쳐야만 정회원 인준이 되었고, 정회원 인준이 된 후도 장기등반은 필수의무가 되어 하계

장기등반시에 대부분의 회원이 참가하였다.

1986. 7. 13~ 7. 28까지 실시한 86년 하계 장기등반(종주 및 설악산)은 지도교수(이계윤)를 비롯해 26명이(대장:임우근) 참가했다. 당시 다른 대학산악부 참가인원(5~6명)에 비해 월등히 많음에 따라 타 대학부의 부러움을 샀다.

80년 민주화 학생운동바람이 거세지면서 이념적 동아리 모임이 잣아지고 이념적동아리 회원들의 적극적인 회원 확보 운동과 취업에 대한 어려움이 동아리 활동에 대한 소극적인 생각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산악회원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 그리하여 적극적인 회원확보 계획을 마련하여 왕성한 산악활동을 꾀하고자 하는 덕택으로 85년, 86년, 입회한 회원들의 활동이 왕성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침체되어가는 산악회를 활력하게 보이게 하는 면도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이어가지 못하다가 참교육세대라 일컫는 90학번의 들어오면서 활기찬 동아리 모습을 갖게 되었다.

활기찬 동아리 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 진 것은 김재률(물리학과교수) 회원과 이계윤(체육교육학과)회원의 지도교수 역할이 있어 가능하였다. 또한 군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복학생들의 신입회원 확보 노력이 많은 회원을 가지게 하였다.

7. 주요산행일지

*86 ~ *86 산 행 일 카				
대 상 지	일 카	대 철	목 적	
월 출 간 R.C	*85 9. 7 ~ 8	17 명	관련운전	
수 체 두동산 훈련	9.21 ~ 22	15 명	산행 74 대간 송강운전	
전대 초대 세율 대회	10.31	08:10경 174명	전대 초대 관장회관련	
두동산 R.C	11.2 ~ 3	16 명	관련운전	
제1회 전남, 꿈의 두동산 장관 훈련	11.9 ~ 10	12 명	전국도로, 기술교류	
두동산 훈련	11.15 ~ 16	6 명	독도경, Team work	체험
초대 C - C 대회	11.26	16 명	남. 악 우승	
동계 두동산 훈련 등반	12.26 ~ 28	15 명	동계 경로 운전	
두동산 출입생 활동등반	12.28 ~ 29	08:17경 19:17 등반	출입생 운전 총회	
설악산 동계 경기 등반	*86 1.15 ~ 16	12 명	설전, 새해 운전	
월 출 간 R-C	3.8 ~ 9	16 명	관련 가로 운전	
작 비 선 시 회	3.17 ~ 19	31 명	금이소개, 청관도경	
신령강 환경 등반	3.19	08:30경 19:20 등	신령강 환경 13 경	
월 출 간 R-C	3.6 ~ 7	16 명	서부통 관전	
세미산 춘추 등반	5.3 ~ 5	12 명	Team work	체험
한산 세월 대회	5. 17	08:10경 19:20 등	한산권 대학연합, 신길도로	
전. 후계 세월 대회	5. 16	08:20경 19:20 등	전선도로, 기술교류	
제 17 회 전대, 평내 양동돌반 (두동산)	5.17 ~ 18	08:10경 19:20 등	전남역, 경북 대 선봉도로 % 하계 경기 대회 출장 운전	
춘계 두동산 훈련등반	5.24 ~ 25	13 명	Team work	체험
제 21 회 전대 C-C 대회	6. 12	날짜:72 역사 19	제 21회 출장기 C-C 우승 남한국대학연합 대회 우승	
하계 설악산 경기 등반	7.17 ~ 28	25 명	관동 송강 운전	
한산 세월산 등산학교	8.14 ~ 19	11 명	동간 경로 경기 습득	

- 159 -

◎ 86년 후반 87년 전반기 산행일지
◎ 86년 후반기 산행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월출산 암벽등반 (9.6 ~ 7) 13 명 ○ 무등산 암벽등반 (9.20 ~ 21) 14 명 ○ 월출산 등산학교 암벽반 (10.1 ~ 5) 12 명 ○ 목포대 C-C 우승 (10.9) 12 명 ○ 무등산 등반 (9.18 ~ 19) 15 명 ○ 조선대 C-C 출전 12 명 ○ 월출산 추계 훈련등반 (11.15 ~ 16) 9 명 ○ 전. 초대 체육대회 (11.30) 제 25 명, OB 27 명 ○ 무등산 등반 (12.6 ~ 7) 7 명 ○ 무등산 등계 훈련등반 (12.26 ~ 27) 18 명 ○ 무등산 출업생 활동등반 (12.27 ~ 28) 21 명
◎ 87년 전반기 산행일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설악산 등계 장기등반 (1.5 ~ 24) 14 명 ○ 장비 전시회 (3.16 ~ 18) 16 명 ○ 월출산 암벽등반 (3.21 ~ 22) 13 명 ○ 신인생 환영등반 (3.29) 제 12 명, OB 10 명 ○ 의상봉 암벽등반 (4.4) 12 명 ○ 춘계 훈련 등반 (4.11 ~ 12) 제 29 명, OB 4 명 ○ 신. 후배 체육대회 (5.5) 제 21 명 ○ 연평 체육대회 (5.10) 10 명 ○ 쇄인봉 암벽 (5.16 ~ 17) 14 명 OB 2 명 ○ 지리산 농선 등반 (5.23 ~ 24) 24 명 ○ 월출산 암벽등반 (5.30 ~ 31) 10 명 ○ 전남대 Cross-country 대회 (6.10) 남자팀: 53, 여자팀: 10 ○ 소백산맥 장기등반

'88 학년도 산행 및 행사보고		1989년도 행사 및 산행계획서(전남대 산악회)	
<전학기>			
1. 월출산 암벽등반 · 3.12 ~ 3.13 (1박 2일) · 참가인원 : 13명		1. 88학년 등계 · 일시 : 1.8 ~ 1.10 (5박 6일) · 참가인원 : 6명	
2. 장비 전시회 · 3.16 ~ 3.18 (2박 3일) · 참가인원 : 50명		11. 월출산 암벽등반 · 일시 : 9.3 ~ 9.4 · 참가인원 : 10명	
3. 월출산 암벽등반 · 3.19 ~ 3.20 (1박 2일) · 참가인원 : 10명		12. 월출산 훈련등반 · 일시 : 9.10 ~ 9.11 · 참가인원 : 29명	
4. 신입생 환영등반 · 3.27 (당일) · 참가인원 : CB선배님 (10명) YB (22명)		13. 전남복대 힐링등반 · 일시 : 9.17 ~ 9.18 · 참가인원 : 36명	
5. 월출산 암벽등반 · 4.9 ~ 4.10 (1박 2일) · 참가인원 : 6명		14. 광산 힐링등반 · 일시 : 9.30 ~ 10.3 · 참가인원 : 8명	
6. 춘계 훈련등반 (무등산) · 5.14 ~ 5.15 (1박 2일) · 참가인원 : 28명		15. 북대 C-C · 일시 : 10.13 (당일) · 참가인원 : 2팀 9명	
7. 연예 체육대회 (금파광고) · 5.29 (당일) · 참가인원 : 13명		16. 전·조대 체육대회 · 일시 : 10.23 · 참가인원 : 20명	
8. cross-country (무등산) · 6.15 · 참가인원 : 300명		17. 인수봉 등반 · 일시 : 10.30 ~ 11.1 (2박 3일) · 참가인원 : 9명	
9. 해제 경기등반 (실악산) · 7.23 ~ 8.6 (14박 15일) · 참가인원 : 21명		18. 청립30주년 기념 세미나 · 일시 : 11.19 · 참가인원 : 300명	
10. 해제 풍물학교 (청규관) 지리산 · 8.10 ~ 8.15 (5박 6일) · 참가인원 : 10명			

8. 석유 버너의 전성기와 키슬링의 등장

산악회가 처음 태동했던 50년도의 최신 산악장비는 군에서 사용하는 장비가 최신 장비였다. 그 후 80년 중반까지 지속적으로 많은 발전을 거듭해 오다 지금 가스버너의 등장으로 산에서 보기 힘들지만 당시 석유버너는 취사에 있어서 필수 장비였다. 특히 동계 장기 등반시 지금과 같이 좋은 재질의 침낭이 없을 때는 석유버너는 난방기 역할도 필수였으며 텐트안에서 석유 버너의 담당이 꼭 필요했다.

그렇지만 장기등반시 석유버너로 인한 사고가 잦았다. 장기 등반시에는 많은 석유를 운반하여야 했다. 지금과 같이 PET병 같은 가볍고 실용적인 병이 나오질 않아 큰 통에 들어 있는 석유가 출렁거려 메고 가는데 힘들었고 잠금이 확실하지 않아 새는 석유로 인하여 쌀이나 반찬 등에 흘러 들어가기도 했고, 힘든 등반 속에 등에 흐르는 것을 알지 못해 큰 화상사고가 종종 발생했다.

당시 산행 장비들은 지금 보다 중량이 상당했고 부피가 커서 겨울 장기 등반시 한개의 배낭으로는 해결하지 못한 이유를 들어 키슬링을 제작했고, 하중훈련이라는 명목으로 신입생에게

에게 했다. 충분히 과학적으로 연구되지 않고 경험적 측면에서 만들어진 키슬링은 등산 초년생인 대학 1학년이 35kg가 넘은 무게부터 시작한 하계·동계 등반은 너무 힘든 산행이 되었다.

9. 산행보다 더 친했던 일들

함께한 산행시간 못지않게 학교주변에서 친밀한 행동들이 무척 많았다. 군 복무중에 휴가를 재학생회원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물론 수업시간이 되었어도 결강을 하고 회원들과 함께하는 것이 당연하게 생활하는 회원들이 많았고, 산에 대한 열정과 회원 서로간의 정을 표함이 과도해서 지금 생각해보면 재미있는 추억으로 말 할 수 있는 일들이 있었다. 용봉탑 봉황새 돌리기가 그 대표적 예이다. 20년이 넘은 지금까지도 봉황새가 방향이 바뀌고 있는 것은 아직도 재미있는 일이 되는 모양이다.

산악회의 규율잡기는 여러 가지 형태로 나타났다. 특히 복학생들이 군대에서 배워온 행위로 몽둥이질, 덕석말기(일명 김밥말이), 운동장돌기 등이 교내뿐만 아니라 시내에서도 수시로 이루어졌다. 지금도 술자리에서 운동장 한 바퀴 돌고나서 몽둥이질(일명 빠따)하여 운동장을 스무번이나 돌게 한 사람이 저 형이라고 말한다.

동아리 활동으로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 동아리 내에서 이룬 사랑도 있었다. 동기간이나 회원 간의 결혼을 하게 된 경우 산악회를 떠난 경우도 있어 좀 아쉬운 면도 있었다.

동기간의 우애는 대단했다. 모든 모임이 그렇듯이 산행을 같이 하면서 그러한 친밀함이 더 했는데 지금 생각하면 웃을 수밖에 없는 일도 발생했다.

군에서 휴가 나온 회원(○○○)이 동기(○○○)랑 술을 마시고 취하다 보니 캠퍼스가 너무 좋고 여자동기(○○○)가 무척 보고 싶어 여자 동기가 사는 기숙사로 찾아 갔으나 자정이 넘은 출입금지 시간이라 암벽등반 실력으로 기숙사를 방문하였고, 당시 기숙사의 큰 사건으로 기록되었으나 결국 여자 동기가 자진 퇴사하여 일이 마무리 되기도 하였다.

복학생 선배가 오랜만에 양복을 입고 오면 새 양복 상의가 담보되어 밤새도록 술을 마실 수 있었고, 새벽에 혐한 몰골로 여관에서 잠을 청하는 경우 다음날 주변에서 사는 선배가 치르고 나서 나왔으니 후배들이 얼마나 미웠을까 마는 웃는 얼굴로 다 해결해 주었으니 대단한 선배였다.

10. 맛있는 산도, 꿀맛의 미숫가루

대학산악부의 가르침에 식량준비는 산행의 필수이다. 특히 해외 원정등반에의 식량 담당의 역할은 등반 성공의 열쇠이다. 밥과 국물, 별미의 반찬의 패턴은 산행의 재미를 계속하게 해주기도 하지만 장기 등반이나 극지 등반에 있어서는 결림돌이 되기도 한다. 그 중간에 불편함을 해결해 주는 것이 간식이다. 80년 후반 최고의 간식 1품은 그 이름 ‘산도’다. 무거운 배낭에 짓눌려 아픈 어깨, 맥을 못 췄 흔들린 다리도 산도에 물 한 모금이면 모든 피로가 사라진다.

암벽등반을 하거나 능선길을 종주하는 것이 대부분의 산행 일정을 차지하는데, 물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산행 중에 물을 절약하기 위해 집에서 만들어준 미숫가루를 물통에 담아 서로 나누어 마시던 그 맛이 없었다면 무거운 키슬링을 메고 긴 산행을 할 수 있었을까?

제6절. 1990년대

1. 주요 신행 및 행사

1) 주요 신행

1991 일본북알프스 등반

1993 알프스 3대북벽 등반

1997 히말라야 초오유 등반

2) 주요 행사

1990 악우지 제10집 발간

1990 인공암장 건립

1991 회관(동아리방) 400호로 이사

1995 악우지 제11집 발간

2. 변화를 추구한 1990년

산악회를 하면서 본인 나름의 산행관 및 스타일은 신입회원 때 대부분이 결정되는 것 같다. 나름대로 산에 대한 가치관 및 특정 선배를 롤모델 삼아 나만의 산행관을 형성하는 데는 아무 것도 모르던 시절에 주입되던 여러 가지 상황이 가장 큰 영향을 끼친다. 어떤 상황에서도 선배의 판단이 우선시되고 후배는 이를 거스를 수 없는 이유는 산에서의 판단은 누적된 경험치에 의존하는 것이 크고 또한 그게 대부분 맞기 때문이다.

1990년도는 1989년도에 광주, 전남 학생산악연맹의 에베레스트 등반, 그리고 우리 산악회의 백두산 등반으로 장비전시회가 화려하게 진행되었고, 90학번(34) 신입회원은 80년대에는 있지 않았기 때문에 알 수는 없으나 산악회가 변화하는 과도기적인 상황에서 시작된 학번이라는, 그래서 싸가지가 없다는 말을 자주 들었다. 물론 세상은 언제나 변하고 그 흐름이 자연스러우면 그 변화를 알기 어려우나 그 당시의 변화는 29기 회장단 선배들에 의한 의도된 변화였었던 것 같다.

그 이유가 어떠했건 90년도는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산악회의 분위기를 결정하는 것은 선배들일지 모르지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것은 신입회원들이다. 이런 관점에서는 90년도 산악회는 항상 와글거리며 1년이 지나갔다. 하계는 약 20여명의 인원이 세 개 조로 나뉘어서 백두

대간 종주를 2주간 했는데, 아직 백두대간보다는 태백산맥이라는 용어가 일반적으로 사용되던 시절이었다.

회장이었던 지금은 고인이 된 29기 최행준 회원은 북알프스 등반을 계획했고, 1학년 3명을 포함한 총 8명이 일본 유학 중이신 조규상 선배님과 만나 9명이 쉽지 않은 등반을 했으나 정상 을 거쳐서 무사히 귀환하였다.

물론 그 준비과정은 간단하지 않았다. 군미필자는 해외여행이 쉽지 않았던 때라 총장추천을 받기 위해 여기저기 보증인을 구하려 다녀야 했고, 대장이었던 최행준 회장을 제외하고는 모두 가 해외등반의 경험이 없던 티라 뭐든지 되는 대로 해야 했다. 그리고 배낭 짐 또한 80리터 배낭에 모든 것을 꽉 채우고도 남아서 짹에 다시 채워넣어야 했으며,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그러한 짐을 메고 며칠간 터셀을 해가며 능선까지 올라칠 수 있었는지 모르겠다.

융통성이 있는 회장단 덕분에 현재 우리 동아리방에 위치했던 학생생활 연구소가 도서관으로 옮겨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학생생활연구소와 직접 접촉, 학생생활연구소의 모든 짐을 옮겨주는 조건으로 우리가 현재의 400호를 쓰기로 약속하고 모든 회원이 출동해 눈을 맞아가며 자일들을 꺼내와서 생활연구소의 짐을 모두 내려서 옮겨준 끝에 현재의 동아리방을 차지할 수 있었다. 그 후 가끔 숫자만 많은 일부 동아리나 동아리연합회에서 산악회는 인원수에 비해 동아리방이 너무 크다는 시비를 걸 때도 있었으나 그들의 바램은 실현되지 못했고, 현재의 동아리방은 분명한 것은 공짜로 주운 것이 아니며, 그만한 대가를 치루고 얻어낸 것임을 밝히고 싶다.

그리고 지금은 철거되고 없지만 대강당 화장실 벽에 H빔과 합판을 조립해 인공암장을 만들었다. 당시 29기 조기성회원이 어떤 일이 있어도 책임지고 완수하겠다고 해 회원들이 무거운 H빔을 머리나 어깨에 이고 공대에서 대강당 옆까지 옮기고 합판에 직접 페인트칠을 하며 어렵게 인공암장을 만들었고 결국 완성하였다.

또한 악우지 10집을 발간하였다.

3. 80년대식의 회귀를 꾀한 1991년

1991년은 90학번들에게는 혼돈이었던 것 같다. 당시의 흐름이 어떤 것이 옳았는지는 개인마다 그 평가가 다르겠으나 90년도가 기존과 약간 변화가 있었다면 91년도는 오히려 80년대식에 가깝지 않았나 싶다. 그리고 그것은 90년도 산악회보다 더 힘들었느냐 편했느냐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사람은 환경에 의외로 쉽게 적응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그러한 평가 보다는 내가 이미

익숙해진 생활에 변화를 강요당하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다.

회장단이 1학년 때 함께 했던 선배들 보다는 그러지 못한 선배들이 더 많았고, 이러한 서로의 시간차는 회장단에게는 군입대 이전의 산악회의 방식과, 2학년 조장들에게는 1년 전에 배운 스타일의 충돌이었다.

첫 회의부터 일부 회의에 참석 못한 회원들을 대신해 봉동이질로 시작을 했고, 이러한 시작은 91년의 산악회의 방향이 어느 정도 제시됨을 느낄 수 있었음에 여자동기들은 그 후 바로 산악회를 떠났다.

그리고 동기가 떠난 자리를 메꾸지 못해서가 아닌, 탈퇴를 인정하지 않는 선배들로 인해 항상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여자 동기들에 대한 대가를 치뤄야 했고 춘계 이전까지는 1학년들에게는 그 여파가 미치지 않았으나, 결국 춘계훈련동반 중 월출산에서 그 동안 억눌려왔던 분노가 폭발이라도 해버린 듯이 회장단부터 내려온 줄했다는 1대, 3대, 5대 다음에 7대가 아닌 35대라는 파괴력을 발휘해 봉동이를 들게 한 선배들이 머쓱해지는 상황이 생겼다.

물론 그게 동기의 실수였는지, 실수를 가장한 분풀이였는지는 알 수가 없으나 그 이전까지는 후배들에게 봉동이를 듣 적이 없었던 다섯 명의 2학년은 1학년들을 한 달이 넘게 허벅지에 피멍이 들어서 다니게 만들었다.

하계는 대관령과 월정사를 시작으로 세 개조가 설악산까지 종주로 들어가서 잣은바위골에 BC를 구축하고 릿지를 했는데 릿지 첫날부터 장대비가 쏟아져 빗속에서 릿지를 해야 했고 첫 날 릿지를 끝내고 BC에 돌아오니 엄청난 비로 하필 조장과 1학년이 생활하는 텐트안에 거의 무릎까지 물이 차올라 있어서 물 퍼내라는 선배들의 성화에 피곤함과 짜증에 코펠로 물을 계속 퍼낼 수는 없어서 나이프로 텐트바닥을 찢어버리니 물은 깨끗이 쑤욱 빠지고, 다시 벼너에 불을 붙여 말리니 깨끗해졌다. 물론 텐트바닥을 찢어버린 것을 선배들이 알았으면 아마 제정신에 잠을 못잤으리라.

어떻게 해서든 하루에 릿지 한 코스씩을 해치우고 베이스로 돌아와야 하니 아침 6~7시에 나가서 밤 12시가 넘어서 돌아오는 생활을 일주일동안 하는 것도 힘들었지만 산행을 마치고 모든 조가 BC에 모이면 함께 야간밥(?)을 먹고 새벽에 눈을 불이기 전에 다시 집합을 해서 한시간여 동안 선배들로부터 육을 먹어야 할 수 있는 생활이 반복되었다. 다시 다섯시에 일어나서 산행을 준비해야 하니 하루에 평균 서너 시간 이상을 못잤던 것 같다.

한 번은 용아장성 릿지를 나간 조의 1학년이 초입에서 아침에 까마귀가 머리 위를 맴도는 것

을 봤다며, 이런 불안한 징조로는 산행을 할 수 없다고 나무를 꺼안고 가지 않고 벼텨서 29기 김양성 회원이 데리고 내려와서 밤새 내내 설득을 했으나 죽어도 하산하겠다고 벼텨서 결국 아침에 뭉뚱이를 맞고 하산하는 사건도 벌어졌다. 물론 옆에서 두들겨 맞는 것을 보며 차라리 저놈은 집을 가니 우리보다 행복한 것인가 하는 의문이 생기기도 했다.

릿지를 모두 마무리하고 산행을 끝내고 하산하는 길에 와선대에서 막걸리를 한사발씩 걸치고 구보로 오는 도중 1학년이었던 35기 김수영 회원이 쓰러졌고, 이에 회장인 30기 이광복 회원은 팔뚝만한 굵기의 키만한 뭉뚱이를 휘둘렀고, 한 번만 더 쓰러지면 조장들을 죽여버린단 말에 안그래도 술에 취해 눈알이 팽팽 도는 상태에서 조장들 스스로도 이로 인해 열이 받아서 양쪽에서 조장 두 명이 아예 팔을 끼우고 질질 끌고 뛰고 있고 놔두라고 울부짖는 김수영을 뒤에 따라오는 조장은 입 좀 다물라고 두들겨 패면서 매표소까지 뛰어내려왔다.

그리고 2학기가 되어 2학년 동기들은 하나 둘씩 휴학을 시작했고 산악회를 안나오거나 군입대를 하기 시작했으나 그래도 숫자가 많은 기수라 몇몇 동기들이 2학기까지 마무리를 해주었다.

4. 1992년-93년알프스 원정까지

92년 3월 첫 회관방문 – 나는¹⁾ 학과 선배이자 당시 산악회 회장이었던 형이 술을 사준다는 말에 산악회 회관에 처음 문을 두드렸다.

신입생때부터 꽤나 술을 잘 마셨지만 산악회 형들은 나보다 술을 더 잘 마셨다. 그래서 나는 산악회 들어온 첫날 술에 취해 집에 들어갈 수 없었다.

새인봉 산행-무등산에 소풍이나 가자는 형들의 말에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중심사 종점으로 왔지만 2학년 형들은 80리터 배낭을 메고 왔다. 나는 정말 거기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궁금했다. 기타가 들어있나? 새인봉에 도착하니 형들이 장비를 끼내놓았지만 내가 사용하게 될 줄 이야! 새인봉 직벽에서 하강을 하라는 형들의 말에 ‘형, 미쳤습니까’ 했다가 나는 현수하강으로 내려와야만 했다. 이때까지만 해도 분위기 파악 전혀 못했다. 그래도 두들겨 맞지는 않았지만……

무등산 신입생 환영등반-무등산에서 내려올 쯤에 형들이 오리걸음을 시켰다. 나는 오리걸

1) 36기 문준연

음은 평지에서나 하는 건지 알았는데 산에서도 오리걸음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도 배낭을 메고.

92년 5월

지리산 춘계훈련등반-가장 처절했던 산행이었다. 아직까지 분위기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나는 가벼운 마음으로 훈련등반에 참가했다. 배낭은 무거웠지만 5분이 지나자 형들이 ‘휴식’을 하는 것이다. ‘역시 가벼운 산행인가 보다’ 생각했지만 수낭에 물을 채우고, 거기에도다가 돌까지 집어넣었다. 이때부터 산행내내 제정신이 아니었다. 첫날 점심은 김밥이었다. 태어나서 이렇게 맛없는 김밥은 처음이었다. 그래도 웬지 먹어야 할 것 같았다. 살기 위해서..... 김밥을 먹고 나니 형들이 물을 주었다. 코펠에 물을 조금 따르더니 3숟가락씩만 먹으란다. 돌아 버리는 지 알았다. 첫날부터 배낭을 잘못꾸려 오른쪽 어깨에 이상이 왔다. 그래서 나는 이튿날 과감히 ‘형, 저 집에 갈테니까, 집에 보내주세요’ 했다가 당시 최고참 형에게 산악회 1학년이 두들겨 맞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산행을 계속 해야만 했고 어깨는 점점 마비되어 왔다. 저녁때쯤 이 가까워 오니 발 뒤꿈치는 다 까겼지, 오른쪽 어깨는 거의 마비되어서 밥은커녕 제대로 들어 올리지도 못하고, 허벅지에는 쥐가 났으며, 밥은 여자동기가 도와주어야만 먹을 수 있었다. 집 결지에 모이고 나니, 눈물이 핑 돌았다. 밤에 자고 있는데 ‘비상’ 하더니 두들겨 맞았다. 정신이 없어 아픈줄도 몰랐다. 다음날 아침에 산에서 내려왔다. 집에 곧장 가는 줄로만 알았다. 그러나 나와 동기들은 오리걸음에 배낭을 맨채로 앞으로 취침, 뒤로 취침, 좌로굴러, 우로굴러, 땀끼리 전수식하면서 또 맞았으며, 광주 도착해서도 또 한차례인가 두들겨 맞은 다음에야 집에 갈 수 있었다. 나의 마비된 어깨는 한달이 지난 후에야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었다.

92년 7월 ~ 8월

하계 백두대간-나는 형들의 눈을 피해 열심히 도망친 덕에 하계는 가지 못했지만 우리동기 중 한명이 하계도중 도망쳤다가 집에까지 쫓아내려온 형들에게 잡혀 두들겨 맞고 다시 산으로 들어갔다는 슬픈 전설을 들을 수 있었다.

92년 9월

월출산 체력훈련 산행-말이 체력훈련 산행이지, 노가다도 그런 노가다가 없었다. 천왕봉 올

라갈 즈음에 다리쉼 하노라면 통나무로 만들어진 계단이 있다. 그 계단위에 다리 한쪽을 올려 놓고 숨을 헐떡거리며 ‘누가 산꼭대기에까지 이런걸 만들었을까?’ 하는 의문을 가졌으리라! 당시 산악회 회원 20여명의 1박2일 인건비보다도 비쌌던 헬리콥터를 대신하여 회원들이 짚어지고 옮겨놓은 통나무가 바로 그 통나무 계단이다. 받은 인건비로는 동아리방 캐비넷과 바닥공사를 하였고, 산행후 월출산에서 15톤 카고트럭을 히치하이크를 하여 적재함에 누워 쏟아지는 별빛을 감상하며 광주까지 왔다. 침낭을 덮었었는지 적재함에 있는 포장을 머리까지 덮었었는지 단속에도 걸리지 않았다. 여하튼 체력훈련은 확실했다.

92년 10월

추계 훈련동반-월출산에서 체력훈련을 확실히 했는지 무난한 산행이었다. 월출산쪽으로 갔는지 지리산쪽으로 갔는지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무난하고 즐거운 산행이었던 것은 확실하다. 왜냐하면 두들겨 맞은 기억이 전혀 나지 않기 때문이다.

93년 1월

설악산 동계등반-당시 동계에 들어갈때는 미리 짐을 붙이거나 한다는 것은 생각지도 않았다. BC가 양폭이었는데 양폭까지 모든식량과 장비를 다 짊어지고 갔다. 나는 80리터 배낭이 이렇게 큰줄 미처 몰랐다. 안들어가는 것이 없다. 식량, 연료, 장비..... 다 들어간다. 그리하여 내 배낭무게가 55kg정도, 세미싹 무게가 10kg정도를 앞 뒤로 메니 몇걸음도 못가 다리가 후들거리고 숨쉬기조차 곤란할 지경이다. 설악산에서 그렇게 메고 가다가 미끄러 넘어졌는데 혼자서는 일어날 수 도 없었다. 일어나기는커녕 배낭에서 팔을 빼수도 없어 뒤집어진 거북이처럼 헉우적 대고 있는 나를 뒤따라온 형들이 빼내준 다음에야 일어날 수 있었다. 그해 겨울에는 2박 3일동안 한 번도 쉬지 않고 눈이 내릴정도로 무척이나 눈이 많이 왔다. 텐트풀대가 부러졌고, 우리학교가 설악산에서 철수할 때 쯤 양폭산장에까지 눈사태가 나서 사망자가 여러명 발생하였고 양폭산장이 폐쇄되었다. 설악동에 1미터가까이, 저 위쪽에는 2-3미터가 내렸으니까...덕분에 모든 것이 눈에 뒤덮여 버린 설국의 모습을, 달빛에 비친 설악산의 모습을 잊을 수 없다.

93년 2월

한라산 훈련동반-동계 끝나고 언제인가 형들이 나에게 물었다. ‘너 알프스 갈래’, 그래서 나

는 ‘예, 갈께요’라고 대답을 했고 그리하여 나는 알프스 원정대원이 되었다. 백록담안에서 설벽 훈련을 하는데 사진으로 볼때는 큰 연못정도나 될려나 생각했는데 백록담은 안에서 스키를 타 도 될 정도로 내 생각보다는 훨씬 컸다. 우물안 개구리요, 백견이 불여일행이리니……

무주리조트 스키훈련-스키가 지금처럼 대중화 되지 않았던 시절이었다. 과동기들중에는 그 때까지 나 외에는 거의 스키장을 기본 사람이 없었을 정도였으니까…… 고로 당시 스키장에 있던 여자 스키어들도 지금처럼 대중적이지 않았다. 다들 하나같이 쭉쭉빵빵에 패셔니스트에 미스코리아 수준이었다. 그래서 스キー 타는 내내 나의 눈은 즐거웠다.

93년 6월-8월

유럽 알프스 원정-처음가는 원정, 첫 4천미터급 산행, 첫 고소경험, 더구나 해외여행도 처음 이었으니…… 어딘가 모르게 여유로워 보이는 그들의 표정, 남자가 있는 곳에서도 태연히 옷을 갈아입고, 남녀가 구분되어 있지 않는 샤워부스에 알몸으로 자연스럽게 출입을 하고, 상반신을 드러낸 채 썬탠을 하는 여성들을 보면서 느꼈던 문화적 차이… 새벽일찍 출발하여야 하는 데 남들 다 올라간 한참뒤에 출발하여 악천후속에서 등반한 몽블랑, 수천미터 아래가 내려다 보이는 곳에서 비박을 하며 공포와 추위와 외로움에 떨었던 마тер호른, 그리고 그랑드죠라스, 아이거, 3일동안의 로마와 바티칸 관광, 하나같이 모텔같이 아름다웠던 로마여인들…… 매순간순간이 소중하고 고마운 기억들 뿐이다. 비록 항상 산은 거기에 있을 지라도 그때의 나로는 다시 돌아갈수 없기에……

5. 1993년도 산행

신입생 환영등반~하계 전까지

1993년도 산행을 돌아보면 필자²⁾는 당시 1학년으로 대학 들어오기 전 당시에 인기 있었던 소설 ‘태백산맥’을 고2~고3시절에 읽던중 꼭 지리산에 가봐야 겠다는 생각에 고3시절 같은 반 친구들과 화엄사에서 노고단까지 1박 2일의 무모한(?) 산행을 단행하였다.

그 후 지리산에 대한 동경은 산악회에 들어가면 지리산에 대해 더 잘 알수 있겠다 싶은 생각에 1993년도 신입생 입학식날 전남대학교 산악회 동아리방 문을 두드리게 하는 상황을 맞게 된다.

2) 37기 박근영

그 때 당시 매주 수요일날 정기회의를 시간을 가졌고 당시에는 뼈째조차 갖고 있지 않던 시절이니 1년 선배들은 화요일 오전부터 후배들의 수업시간을 체크, 수업 끝나는 시간에 맞추어 강의실 뒤에 기다려 회의 참석을 종용하는 치밀함도 보였으며, 회의가 끝나면 의례히 상대 뒤인 ‘진선식당’에서 막걸리와 소주가 곁들여진 질편한 술자리가 매주 기다리는 상황이였다. 물론 술자는 2차 3차를 거쳐 학교에서 가까운 선배집이나 여관에까지 가서 소주 PET병을 까야 하는 상황까지 이르기 일쑤였다.

선배님들의 후배에 대한 사랑은 산에서나 학교 생활에서나 막걸리와 딱갈이로 시간에 관계 없이 꾸준히 이어져 내려오고 있었다.

주말을 이용해 선배들과 무등산 세인봉과 월출산 검정슬라브, 시루봉등에서 암벽등반의 기본을 배웠고 또한 지금은 없지만 당시 대강당 벽면에 인공암장에서는 -다소 거친 훌더로 만들 어진 – 시간내어서 각자 개인 훈련을 하는 시간도 갖곤 했었다.

드디어 춘계 훈련등반 – 당시 신입회원들과 선배들이 많았던 상황에서 3개조로 조를 나누어 나에게 서비스럽게만 느껴지던 지리산 종주를 하게 되었다.

물론 상황은 훈련등반이니 종주에는 크게 사용되지 않는 자일, 쿼도르, 봉봉, 나이프 하켄등 철제류 암벽 장비와 당시 사용하였던 석유버너에 배낭 양쪽에 석유 PET병과 물 PET병을 여러 개 매달아 놓아 간혹 물과 석유를 혼동하여 기름밥을 먹는 해프닝도 벌어지고 했었다.

천신만고 끝에 집결지에 도착하고 – 잠한숨 못자고 2박3일을 해매며– 태어나서 처음으로 지리산 삼도봉(날라리봉)에서 은하수를 보는 감격스러운 경험도 하고

피아골로의 하산길의 퍼져버린 박자화를 두팔고 끼고 뛰었던 2학년 형들의 놀라운(?) 산행 능력을 옆에서 보면 산악회의 대단한 조직력을 새삼 느낄수 있었던 산행이였다. 그때 당시의 춘계산행의 관행은 산행을 마치고 광주에 돌아와 오리탕 골목에서 후배들의 노고를 맞이하며 치하하는 자리가 있었다는 것이였다.

춘계 등반을 마친 신입생들은 비록 힘든 산행이지만 지리산 종주에 마치고 딱깔이 전수식까지 하며 이제 온전한 산악회 회원임에 자긍심을 가지고 산에 대한 선배의 열정을 느끼며 춘계 이후 있을 하계, 동계등 여러 산행에 대한 호기심과 산에 대한 욕심을 키워 갈수 있게되었다.

하계산행

이때 당시 하계는 의례히 태백 산맥종주 일주일여 산행과 설악산에서의 릿지 등반 1주일여

로 총 산행기간은 예비일 포함 16박 정도의 일정으로 2~3개조로 나뉘어 진행되곤 하였다.

하계장기 등반을 통해 체력, 리더십, 협동심, 위기 대처 능력 그리고 우리 강토의 수려함을 직접 몸으로 체험하는 엄청난 짊음의 힘을 느끼는 행위라고 생각되어진다. 대학 산악회 아니고서는 누구도 경험할수 없는 긴장감과 무한한 자유로움을 느낄수 있는 산행의 진수로 같은 경험의 공유하는 산악회 역사가 50여년 끈끈히 이어질수 있는 무한한 이야기 샘의 젖줄기가 아닌가 싶다.

필자의 하계 또한 참 큰 경험의 산실로 걸어서 한계령을 넘어 설악산 귀폐기청을 우회(?) 하여 찍고 대청봉을 넘어 잣은바위골 B.C까지 가는 여정은 정말 땀이나는 하계 마지막 종주 코스였다.

누구나 그랬듯이 설악 B.C에서 천화대, 칠형제, 용아장성, 공룡능선의 릿지를 나서다 보면 항상 비오는 곳은 날씨와 일학년 중에 1피치부터 개기는 친구덕에 대부분 탈출을 경험하게 된다.

당시 B.C에서는 집단생활을 연상케 하듯이 계곡옆에 텐트 사이트를 구축 최고참부터 1학년 딱깔이까지 30여명이 4~5인용 텐트에 나뉘어 새벽 기상 소리에 맞춰 비가 오는 과정에서도 나무에 걸친 대형 비닐로 비를 막고 둘러 앉아 아침식사를 같이하고 저녁에는 하루 산행의 반성의 시간을 자정이 넘어서까지 딱깔이를 기울이며 매일 진지함을 토론하는 자리를 갖는것이 지금 생각하면 어떻게 가능했을까 싶지만 당시에는 최고참의 말은 곧 법으로 여겨지는 상황임에 가능한 시대였을 것이다.

하계 산행 이후

1학년 산행은 하계 산행이후 전환점을 갖게 마련인듯 싶다.

무한 잠적 상황이 나오는가 하면 한 학기 동안 소홀히한 학업에 대한 회의가 찾아오기도 하고, 이참에 군을 생각하기고 하고 등등…

93년도는 대장단의 알프스 3대 북벽 원정의 여파로 하계이후 특별한 산행이 기억되지 않는다. 물론 매년 행사인 C.C는 가을 축제 시즌에 맞추어 진행되어 대장인 문귀현 형님께서 뒷목을 짚으며 회의 진행하는 시간이 많았으며, 가을 추계등반은 춘계와는 달리 소규모로 치러졌다.

동계

동계산행은 93년도에는 학생산악연맹 차원에서 설악까지 같이 출발하여 등산학교 일정을 마친후 자체 동계 훈련에 들어가는 것으로 대개 진행되었다.

우리도 김창한 형님과 동기들이 참석하여 등산학교 동계반을 양폭에서 베이스 캠프를 치고 여러 빙폭앞에서 ‘아이젠 꽝꽝’을 발바닥에 땀나게 외치며 당시만 해도 빨래판 아이젠과 플라스틱 비브람이 무척 귀한 시대이다 보니 가죽 비브람에 앞이 벌어지는 아이젠으로 겨우 빙폭의 맛을 보는 상황에 등산학교 동계반을 수료하였다.

이후 이어지는 자체 동계 일정중 토막골에서 김창한 대장이 중단에서 핏치를 끊고 상단 등반 중 추락으로 인해 발목에 골절상을 당하는 상황으로 후송에 이르렀고 자체 빙폭 훈련은 마등령을 넘어 대승령 십이선녀탕으로 나오는 동계 종주 산행으로 대체 93년도 한해 산행을 아쉽게 마치게 된다.

93년도 산행은 90년도 초반의 전형적인 산행 형틀의 기조에서 30여명의 재학생 층으로 대장단, 중간 기수, 2학년 조장, 1학년 신입생들이 각 계층에서 저마다의 역할 분담을 하며 산행을 행한 해로 기억된다.

OB회원들의 활약으로는 서은호 회원과 유명희 회원, 유영관(유명희 회원 동생)이 당당히 백두대간 종주를 마치고 현존하는 가장 뛰어난 백두대간 보고서를 작성하였으며, 박현주 최행준 회원의 에베레스트 원정대 참여, OB와 YB로 이루어진 알프스 3대 북벽 원정대의 성공 등 대, 내외적으로 활발한 활동의 산행을 한 한해로 기억되어진다.

6. 쉽지 않았던 1994년

본래 1994년도 회장은 33기 김창한 회원이었으나 동계 토막골 등반 중 추락, 발목이 부러지는 사고로 제대한지 얼마 되지 않은 34기 정만철이 이어받았다.

물론 준비된 회장이라는 건 있기 어려우나 갑작스레 그 바통을 이어받으면서 산악회 운영에 혼란을 겪었던 것 같다.

전체 회원 중 복학생 수가 많고, 그 중에서도 한참 제 역할을 할 시기인 33기, 34기가 전역의 순서가 바뀌어서 먼저 자리를 잡은 복학생으로서 이로 인한 자존심의 대립이 있었고, 결국 이 결과는 한 기수가 집단으로 탈퇴하는 결과를 낳았다.

물론 이에 대해서 모두들 나름대로 할 말이 있을 수 있으나, 결론적으로는 회의 발전을 저해

했고, 그 후유증은 지금도 일부는 가지고 있으며, 산악회는 결국 나간 놈이 손해라는 평범한 진리를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준 사건이라 생각한다.

학기 초에 30명이던 회원 수는 하계, 2학기 C-C를 거치면서 실제 활동하는 회원 수는 점점 줄어들어 대부분이 산악회를 3자적 입장에서 바라만 보고 있고, 수동적인 산행으로 단지 일수만 채우는 양상을 띠게 되었다.

그리고 그 돌파구는 쉽게 보이지 않는 듯 했다.

개인적으로는 어느 집단이건 마찬가지이겠지만 그 그룹의 리더가 흔들리는 모습을 보일 때 그 집단의 멤버들은 그 이상으로 혼돈의 시간을 갖게 된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시기였다.

또한 설악산의 BC가 잣은바위골에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강제조치로 인해 모두 저항령입구의 계곡으로 옮겨진 시기이다.

7. 다시 솟아오른 1995년

시작은 미미하였으나

1995년도의 산악회장은 애매하면서도 그럴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결정되었다. 34기(90학번)는 이미 92년도에 김지형, 94년도 정만철이 했기에 당연히 그 아래 후배가 하는 게 당연한 순서였으나 91학번은 모두 탈퇴하고 없고, 92학번은 군복무 또는 어리버리 상태였고 93학번 또한 군복무 중이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상은 아직 1학년인 94학번 밖에 없었는데 경험적으로 군대를 갔다 오지 않은 2학년이 회장을 한 경우 아무리 회장이라 하더라도 선배를 거스르기는 힘들었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한 2학년의 회장은 대부분 회의 운영이 순탄치 않았기 때문이다.

1학년을 제외하고는 실질적인 회원은 회장기수밖에 남지 않은 94년 11월, 1학년 한창균과 34기 세 명만 참석한 회의랄 것도 없는 회의에서 회장이었던 동기 정만철은 이제 다음 회장을 뽑아야 하지 않겠냐고 약간 성급한 이야기를 꺼냈고, 동기였던 김현성과 나는 올 것이 조금 일찍 왔다는 생각에 서로 "네가 한다고 해라"라는 투의 눈빛을 교환하며 서로 상대방이 총대를 메겠다는 답을 서로에게 눈치로 강요하고 있던 때에 1학년이었던 94학번이 한창균이 "제가 한 번 해보겠습니다"라는 말에 '허걱' 하는 마음에 서로 더욱 강렬한 눈빛으로 '네가 한다고 해라', '아니다, 내가 하련다'라는 말을 마음 속에 되뇌이며 러시안 룰렛처럼 눈빛을 주고받기를 한 끝에 김현성이 "내가 하련다"로 95년도 회장을 결정했고, 나머지 총무는 내가 맡기로 했다.

힘들었던 94년도를 넘기고 이젠 훌가분하게 후배들 따라서 산에 다니면 되려니 싶던 기대가 또 다시 1년을 해야 한다는 부담이 생겼지만 더 앓을 것도 없는 상황에서 다시 시작한다고 생각하니 오기 또한 생겨났다.

그래서 회장으로 결정되었던 그 날 동기인 현성이와 서로 했던 다짐을 지금도 기억한다.

"누가 뭐라고 하건 1년 동안은 우리 식대로 한다."

그리고 회장과 총무, 94학번 셋 포함 총 다섯 명이 짐을 꾸려서 동계를 다녀왔고(물론 동계 중에 고맙게도 33기 유명희, 김선주 선배께서 찾아와서 함께 종주를 했었다) 이제 우리 식의 산악회를 만든다고 생각하던 차에 또 다시 변수가 생겼으니 광주전남 학생산악연맹 학생장을 95년도는 우리학교에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금 생각하면 그런 상황이 95년도를 더욱 알차게 만들어 주었지만 그 당시는 새 학기를 시작하는 시점에서 참 난감한 상황이었으니 또 다시 김현성과 어차피 둘 다 빠져나갈 수 없으니 산악회장과 학산 연맹 학생장을 하나씩 나누어서 하기로 하는, 전남대학교 산악회에서는 회장과 총무의 관계가, 학산에서는 전대산악회 총무가 광주전남의 대학산악회를 총괄하는 학생장인 애매모호(?)한 상황이었다.

회원이건 돈이건 무조건 모은다.

그리고 95년도 신입회원은 학기 초 포스터를 붙이기도 했으나 그와는 거의 무관하게 학기 초부터 꾸준히 들어왔고 산행을 하면서 때리건 말건 밥만 사주면 되는 이상한(?) 애들로 가득차게 되었다.

또한 잠시 산악회를 멀리했던 회원들도 나름의 기준을 정해 다시 반개 되면서 어느 정도 짜임새를 갖추게 되었다.

애초에 시작 때부터 회비가 없었기에 총무의 수중에는 돈이 없어서 1학기는 회의가 있는 수요일은 항상 재학생을 먹일 돈걱정을 해야 했으며, 이에 잔머리를 굴린 것 중 한가지가 한 달에 한 번 있는 학산의 각 학교별 산악회장 회의를 수요일로 잡아서 재학생들을 무등경기장의 학산사무실로 모두 몰고 와서 회의 후, 마음껏 중국음식을 먹인 것이다.

물론 이로 인해 그리 큰 돈은 아니지만 학산에서 비용이 필요 이상으로 밥값으로 지출되기도 했으나 학산의 OB 선배들 입장에서는 학산 사무실에 사람이 와글거리는 모습이 보기 좋기 때문에 오히려 권장을 했었고, 재학생들 또한 학산의 여러 학교와 자연스럽게 교류를 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기대이상의 효과를 누렸던 것 같다.

또한 하계를 가기 전에 회비를 어느 정도는 모아야겠다는 생각으로 산행계획서가 나오면 일부러 김재를 교수님이나 이계윤 교수님을 직접 찾아가서 계획서를 드리고 오고, 그 당시 OB산악회 부총무였던 임우근 선배님 가게를 찾아가서 지원 좀 해주십사 차마 말은 못하고 이리저리 시간을 끌며 잔심부름을 하면서 베티다가 오후 늦게 쯤 지갑에서 현찰 10만원을 꺼내서 산행에 보태 쓰라고 주시는 돈을 받아서 좋이라고 회관으로 돌아왔고 이런 짓들은 2학기에도 지속되었다.

또한 적어도 한 달에 한번 정도는 꾸준히 학보를 선배님들에게 발송을 했으며, 신한봉 선배님의 스페어파트에서 아르바이트가 필요하다고 해서 재학생들을 몰고 가서 일당 5만원에 아시아 자동차에서 셋가루를 마셔가며 필터교체를 해서 재학생들의 춘계를 준비했다.

물론 돈받는 것 이상으로 좋았던 건 셋가루를 들이마시는 데는 돼지고기가 최고란 이유로 일이 끝나고 삼겹살을 지칠 때까지 먹을 수 있었던 것이다. 춘계는 항상 가던 월출산, 지리산 대신 강진에서 해남 땅끝을 연결하는 땅끝기맥을 2개 조로 다녀왔다.

길고긴 하계

하계가 가까워 오면서 회장단 사이에는 고민이 생겼는데 올해 하계를 어떻게 가느냐였다.

필요 이상(?)으로 많은 1학년들 텐데 개인별 암벽장비를 마련하는 것도 문제였고, 자일 같은 공동장비 또한 부실한 상태였으나 회비로 자일을 두 동 이상 새로 구입하기는 무리이기도 했다. 그래서 하계는 21박 22일 동안 백두대간 및 낙동정맥을 세 조로 나누어 하기로 결정했다. 그 당시 광주 전남 대학산악부의 하계는 대부분 일주일 내외의 종주 후 설악산으로 들어가 1~2주일간 암벽과 릿지를 하는 스타일이었는데, 연맹회의에서 각 학교별 하계일정에 대해 이야기 중 전남대는 올해는 22일 동안 종주만 하기로 했다고 하니 다들 놀라며 중간에 짐을 일부 부쳐 놓고 찾아서 가는 거나는 물음에 그냥 다 짊어지고 간다고 하니 믿기 힘들다는 투였는데, 우리 입장에서도 1학년 때 14박 15일로 종주는 했지만 정말 20일이 넘는 기간 동안 필요한 짐을 다 메고 가는 게 가능할지에 대해서는 확신이 없었다. 물론 자일 1동을 포함하여.

하지만 처음에 시작할 때 했던 다짐대로 누가 뭐라건 모든 것은 우리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 이었다.

그리고 그 우리 마음대로의 절정은 하계를 출발하기 전 활동이 부진하다는 이유로 세 명의 동기들을 불러서 탈퇴시켜 버린 것이 아닌가 싶다. 지금도 그 당시 꼭 그리 할 필요가 있었는지

간혹 의문이 들 때도 있긴 하지만 그 당시는 그만큼 산악회에 대한 절박한 인식과 오기밖에 없었던 것 같다.

여하튼 애초에 하계를 설악산을 포기했던 이유 중에 하나인 장비부실은 OB선배님들이 자일한 동을 선물로 사주시고, 승주에서 조규상 선배님의 작은아버님의 지방의원 출마 때 일본에서 오신 선배님과 재학생 다섯이서 1박 2일동안 선거운동을 도와서 비록 낙선은 했지만 선배님이 수고했다고 하계에 맞추어서 일본에서 자일을 사서 보내주셔서 이젠 남아 도는 새 자일들을 회관에 남겨두고 하계를 떠났다.

하계를 끝마치는 시점에서 꽤 많은 돈이 남았다. 하계를 마치고 동해에서 서울을 거쳐 광주로 돌아왔을 때에 회비는 60여 만원이 넘게 남았으며, 이미 2학기 회비운용계획을 세우는 찰나 회장이 재학생들이 많아서 선배들이 부담스러울 것 같으니 1차는 우리가 내자고 해서, 총무인 나로서는 산악회에서 후배들이 밥사는게 어딨냐고 2학기 때 쓸 일 많다고 버렸으나 회장은 용감하게도 "형, 애들도 많은데 1차는 저희가 내겠습니다, 2차만 쏘십시오"란 말에 은호 형은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어 그래라"라는 대답으로 상황은 마무리 되었고 그 다음부터는 소갈머리 없이 계속 삼겹살을 시켜서 미친 듯이 구워먹는 후배놈들이 어찌나 미웠는지 모르겠다.

1차 밥값으로 33만원을 지불하고도 20만원이 넘게 남아서 2학기는 그 때 가서 고민하기로 하고 18만원을 주고 비디오를 구입해서 회관에 나름 뾰대를 갖추어, 산악비디오를 여기저기서 구해서 함께 보곤 했으며, 몇 년 뒤 함O준을 비롯한 그 주변 기수 애들 몇몇이 늦은 밤시간에 동물농장이라는 뺨간 비디오를 구해서 즐겨보았다는 소문을 들었다.



또한 5년만에 악우·지가
발간되었다. 비용을 절약
하기 위해 인쇄사에 원고
를 맡기지 않고 회원들에
게 원고를 모두 받아서 직
접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으로 원고를 타이핑, 디자
인을 했으며, 레이저 프린
터로 프린트 후 인쇄사에
는 복사 및 제본만 요청해

서 많은 비용을 절약할 수 있었다.

발간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OB선배님들께 원고를 가져가서 보여드리고 30만원 지원을 받았으며, 발간 당시 일일이 우편물로 보내면서 또 다시 인사말을 A4용지로 한 장씩 끼워넣어 일부 선배님들이 수고했다며 적지 않은 돈을 보내주셨다. 물론 악우지는 비용이 문제가 아니라 재학생들의 숙원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5년 만에 다시 발간되었다는 게 더 큰 의미가 있다. 원고가 제때 제출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기도 했으나 중요한 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닌 실제로 하나하나 계획한 것을 실행해 나가면서 결과물을 함께 만들어 냈다는 것이 아닌가 싶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유난히 산악마라톤이 많았던 해였고 우리 산악회에서도 많은 회원들이 참가해서 입상도 하였으며, 목포대 C-C에서는 1,2위를 다시 주워 담았다.

8. 고군분투한 1996년

96년도의 산악회장은 어려움 없이 결정되었다. 선배 입장에서는 많은 고민이 있었으나 관례대로 복학생을 맡기려는 찰나, 39기 노원기가 자기가 해보겠다고 하는 말에 망설임없이 회장의 자리가 넘어갔고, 예상대로(?) 하계장기등반 후 2학기에 크로스 컨츄리가 끝나고 회장은 잠적해 버렸다. 마음속에 가졌던 진리를 또 다시 확인할 수 있었으나 선후배간에 터놓고 마음을 이야기하게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다시한번 느낄 수 있었던 것 같다.

비상체제와도 같이 회장이 없는 산악회를 운영해 가며, 다음 년도 회장은 전역예정자를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었다.

대부분의 후배들은 선배들에게 평범한 이야기는 터놓고 할 수 있으나 진정 자신이 하고 있는 고민은 절대 털어놓지 못하며, 이로 인한 회의 탈퇴는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문제이다. 다만 요즈음의 재학생들은 이전처럼 산악회 분위기가 위압감을 가지지 않기 때문에 서로간에 자연스러운 의사소통이 진행되는 것 같다.

그리고 연말에 OB운영위원회에서 히말라야 초오유원정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이를 추진하기로 결의하였다.

9. 디지털 시대를 준비한 1997년

1997년은 초오유 원정대 준비로 바쁘면서도 재학생들로서는 그리 활동이 활발하지 못했던 것 같기도 하나 내부적으로는 미래를 대비한 변화가 있었다. 아니 변화를 시도했으나 대부분이

그 변화에 흥미를 가지지 못했다는 것이 맞는 표현같다.

4월에 전남대학교 산악회 홈페이지가 만들어졌다. 물론 97년도는 ADSL이나 초고속통신망 접속이 아닌 전화모뎀을 통해 인터넷에 접속하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홈페이지도 조작했을 뿐만 아니라 그 존재를 아는 회원들 또한 거의 없었다. 물론 처음부터 홈페이지를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으로 시작한 것이 아니라 학교 전산소에 신청만 하면 무료로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도록 공간을 제공했기 때문에 아무 생각없이 한번 해본 것이었고, 다만 존재의 의의만 있었으며, YB, OB가 찾아오는 홈페이지가 아닌 타대학 산악부와의 교류를 위한 의의가 오히려 더 커졌던 것 같다. 이것이 계기가 되어 전국대학산악연맹의 회지인 엑셀시오에 요청에 의해 글을 기고하기도 하였다.

2000년대 초반까지는 홈페이지는 그 존재만 있었지 활용은 미미했던 것 같다. 다만 전국 대학산악회 홈페이지 중 만들어진 시기가 세손가락에 꼽을 정도로 일찍 시작했다는 것에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 같다.

YB 회장이었던 37기 원정일이 초오유 원정을 준비하기 때문에 하계는 제대한지 일주일 된 37기 박근영이 맡아서 자병산, 대관령을 지나 한계령에서 귀폐기청을 넘어서 십이선녀탕으로 하산하는 약 2주간의 종주를 했다.

1학년이 단독령 근처에서 텐트플라이가 담긴 자기 배낭을 메고 도주를 하는 상황도 벌어졌으나 순진하게 다시 제발로 걸어들어와 잡히는 해프닝도 있었다.

초오유 원정은 30기 박현주, 39기 김성석회원의 정상등정으로 마무리가 되고 2학기는 이를

발판으로 더욱 활성화가 될 것으로 기대를 했으나 여느 때처럼 원정후유증을 앓았던 것 같다.
당시 서울지회 총무였던 반
민환 선배의 제의로 2학기
때 재학생이 인수봉 등반을
위해 서울을 찾게 되었으며,
그 후 2학기 인수봉 등반은
YB의 2학기 정기산행이 되어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다.



제7절. 1998년~2007년

1. 취업난과 과도기적 밀레니엄 학번

앞만 보고 달려오던 한국 경제가 1997년 11월 IMF에 구제 금융을 공식 요청하면서 정리해고, 합병, 기업의 군살빼기 등으로 많은 회사원이 직장을 잃었고 대학생들은 취업문은 바늘구멍만큼 좁아졌다. 2000년대 들어 이태백(20대 태반이 백수)이라는 말이 유행을 할 정도로 실업 문제가 국가적 난제로 등장했다.

많은 젊은이가 취업 걱정 없었던 예전의 캠퍼스 생활은 영어 토익이나 취업에 관련된 학과가 인기학과로 몰리면서 학생들의 마인드가 변화되었고 전남대학교의 이미지인 학생운동의 지지도 줄어들었다.

실제로 1998년 입학할 당시에는 IMF의 여파로 인해서인지 국립대를 선호하였는데, 본인은 우수한 성적(?)으로 치열한 경쟁률(?)을 뚫고 당당히 전남대학교에 입학하였다. 고3 수험생의 수능과 내신의 짜든 학구열 속에서도 대학만 들어가면 꿈과 젊음, 낭만, 연애, 캠퍼스에 펼쳐질 청춘을 그리며 입학하였는데… 1학년때부터 부모님이 공무원시험 준비하라는 강요도 받기도 할 정도였으니까…(물론 부모님한테 학원다닌다고 해서 학원비로 산에 갔으니까…ㅋㅋ)

이렇게 사회적 분위기가 취업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서 그런지 학생들도 동아리 선택에 있어서 동아리 보다는 학원으로 학생들의 발길이 옮겨졌고, 취업과 관련된 동아리를 선호하게 되었다. 예를들어 영어관련 동아리가 인기가 많았고 상대적으로 학생운동과 관련된 동아리는 신입생 기근현상에 어려움을 치해있었다.

거기에도 우리 산악회에서도 신입생 확보에 어려움도 많이 있었다. 일단 산악회에서 가벼운 산행을 하기도 전에 입회원서를 쓰는 신입생이 많이 없기 때문에 산악회 역사를 이어 가는 데에도 어려움이 많았다. 한 해가 바뀌면 뉴페이스도 등장하면서 영성이처럼 코펠 문으로 해서 진짜 코펠 땅 파 가지고 묻어버리는 등 사고도 치고 분위기도 쇄신되고 해야 되는데… 맨날 본 얼굴이 그 얼굴이고 하는데…^^*

하지만 우리 산악회에는 1년에 최소한 1명 이상의 기수가 있어서 산악회의 전통이 끊기질 않고 맥을 이어갈 수 있었던 게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굳이 신입생이 많아서 오합지졸적인 성격 보다는 산악회의 본질적인 정신을 배우고 다음 후배들에게 가르쳐줄 수 있는 한 명의 회원이 있는게 현실이 힘들지 모르지만 산악회의 미래를 위해서 더 나을지도 모르니까…

2. 최다 인원의 2000년 산행

2000년도 산행은 내가 재학생 시절의 최다의 많은 인원이 있었던 산행이었다.

7명이나 되는 기수의 39기 형들이 점점 군 전역을 마치고 산악회 주축이 되었었고, 3명이나 되는 40기 형들도 군 전역과 더불어 39기 형들의 氣에 눌려 산행에 참여하게 되었고, 속없는 나도 군 입대를 그 해 가을에 했으니까… 또한 당시 2학년이었던 43기도 산악회 평클로 불릴 만큼 미모와 열정을 가지고 신입생 유치를 했었고, 그 결과 춘계동반은 새로운 전라남도, 북도 도계(지금의 영산북기맥)를 2개조로 나뉘어 열심히 독도하면서 산행하였고(그 때 날새면서 자 올자올 산행했던 기억이 아련하게 나는군…), 하계 산행을 95년에 3개조가 집중식 등반을 한 이래, 00년에도 39기 함경준 대장외에 15명이 3조로 나뉘어 금남정맥, 금남·호남정맥(안평산~영취산), 낙남정맥(돌장고개~영취산), 백두대간(화령재~영취산)을 14일간 종주를 할 수 있었다. 많지 않은 재학생 선배가 산행에 못 참여하고, 신입생이 부족한 타대학 산악회 회원들에게는 하계 조를 3개조로 나눠서 가는 것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부러움을 사는 거였다. 또한 많은 인원이지만 그만큼에 산에 대한 열정을 모두가 함께 공유하고 이야기 할 수 있었던 계기였던 것 같다.

산악회 회원들의 많이 모집하고 이끌 수 있었던 데에는 선배들의 역할도 중요했었다. 그 중 유머와 재치를 소유하면서 보이지 않는 카리스마로 후배들을 사로 잡았던 39기 방경환 회원은 00년, 01년 광주학생산악연맹 학생장을 2년이나 연임하면서 그 인기를 실감할 수 있었다. 연맹 학생장을 2년이나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산악회가 학산 연맹 활동의 주도적인 역할과 동시에 학생장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았다는 것으로 풀이될 수 있다.

3. 산악회에서 여성회원들의 활약상

본인이 산악회에 입회 한 이후 여성회원들이 산악회에 입회한 사람들이 많았다. 그 예로 내 동기인 안선희 회원부터 43기 전현주, 44기 박지순, 김연주 회원까지… 실제로 2000년까지 산악회에 발을 내딛고 같이 배낭을 매면서 하계든 동계든 산행을 했었던 후배들이 모두 여자 후배였으니까… 99년 하계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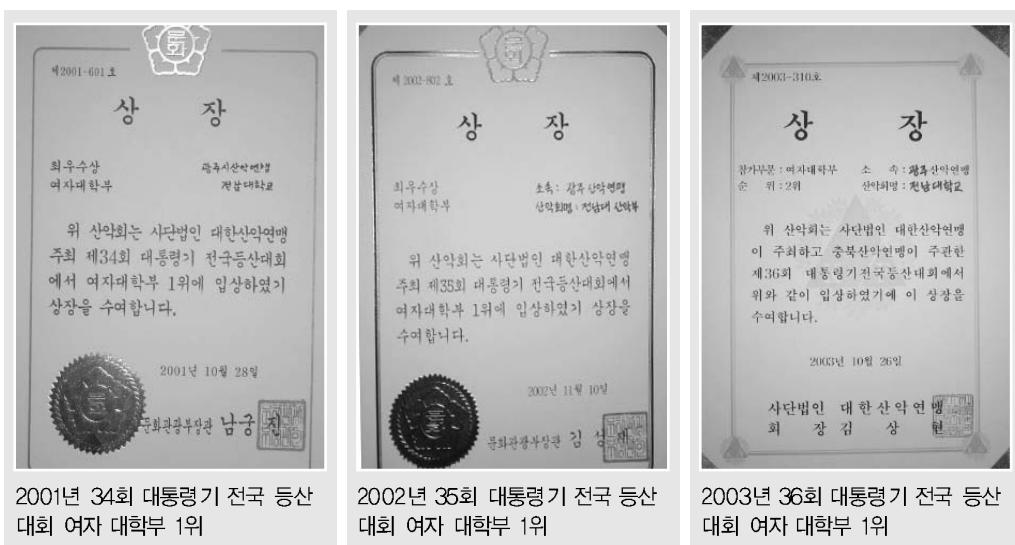


약산에서나 등산학교 연맹 모임등에서 1학년 소개하는 자리에 우리학교는 여자후배만 4명이여서 이른바 “평클”(여기서 전현주 회원은 산악회의 이효리로 불리웠음)로 통했었는데... ^~*

하지만 여성회원이 산악활동을 하는데 약하거나 뒤처지거나 그러한 모습은 찾아 볼수가 없었고 오히려 산악회에 대해 열정과 정열을 가지고 남성회원 못지않게 활동했다.

1년을 365일로 보았을 때 과연 우리가 산악활동을 하면서 며칠을 산에 있을까? 주말에만 1박2일 간다고 하더라도 4주x12월 해서 48일 되는데… 우리 99년,00년도에 같이 산악활동 했었던 후배들은 적어도 산에서 생활이 100일이 넘었었다. 춘계, 하계, 추계, 동계 산행은 물론 참여하거나 개인산행 뿐만 아니라 산에 대한 열정 하나로 기회와 시간이 되면 산악활동을 추구해 왔었다.

이러한 경험과 지식이 축적되어 후배들에게도 멋떳하게 본보기가 되었고 자상하게 가르쳐줄 수 있었다. 그 대표적으로 볼 수 있는게 2001년도, 2002년도 대통령기 등산대회 여자부 대학부 우승, 2003년도 대통령기 등산대회 여자 대학부 2위라는 쾌거를 이루게 되었다. 이렇게 우리 산악회에서 밀레니엄 시대의 여성회원의 역할과 활동은 누구보다고 산악회에 대한 열정과 사랑의 모습이었다.



4. 신입생이 없었던 2001년, 2006년

우리 산악회에서 기수의 맥이 끊기는 경우가 가끔 있었다. 특히 01년도와 06년도에는 산악회에 입회원서를 쓴 신입생이 드물거나와 실질적으로 같이 산행을 하는 경우 없었다. 그렇다고 그 당시에 산행을 소홀히 했던 건 아니다. 오히려 절친한 재학생들끼리 옹기종기 더욱 재미있게 산행을 했었다. 01년도에는 40기 정종천 회장을 주축으로 06년도에는 46기 손용주 회장을 주축으로 춘,하,추,동계 및 정기산행을 통해서 재학생 회원들끼리의 돋독한 정을 가지는 산행과 앞으로의 산악회의 미래를 생각하는 반성의 시간도 많이 가지게 되었다.

그리하여 각 해 다음해에는 산악회다운 후배를 받아들이게 되고, 많은 신입생을 확보하게 되었다.

5. OB선배님들과 많은 접촉을 유도했던 2003년

98년에 전남대학교산악회에 홈페이지가 개설된 이후 선후배들간의 대화의 장으로 만들어지게 되었다. 제작당시 전국에 유일한 웹상의 홈페이지를 가지고 있어, 많은 방문자들로 좋은 본보기가 되었었다. 그러던 중 서울지부 최지환 선배로부터 디지털카메라를 장비로 지원받게 됨으로서 홈페이지에 산행했던 사진들을 생생하게 게제함으로서 많은 회원들의 관심과 공감을 형성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선배들과의 관계를 더욱 밀접하게 이끌어갈 수 있었던 것 같다.

03년도의 산행을 하나하나 나열하기보다는 본인이 재학생 대장으로 물려나면서 홈페이지에 올렸던 글로 가름하고자 한다.

『오늘 종강회의를 끝으로 드디어 회장직에 물려나게 되었습니다.

주위에 말로는 독재라는니 완전 군대를 못벗어났느니, 박곰 사칭사건의 용의자로 몰리는 등 등 여러 가지의 저를 견제한 세력들과 여론의 말들이 많았지만…

그렇게 잘했고 못했고를 판단하는 것은 아직은 서툴고 그 의미는 시간이 더 흐른 뒤에 보여 질거라 생각합니다.

제가 뭐 특별히 잘한것은 없지만, 뭐~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또한 선배님과 후배님들이 많이 도와주셔서 든든한 1학년 후배들 4명이 함께 산행할 수 있어 행복했습니다.

제가 회장을 하게 된 것은 바야흐로 약 1년 전…

군대를 제대하고 아무런 영문도 모른채 성필형한테 술한잔 얹어 먹은게 화근이었다.

그리고는 그 다음날 내가 회장이란다....

(물론, 나와 같은 인재를 전남대학교 산악회에서는 방관할 수 없었기에... 그러했으리라고 생각한다.ㅋㅋㅋ ^_^)

어떨결에 술 깨고 나니까 회장이였지만은, 나는 나름대로 하고 싶은 산행 스타일도 있었고, 내가 추구하는 것이 있기에 후배들에게 가르쳐 주고 싶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군생활 2년이라는 공백기간을 적응할 필요도 있었고 그 상황을 이해하게 되었다.

그래서 현 위치에서 내가 할 수 있는거라고 재학생 신입생 회원학보에 가장 큰 비중을 두게 되었다.

그렇게 동계를 들어가고...

동계들어가자 마자 어떨결에 또 등산학교 학생장이 되었다..

주위 말로는 “야! ~ 우리 죽됐어..~” “왜?” “이번 학생장 논산 조교인데 이번에 제대했는데...” “그래? 이번 등산학교 죽됐다...”

그러했다고 하더군요...ㅋㅋㅋ 그 내막에 대해서는 함께 산행한 후배들이 더 잘 알겠지만...

그러다 등산학교가 끝남과 동시에 자체산행을 하게 되었다. 나름대로 내가 하고픈 곳도 있었고, 추구하는 바도 있어 욕심이 컸기에 포부도 남달랐다. 하지만, 자체산행 첫날 뜻하지 않는 사고(사고의 피해자는 나보고 책임을 지라고 하는데...) 발생하여 솔직히 졸아버린 건 사실이다. 과연 나의 의지와 욕심을 채우려고 산행한가 싶은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래서 안전산행으로 기준을 바꾸고 겨울산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훈련과 산행으로 무사히 마무리짓게 되었다. 거기에 30기 김용육형을 비롯한 많은 선배님들의 관심과 도움이 컸기에 잘 마칠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후 새학기가 시작되면서 신입생 모집에 노력을 한 바, O.B회장님의 해주신 포스터를 학내 곳곳에 붙여 홍보하고, 화장실에 가면 앉아쏴 자세에서 바로 보이는 곳에 스티커를 부착하면서, 그리고 장비전시회 및 사진전시회를 통해 산악회 홍보에 노력을 다했다. O.B회장님의 관심이 신입생환영등반 때 버스한대를 대절해 주실 정도로 지대한 도움을 주셨는데... 그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조출히 신입생을 받아 달마산으로 환영등반을 갔다.

그 후 월출산 정기산행, 춘계훈련등반을 통해 산악회에 대한 전부를 알지 못한채 등을 돌려 야 했던 신입생들을 보게 되었고, 과연 내가 그들에게 산악회를 가르쳐주는 방법이 잘못된 것 일까하는 고민을 하게 되었다. 하지만, 나는 내 소신것 “산악회 남을 사람은 적어도 산악회가

어떤곳인지 아는 사람이 남아야지 그저 겉핥기식의 후배는 받아들이고 싶지않다..!!”라는 생각에 제 생각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그러한 생각에 학산인의 한마당, 총장기 등산대회, 월출산 산행, 지리산 산행 등을 하게 되었고, 하계장기등반에 이르게 되었다.

하계장기등반이라 함은 1년 산행의 꽃이라 불릴 만큼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에, 많은걸 가르쳐주고 함께 경험하고 생활하고 싶어 다른 때보다 더 길게 26박27일 만큼의 기간을 계획하게 되었다.

그러한 저의 의견에 보이지 않게 많은 도움을 주시고 산행에 참여하면서 함께해준 선·후배님들이 있어, 내가 하고픈 아니 내가 경험하지 못한 코스와 욕심을 채우려 했던것 같다.

그러다 나의 욕심대로 추구하는게 어려운지 설악산에서 뜻하지 않는 사고(현재 당사자는 애칭을 전환하여 당태클(당대 최고의 태클)로 불리움 ^~-주위에서…ㅋㅋ-)를 접하게 되었고, 내 소신이 흔들리고 다시한번 졸아버렸다. 하지만 그런 사고의 모습들은(도균형한테 미안한 말이지만…) 어느때나 발생할수 있는 부분이고, 그렇다고 그 부분때문에 산행을 평생 안할수는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여 끗끗이 하계 계획을 밀고 나갔다.

첫산행이지만 힘들게라도 따라와준 슬기, 동기랍시고 오히려 더 많은 짐을 지게된 효준이. 그리고 집에 간다고 개기다가 모두가 한따끼리 하게된 선진이…ㅋㅋ, 멋모르고 즐겁기만한 스머프 성근이, 그 외에 모두 함께한 재학생과 선배님들이 계셨기에 모두가 즐거운 산행이었던 것 같다.



그렇게 하계 장기등반을 마치고 새로이 2학기가 시작되면서 1학년후배들이 서서히 잠수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내가 회장 처음 임명 당시 기치로 내걸은 많은 신입생 확보에 전혀 달리 가고 있지는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지만. “산악회 남을 사람은 적어도 산악회가 어떤 곳인지 아는 사람이 남아야지...!!”라는 소신에

잠수단 것은 적어도 산악회에 대해 고민하고 산악회를 다시한번 생각하게 된 계기라 생각하며 냅둬 버렸다. 그래도 안나타나길래 공개수배를 때렸고…ㅋ

그 후 북한산 인수봉 산행, 월출산 산행, 대통령기 등산대회. 등 하계를 다녀온 1학년 후배들을 중심으로 산행하게 되었고, 47기 동기들끼리 산행을 꾸리며 동기들끼리의 정을 돈독히 쌓게 되었다.

그리고 이제 땁가리가 아닌 모범되고 의젓한 조장으로서 훈련하게 된 추계훈련동반을 1학년 4명 모두 갖다오게 되었고. . .

점점 내 정권에서는 멀어져 갔다.

1년동안 산행을 하면서 하늘이 떨어져라 웃으며 즐기기도 하였으며, 목이 터져라 산가를 부르기도 하였으며, 때로는 서로가 인상을 불이면서 으슥한 분위기로 이끌리기도 하였으며, 어떤 때는 재학생들의 기쁨과 슬픔, 그리고 고통을 함께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모든 시간들이 나에게는 모두 소중한 시간이였다. 이 모든 시간들을 다시는 되돌릴 수는 없지만, 이 모두가 많은 도움을 주신 선배님들과 나를 믿고 따라와준 후배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추억들이다.

현재 좁은 취업문 속에 4학년이지만 산행에 따라오면서 도와준 현준형, 도균형, 성필형, 연주, 지순이. 그리고 내 말에 잘따르면서 그 권위를 뒷바쳐준 용주, 가영이, 그리고 우리 1학년 성근이, 선진이, 효준이, 슬기.(이상 재학생) 그리고 무엇보다도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신 일일이 적지는 못하지만 여러 O.B선배님들… 그들이 있어 2003년을 무사히 마칠수 있었다.

과연 올 한해를 내가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특검해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전 순결하니까요.. ^~) 내 개인적인 욕심에 의한 것도 있었지만, 산악회의 전체적인 안목을 볼 수 있었고 앞으로의 모습을 고민하고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 그리고 산악회라는 조직은 그 위치에 맞게 역할이 주어졌기에 나는 그 역할에 최선을 다했고 47기 1학년 후배 4명이 있어 행복하였다.

이제는 가영이에게 그 역할을 맡기고 개인적으로 성숙해 가는 모습속에서 무언가 조언해 줄 수 있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야겠다.

6. 최초의 여성 회장 – 2004년

04년도에는 전남대학교 산악회 처음으로 여성 회원이 회장에 임하게 되었다. 그만큼 산악회도 인식 변화가 나타났고, 어찌보면 선배 재학생회원 부족이라는 위기의식도 느끼는 계기가 될 수 있었다. 그 영광에는 46기 김가영 회장이였다.

그럼 여기서 김가영 회장의 인터뷰를 들어보도록 하겠다.

『전부터 형들한테 내년엔 너다, 네가 해야지 누가 하겠냐, 등등의 말을 들었었는데 막상 어

제 회의시간에 탁자 중앙에 앉고 나서부터야 실감이 나더군요. 하하…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재우형의 뒤를 이어 2004년도 재학생 회장을 맡게 된 46기 김가영입니다.

3년 정식 코스로 따깔이-조장-대장을 맡게 되었네요. 아직 부족한 점 많지만 형, 언니들과 아직도 어리버리한 47기들 (^;) 이끌고 내년에도 멋지게 산행하렵니다.

형들의 관심이 많아서 기분 좋구요. 계속 지켜봐주세요~~』



여성회원이 회장이라는 소식에 여기저기서 선배들의 관심도 많아서 산행에서도 OB선배님들의 참여도 많았다. 하지만 김가영 회장의 나름대로의 카리스마와 리더십으로 재학생 산행의 주도적인 역할을 하여 산행을 더욱 풍성하게 하였다.

7. 컴퓨터 보급으로 책자가 아닌 PDF파일의 악우지 발간

기존의 산악회의 회지로 발간되었던 악우지가 재정적인 부분도 있고, 시대의 변화에 따라 컴퓨터의 보급으로 웹상에서 읽을 수 있는 PDF파일로 2002년도에 제12호 악우지를 발간하였다. 1995년도 제11호 악우지 발간 이후로 새로운 시도였고 분량이나 용량 그리고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담이 덜 했던 새로운 변화였다. 그리고 악우지가 발간될 수 있었던 것도 산행에서의 기록하는 습관의 회원들의 노력이 있었고, 그만큼의 회원들이 활성화 되고 많은 관심을 가졌던 것 같다.

그렇게 PDF파일로 악우지를 2004년에는 악우지 14호를 또 발간하게 되었다.

항상 악우지나 책자를 발간하는 데에는 편집장의 노고를 높이 평가한다. 잘 걷히지 않는 원고에, 재미있게 글로서 기록을 남기려고 여러 가지 글을 실을려고 하려는 당시 편집위원에게 고생했다고 말하고 싶네요..

이제는 기록의 문화를 홈페이지 상에서 보고서로 정리화 잘 되어있고, 사진 자료도 많이 기재되어 있기 때문에 전남대학교 산악회 50년사 외에도 악우지 발간에 조금 더 노력을 해서 15

호 발간을 기대해 본다.

8. 1학년이 대장보다 나이가 많았던 2005년

전남대학교 산악회에서 회장은 대부분 재학생 3학년 이상, 군대 갔다와서 4학년이상이 하는 게 대장-조장-1학년 체계가 확립되는데 가장 이상적이다.

하지만 역시 산악회 선배 재학생 부재가 2학년 회원의 대장의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다. 그 자리에 47기 이재국 회장이 위치해 있었다.

아직 2학년으로서 부족한 부분도 많고 배워야 할 부분도 많은 위치에서 대장이라는 큰 부담이 작용했을 거라 생각한다. 그런데 거기에 더 큰 부담으로 새로 들어온 1학년 후배는 자기보다 나이도 많은 후배가 들어온거다. 흑흑. ㅋㅋㅋ.

산에 가면 재학생이라고는 동기 선영이와 나이 많은 후배 2명, 거기에 재국이의 위치의 부담을 덜어주려고 온 OB선배님들, 가운데에 있는 대장의 위치가 어색하기 짹이 없다. 하지만 부드러운 이미지의 이재국 대장의 용통성으로 선후배 간의 융화된 모습으로 산악회를 이끌어 갔다.

그렇게 이끌어 갔었던 05년도 산행의 내용을 홈페이지에 기재되었던 이재국 대장의 퇴임인 사로 돌아가보겠습니다.

『내가 산악회에 스카웃되고나서 횟수로 벌써 2년이란 시간이 흘러갔다. 2년이란 시간동안 이 안에서 빼앗긴 것은 세어볼 수 있지만, 얻을 수 있는것은 무궁무진하다는걸 느꼈다. 그래서 한치의 후회조차 없으며 그러한 생각이 무거웠던 올 한해를 보낼 수 있도록 힘이 되었던것 같다.

아마 때는 작년 가을이 다가온듯 쌀쌀해진 날씨에, 동방에서 술을 마시기위해 상대쪽문으로 성근이형과 장을 보러가고 있었다. 그때 문득 했던 나의 질문 "내년 대장은 누가 되나요?"에, 성근이형이 답하기로 "도균이형이 될지도 모르지..ㅋㅋ, 신경쓰지마 년 신경 안써도돼". 이때까진 몰랐다. 그리고 어느정도 시간이 흘러 농담삼아 던지는 형들의 한마디 "차기 대장 이재국". 이때까지도 농담인줄 알았다. 하..내가 무슨..설마설마 했던게 어느샌



가 나는 주례회의 석상의 중간 자리에 앉아있었고 어색함에 어쩔 줄 몰랐다. 2학년이 대장을 맡았다는 자체가 산악회 상으로 여지없는 고난이었고 이건 뭔가 정상은 아니었다. 걱정하는 형들의 목소리도 들었고 더군다나 올 한해 첫출발을 재학생 2명이라는 미미한 숫자로 시작을 한 탓에 어깨는 더욱 무거워지는걸 느꼈다. 그래선지 항상 쪼기는 마음으로 부담을 안고 산행을 한 것같아 아쉬웠다. 한번 더 기회가 주어진다면 이젠 홀가분한 마음으로 해볼텐데라는 생각도 든다.

일단 경험에 의한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게 힘들었던 점이, 첫 산행인 동계였다. 겨울산이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곳이었고, 또 쉽게 머릿속에 떠올릴 수도 없는 곳이다. 내가 얻을 수 있는 정보란 잡지나 책에서 얻는 1차적으로 누군가에게 걸려져 나오는 지식이나, 그나마 직접적인 형들의 조언이었다. 한마디로 말로만 듣고 뭔가를 꾸미려 하다보니 도무지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질 않았다. 일부 상상했던 산행도 막상 부딪쳐보니 생각했던거와 너무도 다른 모습이었다. 백번듣는것보다 역시 한번 보는게 더 좋은것 같다. 동계때 (전부 거론할수 없어서) 형관 이형께서 많은 도움을 주셨다. 직접적으로 앞장서서 가르쳐주시곤 하셨다.

그리고 올해 신입생 모집을 위한 방안으로 개강 전 전남대학교 전체 OT때 산악회 홍보 문구가 적힌 펜을 OB산악회의 도움을 받아 돌렸다. 그 추운날씨에 지순누나와 선영이, 그리고 나셋이서 500여개의 펜을 돌렸지만 그 펜을 보고 찾아온 이는 아무도 없어서 아쉬웠다. 그리고 용우이 형께서 조촐한 장비전시회와 사진전시회를 하는데 들려주셔서 이것저것 많은 도움을 주셨다. 그래도 역시 학생들은 무심했다.

경준이형에게서 25살짜리 신입생이 관심을 보였다는 말을 듣고 솔직히 별 기대는 하지 않았다. 나이가 나이인만큼 힘들거란 생각이 먼저 들었다. 그런데도 석민이를 처음볼때 너무 반가워서 좋아미치지 않을수 없었다. 터울이 있어서 서먹했지만 도균이형이 지원해준 탓에 환영식을 무사히 마칠수 있었다.

그리고 석민이가 데리고 온 은선이와 나보다 (인정하기 싫지만) 키가 컼던 수아, 함께 신입생 환영등반을 보성에 있는 두인이형 집으로 갔었지만 당일 비가 와서 산행이 취소되는 아픔을 겪었다. 그래도 그 전날 휴가 나온 마린보이 선진이형과 균영이형과 함께한 경마SSIP, 후라이팬놀이는 잊을 수가 없다. 말뚝박기를 못한게 좀 흠이었지만… 재밌게 놀았던것 같은데 뜬금없이 탈퇴해버리는 수아를 보고 착잡했다.

그리고 첫 월출산 산행, 산행이란게 위에선 가르쳐주고 싶은 욕심은 많지만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무리한 등반으로 인해 사고가 없어야겠다고 생각했다. 더욱이 처음으로 데리고 가는 암벽이라 릴랙스하게 진행되길 원했다. 은선이는 처음 들어 본 무거운 배낭 탓에 영암 터미널에서 월출산 야영장까지 가는 길에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지금도 잊을 수 없는게 이때 나는 정말 심각했다. 아씨…어떡해야하나, 그렇게 심각한가, 산행은 어쩌지, 끌고 갈수도 없고 어쩌냐. 선영이가 배를 움켜잡고 쓰러져버린 탓에 산에 있는 흙 한번 밟기 전에 이런 심각한 고민을 했다. 이 날이 4월 1일 만우절이란걸 눈치챘을땐 누군가가 핸드폰 119를 누르기 바로 직전이었다. 덕분에 다들 긴장을 풀렸고 그날 늦게까지 타학교와 술을 나눠마셨다. 안주는 김이었던걸로 기억한다. 다른건 없었다. 쌈장있었나?

그리고 다음날 암벽을 하는데 지순누나, 선희누나, 경준이형께서 시루봉까지 와주셔서 등반하는데 요리조리 코치를 해주셨다. 담날 점심때 형들이 싸온 음식을 보고 입이 떡벌어지던 선영이가 생각난다. 산가를 부르니 군가가 생각나서 머리가 아프다던 석민이의 평계도 생각난다. 그리고 저녁에 발냄새를 맡던 은선이도 생각난다. 49기는 전부 자기 발냄새를 확인한다. 은마도…

등반 이를 중 하루를 남기고 떠나버린 은선이는 다신 돌아오질 않았다. 은선이는 기타 동아리에서 잘먹고 잘사는 모양이다.

첫 종주 춘계! 춘계가 2주 미루어져 사고들이 벗발쳤지만 어쩔 수 없었다. 석민이가 지루하고 힘들고 재미없었다던 춘계였다고 해서 에피소드가 없다는게 아쉬움으로 남는다. 누군가는 무작정 힘들게 산행을 하면 기억에 남는다고 하지만 그걸 깊은 기억 속에 자리잡기 이전에 산악회에 대한 거부감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산악회에 남아있는 사람이야 힘들었던 기억을 먹고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즐겁다고 이야기 보따리를 풀어놓겠지만, 당시 그때 받았던 그고통은 결코 즐겁지 못했을 것이다. 하물며 이미 치를 떨고 탈퇴해버린 사람들이야 말할 것도 없다. 일면만 보면 무조건 힘든 것만을 추구하는 집단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누구나 즐기자고 들어온 동아리일텐데 말이다. 선을 딱 그어놓고 이정도도 못하면 안돼라는 느낌을 받은 적이 있다.

춘계를 마무리하고 석민이의 감기 투hon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체육대회에 몸담아 뛰는 모습은 아무리봐도 무식했다. 그날 광주로 올라가는 차에서 안쓰럽게 별개진 얼굴로 입별리고 자던 석민이의 모습이 떠오른다. 아 글고 홀로 받는 석민이의 외로운 따끼리 전수식은 참으로 씹쓸했다.

C-C이전에 들어온 은미 역시 첨엔 큰 기대를 불러오진 못했다. 학번은 03학번인데다 첨 봤을 때 딱 빼질 것 같은 이미지였다. 그래도 환영식은 웬만한 피로연 못지 않은 준비로 이루어졌다. (아주) 이따금씩 나와 C-C에 관련된 일을 처리해 줄 일손이 되어주었다. 산행은 못가도 일손만으로 고마웠다. 하계 가기전까진 그냥 일하러 온 아줌마인줄 알았다.

C-C를 준비해가면서 일년중 가장 바쁜, 아니 어쩌면 일생중 가장 골치아팠던 기억 중 하나 일지도 모르겠다. 일단 모르고 있는 점이 많았고 주위의 말도 많았다. 그래도 중개자 역할을 해 주신 영필이형과 정국이형께서 도와주셔서 감사했다. 두인이형은 가장 벌여놓기 싫던 학생과 외의 일을 처리하는데 무지막지한 도움을 주셨다. 그렇게 많은 도움을 받고 C-C 전날 타 학교 접대를 위한 준비에 내 친구 오크가 와서 청소좀 거들먹거려주고 갔고, 석민이와 선영이가 바쁘게 움직여준 탓에 무사히 내빈접대를 마칠 수 있었다(은미 생각이 안떠오르네…).

한달여간 그렇게 준비해온 C-C가 다음날 1등팀은 한시간도 안되어 골인하고 길게 잡아 세 시간도 안되는 경기시간으로 인해 허무한 감이 있었다. 앞으로 코스를 두배 세배 늘려야 골인 지점에서 기다리는 대장들의 허무함과 억울한감이 없지 않을까 싶다.

C-C가 개인전인줄 알고 어리버리 혼자 신청하러 왔던 사람과 가까스로 팀을 결성한 석민이는 우리의 기대를 역시나 깨지 않았다. 길을 잊어버려 엉뚱한데로 갔다가 꿀찌에 가까운 성적으로 골인을 당당히 하였다. 하산길 선택도 잘못되었었다. 전날 홀로 목숨을 걸고 야간산행해 가며 표식기를 붙였던 난 바보된 기분이었다. 선영이는 보건대 동기 선미와 함께 뛰어 샌달이라는 공동장비가 될 수 없는 상품을 받아 소원성취하였다.

산악회에서 산을 빼버리고 이야기를 한다면 분명 잘못되었지만, 일주일동안 쌓였던 학업을 비롯한 스트레스를 주말에 해소하기 위해서 동아리에 가입하는 사람이 대다수라 본다. 하지만 산악회는 그러한 여유를 주지 않고 오히려 어쩌면 하나의 고민거리를 더 안겨주는 식인지도 모른다. 그런면에서 산행을 (극단적인 표현으로) 업무라고 치부한다면 (적어도 재학생들에게 있어서) 회원들간의 만남이란게 항상 업무를 비롯해서 연락이 되고 업무 중심적으로 되었던 것 같다. 그래서 올해 산행에 관한 업무라는 한단계 덧쌓인 모임을 타파하고 싶어 동방을 와서 편히 쉬고 싶어하는, 놀이방같은 곳을 만들고 싶었다. 부담없이 와서 놀고 운동하고 공부하고 잠도 자고… 그런 생각에서인지 1학기엔 자연스레 동방에서 학업에 열중하다보니 나를 필두로 하여 동방에서 공부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지기도 했었다.

이런 점에서 볼 때 선영이는 업무를 떠나서 허물없이 1학년들에게 다가갈 수 있는 능력이 있

다. 올 1학년들을 2005년도 49기로 뭉쳐서 보지 않고, 개별적으로 그들에게 한걸음 한걸음 다 가갔다. 깊은 정을 주고 그들과 함께하지 못하면 진정으로 아쉬워하면서 감성적으로 후배들을 이끌어주었다. 단축해서 정감가게 하는 조장이었다. 1년동안 조장을 맡아 항상 산행에 앞장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오느라 힘든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고 본다. 불평없이 잘해내주었던 게 고맙다. 등산학교때 조별모임이 있으면 타학교 후배들에게 꼼꼼하게 자기가 배워왔던 것을 조목조목하게 잘 설명해준걸 보았다. 선영이에게 무언가를 가르쳐주면 잊지않고 후배들에게 하나씩 하나씩 물려주는게 보인다. 선영이에게 산행방식 등에서 이점을 가르쳐준다면 몸소 실천하며 후배들과 함께하는 사례깊은 선배가 될것이다. 솔선수범하려는 자세로 겸손함이 엿볼 수 있다.

2005년도 전남대학교 산악회에 그의 이름 석자가 빠진다면 공허하게 느껴질 것이다. 독특한 이력만큼이나 요상한 사상과 관념을 가지고 산악회가 살아있음을 느끼게 해주는 문석민. 등반에 대한 열의와 목표의식을 다시한번 산악회에 커다란 이미지로 인식시켜주었고 은근히 침착하게 천천히 이끌어간다면 못할게 없어 보인다. 굳세게 앞으로 돌진하는 모습은 어디에 내놓아도 손색이 없으며 열정적이고 힘이 넘친다. 하계 종주 마지막 즈음, 중청대피소에서 대피소 사람과 약간의 마찰이 있었는데 의외로 이성적인 대화를 이끌어가는 석민이의 모습은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다. 자칫 포장된 말을 많이 하는것처럼 보여도 뚜렷한 주관은 굽히는 법이 없다. 하루빨리 석민이가 구축했던 등반 스타일을 느껴보고싶다. 그만큼 머릿속에 무언가 자리잡은 생각이 많아보였다(석민아 마음껏 펼치렴). 하계때 산행이 힘들면 스스로 한곡 뽑아올리던 석민이의 노래는 잊혀지지 않는다.

은미는 함께한 산행은 많이 없었지만 그런 이유에서인지 (난 원래 은미의 자기관념 뚜렷한 스타일이라고 보지만) 관습적이고 산악회가 아닌 다른사람들이 보면 이해하기 어려운 우리들만의 방식에 맞써 싸울줄 안다. 소위 짬밥이 되야만 어디까지의 발언을 꺼낼수 있다라는 암묵적인 분위기 속에서(혹은 나만 그렇게 느꼈을지 모르지만) 은미는 따끔한 일침을 뇌출수 있는 사람이다. 단순히 경험이 적어 산악회에 한발 떨어진채 방관자적인 입장으로 한 말일지도도. 내가 산악회에 처음 입회해서 정말 이해하기 어렵고 부당한 점을 이젠 당연스레, 혹은 부당하지 않다고 생각한 채 해온 행동을 일깨워주었다. 가치의 중립을 은미와 찾는다면 (혹시라도 현실과 동떨어진)산악회가 더 발전된 방향으로 갈수있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놀기 좋아하는 은미는 술자리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압도할 수 있다. 가볍지 않으면서도 깊이있는 입담은 항상

즐겁게 해준다. 또 힘들어하면서도 이미지를 다듬는 모습을 보면 누구나 화색이 돌게 만든다.(은미는 시키면 못하는게 없다. 첨엔 빼더라도 추궁하면 할 말 다하고 할건 다한다.)

올 하계를 가슴졸이며 준비를 하였지만 출발하자 부담을 떠나 차분했다. 용육이형께서 직접 비오는 날 그 먼 대관령까지 태워다주셨고, 출발부터 비가 그치고 날씨도 좋았다. 선선한 바람 맞아가며 해가는 산행이 혹시라도 산행 강도가 약한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자꾸 들었다. 작년에 그렇게 끔찍하게 다가오던 하계의 기억은 온데간데 없이 이번 하계는 작년보다 더 무거운 짐을 들었던것 같은데도 웬지모르게 즐겁고 여유롭고 힘들지 않았다. 이게 강도가 약해서인지, 아니면 내가 나아진것인지, 그것도 아니면 정신적인 문제인지 갈피를 잡지못했다. 그러면서 힘들다고 얼굴에 나타나던 은미를 보고, 그리고 아주가끔 지친척하는건지 진짜 지친건지 모르겠지만 암튼 그런 얼굴을 하는 석민이를 보고 산행 강도가 약한게 아니야, 라고 애써 생각했다.

짧지 않은 하계 종주였지만 왜그렇게 시간이 빨리 지나갔는지 모르겠다. 첫날 매봉까지 쌀 2봉지 내기 선착순 게임을 한것도, 진고개 가는길에 4만원정도를 주워 팔빙수와 동동주 사먹던 일도, 두로봉가는 길에 물이 부족해 미역국 눈치쌈을 한것도, 허치하며 계곡에서 물놀이를 한것도, 비오는날 진도가 나가지 않다가 이상하리만큼 저녁엔 쇠나드리에 일찍 도착한것도, 단복령 설피민국 텔보아저씨와 효소 부어가며 마시던 술 맛도, 목숨걸고 찾아온 용주형과의 만남도, 탁트인 곰배령에서 화이팅해가며 힘차게 불렀던 산가도, 한계령 가는 암릉구간에서 옆은 은하수 보며 이야기한것도, 중청에서 웬지모르게 구걸하면서까지 술이 땄기던 그때도, 운해 잔뜩낀 대청 마루에서 부르던 설악가도, 양폭에서 계곡에 뛰어들고 싶던 그 욕구도, 지환이형 만나 오랜만에 삼겹살먹고 모기에 신나게 뜯겼던마지막 밤도 내겐 잊혀질 수 없는 너무도 소중한 기억이 되었다.

사람과 사람과의 만남이 이루어낸 산악회 안에서 너무도 소중한 사람들을 만나 기억 하나하나 잊고 싶지 않다. 2005년 일년은 내게 너무도 수많은 새로운걸 가르쳐준 한해였고 절대 잊혀지지 않을 한해가 되었다. 항상 신경써주시던 선배님들께 너무도 감사하고, 또 잘 따라준 선영이 석민이 은미에게 고맙다. 나름대로



의 포부를 펼치지 못해 아쉬운게 훌가분한 마음보다 먼저 듣다. 좀 더 잘할수 있었는데라는 식의 뒤늦은 곱씹음은 이제 소용없고 다만 용주형에게 카메라를 맡긴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뱉는다. 도맡아 하기엔 좀 그렇지만 남주긴 머시기한 자리에 앉아 후회없는 한해를 보냈다.

끝으로, 석민이가 언젠가 내게 얘기했던게 떠오른다. 비 쫄딱맞고 추월산에서 내려왔을때였냐? 홈페이지에 올라오는 글이 없어서 읽은 글을 또읽고 본 사진을 또 보지만 그게 너무도 재밌어 새벽에도 자꾸만 홈페이지를 찾게 된다고 했다. 그리고 가까운 오비형들을 만나면서 너무도 상세하게 홈페이지에 올라온 글을 빠삭하게 알고 계셔서 놀란적이 있었다. 흔적은 전혀 남기지 않고 무관심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한편으론 기쁘면서도 한편으론 아쉬웠다. 내가 생각하기에 우리 산악회 홈페이지는 모든 면에서 그 어떤 모임보다 최고를 달린다고 본다. 바쁜 일상을 벗어나 웹상에서 하나로 결속시켜주는 이러한 공간을 갖고 있다는게 내 스스로 자랑스럽고 소중한 이곳을 희생적으로 관리를 해주시는 지환이형과 옥랑이누나에게 너무도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단순히 수고하신다는 말만으로 쉽게 받아들일 노고가 아닌걸 잘 알기에 더욱더 홈페이지를 잘 활용하고 싶었다. 내 스스로도 홈페이지의 활용면에서 부족한점에 대해 변명의 여지가 없지만 그러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더 권하고 싶다. 여긴 회원들의 나눔터이고 정감있는 기억들의 산물이 될 수 있는 곳이니 짧게나마 형들의 흔적을 보고 싶다. 그래서 악우지 원고 좀 주세요!

9. 산악회의 다원화

우리 산악회는 산에서의 경험을 중요 시 하기 때문에 기수제로 운영을 한다. 사회에서는 서로를 존칭하고 인생의 경험으로 서열화되지만, 산에서 만큼은 어떠한 보이지 않는 위험한 요소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산에서의 경험을 인정해 주고 선배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그것을 “형”이라는 호칭으로 표현된다.

산악회는 상큼한 신입생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지만, 대학생활을 어느 정도 경험해본 학생들이 산악회에 입회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로 학기 초에 봉지나 학생회관 앞에서 장비전시회나 사지전시회를 할 때면 신입생들 보다도 군대갔다온 남자들이나 대학생활에 어느 정도 경험을 해본 재학생들이 관심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

우리 산악회에서도 05년에는 2학년 선배보다 1학년 후배 나이가 더 많았으니까...

그러나 이러한 문제를 가지고 시대가 시대인데 너무 보수적으로만 흐르지 않았나 하는 생각

이 든다. 현실은 다양한 사람들이 산악회를 발을 내딛을려고 하는데 우리는 정해진 틀이 이러니까, 적응하는 것은 개인의 뜻으로 돌리는 듯하는 느낌이 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산악회에 남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

물론 어느 조직이든 간에 정해진 회칙과 원리 원칙을 통해서 체계화하고 조직을 이끌어가며 조직 문화가 형성된다. 우리 산악회도 지금 50년까지 이어올 수 있었던게 서로간 의견의 충돌 될 수 있는 부분도 회칙이라는 원칙을 통해 절충할 수 있는 기준이 되었고, 우리 산악회만의 독특한 조직 문화적인 이유로 인해서 선후배들간의 끈끈한 정이 뒷받침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인이 하고픈 말은 시대가 변화한 만큼 사람들의 인식도 바뀌고, 현실도 변화하지만 그 원칙을 가지고 50년간 변화가 없었다는 것이다. 정해진 틀에 원칙을 가지고 개인이 적응을 못해서 도태된다면 조직의 원칙의 변화도 검토해보아야 할 것이다.

산악회가 너무 강압적이고 남성중심적인 사고의 시대를 넘어서 누구나가 지닐 수 있는 다양성을 인정하고 존중해 주어야 한다. 물론 그 모임 내에서 자신의 위치에 맞는 역할은 충분히 수행하면서 조직이 톱니바퀴처럼 잘 굴러갈 수 있게…

이렇게 해서 우리 전남대학교 산악회가 100년사 기념을 할 수 있게… ^^*

10. 산악회의 크고 작은 사고

산에를 다니면 산에는 언제 있을지 모르는 사고가 항상 내재되어 있는게 사실이다. 그게 본인의 안전 의식 잘못으로 실수로 일어나든, 자연 현상의 불가항력적인 어쩔 수 없는 사고이든 간에 항상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그러한 일들이 있었던 2000년대 내 기억에서 나는 사고들을 나열해 보았다.

2001년	동계 설악산 화상사고
2003년	동계 설악산 토막골 낙빙사고
	하계 설악산 흑범길 추락사고
2004년	월출산 형제봉 추락사고
	하계 백두대간 덕유산 할미봉 낙석사고
2008년	동계 매바위 낙빙사고
	춘계 호남정맥 낙상사고

그 외에 내가 기억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사건 사고들도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이 산에서 사고도 많이 있었는데, 이는 산행에서 부주의 했다고 보기보다는 그 만큼의 산행을 많이 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산에서 사고는 나지 말아야 한다. 하지만 산에서 사고가 난다고 해서 산행을 안한다는 것은, 교통사고 난다고 해서 자가용, 버스 등 차도 안타고 평생 걸어다니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고 생각하다.(걸어다니다 하늘에서 새똥이라도 맞을 수도 있는데..ㅋㅋ) 그만큼 자신의 안전 사고에 대한 의식도 가지고, 안전 사고에 대한 대처 능력도 지닌 만큼의 역량을 갖추어야만 선배로서의 진정한 산악인이 될 거라 본다.

이러한 사고를 통해서 후배들은 그 상황을 보면서 이와 같은 상황이 또 발생하지 않을 거라는 보장은 없기에 좀 더 값진 경험으로 성숙 할 수 있었고, 선배들은 후배의 사고가 선배의 책임임을 통감하면서 사고 당시 일사분란하게 대처해 주었고, 그 후에도 많은 전남대학교 산악회 선후배들이 서로가 관심을 가지며 위로하고 위문하는 등 전남대학교 산악회의 결속력을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산에서의 사고는 있을 수 있지만, 그걸 일어난 그대로를 받아드리지 말고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그에 대한 교훈을 얻어 앞으로 산행을 좀 더 효율적이고 안전하게 산행할 수 있도록 회원들간에 더욱 많은 대화의 시간과 안전사고 의식이 확보 될 필요가 있다.

11. 해외 원정등반의 기회

1997년 초오유 원정 이후 2006년 에베레스트(초모랑마) 원정이 있기까지 회원별로 개인적인 기회를 통해 해외원정등반을 계속하였다.

2000년대 해외 원정 산행 기록들을 한 번 정리해 보고 전남대학교산악회의 역사에 남을故事 이현조 회원의 경력과 그에 대한 2006년 전남대학교 초모랑마 원정단장님의 추모글을 게시해 보았습니다.

2000년	대한산악연맹 7대륙 원정대 에베레스트 등정	30기 박현주
2001년	광주등산학교유럽 알프스 3대 북벽 원정대	36기 이현조 39기 함경준
2001년	한국청소년 오지 탐사대 (안데스 산군)	39기 방경환
2001년	한국청소년 오지 탐사대 (중구 곤륜 산군)	44기 김연주
2004년	한국청소년 오지 탐사대 (파미르고원/알라이 산군)	42기 김재우

2004년	중국 쓰꾸냥산 트레킹	42기 안선희
2005년	히말라얀클럽 코스클락(7028m) 원정대	39기 이형관
2006년	전남대학교 에베레스트(초모랑마 원정대)	

36기 故 이현조 회원의 등반 경력

1999년 9월	동국대학교 네팔 마칼루(8,463m) 원정대 등반
2000년 5월	동국대학교 네팔 마칼루(8,463m) 원정대 등정
7월	파키스탄 브로드피크(8,027m) 등정
10월	네팔 시사팡마(8,027m) 등정
2001년 1월	남미 아콩카구아(6,959m) 등정
8월	스위스 아이거북벽(3,970m) 등정
8월	유럽알프스 그랑조라스북벽(4,200m) 등정
2003년 2월	박영석 그랜드 슬램 북극점(90° N) 원정
2004년 1월	박영석 그랜드 슬램 남극점(90° S) 도달
2005년 7월	한국 낭가파르밧(8,125m) 루발벽 원정대 루팔벽 등정
2006년 5월 16일	전남대학교 에베레스트(초모랑마(8,848m)) 원정대 등정
2007년 5월 16일	박영석 에베레스트 남서벽 신루트 개척 등반대 등반 도중 사망

36기 故 이현조 회원의 수상 경력

2005년	산악전문지 “사람과 산” 선정 알파인 클라이머 상
2006년	고산등반상

12. 불굴의 사나이 이현조 군을 추모하며!

5월을 계절의 여왕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화초들이 저마다 화려한 자태로 꽃단장을 하고, 모든 나무들은 해맑은 봄 햇살에 초록색으로 몸치장을 하는, 그야말로 생명이 약동하는 좋은 계절입니다. 이 아름다운 계절에 너무 서글픈 사연을 알리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많고 많은 별들 중에서 전남대학교가 놓고, 무등산이 기른 용봉인의 아들 이현조라는 선명하

고 아름다운 별이 2007년 5월 16일 새벽 2시경에 말 한마디 남기지 못하고 우리들을 뒤로, 뒤로 밀치고 다시는 돌아 올 수 없는 먼 길을 가버렸습니다. 이현조는 한국 최초 에베레스트 원정 등반 성공 3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한국 에베레스트 남서벽 신루트 개척 등반대”에 선발되어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본 등반대는 한국에서 제일가는 세계적인 등반가들로 구성된 드림팀 이었다고 합니다.

사고 당일 등반대원 중에서 가장 실력이 뛰어나고 팀웍이 잘 맞은 이현조와 오희준 대원이 한조가 되어 Camp4를 천신만고 끝에 설치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C4는 그동안 여러 차례 설치하려다가 실패했던 아주 중요한 캠프사이트로서 두 사람이 겨우 껴안고 잘 수 있는 까치집 (직벽 3000여m 주변에 겨우 텐트 한 동을 칠 수 있는 공간)이었습니다. 이번 등반에 성공여부를 결정짓는 C4는 정상을 등정하는데 전진기지로서 확보해야 할 캠프사이트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C4에다 정상등정에 필요한 보급물품들을 보관해야하고, 또한 정상에 오르기 위해서는 반드시 1박을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두 대원은 C4를 성공적으로 설치한 후 새벽 2~3시경 기쁜 마음으로 박영석 원정대장과 교신하던 중 돌파 눈 더미에 휩쓸려 7800m 지점에서 6400m 까지 1400여m나 숨 한번 제대로 못 쉬고 추락하여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먼 세상으로 멀리 멀리 가버렸습니다.

사고가 난 5월 16일 이현조에게는 1년 전인 2006년 전남대학교 개교 55년 및 총동창회 창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하여 전남대학인들로만 구성한 “전남대학교 초모랑마(에베레스트 : 8850m) 원정대”가 정상등정에 성공한 날이자, 본인이 이 등반에 참가하여 정상등정에 성공한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왜 하필 초모랑마 정상등정 1주년 기념일에 자축은 못하고 동토의 땅 히말라야에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천상으로 가버렸는지? 너무 가슴이 아리고, 안타까워 못난 한 선배가 이현조를 추모하면서 이 글을 남깁니다.

여기에서 언론에 가시화된 이현조의 생전 삶의 역정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이현조는 1972년 2월 4일 영광에서 출생하여 1992년 전남대학교 불문과에 입학하였고 그해 전남대학교 산악회에 입회하여 산과 처음 인연을 맺게 됩니다.

주요 등반으로는 1999년 9월 네팔 마칼루(8,463m) 등반, 2000년 5월 마칼루 등정, 동년 7월 파키스탄 브로드피크(8,027m) 등정, 동년 10월 네팔 시사팡마(8,027m) 등정, 2001년 1월 남미 아콩카구아(6,959m) 등정, 동년 8월 스위스 아이거북벽(3,970m) 등정, 동년 8월 유럽알프스 그랑죠라스북벽(4,200m) 등정, 2003년 2월 북극점(90° N) 원정, 2004년 1월 남극점(90° S)

도달, 2005년 7월 파키스탄 낭가파르밧(8,125m) 루팔벽 등정, 2006년 5월 16일 티벳 초모랑마(8,850m)를 등정하였습니다.

이현조는 등반 중에서 아름답고, 누구도 해낼 수 없었던 몇 가지 일을 하여 많은 화제를 낳았습니다. 그 중에서 시샤팡마 남서벽을 등정하고 하산 중에 불의의 사고로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는 지옥 같은 크레바스에 추락하게 되었습니다. 삶과 죽음의 질곡에서 이현조는 불굴의 용봉인으로 구사일생 크레바스를 탈출하는데 성공하였으나, 동행했던 선배대원이 150여m 산위에서 탈진하여 의식을 잃고 쓰러져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말이 150m이지 산소도 없고, 육신은 파김치가 되어 본인의 몸도 가눌 수 없는 가사상태에서 150여m나 올라가서 선배를 구출한다는 것은 쉽게 해석하기가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의리의 사나이 이현조는 불굴의 투지로 선배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베이스캠프까지 무사히 생환하여 돌아오자 많은 매스컴에서 취재의 대상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 뿐이겠습니까? 이현조는 2005년 7월에 인간을 애시 당초부터 거부한다는 파키스탄 낭가파르밧(8,125m) 루팔 벽(4800m 직벽)을 아무 사고 없이 정상 등정하여 세계인을 놀라게 하였으며, 이로 인해 등산가로서 세계적 슈퍼스타의 자리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이 루팔벽은 35년 전 이태리가 낳은 불세출의 등반가인 라인홀트매쓰너가 동생과 함께 성공등정하고 하산 중이 동생을 사고로 어느 골짜기 크레바스에 묻고 혼자 돌아왔다고 하여 반쪽 등반으로 평가한 산이었습니다. 이후 이 루팔벽은 35년 동안 수많은 등산가가 수없이 문을 두드렸으나 사고와 죽음으로 점철된 산이었습니다. 난공불락의 산 낭가파르밧 루팔벽을 2년 전 이현조 대원이 정상 등정에 거뜬히 성공하자 세계의 많은 매스컴들은 이현조를 세계적으로 가장 유명한 등산가반열에 옮겨놓았습니다. 이러한 혁혁한 공으로 이현조는 2005년 월간 ‘사람과 산’ 시상 ‘알파인 클라이머상’ 수상, ‘2006년 대한민국 산악상’, ‘고산등반 상’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인간적이고 세계적인 등산가 이현조는 비록 시기심 많은 히말라야의 백설공주(눈사태)가 멀고도 먼 천상으로 데리고 갔지만, 우리에게 남기고간 불굴의 정신과 순수한 인도주의는 모든 이의 마음속에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이러한 훌륭한 업적과 정신 때문에 지난 5월 27일 11시 서울대학교병원 장례식장에서 수많은 전국 산악인의 애도 속에서 (사)대한산악연맹장으로 두 대원 합동 영결식이 거행되었습니다. 식이 끝나자 전남대학교 산악회원과 광주전남 산악인들이 한줌밖에 남지 않은 유골과 해맑은 웃음을 짓는 영정을 모시고 무등산 자락에 아무 흔적을 남기지 않게 수목장으로 장사를 치렀습니다. 우리는 북북히 하산하면서 30여 년 전에 자주 불

렸던 산 노래(클레멘타인)이라는 노래에 가사를 붙인 노래)를 허탈한 마음으로 울먹이면서 불렀습니다.

엄마 엄마 나 죽으면 앞산에도 묻지마
뒷산에도 묻지 말고 양지 밭에 묻어줘
비가 오면 뎅어주고 눈이 오면 쓸어줘
정든 임이 찾아오면 사랑했다 전해줘
친한 친구 찾아오면 산에 갔다 전해줘

사랑하는 현조야! 잘 가거라
2006 전남대학교 초모랑마 원정대 단장
사범대학 체육교육과 교수 이 계 윤 드림

13. 산악회 제2의 부흥기를 꿈꾸던 2007년

전남대학교 산악회의 군대 조교출신 대장이 두 번째로 탄생하게 되었다. 군대적인 특유의 입담과 카리스마적인 외모에서 풍기는 이미지와는 달리 세심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후배들을 하나하나 챙겨주는 모습의 47기 정효준 회원이 대장으로 취임하였다.

대장의 변화의 대한 의지는 취임과 동시에 동아리방의 변화 개선에서부터 시작한다. 기존에도 동아리방을 밝은 이미지로 바꾸려고 노력하였는데, 여기에 획기적으로 동아리방에 블라인드도 달고 동아리방 케비넷의 변화도 추구하였다.

이러한 변화에 신입생이 부흥하는지 8명의 개성 넘치는 신입생들을 받아들이게 되었다. 동기가 많으면 서로 싸우기도 많이하고 그러면서 정드는 건데 그러한 중간적인 역할을 잘 조절하고 산행을 리드함으로서 매번 산행에는 많은 인원의 회원들이 산행을 하게 되었다.

산행을 하는데도 산행 이름에서도 변화를 가지게 되었다. 예를 들어 춘계를 봄맞이 철쭉산행 이랄지 추계를 씨앗산행이라고 칭하게 하면서 산행에 대한 친근감을 조성하게 되었던 것 같다.

산행도 사람이 많다보니까 개인산행의 기회도 많이 있게 되어서 산행의 경험을 정기 산행이 아닌 개인산행으로서도 충족할 수 있었다.

최근 이러한 산악회 신입생 회원이 많이 들어온 경우가 드물지만, 그 회원들을 잘 이끌어서 산에 대한 열정과 산악회에 대한 애정으로 전남대학교 산악회 제2의 부흥기를 꿈꾸었던 07년도가 아니었나 싶다.

지금까지 제 눈으로 보아온 98년부터 07년까지의 있었던 산행들을 큰 대목으로 이어가면서 적어보았습니다. 글을 쓰면서 그 당시 산행의 기억들이 새록새록 떠오르지만 그걸 큰 틀로서 표현하는데 내 머리에는 한계가 있어서 홈페이지에 기재된 글들을 기반으로 전체적인 흐름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산악회 산행이야 봄 되면 춘계가고, 여름되면 하계가고, 겨울되면 동계가는 일반적인 산행이 야 다 똑같지만, 거기에는 산행을 리더하는 사람들, 새로이 산행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얼굴이 변화가 있기에 그 변화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 해 보았습니다.

말로는 표현 못 할 재학생 시절의 아름다운 추억을 나 혼자만이 아닌 여러사람들과 공유하면서 못다한 이야기는 산에서 소주 한잔 걸치면서 이야기 하고 싶군요..^^*



제 2장

총장기 CROSS-COUNTRY 대회

제1절 CROSS-COUNTRY 대회

제2절 창립의 배경

제3절 대회요강 변천

1. 참가대상
2. 산행코스
3. 구보코스
4. 중량
5. 시상
6. 전야제
7. 행사준비
8. 경기규칙



COUNTRY대회

총장기쟁탈 전국지역 CROSS-COUNTRY대회

총장기쟁탈 전

제2장. 총장기 CROSS-COUNTRY 대회

제1절. 크로스 컨츄리 대회

Cross country race란? 근대 5종 경기의 하나. 육상·사이클·경마·스키 따위에서, 산이나 들 또는 경작지 따위를 어떤 장애물에 구애[拘碍]됨이 없이 선을 그어놓던가 깃발을 세워놓아 그 지점을 빨리 통과하여 그 승부를 겨루는 단교경주[斷郊競走]라고 할 수 있다.

이 경기의 기원은 고대 회람에서 강인한 체력과 감투정신 인내력을 가진 유능한 병사를 기르기 위해서 행하여 졌으며 근데 5종경기의 모체가 되었다.

오늘날의 Cross country를 체계화 한 것은 영국의 럭비나 이론 등의 영국 학교에서였고 1902년에는 국제선수권을 개최했다.

1928년에는 올림픽 종목으로까지 논의된바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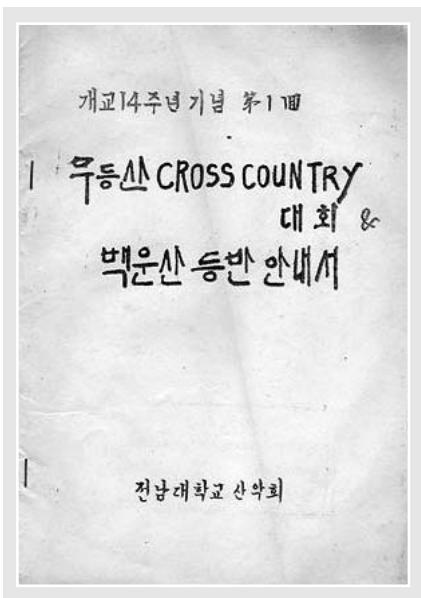
현재 영국에서 행하는 이 경기는 7~8명이 한 팀이 되어 3~7mile을 횡단하는데 고등학생은 3mile정도로 행하며 5명 이상이 결승지점에 도착하여야만 입상 자격이 부여된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등산대회의 일부분으로 많이 해석되고 있으며 인공을 가마하지 않은 자연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풍부한 영양성이 있으며 많은 체력과 크기 인내정신 협동정신을 요하기 때문에 젊은이에게는 더할 수 없이 좋은 운동이라고 하겠다.

19세기 초에는 크로스컨트리 경기를 ‘종이 쫓기’ 또는 ‘산토끼와 개’라고 했다. 이것은 ‘산토끼’가 된 사람들이 종이조각을 뿐리면서 도망치고 ‘사냥개’ 역할을 맡은 나머지 사람들이 산토끼보다 몇 분 늦게 출발하여 종이조각을 따라 산토끼를 잡으려 뒤쫓아 가는 야외놀이였다. 크로스컨트리 선수들은 진짜 토끼사냥에 이용되는 작은 사냥개들의 이름을 따서 ‘해리어’(harrier)라고 알려지게 되었다. 1837년 영국의 럭비 학교에서 크릭런 대회가 설립되어 크로스컨트리 발전에 중대한 공헌을 하게 되었다. 이를 보고 다른 많은 유명한 학교들도 매년 크로스컨트리 대회를 열게 되었다. 30년 뒤 템스 조정 단체가 조정 선수들의 체력단련을 위해 겨울철에 크로스컨트리 대회를 열게 되었고 그 후 몇 년 사이 영국 전역에 크로스컨트리 경기 단체들이 많이 생겼다. 1877년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제1회 영국 크로스컨트리 선수권대회가 16.09km 구간에서 열렸다. 이 대회에서 당시 유명한 미들랜즈 클럽 소속 베치필드 해리어스 팀이 여러 번 우승했다. 이 대회가 처음 열렸을 때 참가 선수는 33명이었으나 20세기 중반 이후가 되

면서 그 수는 900명으로 크게 늘었다. 첫 국제 크로스컨트리 경기는 1898년 영국 팀과 프랑스 팀 사이에서 벌어졌다. 1903년 잉글랜드·아일랜드·스코틀랜드·웨일스가 주체가 되어 국제 선수권대회를 조직했다. 1907년 프랑스도 이 국제대회에 참여했고 1924년 벨기에에도 합류했다. 1929년에는 이탈리아·룩셈부르크·스페인·스위스 등이 참여했으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그 밖의 다른 나라들도 계속 참여해서 대회규모가 커졌다. 1962년 국제육상경기연맹(LAAF)이 국제 크로스컨트리 선수권대회와 남녀 국제 크로스컨트리 대회의 규칙을 정했다. 최초의 여자 국제 크로스컨트리 대회는 1967년 웨일스의 배리에서 열렸다. 원래 올림픽 대회의 정식종목이었으나 여름철 경기로 부적합하다는 이유로 1924년 올림픽 종목에서 제외되었다. LAAF에서 규정한 국제 크로스컨트리 대회의 공식구간거리는 남자 12km, 여자 2~5km이다. 경주구간의 난이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세계기록은 측정되지 않는다. 크로스컨트리 팀은 6~9명의 선수들로 구성된다. 단체전의 점수계산법은 구간별 각 선수들의 등위에 따라 1등은 1점, 2등은 2점 등으로 점수를 주고 최종적으로 각 점수를 합하여 가장 낮은 점수를 얻은 팀이 승리하게 된다.

제2절. 창립의 배경



1965년 어느 날 전남대학교 산악회관에서 박명선, 김장영 두 회원이 산악백과사전을 통해서 처음으로 영국의 Cross Country 대회를 알게 되어 이를 우리 실정에 맞게 조율하여 산악 Cross Country 대회를 만들었다. 1966년 6월 9일 산악회원들 간의 침목을 도모하고 체력단련의 장을 만들어보고자 6월 4일 ~ 6월 6일 백운산등반을 겸한 첫 Cross Country 대회가 개최되었다. 대회장은 박하옥 총장, 부대회장은 고재기 교수, 심판장은 정순택, 기록은 이영석 오중록이 맡고 심천섭 장기수 박하연 김송현 이행주 오재남 이재년 박일규가 심판으로 활동하고 우승 준우승 감투상을 시상하였다. 1970년 5회 대회부터 총장기 쟁탈

전으로 대회 규모가 커지면서 지역 산악인들과 고등부가 포함되었다. 1986년 대학 입시문제로 참여율이 떨어지던 고등부를 제외시키고 참가 범위도 대학생으로 제한하였다가 90년대 이후 신입회원의 부재로 준폐위기에 놓인 대학산악회가 많아지면서 참가팀이 줄게 되자 결국에 41회 대회 입암산성 산행으로 Cross Country 대회를 대신하였지만, 반발이 심했다. 40년 전통을 잃고 싶지 않은 것이다. 40여년 동안 전남대학교 Cross Country 대회를 거쳐간 산악인들은 적은 수가 아니다. 시대적 변화에 따라 남녀노소 제한없이 가족과 일반인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 참여 할 수 있게 대회요강을 바꾼 결과 42회 대회에서는 보다 곤끈한 산악가족들 간의 우애를 다지며 40년 이상 전통을 가진 전남대 산악 Cross Country 대회 전통의 맥을 잇고 있다.

참가비를 한 번 살펴보면 첫 대회 때 백운산등반을 위한 교통비 포함해서 참가비는 370원 (산악회원이 아닌 일반학생 420원)이였다. 5회대회(1970) 각팀당 남자부 500원 여자부 400원 이던 것이 9회(1974)부터는 100원이 올랐다. Cross Country 대회를 개최한지 20년이 지나서 참가비는 2,000원에 이른다. 24회(1989) 대회에서 3,000원, 25회(1990) 대회부터 5천원으로 올랐고, 30회(1997) 대회때 천원이 더 올라서 6,000원, 34회(1999) 만원에 이르게 된다. 그 다



음해 다시 5천원으로 내렸다
가 38회(2003) 대회부터 다
시 만원을 받았다. 40년이
넘는 기간동안의 Cross
Country 대회 참가비의 변천
사만 보아도 우리나라의 돈
에 대한 가치가 얼마나 빠르
게 변화하였는지 보인다. 경
제발전에 따른 돈의 가치만
변한 것이 아니다. 우리의 삶

의 질도 많이 달라졌다. 고인 물은 썩는다고 했다. 시대의 흐름에 맞게 변화하지 않는다면 전통
도 추억으로만 남는다는 것을 우리는 직시해야 할 것이다.

제3절. 대회요강 변천

1. 참가대상

1966년 6월 9일 첫 Cross Country 대회부터 69년 대회까지는 참가대상을 본교 재학생으로 하여 각 단과 대학별로 남자 4인1조, 여자 3인1조를 이루었다. 1970년 6월 대회부터 전남대학교 총장기 쟁탈전으로 대회 규모를 키우면서 고등학생까지 그 참가 범위도 넓혔다.

1986년 대회부터는 고등학생을 제외한 대학생들만으로 그 대상을 좁히고 남자부도 기존 4인1조에서 여자부와 동일하게 3인1조로 규정을 바꾸었다. 2001년부터는 나이제한을 없애고 청소년부, 남자부, 여자부, 가족부(가족부와 일반부는 혼성가능, 2인 1조) 등으로 그 참가범위를 전폭적으로 확대시켰다.

2. 신행코스

- | | | |
|-----------|-----|--|
| 1회 ~ 4회 | 남자부 | 학동삼거리-승의목장입구-승의목장-쇄인봉-중머리재-중심사-제1수원지 |
| | 여자부 | 학동삼거리-승의목장입구-승의목장-쇄인봉-약사암-제1수원지 |
| 5회 ~ 20회 | 남자부 | 승의목장-제1수원지 갈림길-쇄인봉-중머리재-천문사-중심사-제1수원지 |
| | 여자부 | 승의목장-쇄인봉-약사암-제1수원지 |
| 21회 ~ 23회 | 남자부 | 중심사입구-중봉-장불재-꼬막재-산장 |
| | 여자부 | 중심사입구-중봉-봉황재-바람재-산장 |
| 24회 ~ 29회 | 남자부 | 금남중-쇄인봉-중봉-제1수원지 |
| | 여자부 | 제1수원지-쇄인봉-약사암-제1수원지 |
| 30회 ~ 34회 | 남자부 | 중심사종점-약사암-쇄인봉삼거리-중머리재-장불재-규봉암-꼬막재-산장주차장 |
| | 여자부 | 중심사종점-약사암-쇄인봉삼거리-중머리재-봉황대-바람재(도로통과)-늦재(도로통과)-산장주차장 |
| 35회 | 남자부 | 중심사-중머리재-장불재-군도로-산장 |
| | 여자부 | 중심사-중머리재-토끼등-늦재-산장 |
| 36회 | 남자부 | 중심사-중머리재-장불재-꼬막재-산장 |
| | 여자부 | 중심사-중머리재-토끼봉-늦재-산장 |

37회 ~ 38회 남자부 중심사입구-중며리재-동화사터-산장
여자부 중심사입구-중며리재-봉황대-바람재-산장
39회 ~ 40회 남자부 중심사-중며리재-중봉-동화사터-산장
여자부 중심사-중며리재-봉황대-바람재-산장
41회 입암산성 산행
42회 무등산장-꼬막재-장불재-군사도로-늦재-산장
43회 무등산장-꼬막재-장불재-군사도로-늦재-산장

3. 구보코스

1회 ~ 4회 남자부 도청앞-계림동-본교운동장
여자부 호남건전지회사(현 안보회관)-본교운동장
5회 ~ 23회 남자부 대학병원-충장로-농대입구-본교종합운동장
여자부 농대입구-본교종합운동장
24회 ~ 29회 남자부 신양파크호텔-산수5거리-구사례지오고-전대정문-본교종합운동장
여자부 교육대-구사례지오고-전대정문-본교종합운동장

제 30회(1995) 대회부터는 학교 축제와 다른 시기에 대회를 개최하다 보니 부득이하게 구보를 없앴다가 35회(2000)대회에 남자.여자 모두 교대를 출발하여 전남대 종합운동장까지 하는 구보를 부활 시켰지만 바로 다음대회에 다시 구보를 cross country 대회에서 제외 시켰다.

4. 중량

1966년 6월9일 제 1회부터 4회 대회까지는 남자5kg, 여자 3kg 이였다가, 고등부가 포함된 제 5회 대회부터 남자, 고등부/대학부는 10kg, 여자, 고등부/대학부는 5kg을 기본 중량으로 하였다.

2002년 6월 대회에서는 남자부와 여자부 모두 5kg으로 정하였다가 바로 다음해인 2003년 6월 대회부터 남자 5kg 여자, 일반, 가족부 3kg 으로 무게의 부담을 줄였다. 모든 대회의 기본 중량에는 1인 비상식, 물이 가득 담긴 수통, 판쵸우의를 기본장비로 하여 이중 하나라도 부족 했을 시 중량검사에서 기본중량 미달과 함께 감점의 대상이 되었다.

5. 시상

모든 대회의 시상은 남자부, 여자부, 고등부, 일발부 등 대회의 변화에 따라 각 부서별로 시상을 하였는데, 첫 대회 때는 우승, 준우승, 감투상으로 나누어 시상을 하였다. 5회 대회부터는 남자부와 고등부는 우승·준우승·감투상·장려상·구보상을, 여자부는 우승·준우승·구보상을 시상하였다. 대회가 날로 발전해 가면서 고등부도 참가팀이 많아지면서 고등부상도 남자부와 마찬가지로 광범위하게 시상하였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86년 대회부터는 협동상·거북이상·멋의상·벗우상이 등위와 관계없이 O.B회에서 상의 이름에 맞게 임의로 수상하였다. 제35회(2000) 대회부터는 시상에 상품대신 상금(일명 장학금)을 주기 시작했으나, 39회(2004) 대회부터는 상금 없이 상품으로 시상을 하였다가, 42회(2007) 대회에서는 1, 2, 3위는 상금을 나머지는 상품으로 시상을 하였다. Cross Country 대회 43회를 맞이하는 동안 대회마다 뱃지나 T-셔츠, 손수건, 모자 등 매 대회마다 기념품을 제작하여 참가자 전원에게 나눠주었다.

6. 전야제

전야제는 보통 주장회의와 산악세미나 그리고 외부선수 접대로 이루어지는데, 주장회의는 대회전날 오후 6시경 각 참가팀의 대표들이 모여서 참가신청서를 접수확인하고 대회요강 및 경기규칙을 듣고 질의 응답시간을 가진 후 산악세미나를 열어 산에 대한 전문 지식을 넓혀 가는 장을 마련하였다. 또, 다른 도시에서 온 참가자들을 위해서는 그들이 편안하게 대회에 집중 할 수 있게 그들의 숙식에도 신경을 케을리 하지 않았다.

7. 행사준비

1) 인쇄

포스터, 대회계획서, 접수증, 채점판, 채점표, 통과증, 참가신청서, 대회임원 위촉장

2) 준비물

응급차 및 응급약품, 상장 및 상품(등위별), 깃발(관문표식기), 완장(임원), 저울(5개), 스템프 및 도장, 현수막(정, 후문), 기념품(선수용, 임원용), 등번호(남, 여), 결승테이프, 메가폰, 본부용 의자 및 탁자, 마이크, 옷핀

3) 신청서 (허가)

가. 세부계획서를 첨부하여 학생과에 행사 신청

- 나. 교내버스 사용허가
- 다. 도로사용허가(구보코스)
- 라. 무전기 사용
- 마. 금남중 운동장 사용 신고
- 바. 주장회의를 위한 소강당 사용 허가

4) 공문발송

- 가. 임원(심판)위촉장
- 나. 타 대학 학생과 협조공문
- 다. 우승기 반환공문(계획서 첨부)
- 라. 출장 협조공문(군입대자, 회사 등의 기관장)
- 마. 언론사(방송국, 신문사)에 대회계획서 발송

8. 경기규칙

- 제 1 조 모든 행동은 심판의 지휘 통솔과 본부 임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대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 제 2 조 팀 표식기를 부착하고 전 코스를 끝까지 완주해야 하며 팀 앞뒤 간격이 10m 이내 이어야 한다.
- 제 3 조 팀 참가자는 모든 면에서 모범이 되도록 노력하고 팀의 주장을 선정하여 통솔력과 창의력을 발휘하도록 한다.
- 제 4 조 집합 또는 출발시간을 어기는 팀은 감점이 되며 행사 또는 행동이 진행될 때 자기 위치에 없는 팀은 그 시간과 사유에 따라 감점 또는 실격이 된다.
- 제 5 조 참가 선수의 응원은 지정된 장소에서만 할 수 있다.
 - 가) 참가팀과의 동행은 금한다.
 - 나) 타 팀과의 야유나 불미스러운 행동을 금한다.
- 제 6 조 경기 도중 불의의 사고나 심판의 지시, 앞 또는 뒤의 팀에서 연락이 있을 시 팀의 주장은 지체 없이 앞 또는 뒤 팀에게 연락해야 한다.
- 제 7 조 아래 규정을 위반했을 시, 감정 또는 실격의 사유가 된다.
 - 가) 참가자격, 인원대체, 타인의 도움, 기타 일체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하고 행동했을 시
 - 나) 산행 및 구보에서 지정된 관문을 통과하지 않았을 시 (코스 통과증이 없을 때)
 - 다) 심판 그리고 본부 임원의 지시에 불미한 행동을 했을 때

라) 중량이 미달되었을 시 : 남자 대학부-개인당 5kg (기본 장비 필수)

여자 대학부, 일반, 가족부-개인당 3kg (기본 장비 필수)

마) 복장 주의사항 : 반바지착용 금지, 발복을 덮을 수 있는 운동화 이상

바) 기본 장비, 비상식, 식염수, 기타 등등

제 8 조 모든 항의는 경기 종료 후 10분 이내에 참가 팀의 주장이 정식 서면으로 본부 임원
또는 심판장에게 제출하지 않으면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제 9 조 항의 내용에 대하여 심판위원의 판정이 내린 후에는 재 항의를 할 수 없다.

제 10 조 본 규정에 없는 사항은 통례에 준하여 심판장이 결정한다.

* 배점 기준 *

1. 산행 80점 (등수차 점수 4점)

2. 기타 20점 (감점 대상 1건당 1점)

- 기본 장비, 비상식, 수통(물 충만), 판쵸 우의, (각자 개인 지참)

- 산행 시 불미스러운 행동

- 발복을 덮을 수 있는 운동화

※ 코스 통과증이 없을 시에는 실격처리 됨







제 3장 하계, 동계 장기등반

제1절 장기등반의 의미

제2절 대상지

제3절 등반기

1. 1980년 동계
2. 1987년 하계
3. 1990년 동계
4. 1995년 동계
5. 1995년 하계
6. 2002년 하계

하계시(설악시 변형)





제3장. 하계, 동계 장기등반

제1절. 장기등반의 의미

전남대학교 산악회에 입회원서를 쓰면 밟게 되는 공식적인 산행에는 큰 흐름이 있다. 신입생 환영등반과 춘계훈련등반 하계장기등반 추계훈련등반 동계장기등반 등 4차례의 훈련등반이 바로 그것이다. 일련의 산행속에서 새내기회원은 전남대학교 산악회의 정신을 배우고 전남대학교 산악인으로서 공통분모를 체득해 영원한 악우로 연을 맺게 된다.

신입생환영등반은 멋모르고 입회원서 작성한 뒤 기타매고 김밥싸서 룰루랄라 따라갔다 실컷 대접받고 왕창 술만 마시다 ‘산악회가 이런 곳이구나’ 하고 어설프게 느끼는데 그친다. 신입회원들은 대개가 그날 배낭도 없이 운동화에 간단한 복장을 착용하고 최고의 대접을 받으며 마지막에는 선배들의 술세례에 업혀서 귀가하기도 한다. 전날 선배들은 김밥을 손수 싸면서 후배들을 맞이하는 설레임과 애정을 담고 산행에서는 닭싸움과 말타기 씨름이 훈련등반 공식놀이로 전통처럼 자리잡아왔다. 또 환영등반후에는 충장로의 왕자관에 가서 자장면에 저녁을 먹으면서 우동 그릇에 대포를 마시는 호기를 부리기도 했다. 신입생 환영등반을 통해 갓 산악회원이 된 풋내기들은 어렴풋이 선배들의 얼굴을 익히고 거리감을 다소 좁히는 계기가 된다.

이후 따라나선 주말 암벽등반이나 당일치기 산행 등은 회장단 기수의 방식에 따라 느슨하기도 하고 다소 힘들기도 하지만 그런대로 낭만과 스릴 고통과 재미가 함께 공존해 고등학교를 졸업한 신입생들에게 산악회가 매력적인 단체로 각인되는 계기가 된다. 신입회원은 암벽등반의 그 황당한 경험에 매료되기도 하고 적당한 열차려와 산노래에 재미를 붙이게 된다.

신입회원들이 겪게 되는 최초의 딜레마는 춘계훈련등반이다. 춘계를 통해 신입생들은 양의 탈(?)뒤에 숨어있는 산악회의 진면목을 확인하고 ‘탈퇴냐 벼티기냐’의 첫 번째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된다. 과거 자신의 인생에서는 상상도 하지 못할 30kg 이상의 배낭을 매고 숨돌릴 틈을 주지 않고 빽빽하게 짜여진 산행일정에 따라 야차처럼 몰아 부치는 선배의 명령에 완전 혼을 빼게 된다. 조금이라도 엉나가거나 퍼지게 되면 ‘줄妖怪’라는 명목의 별이 주어진다. 취침과 기상점호를 취하고 조금이라도 정리정돈이 안됐다 싶으면 코펠이 발로 차이고 텐트치기와 배낭 꾸리기를 수없이 반복한다. 피곤한 몸을 이끌고 야간 불침번이라는 것을 서면서 흡사 군대와 진배없는 산악회에 대한 첫 경험을 하게 된다. 때로는 폭우속에서 때로는 거친 능선에서 태어

나서 처음으로 ‘아! 고통이 이런 것이구나’를 생각하게 된다. 춘계의 고통은 하계의 진짜산행에 비하면 짤막해 간단하게 견딜 수 있는 정도이지만 처음 경험하게 되는 이들에게는 문화적인 충격이 아닐 수 없다. 산악회원들은 누구나 환영등반의 낭만과 훈련등반의 고통이 교묘하게 대비되는 처연한 기억을 간직하면서 1학기를 보내게 된다. 훈련등반이 끝나면 ‘아 이것이 아니구나. 이 길이 아니었구나’를 깨닫고 혼명하게(?) 일찌감치 탈퇴한 회원이 있는 반면 ‘이건 아닐 거야. 뭔가 더 특별한 산행이 있어서 힘들게 하고 있는 걸거야’하고 걱정반 기대반으로 남게 되는 부류도 있다.

이때부터 선배들은 산악회의 정신이자 근간인 하계에 신입생들을 데려가기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유인작전에 들어간다. 설악산 천화대의 환상적인 아름다움에서부터(실제로 난 선배들이 꼬시는 말에 야생화가 만발한 초원에서 계곡에 물 담그는 상상을 하고 하계를 갔다) 오세암의 아름다운 전설 태백산맥(백두대간)의 시원한 능선풍을 상상한다. 설악시를 외우면서 대학생 활의 낭만이 산악회에서 꽃을 피우는구나하고 김칫국을 마시기도 한다. 베이스캠프를 차려놓고 괴나리봇짐하나 달랑매고 날랑 날랑 놀 듯이 암벽등반을 즐기면 되는 식으로 선배들은 홍보에 열을 올린다.

필자³⁾의 첫 하계를 예를 들어보겠다.

설악산천화대의 아름다움을 온몸으로 느끼고자 지원했던 그 순수함은 회관 앞 식당에서 짐을 싸면서 여지없이 무너졌다. 키슬링이라는 배낭이 왜 ‘징글링’ 인지를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흐르지 않아서였다.

키슬링이라는 장돌뱅이 배낭은 50kg(진짜다)이 꾸역꾸역 들어가는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짐을 먹는 하마였다. 되는대로 쑤셔 넣고도 양쪽 사각주머니에 5리터들이 석유통이 2개가 더 들어가야 직성이 풀리는 그 가공할만한 무게는 하계 출발 전부터 주눅이 들게 한다.

한때 키슬링을 없애는 것이 산악회 민주화의 대명사처럼 여겨졌을 정도로 이 괴물은 두 사람이 양쪽에서 부축해야만 일어설 수 있었고 조금만 벼티고 있어도 다리를 후들거리게 한다. ‘과연 내가 아니 과연 인간이 이 짐을 매고 등산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주위를 둘러보아도 그 화사한 미소를 보내던 선배의 모습은 이미 어디론가 사라지고 완전 군대식 분위기(어쩜 군대보다 더하다)에 잔뜩 군기가 들어있는

3) 30기 박현주

모습들뿐이었다.

장비검사를 한답시고 짐을 싸고 풀고를 몇 번하나가 열차려에 뭉뚱이질을 몇 번 맞고 발대식 준비가 끝났을 때는 이미 난 거역할 수 없는 어떤 무서운 힘에 이끌려 가는 나약한 존재일 수 밖에 없었다.

발대식이 끝나자마자 장대같은 장마비가 쏟아지고 군용 판초우유를 뒤집어 쓴 채 한 줄로 장중하게 대운동장 한 가운데를 가로질러 정문으로 향하는 20여명의 우리들은 누가 봐도 정상에 서는 한참 벗어난 ‘외인부대’들이었다. 아니 혹자들은 우리를 무슨 빨치산정도로 인식하는 경우도 있었다.

정문을 벗어날 때 쯤 어깨보호대가 없는 키슬링이 어깨를 내리찍는 무게에 벌써부터 양팔의 핏줄들이 튀어나올 듯이 부풀어 오르고 다리는 풀리고 허리는 쪼개지는 고통이 시작된다. 선배들이 왜 1학년 따끼리들은 수건(어깨보호용)을 2개씩 준비해오라고 했는지 그 이유를 이제야 아는 자신이 바보 같았다.

광주역까지 걸어가는 동안 신입생들은 완전히 혼이 빠졌으며 다가올 협난한 고통에 누구하나 말을 건네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침묵으로 일관한다. 드디어 열차는 다가오고 영등포역까지 9시간 넘게 걸리는 덜컹거리는 비둘기호열차에 몸을 실으면서 우리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속세와 이별하는 느낌을 갖게 된다. 그 복잡하고 애매모호한 감정속에는 비장함이 대부분이다.

이 비둘기호열차는 하계나 동계를 출발하고 돌아올 때 이용하는 애환이 서린 교통수단으로 젊음의 빈 노트로 늘 오늘날까지도 마음 한 켠에 자리하고 있다. 열차는 출발하고 동기들끼리 마치 훈련소생활을 마치고 자대로 배치 받는 이등병처럼 ‘야 우리 앞으로 어떻게 되는 거냐. 저 무거운 괴물덩이를 어찌 메고 다닌다냐. 하다가 안되면 도망쳐버리자’ 하고 걱정을 늘어놓는다.

하지만 열차로 상경하는 동안까지는 그래도 행복이다. 먹을 수 있는 것은 맘껏 사먹을 수 있고 쉴 수 있으면 아무데서나 누우면 된다. 마지막 여유를 부리며 호기롭게 담배를 꼬나물 수도 있고 철저히 넘쳐나는 시간속에서 1분1초를 다투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다. 뭐든지 극한상황의 전후가 최대한의 여유와 행복이 있게 마련이다. 나는 아직도 열차를 탈 때마다 첫 하계를 갈 때 느꼈던 열차의 여운을 기억한다. 전장터로 떠나기 직전 피워 무는 한개피의 담배맛이나 히말라야 정상등정을 위해 떠나는 베이스캠프의 새벽밥처럼 그만큼 절절하다.

새벽4시께에 도착하는 영등포역에서 서울의 이국적인 콘크리트냄새와 유흥가 아가씨들의 진한 웃음을 뒤로하고 지하철과 버스를 이용, 상봉터미널로 이동하는 동안에도 아직까지는 여

유를 찾을 수 있다. 산악회 덕분에 춘鼬 서울구경도 할 수 있고…

86학번인 우리들은 설악산 서북주능조와 백담사계곡조 북주능조 등 3개조로 나눠 2박3일간 종주하고 잣은바윗골 베이스캠프에 집결하는 일정이었다.

백담사입구에 내려 한여름 띄약볕속에 운행했던 나는 그때 생각을 하면 온통 하얀색뿐이다. 계곡도 하얀색이요 내 머리도 하얀색이요 그 파랗다던 설악산 계곡물도 하얀색으로 기억된다. 억수같은 땀을 쏟고 퍼지면 뺏다 맞고 그래도 우리는 계곡조라서 미숫가루라도 실컷 먹는 행운이었지만 다른 조는 물을 배급받는 신세여야 했다. 그야말로 앞사람 크레타만 보고갔다면 어느 선배의 전설이 곧 나의 산행이 될 줄이야. 동기 용육의 퍼짐은 나의 행복이고 한차례 뺏다(일명 보약)를 맞을 때의 달콤하고도 전광석화같은 꿀맛 휴식 그리고 선심처럼 다가오는 10분간 휴식. 출발 1분전의 야속함과 또다시 50분산행 뒤의 휴식을 위해 동기의 크레타 바닥을 보고 대지와 혁혁거리며 입맞춤을 해야 하는 길.

봉정에서 소청을 오르는 길에 자꾸 주저앉는 여자동기를 보고서 만석이형은 ‘나 오늘 몹시 기분이 나쁘다’며 물이 잔뜩 묻은 뺏다 세례를 벌이다 뺏다가 부리지자 기어이 새로운 몽둥이로 풀스윙을 하고서 강행군하기도 했다. 다른 조와 만났을 때 눈에서 불이 날 정도로 산악군기가 확 들게 만들겠다는 심산이었다.

오르막길이 있으면 내리막길도 있는 법. 어느새 키슬링의 무게에 적응하고 발바닥이 부르트고 생체기가 난 통증에도 적응되고 몸을 맡기는데도 이력이 나게 된다. 수렴동대피소 용아장성 봉정암 소청산장 희운각을 거쳐 3일만에 들어선 잣은 바윗골 베이스캠프.

동기들중 몇 명은 팔이 마비돼 한동안 아예 어택을 매지 못하는 신세가 되기도 했다.

지리한 장마가 계속되는 천화대 초입에서 내 동기 광복이가 그대로 날아버려 죽었다 살아났고 당시 대장이었던 우근이 형이 즉석에서 능숙한 솜씨로 찢어진 머리를 꿰매기도 했다.(당시에는 수술도구를 의약품에 챙기고 다녔다) 추적추적한 빗속에서 모기를 뜯겨가며 동기와 불침번을 서며 언제 도망갈까 모의를 꾸미기도 했고 한번도 다정한 말을 해주지 않는 2학년 모선배가 톱서다가 떨어져 버렸으면 좋겠다고 저주를 퍼붓기도 했다.(그때 그 선배가 진짜로 바위하다 다쳐 엄청 후회했다는 한 동기의 고백이다)

하루라도 기합을 받지 않거나 맞지 않으면 잠이 오지 않았다는 60년대 군대이야기가 80년대 한복판에 지성의 상아탑이라는 대학교의 동아리에서 엄연히 잔재하고 있는 현실이 슬펐고 그 현실의 한복판에 내가 있는 것이 겁나기도 했다.

두려운 마음으로 하루하루의 산행을 따라 나섰고 공포와 압박적인 분위기에서 정말 하루하루를 버텼던 것 같았다. 동기들끼리 숨겨둔 청자담배 한가치를 서로 나눠 몰래 피우던 재미가 없었다면, 와선대 복실이집에서 선배 마중하는 도중 목숨을 걸고 사먹은 막걸리맛이 없었다면, 릿지등반도중 암릉에 걸터앉아 좌설약골 우 잣은바위골하며 펼쳐지는 설악의 아름다움에 높을 빼는 것이 없었더라면, 대한민국에서 특별한 산행을 하고 있는 우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자부심마저 없었다면 정말 지옥같은 나날이었을 것이다.

하지만 모든 것은 지나고 나면 다 아름다운 추억이 된다. 더구나 그 과거가 더 고통스럽고 고난의 행군이 더할수록 추억의 달콤함은 더한 법이다.

우리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산악회의 문화에 젖어들었고 회교원리주의 비슷하게 선배들의 정통을 이어받으려고 노력하고 있었다. 하계전통중의 하나에 각 조별 조가를 부르면서 어느 조가 군기가 더 센가하는 경연이 있는데 이것 또한 1학년들에게는 고역이자 재미다. 서로 다른 조의 동기보다 군기가 더 들어있는 것처럼 보이려고 악다구니를 쓰며 노래하는 모습은 정말 유치한(?) 장관이었다.

강릉 송정해수욕장의 꿀맛같은 휴식속에 선배들이 차려놓은 백숙을 먹으며 술과 함께 모닥불과 함께 어우러지는 ‘하계가’는 그동안의 고통과 산악회를 빠져버리겠다는 생각을 잠시나마 날려 버리게 한다. 그러면서 어느새 우리는 전남대학교 산악회 준회원이라는 평생의 ‘인감도장’을 받게 된다. 불침번을 서는 동기와의 고생담속에서 동해안의 밤은 깊어가고 동기간의 정도 깊어간다. 선배가 설치해 준 해먹에서 흔들거리며 그네타는 안락함도 하계기간동안의 고행을 말끔하게 잊게 해 준다. 아! 나는 정말로 전남대학교 산악회를 계속 다녀야하는가? 이 무시무시한 단체에 계속 적을 두고 줄다리기같이 위태로운 대학생활을 계속 영위해야하는가? 저렇게 아름다운 동기들과 저렇게 멋진 선배들을 보면 팬참을 것도 같은데…

2학년하계는 더 치열했다. 육십령에서 남덕유를 거쳐 속리산 희방사에 집결하는 소위 말하는 하계 전체 산맥종주의 전무후무한 막이 소백산맥 종주라는 이름으로 열린 것이다. 2학년조장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그때 산행의 운행일지를 제대로 기억하지 못한다. 하루하루가 고지를 향해 가는 특공대같은 일정이었으며 그만큼 여유가 없었기 때문이었다. 당시만 해도 대간에는 길이 없었으며 앞 봉우리를 오르는데 정글칼의 힘을 빌릴 정도로 우거진 숲을 뚫고 가야 했다. 하루 20km(5만분의 1 지조 한 뼘)의 운행목표를 채우기 위해 악전고투해야 해서 짤막한 단상들만 기억날 뿐이다.

해발 1천미터가 넘는 어느 고지에서 막영하다 물을 뜨려 민철형 나 그리고 1학년생 3명이서 골짜를 내려갔다가 조난당해 한밤중에 비상이 걸렸다. 계곡의 물을 찾아 밀림속으로 떨어진게 1시간여. 돌아오는 길에 그만 모두들 퍼져버리고 어둠까지 겹쳐 어디가 어딘지分辨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국 최고참 진영이 형을 비롯한 조원들이 이 봉우리 저 봉우리에서 횃불을 들고 ‘알핀’ 에코를 외치며 길잡이가 돼 새벽 1시가 넘어서 막영하는 고지로 돌아왔다. 이후 진영 형의 집합과 함께 안전을 도와시한 식수조달책임을 물어 고참들은 뺏다를 맞아야했다.

난 그때 이후 산에서 물의 소중함과 산악인의 책임감에 대해서 뼈저리게 느끼게 됐다. 지도에 표시된 계곡에는 물의 흔적조차 없어 후퇴를 반복하다 마지막 식수공급을 위해 감행한 골짜에서도 물은 요원했다. 자꾸 뒤를 보며 그만 돌아가야 한다는 말이 목에까지 넘어왔지만 민철형은 우리가 물을 가져가지 않으면 저 많은 대원들이 밥을 짖어야하고 내일 산행도 장담하지 못한다며 길이 없는 밀림을 뚫고 실개천이 흐르는 곳까지 하산했다.

다행히 물은 확보했지만 칠혹같은 어둠속에서 그 넝쿨과 급경사의 바윗길을 뚫고 올라오는 것은 애시당초 체력적으로 무리였다. 헤치고 헤쳐 오르다 세 명이서 하늘을 보고 누워 퍼져버렸다. 그래도 우리에겐 물이 있으니 살 수 있다며 걱정말라고 다독거리는 민철형의 여유사이로 막영지에서 돌아올 시간이 넘었는데 오지 않는 대원들을 걱정하고 있을 진형형의 모습이 떠올랐다. 기진맥진해 있을 때 봉우리마다에서 올리는 악우들의 에코소리는 20여년이 지난 지금 생각해도 귓전에 생생하고 울컥 눈물을 쏟게 한다.

그 산행이후 내겐 하계산행은 물과의 전쟁으로 각인됐으며 물을 대자연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자 생명으로 시원으로 여기며 최후의 물은 늘 남겨 놓는 게 습관이 됐다. 또 계곡으로 물을 조달하러갈 때 귀신처럼 물줄기가 흐르는 곳을 찾는 범상함도 연구하게 됐다.

또 지금은 회원이 아닌 한 1학년이 벼티다 못해 그만 퍼져 낭떠러지로 굴러 떨어진 것을 보고 크레타신발로 짓이겨버리면서 눈동자가 풀린 그에게 이 새끼가 너 때문에 오늘 일정을 못 맞추게 됐다면 ‘죽을래?’ 하고 육박지르던 잔인함도 그 하계였으며 다음날 죽어도 하산하겠다는 그를 달래 키슬링을 전부 해체시키고 빈 몸으로 끌고 다닌 것도 소백산맥 그 능선길이었다. 백화산맥 언저리에서는 하루종일 산행했는데 전날 막영했던 곳과 얼마 떨어지지 않은 지점으로 환상보행을 하기도 했고 잊어버린 하루를 만회한답시고 그 징그런 무게의 배낭을 매고 도로 구보를 20km나 하면서 다리를 작살내기도 했다. 치대 1학년으로 함께 한 후배는 배낭 속에 넣은 석유가 새어나와 등전체가 화상을 입어 살이 굽어 터져 밤마다 텐트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

했는데도 이를 발견하지 못하고 방치하기도 했다. 결국 등에 큰 흉터를 남기는 선배로서의 씻지 못할 잘못을 저지르는 미숙함을 보이기도 했다. 전대원이 집결한 소백산 회방사에서 잔뜩 술이 취해 한 선배로부터 주먹으로 아구창을 20차례나 맞고 그 후 1주일간 밥을 씹지 못했으며 끝까지 여유를 주지 않으며 잡아 먹을 듯이 강압적으로 대하는 선배들에게 항명하다 마지막 날 까지 단체로 출畋다리를 맞기도 했다.

군대를 다녀오고 예비역으로 참가한 하계산행에서도 전남대 하계만의 특유의 문화는 벗어나지 못했다. 점봉산에서 남쪽으로 1주일간을 내려오는 종주에서는 두인형과 미정이 철환이 신입생으로 현성이와 경기 정덕이가 함께 했다. 두인형 특유의 즐거운 산행으로 하계 산행중 그나마 가장 '날라리 산행' 이었다. 웃통벗고 설치던 현성이의 타잔같은 몸매와 경기의 재치어린 귀염성이 기억되고 빈집에 들어가 감자를 삶아 먹으며 잠을 청했던 황홀한 기억도 있다.

광미누나를 최고참으로 모시고 2학년조장으로 지환이와 만철이 그리고 신입생으로 정국과 태준이를 데리고 간, 대관령에서 북으로 설악산까지 가는 1주일간의 그 하계도 처절하기는 마찬가지였다. 대관령표지석에 내리자마자 원산폭격으로 시작해서 '어제의 너희들은 몽땅 잊어버리고 오늘부터는 전남대산악인으로서 거듭나야한다'는 말로 시작된 산행은 1학년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으리라. 산행시작과 함께 필수적으로 시작되는 얼차례와 산행도중의 구보 오리걸음으로 이어지는 문화는 바뀌지 않았다.

억척스럽고 매몰차게 후배들을 몰아쳤던 그 속에 아름다웠던 기억도 떠오른다. 폭우를 피해 들어간 쇠나드리에서의 아름다운 밤. 맥주하나 먹겠다며 비에 사타구니가 다 해져 어기적거리 는 팔자걸음으로 2시간을 걸어 사온 그 가상함과 쇠나드리 마굿간 빈 집에 장작불을 빼고 가마솥에 물을 끓여 샤워하고 밤새 시를 낭송했다. 오늘의 추억을 영원히 간직하자며 깨어진 유리파편 뒤에 우리들의 이름을 적고 흙벽 속에 묻어놓기도 했다. 하지만 그 다음날에는 해이해진 정신을 바로잡겠다며 출발 전 머리박기 얼차려를 줄때 나를 쳐다보던 1학년 태준이의 그 원망섞인 눈초리를 지금도 잊지 못한다.

체력이 약하고 여렸던 정국이는 새끼발가락이 빠져 발을 딛을 때마다 가시가 박히는 고통을 감수하고 끝까지 종주를 완주했으며 마지막 설악산 오색막영지에서 정국이의 발을 보고 그만 나의 잔인함에 나를 원망하기도 했다. 광미누나가 고무신에 따라준 막걸리를 퍼마시고 모두들 종주로 남은 상처의 처절함을 달래기도 했다.

다음날 결국 대청으로 직동하지 못하고 버스를 타고 잣골로 들어갔지만 당시를 생각하면 정

국이에게 미안하고 또 미안하다. 산행의 책임을 맡은 선배는 대원들의 몸 구석구석까지 세밀하게 살펴야하는 사소한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강한 후배, 정통산악인만을 고집한 미련함 때문이다. 공포스런 분위기에서 후배들은 선배들에게 신체적 아픔을 호소할 수도 없는 분위기도 한몫 했다. 하기야 그 기억 때문에 당시 함께 한 후배들에게 더 진한 애정이 가는지도 모르겠다. 베이스를 치고 당시 암벽에 소질이 많았던 지환이를 앞장세워 처음으로 7형제봉을 풀코스로 완등하며 설악꼴이 아닌 희운각 윗봉우리에 올랐을 때의 감흥은 짜릿했다. 또 여세를 몰아 용아장 성도 트레버스없이(마지막 한봉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트레버스) 완등하며 물오른 등반을 한 것도 하계였다.

이후 입사해서도 한동안 줄곧 따라나선 하계는 삶의 존재가치를 증명하고, 살아있음을 확인하는 나만의 생존방식으로 정착했고 한참 아래 후배들을 만나는 재미도 솔찬했다. 하계등반을 통해 한참 후배인 용주를 만났고 조장으로서 당차게 산행하는 가영이를 만났고 효준이를 만났고 새내기들을 만났다. 영필이와 재학생때 나누지 못한 정을 나눈 것도 하계 동계 장기등반을 함께 다니고 나서였다.

하계를 갔다 오면 아무리 열정적인 골수라도 한번쯤은 산악회에 대해 계속 남을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잠수를 하게 된다. 1학년이건 2학년이건 간에 공통적이다. 회관도 한참은 무주공산이 되고 추계훈련등반은 자연스레 참가회원이 적게 되는 것도 그 때문이다. 춘계에 비해 추계훈련 등반이 더 기억에 각인됨이 없는 것도 하계에 대한 추억과 고난이 너무나 큰데 원인이 있는 듯하다. 추계훈련등반을 가지 않았더라도 하계를 갔다 온 새내기는 동계에 대해서 미련을 갖게 된다. 이번 동계만 가면 산악회 메이저산행을 다 다녀온 명실공히 전남대학교 산악회의 정통파 정회원이 된다는 자부심이 한 몫 거든다. 하계를 가지 않은 1학년은 동계까지 빠지면 제명되기 때문에 의무적으로 참가해야한다. 또 선배들이 동계는 처음부터 베이스를 치니까 무거운 키슬링을 매지 않아도 되고 해떨어지는 오후 5시전에 텐트치고 놀고 파전 부쳐먹고 노래부르고 모닥불 피워 놓고 술마시는게 전부라고 또다시 동계의 낭만을 이야기한다.

동계산행은 추위와의 전쟁으로 기억된다. 2학년 모선배는 1학년 몰래 침낭을 2개를 덥고 자다 들통났고 1학년들은 기본이 6개의 겹옷을 입어야했다. 오리털 침낭은 꿈도 못꾸던 시절 닭털도 아니고 카시미론과 다크론이라는 정체모를 침낭으로 영하 20도를 넘는 혹한속에 장장 20 일을 설악에서 나야했다. 50m폭에서 노랫소리가 작다면 픽셀로 뺏다를 맞는 사진이 거의 유일한 동계사진일 정도로 당시에는 카메라휴대도 사치이고 금기시됐다.

하계에 대한 기억은 치절한데 비해 동계산행은 낭만적인 것이 많은 것을 보면 하계 종주산행이 워낙 힘들어서 일개다. 1학년동계 때 토양폭의 장엄함에 매료돼 방안에 사진을 붙여놓고 알피니스트가 돼 히말라야를 등반하겠다며 동기들끼리 히말라야 통장을 만들기도 했다. 숨어있는 빙장을 찾아 설악산 계곡 곳곳을 누비며 설인 홍내를 내기도 했다.

청운산장에 세워놓은 짚차가 문혀벼려 그해 봄에 찾아갈 정도로 폭설이 쏟아지던 어느 해 설악에서는 너무 아름다워 떠나기 싫다며 설악가를 부르면서 눈물을 쏟기도 했다. 졸업하고 고참으로 영필이와 참가한 동계에서는 한계령에서 밤새도록 동동주파티를 벌렸고 설피민국을 접수해 연주 지순 경준 형관 경환 도균이 등과 함께 지상최고의 축제를 벌이기도 했다.

밤마다 아름드리 나무를 모아다가 모닥불을 피우며 촘촘히 박힌 별빛 아래서 소주잔을 기울이며 선후배의 터울을 벗어 던지기도 했다. 1학년 선영이와 재국이의 선등서는 모습이 한폭의 그림처럼 아름답다고 느꼈으며 용주의 여우같은 선등모습에는 혀를 내두르기도 했다. 최근에는 용대리 빙벽장에서 효준이의 물오른 등반모습에 감탄사를 터뜨리기도 하고 첫 동계부터 선등을 서는 1학년들의 모습에 내가 절로 어깨가 으쓱해지기도 했다. 하계가 고난의 행군과 눈물 속에 악우들간의 끈적끈적한 우정이 피어났다면 동계는 설악의 눈보라속에 소줏잔을 벗삼아 산악회의 낭만을 맘껏 만끽하는 등반이었다.

주로 연합대에 파견돼 해외원정등반을 다녔던 필자는 등반막바지까지 희망을 버리지 않는 편에 속한다. 또 갈수록 체력이 살아나면서 마지막에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그 배경에는 하계 동계 장기등반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을 몸으로 깨닫곤 한다. 체력이 극한 상황까지 간 뒤 그 너머에는 인간의 정신력이라는 무시무시한 힘의 원천이 있음을 하계를 통해 확인한 나는 히말라야에서도 힘든 순간마다 하계를 떠올린다. 이정도 고난쯤이야 이정도 탈진쯤이야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하계의 한순간 가장 탈진했던 소백산맥의 한 봉우리를 생각하면 절로 힘이 솟구친다. 체력과 정신적인 면에서 등반의 성패가 많이 좌우되는 히말라야등반은 하계등반을 통해 인내와 지구력이 월등히 강한 우리 회원들에게는 너무나 잘 어울리는 등반이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히말라야 8천미터 봉우리를 등정한 사람보다 백두대간을 종주한 명희와 은호형을 더 존경하고 단독으로 태풍의 한가운데를 뚫고 백두대간을 완주한 창균이는 더더욱 존경한다.

하계와 동계 특히 하계 장기등반 아니 훈련등반은 전남대학교 산악회의 정신이다. 그 등반을 통해 회원들은 인내와 희생 책임 선후배의 역할 자일의 정 생명을 담보하는 악우의 정 등 전남

대산악인으로 부끄럽지 않고 전남대학교 산악회원으로서 함께 하면서 요구되는 모든 것을 자연스레 체득한다.

이들 등반은 또 전남대학교 산악회의 자존심이다. 타 대학산악부보다 우리 산악회의 하계는 유별날 정도로 아직도 예의 그 무지막지한 무게를 매고 능선종주를 감행하고 있다. 선배로부터 면면히 내려온 전통도 전통이거나 회원들사이에 부지불식간에 하계는 능선종주를 통한 인내력의 한계극복이라는 대명제가 흐르고 있다.

하계는 선후배간의 정을 이어주는 단단한 끈이다. 선배들이 갔던 하계라는 길을 이어서 걷는 후배들을 보면서 시공을 초월한 동지애를 느낀다. 한 번도 함께 산행하지 않은 몇십년 후배라도 바로 얼싸안을 수 있는 이유는 바로 하계라는 길을 함께 경험했기 때문이다.

하계는 또 전남대학교 산악회의 미래다. 향후 50년을 넘어 1백년을 가는데 우리의 먼 훗날 후배들도 하계를 다녀옴으로서 늙은 산악회가 아닌 언제나 푸르른 젊은 산악회로 서로를 연결해주는 끈이다.

하계는 또 순수이자 진실이다. 짹수가 우리와는 다른 신입회원들은 하계를 다녀온 뒤로 대거 탈퇴하고 동계를 다녀온 뒤로는 이 단체는 내가 적응할 곳이 아니구나하고 영원한 작별을 고한다. 결국 남아있는 이들은 춘계 하계 추계 동계로 이어지는 소위 훈련등반이라고 행해지는 일련의 등반을 극복한 솔직하게 살아남은 이들이다. 모두들 힘은 들었지만 순수한 정으로 뚫고 뭉친 산악회 사람들이 좋아서 남게 된다. 지구상에 우리 산악회보다 더 순수한 정으로 운영되는 단체는 그 어디에도 없을 것이라고 감히 자부하고 싶다.

자연스럽게 전남대학교 산악회원간에는 그들만의 코드가 있고 이는 산악회의 정신으로 이어진다. 소위 말하는 선배말에는 무조건 복종하고 형제보다도 떼 뜨겁고 끈적끈적한 정으로 뭉치는 것이다.

하계는 또 우리를 자연에 순응하는 자연인으로 거듭나게 해준다. 하늘과 땅이 하나이며 그 가운데 인간인 내가 존재하는 천지인에 대해 생각하게 되고 세상만물의 순환원리와 자연의 소중함에 대해 자연스럽게 느끼게 된다. 말뿐인 국토사랑이 아닌 온몸으로 포옹하는 국토애를 절실히 느끼게 해준다.

나는 하계 동계를 생각할 때마다 바로 윗 기수 선배들에게 고마운 마음이 앞서고 나와 함께 그 모진 등반과정을 겪은 후배들이 그저 자랑스럽고 사랑스럽다. 어리숙한 듯하면서도 늘 큰 등반을 준비하며 산악인의 자세를 견지했던 고 최행준형, 조교모자를 푹 눌러쓰고 안경너머 날

카로운 눈초리로 감히 말도 불일 수 없었던 기성형, 때론 친구처럼 때론 형처럼 배려를 아끼지 않는 두인형, 무모할 정도로 순수하고 정이 많은 민철형, 세밀한 부분까지 챙겨주며 함께 눈물을 흘려주었던 광미누나, 뺏다파워가 유난히도 강했던 규성형과 만석형까지, 모두들 내가 하계 동계를 통해 전남대학교 산악회원으로 성장하게 해 준 고마운 선배들이다.

창립 50년이 지난 오늘 필자의 20년 후배들은 오늘도 백두대간으로 하계를 떠났고 설악산 암릉에서 청춘의 금자탑을 쌓을 것이다. 선배들이 걸었던 대관령 목장길을 걷고 오대산을 넘고 구룡령을 넘고 단복령을 넘을 것이다. 천화대를 지치고 칠형제를 넘나들고 울산암에서 포효하고 용아에서 개구멍을 통과하고 오세암과 희운각에서 전설과 벗할 것이다. 선배들이 느꼈던 마셔도 마셔도 해결되지 않는 갈증을 느낄 것이고 지구상 산소를 다 호흡해도 부족할 것 같은 혁혁거림속에 짓누르는 배낭무게 작열하는 태양과 싸우며 정말 미쳐버릴 것 같은 고행을 경험할 것이다. 비에 절어 척척한 옷을 입으며 하루의 산행을 시작하고 50분 산행에 10분간 휴식 출발 1분전을 반복할 것이다. 조장들은 나침반과 지도를 들고 동분서주할 것이며 신입생들은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앞사람의 등산화 바닥만 보고서 걸을 것이다. 고참 선배들은 후배들에게 선물해 줄 추억거리를 찾을 것이며 함께 가지 못한 선배들은 그들의 환영연을 준비할 것이다.

때론 한라에서 때론 지리에서 산맥과 대간에서 설악산에서 보낸 50년간의 하계와 동계산행은 50년을 넘어 1백년을 향해 가는 길목에서도 면면히 전남대학교 산악정신을 잉태하는 산행으로 영원할 것이며 우리가 우리일 수밖에 없는 형제보다도 더 뜨거운 정을 공유하게 하는 금강석이 될 것이다.

밤마다 추적추적한 비가 내리던 잣은 바윗골에서 불침번을 서면서 느꼈던 그 1학년 하계의 여운이 아직도 내 삶속에는 묻어난다.

제2절. 대상지

년도	구분	기간	대상지	참가인원
1958	동계			
	하계	7.27~8.1	한라산	신귀현, 김용석 외
1959	동계			
	하계	8.1~5	지리산 종주	6명
1960	동계	1월	월출산 적설기	2명
	하계	8.2~10	한라산	신귀현 외
1961	동계		백양산 – 내장산 종주	
	하계	8월	한라산, 지리산	
1962	동계			
	하계	8월	한라산, 지리산	11명
1963	동계			
	하계		한라산, 속리산	
1964	동계		지리산 및 노령산맥	
	하계		한라산	
1965	동계			
	하계	7.23~8.4	설악산	14명
1966	동계			
	하계	7.17~26	한라산	38명
1967	동계			
	하계		한라산	
1968	동계	1.16~25	지리산	12명
	하계	7.11~17	한라산	13명

년도	구분	기간	대상지	참가인원
1969	동계			
	하계		한라산	
1970	동계			
	하계		속리산 울릉도	
1971	동계			
	하계		설악산 태백산맥	
1972	동계		지리산 극지법 방사상등반 처음 실시	
	하계		한라산	
1973	동계		지리산	
	하계	7.17~29	설악산	18명
1974	동계		지리산	
	하계		한라산	
1975	동계	1.10~17	지리산 칠선계곡	14명
	하계	7.18~28	지리산	35명
1976	동계		지리산	
	하계		설악산	
1977	동계		덕유산	
	하계		태백산맥 종주	
1978	동계		설악산	
	하계			
1979	동계		설악산	
	하계			
1980	동계		설악산, 지리산	
	하계		설악산	

년도	구분	기간	대상지	참가인원
1981	동계		지리산 칠선계곡	
	하계		설악산	
1982	동계		설악산	
	하계		설악산 (서북주능, 북주능, 릿지)	
1983	동계		설악산	
	하계		백두대간 종주 (육십령-태백산)	
1984	동계		설악산	
	하계		설악산(종주, 릿지), 인수봉	
1985	동계		설악산	
	하계		백두대간 종주(대관령-설악산), 설악산	
1986	동계	1.15~2.4	설악산	이은수 외 11명
	하계		설악산 (종주, 릿지)	임우근 외 24명
1987	동계	1.5~24	설악산	김민철 외 14명
	하계		백두대간 종주 (육십령-태백산)	김민철 외 19명
1988	동계	1.7~22	설악산	한민수 외 5명
	하계	7.23~8.6	백두대간 종주(대관령-설악산), 설악산	한민수 외 21명
1989	동계	1.6~19	설악산	
	하계	7.15~31	설악산 (태백산맥 일대)	
1990	동계	2.2~9	설악산	최행준 외
	하계	6.29~7.14	백두대간 종주 (주풍령-대관령)	최행준 외 19 명
1991	동계	1.18~2.2	설악산	이광복 외 14 명
	하계		백두대간 종주(대관령-설악산), 설악산	이광복 외
1992	동계		설악산	
	하계		백두대간 종주(대관령-설악산), 설악산	

년도	구분	기간	대상지	참가인원
1993	동계		설악산	
	하계		백두대간 종주(대관령-설악산), 설악산	
1994	동계		설악산	김창한 외
	하계		백두대간 종주(대관령-설악산), 설악산	정만철 외
1995	동계	1.4~19	설악산	김현성 외 4명
	하계		집중식 등반 (백두대간, 낙동정맥 종주)	김현성 외 14명
1996	동계		설악산	노원기 외
	하계		설악산	노원기 외
1997	동계		설악산	원정일 외
	하계		백두대간 종주(태백산-설악산)	박근영 외
1998	동계		설악산	
	하계		백두대간 종주, 설악산	
1999	동계		설악산	
	하계		백두대간 종주	
2000	동계		설악산	함경준 외
	하계		집중식 등반(금남호남정맥, 낙남정맥, 백두대간종주)	함경준 외 15명
2001	동계		설악산	정종천 외
	하계		백두대간 종주, 설악산	정종천 외
2002	동계		설악산	한성필 외
	하계		백두대간 종주, 설악산	한성필 외
2003	동계		설악산	김재우 외
	하계		한남금북정맥 종주	김재우 외
2004	동계		설악산	김가영 외
	하계		백두대간 종주, 월출산	김가영 외

년도	구분	기간	대상지	참가인원
2005	동계		설악산	이재국 외
	하계		백두대간 종주, 설악산	이재국 외
2006	동계		설악산	손용주 외
	하계		백두대간 종주, 설악산	손용주 외
2007	동계		설악산	정효준 외
	하계		백두대간 종주, 설악산	정효준 외
2008	동계		설악산	문석민 외
	하계		백두대간 종주, 설악산, 인수봉	문석민 외

제3절. 등반기

1. 1980년 동계

- 한석천 (79학번)
- 기 간 : 1980. 1. 28 ~ 2. 2
- 대상지 : 지리산(1,915m)
- 대 원 : 김용석 윤서옥 김연옥 한석천

1월 28일 맑음

동계 적설기 지리산 등반을 한다는 소식을 듣고 배낭을 싸매고 올라오는데 부모님의 꾸지람 등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을 극복하고 오늘 장도에 오른다.

9:00 공용버스터미널 출발이라서 아침도 거르고 택시를 타고 나와보니 텅빈 대합실을 쑥막하고 정적마저 감돈다. 우리를 전송하러 많은 선배, 동료들이 나와주실 줄 알았는데 교육형과 동기 희숙만이 나와서 배웅을 해주는데 너무나 쓸쓸하고 외로운 기분이 든다.

구례행 버스를 타고 떠나는 나그네의 고행길. 적설기 등반인데 날씨가 너무 포근해서 산에 눈이 있을지가 의문… ‘산에는 눈이 있겠지’ 나는 굳은 확신을 가지고 눈이 덮인 지리산을 그리며 한폭의 동양화를 강삼하듯 미지의 세계로 빠져든다.

10:57 구례에 도착 화엄사행 버스를 기다리며 남들 시선에서 “어떤 바보가 산사나이를 미친 놈이라 욕을 했소, 그러나 산사나이는 웃으면서 산에 가요”라는 노래가 생각나게 한다.

11:40 화엄사에 도착 간단하게 빵으로 중식을 하고 12:10 노고단을 향해서 출발한다. 날씨가 이상해지며 한 두 방울씩 비가 떨어진다. 14:00 부터는 본격적으로 비가 내리기 시작하여서 체력이 급격히 떨어지고, 온몸이 떨려오며, 다리에는 쥐가 나오고 시야가 흐려진다. 눈이 와도 시원찮은 이 판국에 비라니…

하계 소백산맥 종주 때도 15박 16일 중에서 12박 13일은 비를 하사하시더니. 대원들의 컨디션은 말이 아니게 지쳐 있어서 07:00 노고단 신장에 도착해서 휴식을 취했으면 하는 바램. 모두 다 한결같다. 이제는 몸 가누기도 힘이 들 정도이다. 어느 산 서적을 보니까 조난을 당해서 식량이 떨어지고 굶주림에 허덕이다 죽고, 너무 산행이 고되고 기상 조건이 좋지 못해서 피로

사 하였다라는 사실이 있다는데 내가 당해보니까 절실히 느낄 수 있다.

16:20 드디어 노고단 대피소에 도착했다. 이제 왔는지 전북대학교 산악회 회원들이 우리를 반갑게 맞아준다. 학교와 지역은 다르지만 산에 다닌다는 공통된 이념, 생각 때문에 서로 마음이 통해서인지 금방 서로 친해져 대화도 나누고 식사도 같이 한다.

17:00 떡국으로 석식을 완료하고, 일부 대원들은 내일의 산행을 위해서 지친 몸을 침낭 속에 넣고, 어떤 대원들은 오랜만에 만난 전북대 산우들과 앞으로의 동반 계획과 그동안의 이야기, 산에 대하는 느낌, 산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도 토론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1월 29일

오늘의 산행은 노고단에서 임걸령을 거쳐 연하천까지이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 영하 3도를 상회하는데 여제의 피로가 덜 풀려서 몸이 뼈근하고 뼈마디가 시큰시큰해져 온다.

8:10 대피소를 출발하는데 가랑비가 살랑살랑 내리는데 절로 인상이 써진다. 노고단 정상에 오르니 임걸령을 향해서 트래버스 하는 길에 약간의 눈발이 보이고 비는 완전히 멈췄다. 눈이 없으니 적설기 기분이 나지 않는다.

9:46 임걸령에 도착해서 휴식을 취하다 전북대 산우들과 마주쳐 적설기 기념 촬영을 하는데 서로 더 찍으려 온갖 자세를 취하며 몸을 비비꾼다. 사진 촬영을 마치고 하룻 밤을 같이 지냈던 전북대 산악회원들과 헤어진다. 전북대는 반야봉과 노고단을 오르내리는 극지법 훈련을 한다고 들었다. 약간의 눈발이 보이기 시작하면서 가스가 피어오르기 시작한다. 반야봉은 희미하게나마 시야에 들어오고 앞에 있는 나무에는 설화가 피어오른다.

11:50 토끼봉 도착. 토끼봉을 향하는 길은 계속된 오르막 길이라서 지루한 마음마저 들게 한다. 13:05 중식을 하며 하계 종주때 서옥 누나가 밭에 부상을 입고 하산했던 장소에서 주식을 하자니 지나간 일들이 머릿속을 어지럽힌다. 중식을 마치고 눈을 녹여서 우유를 끓여 마시는데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반가웁고 맛이 있었다. 이제 연하천도 얼마 남지 않아서 그런지 대원들의 얼굴에 미소가 감돌고 생기가 있는 산행을 하여 콧노래가 절로 흘러나온다.

15:26 연하천에 도착. 막영을 완료 비교적 일찍 산행이 끝났다. 텐트를 치고 주위를 둘러보니 우리의 존재라는 것이 너무도 나약한 존재인 것 같이 느껴지며 웅장한 지리산의 산세에 절로 감탄을 느낀다. 오늘 저녁의 메뉴는 흰쌀밥. 절로 군침이 돈다. 계속되는 떡국과 빵으로 중

식을 하다 오랜만에 백설과 같은 쌀밥을 보니 반가웁다. 날씨가 점점 추워지고, 눈이 내리기 시작해서 힘박눈으로 변해간다. 오늘 밤은 조심을 해야겠다. 눈이 텐트를 덮으면 어찌지?

1월 30일 (연하천→벽소령→선비샘→세석)

06:20 기상해서 텐트 문을 열고 나서니 코가 붙어있는지 조차 분간 할 수 없는 혹한이 나를 엄습한다. 온도계를 보니 수온주가 영하 19도. 정말 엄청난 추위여서 대원들은 텐트 밖으로 나오기를 꺼려한다. 그러나 설경은 완전한 한폭의 동양화를 연상시킬 정도로 멋지고, 새삼 조물주의 신통한 능력에 찬사를 보낼 뿐이다. 식사를 마치고 텐트를 철거하려는데 바닥과 얼어 붙어서 떨어지질 않는다. 텐트를 철거해서 출발시까지 무려 1시간이라는 엄청난 시간이 걸린다. 벽소령을 향하는 길에 눈이 쌓여서 길을 찾지 못해 약간 망설인다. 눈 위에서 길을 분간 못하니 자신은 초조한 생각에 미지의 높지대에 빠진 것처럼 마음이 급해진다. 정찰을 해서 길을 찾아 산행을 하는데 어제 내린 눈이 무릎까지 빠진다. 간간히 표식천이 눈에 띠어서 산행하는데 훨씬 수월해지고, 새삼 표식천의 호용을 느끼게 한다.

12:18 벽소령 도착. 막아진 곳이 하나없이 사방이 툭 트여서 거칠고 억센 북풍이 불어 온다. 지금까지 사람의 그림자를 보지 못해서인지 고독한 마음이 든다. 발자국으로는 짐승 발자국 뿐이다. 원래 우리의 막영지는 선비샘이었다. 그러나 너무 거센 강풍이 불어서 계획을 수정시켜 세석 산장까지 강행군 하기로 결정하고 1시간 30분 산행에 5분 휴식. 세석지까지의 길은 너무도 험했다. 옛적에는 이 능선을 마의 능선이라고 불렀다 한다. 경사가 급해서 눈을 디디면 계속 미끄러 지는데 그래도 살겠다는 욕망에서 인지 손이 시려운 것은 아랑곳 하지 않고, 나뭇가지나 바위를 붙든다. 지칠대로 지쳐서 약전고투라고 아니 할 수 없다.

18:45 세석산장 도착. 벼너를 피우고 우선 얼어 붙었던 몸을 녹이고 석식 준비를 한다. 서운 누나는 여자의 몸이어서 고된 산행이라 될 것이라 생각 했는데 역시 감기에 걸려 기침을 하고 몸을 도사린다. 식사가 끝나자 대원 거의 다가 취침에 들어간다.

1월 31일 (영하 22도) 세석→장터목

6:30 기상. 어제 저녁은 너무 추워서 잠을 설치게 되니. 몸의 피로는 풀리지 않고 온 몸에 통증이 온다.

11:00 세석 산장을 출발해서 장터목을 향한다. 오래간만에 사람의 자취를 찾을 수가 있었다.

서로가 무거운 짐을 지고 가다 마주치면 “수고하십니다. 어디서 오셨습니까” 하고 물어보는 말 한마디가 그렇게 반가웁고, 정겨움에 들릴 수가 없었다. 산행 도중 나무에 물이 얼어 붙어서 고드름이 넓적하게 생기고 어느 것은 길쭉하게 달려 있어 사진기를 가져 갔더라면 한 장 쯤 찰칵 하겠는데 너무 아쉽다.

12:28 장터목 도착. 중식을 마치고 비상식을 등에 메고 천왕봉 답사에 들어 가는데 장터목의 고사목 지대에 눈이 쌓여서 눈 위에 알맞게 솟아 오른 고사목은 “나를 보고 가십시오” 하는 것처럼 절경이었다. 인력으로는 도저히 이룩할 수 없는 신의 위력은 역시 대단한 것이다.

16:10 천왕봉에 도착하니 감회가 새롭다. 남한에서는 두 번째로 높다는 천왕봉. 하늘을 찌를 듯이 우뚝 솟아서 그 위용을 자랑한다.

18:00 하산을 했는데 하산 도중에 킥-스텝 백-스텝 사이드-스텝을 선균형 지도 아래 하나 하나 반복해서 연습을 마치고 내려오니 용석형이 따뜻한 우유를 끓여 놓고 우리를 기다린다. 너무 맛이 좋다.

19:40 석식을 마치고 모두 한자리에 모여서 EDPS를 들어놓기 시작하자 폭소가 터진다.

21:00 취침에 들어 간다.

2월 1일 (장터목→칠선 계곡)

6:00 기상. 어제 저녁에 용석형의 잠꼬대가 심했던 것 같다. 서옥 누나와 박자를 맞추어 가면서 앓는 소리 “꽁꽁” 못들어 주겠다.

8:50 식사를 완료하고 천왕봉을 향해서 출발. 서옥 누나가 크레타를 신고 와서 고생이 심하다. 뒤에서 받쳐 주고, 앞에서 끌고 하면서 오른다. 뒤에서는 용석형이 재촉한다.

10:13 천왕봉 도착. 칠선 계곡을 향한다. 경사가 급해서 눈 위에 앉은 채 미끄러져 내려간다. 기분이 상쾌하다. 이러한 상행이 계속 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칠선 계곡 청춘홀을 향하는 도중에 길을 잘못 들어 백무동을 향하게 되자 다시 back-Course 코스를 정찰하고 재 출발.

13:25 청춘홀 도착. 일부 대원은 막영을 하고 나머지 대원은 장작을 주으려 간다. 저녁에 모닥불을 피워 놓고 빙 둘러 앉아 그 동안의 산행에 대해서 이야기도 주고 받으며 술이 돌아간다. 한잔 술에 깃든 추억 두잔 술에 지워 버리고 어려웠던 상행, 지난 날의 추억, 미래의 계획, 현재의 만족, 모든 것을 다 잊고 인간 본연의 자세로 돌아간다.

2월 2일

5:00 기상. 어제 타다 남은 모닥불이 지금까지도 타고 있다. 하나의 새 생명이 태어나는 순간같이. 하나의 불꽃이 모닥불로 이루어 질 때 인간은 삶의 욕망을 갖고 살아가는 것인지도 모르겠다. 10:10 청춘홀을 출발해서 계곡의 얼음 위를 걷더니, 바위를 뛰어 넘으면 하산이라는 즐거운 기분으로 내려가니 그 동안 들을 수 없었던 콧노래가 져저로 흘러 나온다. 11:32 두지터 도착. 마을은 있는데 인적은 끊겨 있다. 너무나도 황량하고 쓸쓸하게만 보인다.

14:25 의탄(의평) 도착. 주막에 들려서 따끈따끈한 오뎅 국물에 텁텁한 막걸리를 드니 맛이 새롭게 느껴진다.

16:30 마천에서 차를 타고 남원을 향해서 광주에 도착하니 아쉬운 감도 들고 고된 상행이기는 했지만 즐거웠다고 생각한다.

2. 1987년 하계

– 박현주 (86학번)

- 기 간 : 1987.7.23~8.7 (15박 16일)
- 대상지 : 소백산맥일원
- 대 원 : 김민철 외 28명

7월 23일 (목) 비

12:30 최종 장비점검-17:00 광주역발대식-19:50 남원도착-24:00 취침.

늦어진 기말고사로 불과 3~4일 만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했다. 장비 점검때는 다 준비 된 것으로 보여지만 산행이 시작되면 하나 둘 부족한 것이 나타날 것이다. 광주역에서 선배님들의 환송을 받으며 발대식을 마쳤다. 기차로 이리를 거쳐 남원으로 가려했으나 충청도와 다른 지방을 강타한 태풍 때문에 기차 운행이 중단되어서 버스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북쪽팀과 이리까지 단 몇 분이라도 같이 있고 싶은데 하늘이 허락하지 않는다. 남원 터미널옆 여관에서 1박을 하기로 결정하고 연료와 부족한 의약품을 보충하였다. 저녁식사 후에는 한잔의 소주와 올해는 다시 못 먹을지도 모르는 수박을 먹었다. 쉽사리 잠이 올것 같지 않는 밤이다.

7월 24일 (금) 흐림

6:00 기상-9:50 장개도착-10:10 육십령마을 도착-12:30 능선 두 번째 헬기장(중식)-18:40 막영지도착-23:00 취침.

산행 첫날이다. 이제부터 우리의 외로운과 괴로움은 시작될 것이다. 아침 먹을 때 점심까지 준비했다. 종전까지는 김밥으로 했으나 이번에는 경비등을 고려하여 도시락을 싸기로 하였다. 남원에서 장계까지는 장계, 무주, 구천동행 보스를 타면되는데 요금은 920원이다. 장계에서 육십령까지는 거창, 대구행 버스를 이용하면 되고 요금은 290원으로 약 십분 정도 소요된다. 육십령 마을에서 식수를 공급하고 배낭을 정리한 후 군장동을 거쳐 산으로 붙는다. 남덕유산에서 이어지는 능선을 잘 채야 한다.

평상시에는 쉽게 다닐 수 있는 길도 중량감과 비로 젖은 바위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린다. 능선에는 중간중간에 헬기장이 있어서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 전혀 오지로 가고 있다는 생각을 겨우 떨쳐주곤 한다.

계속 하염없이 오르는 길이다. 별씨부터 1학년들이 내 옆에서 쳐진다. 달래보기도 하고 협박하기도 해보지만 그게 어디 선배의 마음대로 되는 일인가? 대원의 건강과 내일 앞으로의 산행을 위해 막영을 하기로 결정하고 텐트를 치고 막간을 이용해 사진을 찍었다. 어두워지기 전에 식수를 계곡으로 공급하려 갔으며 우근형이 독사를 잡아 1학년들에게 먹고 힘내라고 사탕을 끓여 주었다. 오래간만에 산에서 저녁 노을을 볼 수 있었다. 누군가 왜 산에 가냐고 묻는다면 지금 여기와서 이것을 보라고 하겠다.

7월 25일 (토) 맑은 후 폭우

6:00 기상-11:00 백일기도장-14:00 중식-17:40 월상재-21:30 취침.

아침부터 동작이 완만하다는 대장의 목소리를 뒤로하고 산행을 시작한다. 어제 막영했던 곳의 위치가 예상했던 것 보다 훨씬 아래쪽이라는 생각을 하게끔 1500 고지는 쉽사리 나타나지 않았다. 어제 만약 산행을 계속했더라면 식수 때문에 곤란했을 것이라는게 공통의견이다.

15:00 고지 부근에 백일기도장이 있고 식수가 근처에 있다는 표시가 있다. 지도상의 정확한 위치는 파악할 수가 없었다. 지도상에 남덕유산으로 길이 나있지 않아서 도경계를 타고 월선재로 나가려 했으나 길을 찾지 못하여 산행에 큰 지장이 생겼다. 여러번의 Back-course와 전진 끝에 남덕유산에서 내려오는 길로 보이는 곳에 다달았다. 계속 정상으로 이어지는 길이 있었는

데 그 길이 지도에는 나있지 않았지만 남덕유산으로 이어지는 길이었던 것이다. 길을 찾는데 많은 시간을 소모하여 월성재에서 막영하기로 하였다. 별씨부터 산행에 차질이 생기기 시작했다. 1학년은 계속 어려워하고 계획된 하루의 일정이 절반도 채 진척되지 않는다. 월성재 오른쪽 계곡에서 식수 공급하였다.

7월 26일 (일) 비

5:00 기상-11:00 샷갓골재- 12:40 무룡산-16:30 동업령-19:00 막영-24:00 취침

월성재에서 부터는 국립공원 지역이므로 이정표가 세워져있고 길도 확실하여 별 어려움은 없다. 다만 몇 개의 이정표가 제 위치에 있지 않아서 가는 이를 당황케 한다. 오전 중에 그토록 잘 가던 대원이 오후가 지나자 속도가 느려지고 자주 쉬게된다. 달래고 달래서 가 보지만 그리 오래 갈것 같지가 않다. 박현주 임시대장과 김길봉 조장 사이에 약간의 의견 대립이 있었다. 1학년을 물리적인 힘으로라도 데리고 가서 오늘 일정을 마치려는 대장의 책임과 그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생각이 서로 맞선 것이다. 많은 대원이 땀띠로 고생을 한다. 매일 젓은 옷을 갈아 입으면 팬찮을 테지만 갈아 입으면 비에 젓는다는걸 알기 때문에 이제 입던 옷을 그냥 또 입게 된다. 박선철 대원이 탈진상태에 이르렀다. 키슬링과 어택을 바꿔메고 막영지를 찾아서 텐트를 치고 쉬게했다.

오늘은 예상보다 많은 진척이 있었다. 어제보다 3배 이상을 산행한 것이다. 이대로만 간다면 별 문제는 없겠지만 별씨부터 어제 그제의 부진 때문에 하루의 산행 계획이 뒤지고 있다. 선후 배체계에 대해서 형들로부터 교육이 있었다.

7월 27일 (월) 갑

5:00 기상-9:40 1390 고지-11:00 1300 고지-15:20 C.D조와의 갈림길도착-21:00 막영

그동안 같이 산행했던 C.D조와 헤어지는 날이다. 어제 막영했던 곳 그러니까 덕유산(향적봉)정상으로 가는 길과의 갈림길에서 1~2km 지점에 막영지와 식수가 바로 옆에 있다. 우리는 이곳에 못미쳐 막영을 했는데 좀 더 왔으면 좋았는데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이곳에서도 이정표가 있는데 무시로 헛갈린다. 해발 1390이라는 표지판에 지봉 2.3km, 덕유평전 3.5km, 송계사 3.9km라고 표시된 것이 조금만 더가면 지봉 3.6km로 표시되어 있다.

11시 경에 1300고지 헬기장에 도착했다. 그런데 이곳에서 큰 실수를 저지르게 되었다. 이곳

을 지봉으로 가는 갈림길로 본 것이다. 물론 독도와 정팔을 했다. 칠봉이 지봉으로 생각되었고 오른편으로는 마을도 보였으며 정찰 나간 대원도 완만하게 능선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였다. 때문에 C.D 조와 A.B조는 송별식을 하게되었고 앞으로의 서로의 건강을 빌어 주었다. 송별식의 지나친 시간 소비로 일정이 바쁘다고 A.B조는 빨리 가고 있었는데 뒤에서 C.D 조의 에코소리가 들렸다. 걱정이 되어서 기다리고 있으니 길이 틀리다는 것이었다. 지봉으로 가는 길은 2km 가 완만한데 C.D조가 갔던 길은 조금 완만하다가 갑자기 급경사로 떨어진다는 것이었다.

결국 Back을 했는데 어쩌면 이 실수는 초반에 잡을 수도 있었던 것이다. 시간 상으로 보아서 도저히 지봉갈림길에 도착할 시간이 못 되었고 정찰을 조금만 더 멀리 보냈더라면 하는 아쉬움을 남기고 그곳을 1300고지로 결정 내렸다. 갈림길에서는 서로가 미리 인사를 했기 때문에 별 말없이 다만 크게 한번 웃고 일정이 맞으면 산행도중 만나게 될것이다라는 말로 인사를 하고 걸음을 서둔다. 너무 시간을 소비했기 때문에 갈길이 바쁘다. 이제까지 멀쩡했던 정정조 대원이 힘들어 한다. 도경계를 타고 산행을 한다. 엄청난 부시지대를 통과해야 한다. 맨몸으로도 빠져나가기 힘든 곳이다. 부시만 아니면 몇십분이면 갈 수 있는 길이 두 시간 넘게 걸린다. 게다가 박선철 대원이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렀다. 집에 갈테니까 보내 달라고 한다. 보내주겠다고 했다. 대신 여기서는 위험하니 도로(재)까지만 가지고 해서 억지로 개명리와 삼거리를 잇는 재까지 데리고 왔다. 밤 9시가 다 되었기 때문에 막영을 하기로 결정하고 박선철 대원을 달래보았지만 막무가내다. 겨우 내일 아침에 보내주겠다고 하였다.

정정조 대원은 석유가 흘러서 화상을 입었다. 고생이 심한 것 같다. 정말 힘든 하루였다. 식수는 삼거리 쪽 소로로 가다보면 얻을 수 있다.

7월 28일 (화) 맑음

4:40 기상-13:30 금봉암(중식)-17:50 도계-18:25 무풍-20:20 부평-24:00 취침

선철이가 산행을 계속하기로 중대 결단을 하였다. 선철이의 짐을 나눠지고 금봉암을 향해 아침일찍 출발한다. 이제는 차라리 헷볕이 지겹다. 조금만 해가 비쳐도 등의 땀띠가 요동을 친다. 일정대로라면 남원에서 헤어졌던 김민철 대장과 오늘 부평에서 만나야 한데 오늘 상황으로 봐서는 어려울 것 같다. 금봉암으로 해서 하산하여 부평까지 차를 이용하기로 하였다. 금봉암에서 수련회온 고등학생을 만났다. 동물원 원숭이 신세다. 그래도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가 너무 뻔뻔해졌기 때문일까? 김치를 나눠 주신 스님께 감사를 드리며 봉산리 와룡마을에서 술한잔

씩 하고 전라도와 경상도의 경계인 도계마을로 가서 무풍을 거쳐 부평으로 갔다. 중간에 지갑을 잃어버리는 대소동이 있었고 부족한 석유를 샀는데 그것을 차에다 놓고 내리는 등 속세에서의 생활에 적응하기가 어려운 하루였다. 어제부터 눈이 빠져라 하고 있던 김민철대장을 만나니 눈물이 난다. 동네 회관을 벌어서 짐을 정리하고 그동안에 있었던 재미있고 어려웠던 일들을 민철형에게 이야기했다.

7월 29일 (수) 맑음

6:00 기상-13:00 쑥병이(중식)-18:50 막영-23:00 취침

선철이는 산행을 계속하겠다고 했고 자기짐을 다시 챙겼는데 정조의 화상이 예상보다 심각하여 치료를 하고 떠나기로 했다. 27일의 무리한 산행과 어제의 풀어진 기분으로 정정조 대원의 몸에 신경을 쓰지 않은 것에 죄책감이 든다. 살이 썩고 고름이 생겼다. 집에 돌려 보낼 수도 없고 자신이 계속하고 싶다고하여 배낭이 엉덩이에 닿지않게 최대한으로 짐을 줄였다. 대장을 만나서인지 모두의 정신이 매우 헤아해졌다. 부드러운 산행도 좋지만 일정이 늦어질 것 같다. 853.1 고지에서 약간의 독도착오로 쑥병이 마을로 떨어지게 되었다. 쑥병이에서 소로를 타고 능선을 쳤는데 소로를 계속 타지 않고 960 고지를 트래버스하는 길이 뚫려있어 그 길로 갔으나 한참 가다가 길이 끊어 졌기에 능선을 다시채서 1020 고지 밑에서 막영을 하게 되었다. 후에 알았지만 1020 고지를 채지 않고 돌아가는 길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 오늘은 수박을 뜯하지 않게 먹을 수가 있었다. 수박서리를 해서 모두가 입안 가득히 수박을 넣고 한때나마 즐거운 표정을 안면 가득히 담고 있었다.

7월 30일 (목) 맑음

5:00 기상-11:30 1170.6고지(C.D와 합류점)-14.30 삼도봉-19:30막영-24:00 취침

박현주 대원 선두로 하여 하루 일정을 급히 서둔다. 삼도봉으로 바로 올라가는 길과 트래버스 하는 길이 있는데 트래버스 하는 길은 다시 능선을 채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1020고지를 채는게 좋다. C.D조와의 합류점이 삼도봉 밑의 1170고지에서 C.D조가 남겨둔 메시지를 보았다. A.B조 각자 대원의 안부를 묻는 것인데 그동안의 괴로움을 잊을 수 있을 정도로 반가운 것이었다. 우리보다 하루정도 일정이 앞서고 있었다.

삼도봉 못미쳐서 도시락으로 중식을 했다. 삼도봉 가는 길이 아닌 지능으로 떨어질뻔 했던

것을 박현주 조장이 잘 파악하여 곧장 삼도봉으로 갈 수 있었다. C.D조가 먼저 지나갔기 때문에 길은 개척되어 있었었다. 삼도봉 도착하여 C.D조의 메시지 2부를 일고 우리의 일정대로 움직인다. 삼도봉을 지나 2~3km정도는 길이 나있지만 그 이후부터는 길 찾기가 매우 힘든다. 길, 그것도 큰 길이 아닌 몇 년 전에 사람이 지나갔을 만한 곳을 쥐넝쿨이 가로 막기 있기 때문에 손으로 끊고 칼로 베면서 나가기 때문에 운행이 더딜 수 밖에 없다. 원래 계획은 질매재까지 가려고 했으나 훨씬 못미친 1123.9고지와 1089.3고지 중간에서 막영을 하기로 하였다. 왼쪽 계곡으로 민철형과 현주가 후배들을 데리고 식수를 조달하러 갔는데 지도상에 있는 거리를 환산했을 때 보다도 시간이 훨씬 지났는데도 돌아오지 않았다. 오른쪽 계곡에서 불빛이 보이기도 하고 우리가 왔던 길쪽에서도 목소리가 들리기도 하는 등 기다리는 사람을 애타게 하였다. 진영형과 상의하여 탈지면으로 횃불을 만들어 근처에 있는 바위로 올라가 횃불을 흔들고 에코와 이름을 목이 터져라 외쳤으나 북북부답 거의 포기 상태에 이르렀을 때 그들의 목소리가 들렸고 한참 후에 렌턴불빛이 비쳤다. 지도상에 있는 물줄기는 말라있었고 왔다가 그냥 갈수가 없어서 능선을 넘어서 물을 찾았다고 한다. 아무튼 오늘밤은 대원간의 유대감을 자연스럽게 느낄 수 있는 밤이었다. 무사히 돌아와서 기쁘다.

7월 31일(금) 맑음

6:40 기상–12:00 11가고지도착–13:20 중식 – 16:00 임산리 – 17:20 황가버스터미널 – 19:10 독점 – 20:10 반야사 – 23:00 취침

어제 밤의 사태로 기상시간이 늦어졌다. 질매재를 거쳐 바람재까지 가려 했으나 그동안 늦어진 일정을 보충하기 위하여 속세로 나가기로 결정했다. 1175 고지는 1089 고지에서 3개의 봉우리를 채면 있는 것으로 모두 다 트래박스길이 있다. 단지 1175 고지에서 흥덕리로 빠지는 소로를 찾는 길이 암벽지대여서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흥덕리 마을에 도착하여 마음씨 좋은 트럭 운전수 아저씨의 도움으로 임산리까지 공짜로 올 수 있었다. 오래간만의 한가합에 모든 대원의 산가소리가 산천을 짜렁짜렁 울린다. 황간버스터미널에 도착하여 정정조 대원의 화상을 진찰하고 필요한 약과 알코올 석유를 보충했다. 30기 조장들은 생맥주집까지 가서 남모르게 한잔 커억 했는데 그 맛이란. 6시 50분 독점행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이게 웬일인가, 전북대학교 고기석이가 차안에서 우릴보고 있지 않는가. 당장 쫓아가 서로 껴안고 그동안의 안부를 물었다. 소백산맥 후발대로 들어간다는 것이었다. 아주

깨끗해 보이는게 부러웠다. 바쁜 일정 때문에 술한잔 하지 못하고 해어져야 했다. 여름 내내 무사하길 빌어 본다. 독점에서부터 반야사까지는 길이 훨하게 있어 차도 다닐수 있다. 이 지방에서는 매우 알려진 곳인듯 물가 주변 모래밭에는 울긋불긋한 텐트가 아름답게 쳐져있다. 일부러 사람이 없는 곳에 텐트를 치니 모든 게 풀어진다. 내일은 예비일이다. 모처럼 하루 푹 쉬어보자.

8월 1일 (토) 맑음

6:00 기상-15:00 도강훈련-20:00 취침

이번 하계 산행에서 처음 맞는 휴일이다. 늦잠을 자려고 노력했으나 허사다. 아침 일찍 잠이 깨어 눈만 멀뚱멀뚱한다. 모두들 그동안 부족한 수면을 보충하거나 수영을 즐긴다. 오후에는 도강훈련이 있었고 어제 사온 술로 내일부터의 파이팅을 외쳐본다. 박현주와 김길봉 조장이 정찰을 나갔다. 물 건너서 바로 너덜을 채기로 결정했다. 정정조 대원의 화상이 아직까지 낫질 않는다.

8월 2일 (일) 맑음

4:00 기상-10:00 포성봉-14:30 금돌성-19:00 수봉리 백옥정-23:00 취침

계산착오로 산행에 약간 차질이 생겨 일찍 기상하여 식사를 마치고 물을 건너 너덜을 올라간다. 매우 위험한 곳이다. 이광복 조장이 하마터면 낙석에 다칠 뻔 했다. 김보영 대원이 힘들어 했으나 포성봉에는 예정보다 일찍 도착할 수 있었다. 그런데 다음번 계획 때는 수정해야 할 부분이 나타났다. 포성봉에서 백화산맥으로 코스를 계획했는데 이 길은 불가능하다. 백화산맥 자체가 절벽으로 이루어져 있고 사람이 다닌 흔적이 없다. 포성봉에서 백화리쪽으로 가려 했으나 독도 미숙으로 다시 반야사 쪽 계곡으로 떨어지고 있어서 포성봉으로 있어야 하여 백화산맥으로 붙지 않고 금돌성 쪽으로 붙었다. 백화산맥의 방위각은 포성봉에서 거의 정북에 가까웠는데 금돌성은 20도에서 60도로 변하고 있다. 틀린 줄 알았지만 대책이 없기 때문에 계속 앞으로 전진이다. 금돌성은 김유신 장군이 백제의 침략을 막기 위해 쌓은 곳으로 100여 미터가 복원되어 있다. 그 옛날 이곳에서 있던 장수를 생각해 본다. 금돌성에서 C.D조의 흔적을 발견하고 C.D조도 길을 잘못 들었구나 하는 생각을 한다. 산성 복원이 끝난 곳에서 앞으로 계속 가면 봉우리가 있는데 이것을 넘지 않고 복원이 끝난 곳에서 바로 왼쪽으로 떨어져 보문에 도착하여 그곳

에서 벼섯 재배하는 아들로부터 어제 C.D조가 다녀갔음을 확인했다. 이 순간 밀려오는 허무함. 겨우 겨우 헤메이고 헤메여서 온 곳이 이 곳이라니 모든 대원이 마음 놓고 어이 없이 폭소를 터트린다. 시간이 너무 늦어 Back할 수도 없어서 계속 길을 타고 갔다. 도중에 박선철 대원이 석유가 흘러 씻어 주었고 저녁 때쯤에는 수봉리 백옥정 밑에 막영을 할 수 있었다. 이 곳에서 어제 막영했던 곳까지는 직선 거리 3km이고 앞에 있는 물을 따라가면 바로 반야사 계곡이 나온다.

하루 종일 헛수고 했다는 허탈감과 함께 온 몸의 힘이 빠지고 내일 일이 걱정된다. 벌써 며칠 전부터 부식이 부족하다.

8월 3일 (월) 흐린 후 비

6:40 기상- 12:30 가막리-13:30 화동국교(중식)-18:20 상주군 화서면 상현리 죽전부락 도착 막영-23:00 취침.

전 대원의 정신상태 불량하다는 질책으로 물리적으로 새로이 정신 무장, 어제의 실수로 일정이 또 다시 늦어졌기 때문에 도로 구보를 하기로 결정했다. 편안히 버스를 이용 할 수도 있으나 이번 산행의 목적이 훈련이니 만큼 그 목표를 최대한 달성하자는 것이 선배 형들의 의견이다. 길봉, 현주, 광복이가 20km가 넘는 도로를 나누어서 구보를 시킨다. 그 동안에 소홀히 했다고 생각되는 산악 정신과 악과 오기를 틈틈이 길러준다. 수없이 많은 Back과 오리걸음이 이어진다.

화동국교에서 중식 후 오후를 즐기다 말고 소나기에 놀래 급히 배낭을 짊어지고 폭우 속에 행군을 강행한다. 학교에서 쉬어갔으면 하는 게 모든 이의 눈에 선하다. 중간에 있는 과수원에서 풋사과를 따 먹고 상현리 장터 양조장에서 막걸리를 물빼 가득히 담아 죽전 마을 위 무덤가에 막영을 한 후 오늘의 피로를 한잔의 막걸리로 달랜다.

차라리 산길을 가고 말지 아스팔트 길은 못 가겠다는 것이 중론이다. 정말 힘든 하루였다. 텐트에 물이 스며들어도 코만 드르렁 드르렁 골고 있다.

8월 4일 (화) 비온 후 폭우

6:00 기상-10:30 하송리 양지 마을-16:30 상오리고교-19:30 신화산 막영-22:30 취침
벌써부터 부식이 바닥나서 아침을 근처 밭에 있는 고추와 깻잎에 고추장으로 만족한다. 봉황

산에는 여러 길이 있는데 죽전 쪽이 아닌 봉황사 쪽으로 해서 산을 넘어 가는 게 쉬울 것 같다. 계곡의 길은 폭우로 끊겨 있으나 잡복으로 인해 대부분이 막혀 있다. 몇 년 전 버스가 다니지 않을 때에는 중요한 교통로였겠지만 지금은 거의가 폐쇄되어 가고 있다. 봉황산에서 양지로 진입하기 전에 하천을 건너야 되는데 간밤의 비로 물이 불어 건너기가 힘들었기 때문에 자일을 설치하여 도하였다.

김길봉 조장은 뭐가 그리 좋은지 다 떨어진 크레타로 왔다 갔다 첨병첨병 뛰어다닌다. 양지에서 산으로 채려는 것이 원 계획이나 시간 절약과 코스 불분명을 이유로 상오리도교까지 가서 도장산으로 불기로 하고 다시 비를 맞고 도로 구보를 시작한다. 갈령이라는 재를 넘어야 하는데 급하지 않은 경사가 몇 시간이고 이어져서 걷는 이를 지치게 한다. 어쩌다가 버스가 지나갈 뿐이다.

수침동에서 도장산으로 불으려고 했으나 대원의 사기 저하와 탈진 상태로 인하여 무리한 산행 시 비상사태 돌발을 피하기 위해 신화산까지 도로를 타기로 한다.

별써부터 모든 대원의 발은 물집이 잡혔으며 걸음걸이는 오리보다도 더 뒤뚱거린다. 혹시라도 지나가는 사람이 있으면 근래에 보지 못했던 좋은 구경거리라도 만난 듯 눈알을 이리저리 굴린다. 신화산 마을 위쪽에 막영을 했다. 옆 냅가에서 흙탕물을 떠다가 밥을 해 먹었다.

8월 5일 (수) 비온 후 캠

5:00 기상-11:00 청화산-16:00 조항산-17:30 고모치 막영

내일도 산행이 있겠지만 오늘로서 실질적인 산행은 끝이 난다. 엊그제 광주역에서 발대식을 한 것 같은데 별써 내일이면 헤어졌던 산우들을 만나게 된다. 부르튼 발바닥에 처음 신었던 양말을 다시 신고 어제 벗어두었던 바지와 상의를 다시 찾아 입는다. 짹찝한 기분 이루 말할 수 없다.

원적 앞으로 이어지는 길은 크게 나 있고 원전 앞에서 청화산으로 가는 길은 절 뒤편 바위 있는 곳으로 올라가면 된다. 지독한 안개로 전방의 시야가 모조리 가렸으나 시기적절한 정찰의 활용과 독도 정확으로 한 번의 Back 없이 갓 바위 재까지 올 수 있었다. 그 지독한 안개와 수없이 많은 지능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정확하게 오다니 신기하기까지 하다.

갓 바위 재에서 조항산에 오르는 길은 거의 암벽지대로 설악산 뒷지 등반을 연상케 했다. 금방 날 것 같은 거리였는데 암벽지대를 다 통과해서 조항산 정상에 오르니 오후가 다 되었다. 조

항산에서 보면 앞으로 대야산, 장성봉, 애기망봉 등이 한눈에 보이고 뒤로는 청화산도 보인다. 독도 훈련 하기에 안성맞춤인 곳이다. 조항산에서 고모치로 가는 길에 한국 등산 학교 표식기를 보았다. 이전에도 여러 번 표식기를 보았는데 이 곳에서 등산 학교를 개최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듈다. 고모치에서 막영을 하기로 결정하고 텐트를 쳤다. 식수는 지도상에서 왼편 계곡이 가까우나 오른쪽 계곡으로 10여 미터만 가면 바위틈에서 물이 나온다. 저녁에는 내일의 파이팅을 위해 그 동안 가지고 다녔던 비상식의 술도 모조리 비워버렸다.

8월 6일 (목) 맑음

6:00기상-11:00밀재-13:00별바위(중식)

오늘이 하계 마지막 날 이제 지긋지긋한 비도 오늘로서 안녕을 고하게 된다. 고모치에서 867고지를 올라서기는 쉬우나 867고지서부터 밀재로 가기는 약간 어렵다. 길이 끊어졌고 밀재 근처는 절벽이 많기 때문에 오른쪽 계곡으로 떨어지기로 하였다. 계곡이 끝나는 지점에서는 이 평리와 완장리를 잇는 선유동 계곡과 나란히 소로가 나 있다. 앞으로 대야산 첨경이 멋있고 계곡도 매우 아름답다.

아직 세상이 알려지지 않은 듯 인간의 발길이 그리 많지 않고 물이 매우 맑다. 중간 중간에 바둑처럼 넓적하고 운동장만한 바위가 펼쳐져 있고 복욕탕 같은 장소가 여러 군데 있다. 언젠가 다시 한 번 와 보고 싶도록 마음에 드는 곳이다. 별 바위에서 김치를 얹어다 점심을 먹고 된장을 마을에서 흥문정으로 가는 길을 물어 모래실 고개를 넘기로 하였다.

중간에 밭에서 일하고 계신 아저씨로부터 2시간 이전에 C.D조가 지나갔다는 걸 확인 하고 걸음을 재촉하여서 흥문정을 향한다. 마음은 급해도 먹을 건 먹고 보자는 의견에 일치하며 도중에 옥수수 몇 개를 속아 준다.

흥문정에 도착하니 C.D.E.F조가 먼저 와서 기다리고 있었다. 서로 서로 포옹과 악수로 그 동안의 안부를 묻고 시원한 물에 발을 담근다. 모든 대원의 발이 엉망이다. 산행 도중에 느끼지 못했던 화복함과 정겨움이 막영지 가득 찬다.

이제 하계는 끝이다. 다시는 산에 가지 않겠다고 마음 먹겠지만 그게 어디 가능하다짐인가? 누구나 내일이라도 당장 배낭 꾸려서 산에 갈 것이다.

그러면 누군가가 비웃으며 물을 것이다. 그 고생했으면 됐지 왜 산에 또 가냐고 그러면 우리 는.....

3. 1990년 동계

– 김창한 (89학번)

- 기 간 : 1990. 1. 12 ~ 1. 17 (5박 6일)
- 대상지 : 한라산
- 대 원 :

1월 12일 (금) 맑음

08:10 회관도착

09:50 광주 비행장 도착, 비행기 엔진 고장으로 인하여 11:30까지 연착

12:05 제주공항 도착

12:05~13:40 부근 식당에서 식사

14:50~15:45 (1100고지) 폭설이 올 경우 1100고지까지 버스 단절. 버스 차창 밖으로 내려다 보이는 눈과 제주시의 전경이 확연히 드러나 보는 이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감정이 있었다. 1100고지에서는 지도상 길이 있으나 눈으로 인하여 등산로를 발견하지 못해 어리복으로 하산하였다. 어리복 버스(30~40분 간격)

15:50~16:20 어리복 도착

16:20~17:00 어리복 산장에서 취침 준비. 산으로 오르는 시간이 너무 늦어서 산장에서 자야 했다. 산악회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산장에서 자보는 것 같아 잊지 못 할 추억이 될 것 같았다. 한라산에서는 겨울 등반시 며칠 전에 계획서 발송 요망됨.

17:00~18:10 저녁식사. 식수는 많음. 오늘은 비행기도 처음 타보는 날이었고 또한 제주도란 환상의 섬까지 와보게 되었다. 한라산에서 첫밤을 지내는 나의 마음은 벌써 백록담에 우뚝 서 있었다. 대구시 YMCA 등산클럽과의 교제가 있었다.

20:00 취침.

1월 13일 (토) 안개

06:00~07:45 식사 및 배낭 정리

07:45~10:45 윗세오름 대피소 (1700m). 계속되는 오르막길 가도가도 끝이 안보이는 숲 오

랜만에 지어보는 무거운 배낭때문인지 쉬이 피로가 몰려왔다. 10분 걷는 것이 천근만근이나 되는 것 같았다. 드디어 숲길이 끝나고 드넓은 평원이 나타났다. 짙은 운무에 가리여 멀리는 안보이지만 때때로 바람 때문에 나타나 보이는 온통 하얀 세상에 선경에 든 듯한 착각이었다. 전화가 있는데 43~1950번이다. 제주 4.3항쟁과 한라산 고도이다. 식수까지의 거리는 약 20분이고 물은 많았다.

10:45~12:25 텐트 준비. 다른 팀이 설치해 둔 설동이 있어서 쉽게 칠 수 있었다.

12:25~13:15 점심식사

13:15~15:15 텐트 정리

15:15~16:45 영실 코스

햇빛의 등장으로 운무가 걷히면서 나타나는 구름의 바다 즉 운해로 위로부터 아래로 골짜기 사이를 보여주는 이도은 정말 장관이다. 점심때에 윗세에서 바라보이는 백록담의 모습은 뚜렷하게 각이진 모습으로 봉우리 자체로서도 한라의 진풍경을 묘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듯하다.

16:45~18:30 저녁식사. 식사(닭고기)를 떠나는(따깥이) 길은 멀고도 험했다. 바람은 왜 이렇게 세차게 불고 식기는 물만 문으면 얼어 붙는지…

21:00 취침

1월 14일 (일) 맑음

05:30 아침식사. 식기를 씻으면서 느낀 것은 고무장갑의 고마움이었다. 스페츠 옆 지퍼가 벌어지는 것 때문에 애를 먹었다.

07:50 출발

10:10 백록담 도착. 남벽 코스. 남벽으로 정상에 이르는 길은 계속되는 경사길이었다. 정상에서 내다보이는 산들의 장관이 한눈에 들어온다. 참으로 멋있다고 표현할 구 밖에 없는 풍경이다

10:10~12:00 구경 및 관람. 소시적에 해보던 미끄럼이 여기서 재현될 줄이야. ‘미끄럼이’ 해서 선배에게 꾸지람을 들었다. 유식하게 ‘글리세이딩’ 이라나. 바람이 세차게 불어오는 이곳은 정상이었다.

12:30 용진각 대피소 도착. 무척이나 가파른 길로 글리세이딩 형식으로 갔다.

12:30~13:10 점심(빵, 스프). 빵은 1개에 2명씩 먹어도 괜찮을 것 같다.

13:40 삼각봉 도착. 사진촬영. 멋있는 나의 모습을 보존키위해 한 장. (멋있는 경치)

14:35 1180고지 도착

14:35~15:10 윗세 뒤 계곡으로 하산(서북벽). 글리세이딩 장소가 적합한 곳 있음.

15:40 B.C 도착. (미끄럼연습과 관광 때문에 늦음). 1180고지에서 B.C까지 실제 시간 40분 정도 소요.

17:40 저녁식사

20:00 취침

1월 15일 (월) 오전 맑음, 눈

05:10 기상 및 식사

08:10 운행시작. 백록담 서북벽 등반. 자일과 슬링 등 모두 필요 없음. 지금은 폐쇄?으나 길이 나 있었다.

09:35 성판악으로 하산시작(9.3km). 계속되는 내리막길로 가도가도 숲으로 이루어져 있다.

11:35~12:30 휴식(성판악 휴게소 매장)

12:35~13:05 성판악~서귀포(24분 간격) 480원

13:50~14:35 서귀포~중문 250원

14:50~15:30 중문~영실 (40분 간격) 290원. 한라산 온 직후 처음 버스를 탄 기사를 여기서 또 타는 운이 있었다.

15:30~16:20 영실휴게소 도착(6km). 포장도로 (오르막길)

16:30~18:10 B.C 도착 (오르막길). 폭설로 인하여 관리소에서 등산 금지를 시켜서 교수님께서 신분증 제시를 하셨다. 신분증 때문에 들어갔다. 휴게소에서 교수님께서 사주신 맥주가 왜 그리 시원하던지.

20:10 저녁식사

1월 16일 (화) 맑음(안개)

05:30 기상 및 식사

10:00 텐트 철거 완료

10:00~11:30 용진각 대피소. 서북벽으로 올라 삼각봉으로 내려갔다. 최단거리로 운무가 짙

어서 길을 해매인 적도 있었다.

11:35~12:25 점심식사

12:25~13:35 탑라계곡. 계곡의 가파름은 어느 계곡보다도 더 심했다. 처음으로 차일통과 글리세이딩으로 암벽을 하강할 정도로 가파랐다.

13:40~14:20 계곡으로 잘 못 빠짐. 지도를 잘 보고 계곡을 타다가 왼쪽을 봐서 길을 찾아야 한다.

17:55 탑라계곡 하산 완료 (성판악보다 더 지루한 숲길)

18:30 관음사 도착

18:30~21:00 저녁식사

정식으로 한 산행은 5일간이었고 17일은 관광을 한 날이었다. 내가 기록한 시간은 쉬는 시간이 많아서 15분 정도 단축하면 된다.

4. 1995년 동계

- 천옥랑 (94학번)

- 기 간 : 1995. 1. 4 ~ 1. 19 (15박16일)
- 대상지 : 설악산
- 대 원 : 김현성 최지환 한창균 천옥랑 진용훈

1월 4일 수요일

11:00 발대식 19:00 등산학교 입교식 20:00 출발

대강당 앞에서 발대식을 했다. 그 때까지는 재미있기만 했다.

등산학교 입교식을 위해 염주동 체육관으로 이동하는 길은 무거운 이중화에다 앞 뒤로 맨 짐이 너무 무겁고 어색해서, ‘아! 이제 시작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타대 회원들의 비슷한 복장과 짐들을 보니 위안이 되었다.

1월 5일 목요일

3:00 설악산 소공원 도착 8:00 이론교육 시작

선배님들이 항상 말하는 하얀산을 기대하면서 버스에서 내리는데 매서운 바람만이 우리를 맞는다. 이럴 때 이어밴드가 그렇게도 도움이 될 줄은 몰랐다. 저항령 입구까지 이동하는 길은 배낭 무게는 그래도 견딜만 한데, 매트리스에 걸쳐놓은 짹이 헬멧 때문에 한쪽으로 치우쳐 불편하기만 하다. 설상가상으로 등산학교 동계반가를 가르쳐 주는 강사님 목소리가 작다면 오리 걸음을 시키는 데 일어설 수가 없었다. 그 때 옆에서 도와주는 다른 학교 동기가 천사처럼 보였다. 자기 짐도 무거울 텐데.

텐트를 치고 구보를 하고 프랑스식 등반기술, 설상훈련 등의 이론교육을 하고 조를 짰다. 이론교육시간에는 어제 버스에서 시달린 탓인지 그 추위 속에서도 잠이 온다.

일정을 말해 주는데 눈이 없는 관계로 내일 비박을 나간다고 한다. 그것도 이틀씩이나. 이 추운 날, 조금은 무서운 생각이 듈다. 하루가 참 빨리 갔다.

1월 6일 금요일

4:00 기상 11:00 죽음의 계곡 17:00 죽음의 계곡 비박

죽음의 계곡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힘들었다. 아이젠을 착용하고 벨트를 매고 기본동작을 가르쳐 준다. 일명 아이젠 워크(eisen walk), “하나 둘 팡팡” 하는 소리에 맞추며 얼음을 차는 소리가 요란하다.

힘들어서 입술이 바짝 타는데 하나 둘 소리는 멈출 줄 모른다. 또 산가는 왜 그리도 아이زن 워크 박자에 잘 맞는지, 자일의 정은 참 길기도 했다.

조별로 이동을 해서 실전에 들어갔다. 처음 해 본 백스텝은 피가 허벅지로 몰리는 느낌에 몇 발자국 떼질 못하겠다. 빙벽은 너무 무서웠다. 그리고 추운 줄 알았는데 강사님들은 추울 틈을 주지 않는다. 하루 일정을 마치고 조별로 비박지를 찾았다.

어색할 것 같은 타대 동기들이고 선배님이었는데, 지금은 나를 지켜 주는 유일한 사람들처럼 느껴진다.

1월 7일 토요일

05:00 기상 7:00 죽음의 계곡 훈련 16:00 용소골 비박

아침엔 춥고 잠이 와서 코펠을 잡고 있는데 스르르 눈이 감겼다. 오늘 첫 코스는 빼올레 라마

세(piolet ramasse)였다. 난 한다고 하는데, 피켈이 무슨 지팡이냐며 편찬이다. 그래도 운동을 하니 기분이 좋다. 어제 못했던 백스텝도 마찬가지다. 어제 보단 자신감이 생기고 아이젠에 믿음이 가기 시작한다.

다음 날 용소골 훈련을 위해 우리는 양폭산장 아래쪽으로 내려와 2인 1조로 비박지를 찾았다.

1월 8일 일요일

아침에 일어나니 침낭이 다 젖어 있다. 급히 아이젠 차고 프론트로 찍고 올라가는데, 겁이 앞서는지 잘 되진 않는다. 발목도 아파서 용소골까지 가는 길은 힘들었다. 1피치는 백스텝, 2피치는 프론트 포인팅으로 올라갔다. 모여 있는 장소가 돌이 많아서 아이젠 워크는 하지 않고 앉았다가 서기를 하는데 동기가 슬립 한 번 먹으면 자동으로 20회다.

힘들여 올라간 코스였는데 강사님이 쪼그려 뛰기와 팔굽혀펴기를 시킨다. 무슨 잘못했나 어리둥절해 하는데 올라왔으니 해야 한단다. 하강해도 마찬가지라고. 학기초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에 웃음이 나오며 하는 것을 간신히 참으며 즐거운 마음으로 했다.

산행을 마치고 오랜만에 돌아온 B.C의 텐트는 내 집처럼 편안히 느껴진다.

1월 9일 월요일

05:00기상 토막골 훈련

발목이 말썽이다. 뒤따라오시던 선배님이 릿찌화를 주신다. 이중화를 벗으니 시울 신지 않은 기분이다. 우리 조는 mix climbing을 먼저 했다. 그 사이 눈발이 날린다. 이 눈이 하루 종일 왔으면 하는 마음으로 초야를 불렀다. 야속하게도 노래가 끝나기 전에 눈이 그친다. 피켈을 들고 이중화를 신고 하는 mix climbing은 빙벽이 아니라는 생각에 마음은 편했다.

mix climbing이 끝나고 피켈 찍는 법, 아이젠 차는 법 등을 연습하며 차례를 기다리는데 낙빙이 참 무섭게도 떨어진다.

내 차례다. 날씨가 따뜻해서인지 얼음에서 물이 흐른다. 그 때문에 오버미튼을 끼지 않은 내 손의 의 모장갑이 다 젖어서 올라가는 동안에도 손이 시려웠지만 다 올라가니 손이 애려왔다. 손 대문에 머뭇거리며 올라가는 나에게 “5조 힘내라!” 하는 등 뒤에서 들리는 소리는 날 기분 좋게 했다. 우리 조원들이 너무너무 고맙다.

1월 10일 화요일

05:00 기상, 잣은 바위골 훈련

잦은바위골로 향하는 길은 참 혐했다.

우리 조는 아래서 피켓연습을 하고 화보물을 설치법도 배우는데 타연맹에서 커다란 낙빙을 여러 번 만든다. 좀 조심하지 않고는….

오늘이 등산학교 훈련 마지막 날인데 제일 마지막으로 올라갔다. 빙폭은 너무 많이 올라가서 계단처럼 만들어져 쉽게 올라갈 수 있었다. 아침에 강빙이라고 해서 겁을 먹었는데 마지막이라서인지 하산하는 길도 재미있었다.

분임 토의도 재미있게 마쳤다.

1월 11일 수요일

09:00 수료식, 예비일

4시 정도에 뻥하는 소리가 들린다. 텐트에 불이 붙어서 가스가 터지는 소리다. 조대 수성 형 텐트였는데 홀라당 타 버렸다. 약간 잠잠하더니 집합을 시켜서 30분 정도를 움직이지도 못하게 하고 추위에 떨게 세워 두는데 죽을 맛이다.

9시에 수료식을 마치고 예비일로 낮잠을 잔 후, 속초 시내로 나가 목욕탕을 갔는데 발이 통통 부어 있고 무릎은 맨살을 찾아 볼 수도 없이 멍이 들어 있었다. 목욕을 하고 나니 더 피곤해진다.

엄마한테 전화를 하는데 산에 간지도 모르며 잘 있느냐며 걱정을 하신다. 보고 싶다.

1월 12일 목요일

06:00 기상 토왕폭 정찰

늦은 아침을 먹고, 텐트 하나를 철수하고, 텐트 정리를 다시 하고, 용훈이 짐챙기고 나서 서강, 송원팀과 함께 토왕폭으로 향했다. 소공원에서 용훈이랑 헤어졌다. 동계 들어와서 처음으로 같이 사진도 찍고 잘 가라고 약수를 하는데 서운하다.

토왕폭으로 향하는 계곡은 미끄러웠다. 한 번은 무릎을 대고 그대로 미끄러졌는데 너무 아파서 소리도 안 나오고 진짜 닭똥 같은 눈물만 나온다.

토왕폭에 도착하니 광주대 팀이 올라가고 있었다. 그런데 얼음이 고드름 투성이어서 어렵나

보다. 계속 슬립이다. 현성이 형과 송원 선배는 입산 허가증을 끊으려 내려가고, 서강 환이 형은 톱을 서기로 했다. 노란 슬링이 걸린 곳까지 걸어서 올라간 형은 겁나는지 담배를 한 대 피우더니 하강을 하겠다고 한다. 그래서 우린 그냥 내려왔다.

저녁을 먹은 후에 학교 대표들이 회의를 하더니 조대공전, 조대, 순천지역, 우리학교가 함께 토왕폭을 1박 2일로 다녀온단다. 1박은 당연히 비박이고. 이번 비박은 그리 걱정되지 않는다.

1월 13일 금

15:00기상, 토왕폭

토왕폭에선 높으신 선배님들이 너무 많아서 우린 아래쪽에서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며 동기들끼리 재미있게 보냈다. 조대 연숙이는 낙빙을 맞았다면 이어밴드로 입술을 가리고 있었다.

순천대 정연이 형이 우리를 부르시더니 트래버스해서 상단까지 데리고 가셨다. 올라가는 길이 힘했지만 서로 도와주며 올라가니 어쨌든 토왕폭에 올랐구나 하는 생각에 노래도 부르고 사진을 찍는 정현이 형 품이 더 멋있게 사진도 찍었다.

비박지를 향해 가는 길에 수도 없이 넘어졌다. 바위틈에서 모닥불을 피워도 추운 것은 여전했다.

1월 14일 토요일

울산암 구경

아침에는 이름 모를 조그만 빙벽을 창균이하고 나하고만 하고 내려오다 광주대 텁을 만났다. 명희언니가 오셨다 한다. ‘우리학교도 OB선배님이 오셨구나’ 하며 내려가는 길에 우리를 찾아 올라오시는 명희언니를 만났다.

우리는 그냥 BC로 들어가기도 그래서 울산암에 갔다. 계단이 108개라 했던가, 바람이 참 많이 불었다.

저녁때는 전북대와 술을 마시는데 선주언니까지 오셨다. 창균이는 관동대 텐트에 가더니 술이 머리끝까지 올라서 돌아왔다. 그래도 전북대 정길이 형은 시에라 컵에 술을 가득 따라 준다. 창균이가 걱정스럽다. 간밤에 쉬~

1월 15일 일요일

07:00 기상 10:00 출발 18:30 저항령 도착, 막영

오늘부터 북주능과 서북주능 종주를 해서 설악산을 떠난다. 텐트를 철수해서 짐을 싸는데 배낭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라만 간다. 배낭을 매려다 옆으로 넘어졌다. 출발할 때와 무게가 변함이 없는 것 같다. ‘이렇게 매고도 갈 수 있을까?’ 하며 창균이를 앞세우고 우리는 그 동안 정들었던 베이스를 떠났다.

어제 술 때문에 괴로워하는 창균이는 그래도 잘만 간다. 작년인가 전북대 장정들이 저항령까지 1박 2일 걸렸다고 선배들이 농담 삼아 이야기 한다. 가다 보니 농담이 아닌 것 같다.

힘이 들다 보니 발 잘못 디딘 척 하고 굴러 떨어져 버릴까 하는 생각까지 듦다.

저항령에 도착하니 한양대 티밍 텐트를 치고 있다. 오늘 계획은 마등령이었지만, 날이 어두워지니 우리도 거기서 막영하기로 했다. 하루 중 가장 즐겁고 편한 시간이다.

1월 16일 월요일

05:00 기상 마등령 청아봉(1275봉)

마등령까지는 너덜지대도 있어서 힘이 들었다. 길이 험해서 미끄러졌다. 대장님의 화가 나서 몽둥이를 해오라 하신다. 뭐라뭐라 하시더니 잘 가자며 창균이에게 짐을 덜어 준다. 창균이에게 미안했지만 짐을 빼니 속도가 붙는다.

마등령에서는 천막치고 사는 아저씨 아줌마가 침낭을 햇빛에 널어놓고 있었다. 그 광경이 보기 좋아서 나도 이 다음에 저리고 살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점심을 먹고 선주 언니는 직장 때문에 내려가고 우린 공룡능선으로 산행을 계속했다. 내리막길은 참 협했다. 1275봉이 바로 보이는 내리막길에서 발이 불안하여 자세를 약간 바꿨다. “그래 그렇게 내려와” 하시는 선배님 말씀에 발을 폐는 순간 굴러 떨어졌다. 오랫동안 굴러간다는 생각에 ‘난 이렇게 죽는구나’ 하고 생각했다. 다행히 나무에 걸려서 아래로 떨어지진 않았다. 특별히 다친 데는 없었다. 참 많이 굴렀다고 생각했는데 그런 건 아니었다. 중요한 건 조금만 더 굴렀으면 절벽이었다는 것이다.

1275봉에서 막영을 하기로 했다.

뭣지를 하는 사람일지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을 만났다.

1월 17일 화요일

05:00 기상 희운각 중식 소청 중청 끝청지나 막영

오늘은 날씨가 너무 따뜻하다. 희운각에서 이른 점심을 먹었다. 여름에 봤던 산장아저씨가 있나 봤더니 그 사람은 없고 다른 아저씨가 지키고 있었다. 조금은 섭섭했다. 소청까지는 올라가고 내려오는 사람들이 많았다. 지금까지는 계속해서 멀리 보이는 저곳이 대청봉이다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막상 대청이 바로 보이는 소청에 오니 기분이 좋아진다.

1월 18일 수요일

05:00 기상 한계령 삼거리 귀때기청 대승령

오늘은 바람도 많이 불고 눈발도 날린다. 지금까지보다는 동계다운 날씨다.

귀때기청을 지나 덕성여대 팀을 만났는데 2시간만 가면 대승령이라고 한다. 하지만 아무리 걸어도 나오질 않는다. 처음으로 글리세딩을 했다. 출발하기 전 겨울산을 찾는 이유가 뭐냐는 질문에 광복이 형은 글리세딩을 하기 위해 그런다는 말을 듣고 무슨 말인가 했는데 재미있었다. 덕분에 웃이 젖긴 했지만

야간산행을 1시간 정도 하다가 대승령을 조금 못 가 막영지를 정했다.

1월 19일 목요일

대승령 백담사 용대리 서울

마지막 날이다. 막영지에서 30분을 가니 대승령이다. 그곳에서 백담사까지는 참 멀기도 했다. 백담사 계곡에서 중식을 먹고 걸어서 용대리까지 와서 오후 5시 30분 차로 서울까지 왔다. 서울에서 다시 선주언니를 만났고, 잠시 후에 규성이 형까지 오셨다. 밤새 신나게 논 다음 여관에서 마지막 밤을 보냈다.

1월 20일 금요일

서울 광주, 회식

늦게 기상해서 고속버스로 광주에 도착, 회관에 들어오니 다섯 시가 넘었다. 그 동안 못 본 회원들, 그리고 성개 형, 두인이 형 등 OB선배님과 함께 회식을 했다.

재미있는 순간보다는 힘들었던 순간이 더 많았다. 하지만 지금껏 동기들과 이야기해도 정말

재미있었다고 말을 못했는데, 처음으로 진짜 재미있었고 좋은 산행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산행이었다.

5. 1995년 하계

- 글 94학번 : 천옥랑, 95학번 : 임도균 김현준 이형관
- 기 간 : 1995. 7. 7 ~ 7. 28 (21박22일)
- 대상지 : 백두대간(속리산~두타산)
- 대 원 : 최지환 천옥랑 임도균 김현준 이형관

7월 7일 금요일 비

[조장 천옥랑]

발대식(11:00)–광주 출발(14:40)–청주(17:40)–괴산(19:30)–음성(20:05)–충주(20:45)

하계 첫날을 텐트가 아닌 곳에서 보내니 기분이 좋다. 일 학년 애들은 말을 참 잘 듣는다. 산행을 아직 안해서 그런가 보다. C조의 천중이가 걱정돼서 전화연락을 해보는데 행방이 묘연하다. 하루종일 차만 탔는데도 피곤하다. 청주 사람들은 귀빈래라는 마을을 한번도 들어본 적이 없단다. 놀재라는 곳도.

[39기 임도균]

버스를 많이 타고 갔다. 청주에서 괴산으로, 괴산에서 음성으로 다시 충주로.

여관에서 잤다. 계속 이렇게 갔으면 좋겠다.

집에 전화했는데 그렇게 야단치지 않았다. 신체검사가 걱정된다.

7월 8일 토요일 계속 비

기상(06:00)–출발(09:05)–가은(10:50)–별바위(14:00)–장성봉 초입에서 막영(16:00)

[조장 천옥랑]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텐트를 그리워하며 일찍 잠에서 깼다. 1학년들은 수가 다른 조보다 한 명 더 많아서인지 알아서들 잘 한다.

일찍 가은으로 갔지만 거기선 2시간 30분이나 기다려야 했다. 벌바위로 와서 약 3Km도로를 타고 올라와서 장성봉 초입에 막영을 했다. 지금까지는 이를째인데도 산이 멀리 있는 것만 같아서 조금은 불안했는데 이제야 편해진다.

7월 9일 일요일 맑다강 밤에 비

기상(06:00)–출발(07:45)–장성봉(10:00)–점심(13:30)–계곡막영(18:00)

[조장 천옥량]

산에서의 처음 아침이지만 애들은 생각보다 준비를 빨리 한다. 올라가는 길이 힘들었지만 다행인지 불행인지 도균이의 속도가 늦어진다. 장성봉에서 은치재까지 가는 도중에 길이 약간 희미해진다. 그래도 길이 꺾어진 곳을 지났으니 방위각이 맞다고 생각하며 갔는데, 지환형은 아직 꺾어지기 전이라 길리 틀렸다고 한다.

나무가 없는 곳으로 나오니 아래쪽에 지도에도 없는 암자가 보인다. 거기를 목표로 갔는데, 훨씬 오른쪽 계곡으로 떨어졌다. 계곡을 타고 내려가니 암자가 나온다. 스님이 한 분 계셨다. 우리에게 커피도 끓여 주고 과자도 주신다. 근데 말을 하질 않는다. 도균이 말로는 그런 기간이 있단다. 계곡이 만나는 곳에서 올라가면 은치재인데 난 긴가민가해서 계곡을 건너갔다. 뒤에 오는 지환형이 한참 가서야 그걸 말해 준다. 결국 우리는 은치재 오른쪽에서 막영을 했다.

[39기 임도균]

날짜가 진짜 안 같다. 너무너무 힘든 하루였다. 처음에 올라갈 때 넘어올 것 같아서 엄청 힘들었다. 내 것을 많이 빼도 너무 힘들다. 앞으로 남은 날이 막막하다. 어떻게 지낼 것인지, 어떤 암자에서 스님을 만났다. 말이 없었다. 목욕을 했다. 시원했다. 그리고 몰래 물을 훔쳐먹었지만 안 들기려고 너무 빨리 먹는 틈에 물맛도 음미하지 못하고 물을 먹어 벼렸다.

현준이가 고맙다. 쏘가리도 그렇다. 현준이가 간다고 한다. 걱정이 된다. 괜히 왔다. 자리고 모르니 도망칠 수도 없고.

7월 10일 월요일 엄청난 비

출발(10:00)–은치마을(13:00)–이화령(18:00)

[조장 천옥량]

아침부터 비가 많이 온다.

백화산을 지나기엔 날씨 때문에 더욱 위험하니 마을로 떨어지자고 지환형을 꼬셨다. 지환형은 꼭 백화산을 가보고 싶다며 비를 맞으며 출발 준비를 시킨다. 출발을 하니 비가 더 세차게 내리고 번개도 친다. 능선에 도착. 갑자기 지환형이 아래쪽으로 막 내려오더니 “그냥 반대편으로 넘어가자”고 한다. 바로 옆으로 벼락이 떨어졌다. 위험하니 내려가서 이화령으로 가잔다. 그때 우리들 표정이 월드컵에서 한 골 넣은 사람 같았다.

마을로 떨어졌지만 좋은 것만은 아니었다. 밭바닥이 너무 아프다. 마을에서 도로로 올라채기 위해 길을 뚫으면서 가니 풀독이 올랐는지 뭐가 막 난다. 도균이는 길가에 누워 버린다. 차가 지나가니 이제까지 과묵하던 형관이가 막 달려나간다. 우린 이화령 도로 옆에서 막영을 했다.

[39기 임도균]

비가 엄청 왔다. 아침에 비가 많이 와서 원래는 출발을 안하려고 했지만 지환이 형이 출발하자고 했다. 정말 가기 싫었으나 어쩔 수 없었다. 올라가는 데는 엄청나게 힘들었다. 비가 와서 물걱정은 없었지만 능선에 올라서는 순간 벼락이 쳤기 때문에 그냥 이화령으로 향했다. 고추도 따고, 산딸기도 먹고, 오이도 먹었다.

엄청 걸어서 길을 뚫고 나서 도로에 도착해서 몇 번의 실패 끝에 트럭을 타고 이화령에 도착했다. 정말 고마웠다. 이화령에 도착해서 텐트를 쳤는데, 맞은 편 군 초소에서 군인들이 뭐라고 소리를 질렀다. 훈련 중이니 텐트를 걷으라고. 못 들은 체 했더니 끝내는 우리 있는데 까지 와서 말했다. 결국은 자리를 딴 데로 옮겼다.

휴게소에서 따끼리를 하면서 형관이가 음료수를 훔쳐서 맛있게 먹었다. 형관이 실력을 썩히 기에는 너무 아깝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런데 내일 조령산 올라갈 일을 생각하니 너무나 깃깝하다. 아! 집도 그립고, 가족도 그립고, TV도 그립다.

7월 11일 화요일 여전히 비

기상(05:00)-출발(07:30)-조령산(10:00)-조령삼관문(18:15)-야영장 막영(19:00)

[조장 천옥량]

오늘은 무척이나 살벌한 날이다. 철없는 조장인 나도 거기에 한 뜻을 더했으니 지환형만 심각하다. 조령산을 올라가니 고도가 1000이 넘어가서인지 조금만 앓아 있었는데 춥다. 일 학년들도 빨리 가잔다. 조령삼관문(鳥嶺三關門)까지는 길이 몹시 험하다. 그래서 지루하기까지 했다. 조령삼관문은 작년하고 달라진 게 없었다. 약수물의 시원함도 여전하다. 밭을 담그니 오늘

하루의 긴장이 풀어지는 듯 하다.

[39기 임도균]

비가 계속 온다. 가기가 싫다. 꾸물거리다 출발시간이 30분이나 늦었다. 지환이 형이 엄청 화가 난 것 같다. 지환이 형은 조장이 여자여서 우리가 조장을 무시한다며 두고 보자고 했다. 오늘은 자기가 조장을 한다고 했다. 지환이형, 다음에 나, 현준이, 쏘가리, 옥랑이 누나 순으로 뒤따라오라고 했다. 5m만 떨어져도 작살낸다고 했다. 처음 계단만 올라가도 미쳐 버릴 것 같았다. 계속 쳐졌다. 올라가는 중에 허리를 굽히고 많이 쉬었다. 엄청나게 쉬지도 않고 올라가서 나는 이제는 쉴 줄 알았지만 쉬지도 않고 그냥 계속 갔다. 힘들었다. 지환이형은 말이 없다.

조령산 정상에 도착해서 이젠 조령3관문까지는 내리막 길이 대부분이겠구나 생각했으나 내 생각이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곧 느낄 수 있었다. 완전히 깎아지른 절벽에 거의 90도 가까운 경사 때문에 고생했다. 오르막길 오를 때는 정말 미쳐 버릴 것 같았다. 현준이가 내리막길 때 바위에서 너무 겁을 먹어서 지환이 형에게 야단을 많이 들었다. 현준이의 표정이 너무도 불쌍하다. 괜히 나 때문에 와서 고생하는 것 같다.

지환이 형은 오후 간식을 먹을 때까지 말이 없다.

내리막길에서 잡목에 걸려서 현준이와 쏘가리의 휘발유통 1개가 각각 떨어져서 절벽으로 굴러 떨어졌지만 내 것은 이상이 없었다. 무려 1~2kg에 육박하는 무게를 떨쳐 버린 그들은 얼마나 행복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얼마나 갖는지도 모른다. 이제 조령 3관문이란다. 지환이형이 한참을 돌아다니더니 배낭을 다시 매라고 했다. 순간 쓰러져 버릴 것 같았다. 그러나 조금 내려가서 야영장 야외무대에 텐트를 쳤다. 지호나이 형이 만원을 주면서 마을에 내려가서 고기를 사 오라고 했다. 한참을 내려가서야 휴게소가 나왔다. 비싸기만 오지게 비쌌다. 돌아와 보니 이미 깜깜했다. 내일은 예비일이다. 날씨가 맑아야 하루종일 쉴텐데 날씨야 제발 맑아 다오!

그런데 조령산 내리막길에 현준이를 잡으려다 미끄러져서 다리를 조금 많이 다쳤다. 쓰립다. 집에 가고 싶다. 한 마리의 파리가 되어 굽이쳐진 능선을 날아가고 싶다.

7월 12일 수요일 흐림

출발(16:000-마역봉(18:00)-성터막영(20:00)

[조장 천옥랑]

아침에 일어나서 뻘래하고, 잠자고… 예비일이다.

오후에 관리공단 아저씨가 우리가 텐트 친 장소는 야외무대라며 철수를 하란다. 그래서 그냥 마역봉까지 산행을 하기로 했다. 마역봉을 지나 조금 내려가니 성터가 나온다. 돌을 1시간이 넘게 평평하게 고르고, 그 위에 나뭇가지를 깔고 막영을 했다. 울퉁불퉁하지만 그것도 재미있다.

[39기 임도균]

예비일 하다가 성석이 깊은 문경새재 관리공단 아저씨가 와서 텐트를 걷으라고 해서 한참 후에 철거하고 마역봉을 향해 올라갔다. 그런데 누가 마역봉이 아닌데도 표지판을 붙여 놔서 잠시 착각을 했다. 쌀 1개, 소금 1봉지, 김치 1개를 몰래, 그야말로 동기들도 모르게 버렸다. 배낭을 매 보니 엄청나게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오늘은 특별한 일이 없었다. 쌀 1개, 김치 1개가 나갔으니 배낭은 더욱 가벼워질 것이다. 아침에 일어나서 배낭싸는 게 엄청나게 귀찮다. 현준이가 불쌍하다. 표정도 그렇고. 내가 잘못해서 데려온 느낌이 듈다.

7월 13일 목요일 소나기

출발(08:00)–부봉(09:00)–하늘재(13:30)–막영(15:00)

[조장 천옥량]

부봉을 트래버스해서 하늘재까지 가는 길은 재미있었다. 그곳에서 점심을 먹고 포암산을 올라 채느냐 마느냐로 지환형은 고민이시다. 그러다 포암산을 올라 채면 막영지가 적당치 않을 것 같다면 하늘재에서 막영하자는 현명한 판단을 내리신다. 39기 두 명을 마을에 심부름을 보냈다. 도균이가 집에 전화를 했는지 신검 때문에 18일까지 내려가야 한다는.

상지대 팀을 만났다. 둘이서 백두대간 종주를 하는데 일 학년 애들이 대단하다는 듯한 눈빛이다.

[39기 임도균]

마역봉 성터에서 막염을 하고 포암산을 향하여 출발했다. 짐을 벼려서 그런지 배낭이 무척 가볍게 느껴졌다. 예전처럼 그렇게 힘들지는 않았지만 휴식시간을 지키지 않아서 무척 힘들었다. 도중에 옥랑이 누나가 길을 잘못 들어서 back을 했는데 힘도 들고 화도 났다. 다리의 상처가 군데군데 고름이 들어서 나뭇가지를 거칠 때마다 엄청 아프다.

하늘재에서 라면을 먹고 바로 포암산으로 출발하려 했지만, 그냥 하늘재에서 막영을 했다. 마을에 내려가서 고기와 통조림 등을 사 와서 먹었다. 전화를 거니까 신체검사를 받으려면 늦

어도 18일까지 와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16일 죽령에서 먼저 광주로 내려가게 될 것 같다. 지환이 형도 보내 준다고 했으나 진짜로 순순히 보내 줄지 의문이다. 그러나 나는 가야 한다. 대신 현준이가 인질로 잡혀 있게 된다. 집에 가면 옥을 바가지로 얻어먹을 것이 뻔하다. 아니 아마 맞아 죽을지도 모른다. 가위 바위 보를 해서 나와 쏘가리가 쳐서 설거지하러 가는데 또 미끄러져서 상처가 또 났다. 내 몸은 완전히 상처투성이다. 충분한 휴식과 안정이 필요할 것 같다. 어쨌든 나는 16일 저녁이나 17일 아침에 가서 22일 날 태백산으로 들어오면 된다. 너무도 기쁘다.

7월 14일 금요일 맑음

출발(10:00)-포암산(13:00)-대미산 아래 안부(20:00) 막영

[조장 천옥랑]

또 늦장을 부렸다. 녹차를 끓이는 것을 봤는데 녹차가 다 식어 있었다.

한참 막영할 생각으로 부풀어 있어야 할 시간에 우리는 야간산행을 계획하고 있었다. 대머리가 아름다운 산은 가까워지질 않는다.

내일부터는 제시간에 운행해야지 하는 생각뿐이다.

[39기 임도균]

하늘재에서 일하는 아저씨와 기념촬영을 마치고 포암산을 향하여 출발했다. 경사가 급했지만 올라가는데는 그렇게 힘들지 않았다. 그러나 조금 지나서는 엄청 어려웠다. 라면을 끓일 물이 없어서 물을 뜨려고 내겨갔다. 가기 싫었으나 지환이 형이 나를 지목해서 할 수 없이 내려갔다. 억지로 천천히 내려갔다. 조금이라도 덜 올라가기 위해서……. 그런 내 마음을 알았는지 형은 빨리 내려오라고 난리다. 그런 능선상에 어떻게 물이 흐르는지 이해가 안 간다.

물백을 들고 올라오니 그렇지 않아도 거지같은 옷이 완전 걸레가 되 버렸다. 라면을 먹고 출발했다. 엄청나게 간 것 같다고 생각했으나 알고 보니 얼마 가지도 못했다. 지호나이 형이 앞에 서더니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졌다. 조령산의 망령이 되살아나려고 했다. 몇 번 쉬지도 않고 물도 잘 주지도 않을뿐더러 감시도 심하다.

한참 가서 어두워져서야 텐트를 치고 지환이 형과 쏘가리가 물을 뜨려 갔다. 기다리고 있는 중에 지환이 형이 영영 안 와버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으나 애석하게도 한시간 반쯤 지나서 에코소리가 들려 왔다. 목이 터져라 에코를 외쳤다. 현데 지환이 형이 한 명 내려오라고 해서 현

준이와 내가 내려가려는데 현준이가 안 내려가려 해서 나만 내려갔다. 현준이가 이제는 더 이상 불쌍하지도 않고 밉다. 가스등도 내가 나무에서 내렸다. 내일 먹을 물까지 계산해서 오늘밤은 밥도 못 먹고 수프와 간식만 먹었다.

지금은 대미산 기술이다. 내일은 대미산을 올라 첼다. 걱정된다. 내일도 김치 한 개는 꾸준히 빠지겠지. 이 맛에 지금까지 벼텨온 것 같다.

7월 15일 토요일 흐림

7:30 기상-10:30 출발-11:00 대미산-19:00 옥수동 계곡 막영

[조장 천옥랑]

어제의 피곤함에 눈이 더욱 떠지지 않았다. 대미산 올라가는 길은 무척이나 지루했다. 차갓 재로 가기로 했지만 도중 809봉 못 미쳐 “마을로 떨어질까?” 하는 지환형 말에 며칠간의 고생은 잊은 듯 좋아서 “당연하죠!” 그랬다가 또 힘들게 고생만 했다. 이럴 줄 알았다면 그냥 계속 걸 하는 생각만 앞섰지만 이왕 갈 거 하며 천천히 달리니 조금은 나은 것 같다.

휴식시간에 카메라가 이상하다며 이리저리 만지는데 웬지 불안하다. 날은 어두워지는데 끝은 보이지 않고 형도 답답했는지 나한테 일정을 상의하신다.

그곳에서 막영하기로 하니 일 학년들만 환호성이다.

[39기 임도균]

D-day 2일이다. 오늘과 내일만 지나면 나는 광주로 갈 수 있다.

그런데 지환이 형이 보내 줄 지 의문이다. 아침에 지환이 형이 18일보다 먼저 가도 좋으냐고 물어 본 걸로 봐서는 내일 보내 줄 수도 있지만,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영 아니다. 10시 30분에 출발해서 대미산에서 휴식을 취한 뒤 우리는 또 산행을 시작했다. 모두가 힘들어하는 것 같다.

지환이 형이 오늘은 속도가 안 난다고 했다. 그래도 잘만 갔다. 길에 풀이 많이 나 있어서 다리의 상처를 견드려서 많이 아팠다.

헬기장을 조금 지나 또 한 번의 휴식을 취한 뒤, 갑자기 차갓재를 안가고 수미봉을 향해서 우리는 또 떠나기 시작했다. 그래서 바로 아래로 길을 뚫었다. 한참을 뚫어서야 길이 나왔다. 계곡에서 라면을 끓여 먹고 마을을 지나가는데, 들어오는 차는 있어도 나가는 차는 한 대도 없었다. 카메라도 필름이 고물이라 한 통을 버렸다. 아까운 우리 사진 …….

한참을 걷다고 갑자기 지환이 형과 옥랑이 누나가 이야기를 하더니 텐트자리를 찾았다. 계곡

옆에 텐트를 치고 우리는 목욕을 했다. 현준이가 또 늦게 해서 먼저 가려고 했지만 같이 가자고 해서 기다렸다가 같이 왔다. 욕을 얻어먹을 줄 알았는데 아무말도 안했다. 옥랑이 누나가 뭔일로 밥을 다해 놓고 기다리고 있었다.

현준이가 기분이 안 좋은가 보다. 미안한 생각이 들고 불쌍하게 느껴진다.

지환이형 기분도 좋지 않은 것 같다. 말없이 지도만 쳐다보고 있을 뿐이다. 내일은 또 엄청나게 힘든 산행이 되겠구나. 그러나 나는 내일 하루만 하면 만사 땡이다. 헌데 진짜 보내 줄지 의문이다. 형이 막판에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

그러나 나는 가야만 한다. 집에 가면 욕을 바가지도 얻어먹을 것이지만 그래도 집이 그립니다.

아! 광주! 광주! 광주! 우리는 광주를 사랑합니다. 광주 MBC 집중문화 캠페인………….

7월 16일 일요일 지겨운 비

05:00 기상-07:30 출발-단양-죽령-16:00 막영

[조장 천옥랑]

도균이가 나가는 날이다. 어제 형 말도 있고 해서 나도 마음을 다시 바로 잡았다. 예비일 비슷한 날이지만 우리는 제시간에 기상했다.

도균이가 나가고 나니 허전하다.

죽령에 도착하니 비도 오고 몹시 춥다. 뜻밖에도 영필이 형을 만났다. 계획서를 보시고 일부러 찾아오셨다 한다. 형 덕분에 푸짐하게 먹었다.

[39기 김현준]

도균이가 신검을 받기 위해 광주로 내려갔다. 오늘 따라 도균이의 얼굴빛이 유난히도 밝은데 난 왜 이리도 찌뿌둥한지… 그저 도균이가 부럽기만 하다. 나도 하루 빨리 지옥 같은 이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지만 사정이 허락지 않으니 차라리 미쳐 버리고 싶다. 거의 매일 물에 빠진 생쥐 꼴로 까마득한 정상을 향하여 보이지도 않은 목적지를 향하여 가야만 하니 나의 지랄 같은 깡다구도, 인내도 이젠 지쳤다. 오직 모든 일을 초월해 버린 중처럼 하루하루를 “해가 떴으니 가자. 해가 지는 구나. 이제 자자.” 하면 되는 것이다.

아마 산악회가 이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는 한 이 진리는 영원할 것이다.

7월 17일 월요일 맑음

05:00 기상 – 10:30 출발 – 14:00 비로봉 – 16:45 국망봉 – 19:00 막영

【조장 천옥랑】

오늘은 새로이 하계를 시작한 날인 듯하다. 빼듯이 운행을 하니 기분이 좋다. 아침에 영필이 형 차가 밧데리가 나가서 출발이 늦어지긴 했지만 다들 새로운 마음가짐이어서인지 분위기가 다르다.

소백산은 길이 뻥뚫린 대로였고 처음으로 능선을 조망할 수 있는 날씨여서 더욱 좋았으나 표지판은 제멋대로 박혀 혀갈리게 했다.

【39기 김현준】

어제 오후에 영필이 형(32기)이 찾아 오셨다. 우리를 만나기 위해 그저께부터 우리를 찾아해매 셨다고 한다. 나로서는 이해가 안 간다. 금쪽같은 휴가를 쪼개서 3일간을 우리를 보기 위해 허비하다니. 우리가 무엇이 대단한지….

선배님과 많은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선배님이 우리에게 향한 애정이 얼마나 대단한지 새삼스럽게 느낄 수 있었다. 그리고 오늘 산행은 선배님의 호의(닭도리탕, 백숙)에 힘입어 따따불로 갔다. 소백산 국망봉이 막영 예정지인데 소백산 국립공원을 벗어나 버린 것이다. 선배님의 호의만 계속 있다면 이까짓 산행쯤은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7월 18일 화요일 구름 속에서 해맨 날

05:00 기상 – 08:00 출발 – 12:45 고치령, 중식 – 14:30 고치령 출발 – 17:50 마구령, 막영

【조장 천옥랑】

물이 부족할 것 같아 현준이에게 물을 떠오라고 시켰는데 한시간이나 걸렸다.

오늘따라 구름이 가득 끼었다. 독도라는 건 나에겐 아예 개념이 안 서는지 꺾어야 할 지점을 찾을 수 없다. 고치령에서 점심을 먹고 잠깐 나온 햇빛에 옷을 말렸다. 마구령까지는 예상보다 빨리 도착했다. 두 시간 동안 쉬질 않고 걸었더니 일 학년 애들의 얼굴에 불만이 가득하다. 비가 오지 않을 것 같아 빨래를 밖에 널어놓고 잤는데 밤에 또 쏟아 부었다.

【39기 김현준】

동생이 그립다. 부모님도, 친구도, 산행에 있어서 오늘처럼 젖은 적은 없었다. 부모님, 친구

들과 이렇게 오랫동안 연락없이 떨어져 있다는 사실이 나를 자꾸 그리움에 휩싸이게 한다. 지금 마음으로는 부모님과 친구들을 만나면 내 모든 것을 송두리째 주고 싶은 심정이다. 이 기분이 언제까지 갈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부모님과 친구들을 대하면 좀 더 솔직한 모습으로, 더 진실된 마음으로 행할 것이다.

7월 19일 수요일 무지무지한 비

05:00 기상 - 13:30 출발 - 16:30 늦은목이, 막영

【조장 천옥랑】

아침부터 비가 엄청 쏟아진다. 오후에 출발하기로 결정하고 잠을 더 잤다. 산행을 시작하는 데도 비는 계속해서 내린다. 너무도 춥다. 현준이는 춥다며 휴식시간에도 배낭을 내려놓지 않는다. 늦은목이에 아주 좋은 막영지가 있기에 형에게 말을 끼냈더니 선달산을 넘어가잔다. 나 까지 세 명이서 도저히 추워서 못 가겠다고 버티니, 그곳에서 막영을 하기로 했지만 분위기가 살벌하다.

【39기 김현준】

오늘은 예전의 산행보다 3시간이나 더 빨리 산행이 끝났다. 왜냐면 거의 휴식을 취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유는 잘 모르겠다. 휴식을 왜 안했는지. 따끼리 주제에 까라면 까고, 구르라면 구르면 그만이니까. 오늘 따라 유난히도 분위기가 혐악하다. 분위기가 좋지 않을 때에는 잔소리(?)를 듣지 않아서 참 좋는데, 꼭 망치는 놈이 있다. 쏘가리(이형관)이다. 꼭 톡톡 쏈다. 자슥 이 분위기만 잘 파악하면 멋진 놈인데 말이야. 하여튼 산행이 빨리 끝나서 참 좋다.

7월 20일 목요일 비

05:15 기상 - 09:00 기상 - 12:00 박달령 - 13:00 옥돌봉 - 16:00 도래기재, 막영

【조장 천옥랑】

4시에 기상할 계획이었는데 너무 깜깜해서 5시가 넘어서 일어났다. 배탈이 났는지 배가 아파서 속도가 느려진다. 선달산 정상에서 배탈 때문에 휴식시간에 일을 보는데 밑에서 현주형과 지형이 형이 구세주를 만난 듯한 표정으로 올라오신다. A조로 간다고 그러더니 이런데서 만날 줄은 생각지도 못했다.

옥돌봉에서 도래기재로 내려올 땐 길을 잘못 들어서 뚫어야만 했다. 헬기장이 옥돌봉이라 생각했는데 더 가야 했나 보다. 오랜만에 목욕과 빨래를 했다.

【39기 김현준】

으~, 아침부터 성질 난다. 오늘이 벌써 세 번째다. 5시에 기상하자마자 또 나보고 수통에 물을 떠오라는 것이다. 꼭 응아를 누려고 하면 시키는 것이다. 나오기 일보직전이다. 수통에 물은 채워야겠고, 에라이 모르겠다, 수통을 계곡에 내팽개치고 바로 옆 나무 하나를 붙잡고… 시원하다.

쏘가리는 아직 일어나지도 않고 열받는다. 제발 큰 거 마셔올 때는 아무 일도 시키지 않았으면 좋겠다. 형관이도 있는데. 그런데 오늘은 푸짐하게 먹었다. 산행 도중에 30기 현주 형과 34기 지형이 형을 만났기 때문이다. 영필이 형처럼 단지 우리가 보고 싶고 산이 그리워서. 배가 뜨뜻하니 내일을 위해 잠 좀 자야겠다.

7월 21일 금요일 짜증나는 비

05:00 기상 - 07:30 출발 - 14:30 고직령, 중식 - 19:40 태백산 정상 막영

【조장 천옥랑】

구룡산이 고비일거라 생각하며 가는데 985.5봉 앞에서 산판길이 나온다. 선배들이 둘러보더니 그길로 갈까 고민이다. 행여나 차를 타게 될 줄 알고 우리도 함께 꼬셨지만 능선으로 갔으면 3시간이면 갔을 거리를 아래로 뚝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 채야만 했다.

휴식 시간에 간식을 빼라고 하니 서로 귀찮아서 빼질 않는다. 짐이 가벼워서 그러나? 그래서 간난에 머리통 만한 돌들을 2~3개씩 집어넣으니 몹시 괴로운 표정들이다. 약해지지 말자 중식 때가 되어서야 돌을 빼서 캐른을 쌓으며 내년에 꼭 다시 와서 확인하겠다고 다짐들을 한다.

태백산까지는 길이 아주 완만해서 대부분을 뛰어서 갔다. 정상에는 내 키보다 훨씬 큰 비석이 있었고, 제단이 있었고, 개스가 끼어서 신비로운 느낌이 들었다. 정상에다가 비바람을 이겨 가며 텐트를 쳤고 밤새 내내 자칭 도사라는 사람의 트림소리를 들으며 자야 했다.

【39기 김현준】

도균이하고 만나기 하루 전날, 과연 도균이가 올까? 하는 의구심을 품고 산행시작. 지금까지

산행 중 가장 많이 걸었고, 매우 힘든 산행이었다. 다름이 아니라 산행 중 어찌어찌해서 짱돌을 큰 것으로 세 개나 넣는데, 나 혼자 힘으로는 배낭을 맬 수 없었다. 그래도 50분 산행, 10분 휴식이면 숨좀 쉬겠는데 한 번은 두 시간, 그것도 오르막길을 그랬으니 퍼지기 일보직전까지 가는 거였다. 돌아 버리지, 비만 오지 않았으면 바로 여기가 내방이다 하고 뺀을 텐데 말이야.

다행히도 중간에 돌을 빼 줘서 겨우 힘든 산행을 면했다.

7월 22일 토요일 오랜만에 맑음

예비일

【조장 천옥랑】

일출을 보고 싶어 네 시 반에 일어났는데, 개스가 가득하다.

현주 형과 현준이가 내려가기로 한 날이다. 섭섭하다. 현준이에게 아무 것도 가르쳐 준 게 없는 듯해서 더욱 그렇다.

낮에 도균이는 가져갔던 식량을 메고 다시 우리에게로 왔다. 근데 아버지에게 쇠파이프로 두들겨 맞았다면 식량만 주고 다시 할아버지 제사 때문에 내려오기로 하고 왔다면 내려간다고 한다. 저녁에 형들이 술을 먹으면서 뭐라뭐라하니 아버지께 편지를 쓰기로 하고 계속 산행을 하기로 했다.

그건 그렇고 태백산 물이 이상한지 계속해서 설사이다.

【39기 이형관】

구름 속에 파묻혀 흐린 것 같았으나 오후에는 맑아졌다. 아침에 일어나기 싫어서 일출을 못 보기를 기대했다. 다시 여섯 시에 기상해서 아침을 먹고 나서 현준이와 현주 형이 그리운 속세로 갔다.

보기 싫은 놈이 없어져서 좋을 줄 알았는데 가고 나니 웬지 서운해서 담배만 계속해서 피워 댔다. 계속 지루한 시간을 보내다가 12시 30분 경에 도균이가 왔다. 정말 기쁘고 반가웠다. 문수봉까지 가서 도균이 배낭의 짐을 나눠 가지고 왔다. 무려 7km가 넘는 거리를 갔다 왔어도 힘들다는 생각은 들지 않고 기쁘기만 했다. 그러나 도균이는 제사 때문에 다시 가야 한다고 하니 힘이 쭉 빠지고 기분이 더러웠다.

그러다가 저녁에 술을 먹으면서 선배들의 꼬임에 넘어가 계속 산행을 하기로 했다. 또다시

선배들이 내 산행하는 자세에 문제가 있고 싸가지가 없다고 했다. 하지만 어제와는 달리 귀에 잘 들어왔다. 고쳐야지!

7월 23일 일요일 태풍

05:00 기상 - 07:20 출발 - 12:15 점심 - 14:40 함백산 - 16:30 싸리재, 막영

【조장 천옥랑】

몸상태가 매우 안 좋다. 피곤한 하루이다. 어平原엔 오랜만의 햇빛과 일요일이라서인지 사람들은 많다. 함백산은 정상에 통신시설 때문에 갈 수 있으려나 하며 시멘트 길을 따라 올라가는데 경찰차가 멈춘다. 우린 손도 들지 않고 그저 뒤를 돌아봤을 뿐인데, 덕분에 일반인은 못 간다는 정상도 쉽게 다녀올 수 있었다.

다시 헤어져서 싸리재에 거의 도착했다. 짙은 즙을 갑자기 비가 쏟아진다. 싸리재가 보이기에 좋아라 하며 막 내려가다 쭈욱 미끄러졌다. 아파 죽겠다. 거기 있는 가게에 들어갔는데 TV에서 태풍 소식을 전한다. 우리는 다른 조 생각을 했다. 아마 태풍이 부는 줄도 모르고, “오늘은 바람이 좀 세다”라고 말하며 산행을 할거라고…

【39기 이형관】

오랜만에 햇빛을 맘껏 느낄 수 있었다. 함백산 가는 길에 미군부대에서 지형이 형이 말도 안 되는 영어실력으로 물과 담배를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점심까지는 되지 않았다. 거기서 약 300m정도 가니 사람들이 일요일이라고 많이 와서 떡, 고기, 김치, 노가리, 수박까지 푸짐하게 얻어먹었다. 그러면서 점심겸 해서 2시간을 편하게 보냈다.

함백산까지 가고 있는데 백차가 나타나 정상까지 쉽게 갈 수 있었다. 정상에는 통신시설이 있었기 때문에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와 조금 못 미친 곳에서 능선을 타고 산행을 했다. 그 후에 산이 점점 어두워지더니, 얼마 후에 비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무지 추웠다. 싸릿재 근처에서 옥랑이 누나가 신나게 달려가다가 넘어졌다. 좋아서 죽는 줄 알았다.

싸릿재에서 오뎅, 음료수, 계란 등을 먹고 있는데 TV에서는 태풍소식이 들리고 지금 여기도 엄청나게 바람불고 비오니 산행이 제발 여기서 끝나기를 바랬다. 비야, 제발 내일 저녁까지만 계속와라. 부탁이다.

7월 24일 월요일 점심부터 맑음

05:00 기상 - 14:00 출발 - 15:30 금태봉 - 18:00 매봉산, 막영

【조장 천옥랑】

아침에 태풍으로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분다.

비가 그친 듯하여 밖에 나가 보니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늘이 너무 푸르다. 짐을 말리고 챙기는데 지도가 없다. 그것도 둘 다. 황당하다. 그래도 우린 끗끗이 대충 방위각을 맞춰서 갔다. 고랭지 채소밭이 나온다. 거기서 광복 50주년 기념 백두대간 종주를 한다는 사진작가 신특수씨를 만나 푸짐한 밤을 보냈다. 종주 팀에게 지원을 해주고 사진을 찍기 위해 그곳에 왔다 한다.

【39기 이형관】

5시에 기상했으나 태풍 때문인지 계속 비가 와 바람이 거세다. 그래서 밥을 먹고 다시 대기, 11 시 30분에 일어나 점심을 먹고 준비를 하는데 날씨가 구름 한 점 없이 맑았다.

싸릿재를 오후 2시 10분에 출발해서 금태봉을 지나 매봉산을 지나고 있는데 두 사람을 만나게 되었다. 한 명은 사진작가고 한 명은 조수로 서울공대 산악회라 했다. 그 사람과 함께 조금 더 가서 막영을 했다. 그들은 따로 백주대간종주를 하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앞서가면서 촬영하는 팀이었다.

차를 가지고 다녀서인지 반찬이 많았다. 장조림에 새우, 깻잎, 매운탕까지 정말 맛있게 잘 먹었다. 또 사진작가가 광주출신이라 특히 잘 대해 주었다. 오늘 산행도 즐겁게 끝났다. 계속 산행이 이렇게 쉽게 풀리기를 바랄 뿐이다.

7월 25일 화요일 맑음

05:00 기상, 광동댐 이주단지의 고랭지 채소밭 막영

【조장 천옥랑】

오늘은 한 일이 없는 듯하다. 신특수 아저씨와 같이 움직였다. 미리 땃재도 가보고, 덕항산에도 올라가 보고… 나중에 광동댐 이주단지까지 차로 태워 주고 헤어졌다.

고랭지 배추밭이 참 멋지게 보여 밭 사이에서 막영지를 고르고 있는데 갑자기 또 비가 온다.

【39기 이형관】

아침에는 비가 내렸으나 맑다가 소나기가 쏟아졌다. 아침에 기상했는데 또 다시 내가 늦게 일어나 지환이 형한테 얼굴을 한 대 맞았다. 또 설악시를 외우라고 했는데 말 한마디 잘못했다가 엄청 두들겨 맞을 뻔하기도 했다. 옥랑이 누나는 1시까지 외우라고 하고 지환이 형은 6시까지 외우라고 해서 6시까지 외우려고 차분히 읽어 갔는데 2시 30분에 확인하는 바람에 덕항산 까지 오리걸음을 했다.

차에 배낭을 두고 짹만 메고 정상까지 올라갔는데 사진 찍을 만한 곳이 마땅치 않다고 그냥 내려왔다. 쭉 차를 타고 댓새까지 갔다가 다시 광동댐 이주단지로 가서 막영을 했다. 그곳에서 촬영팀과 헤어졌다. 민박을 할 뻔했으나, 형이 그냥 가지고 하는 바람에 배추밭에서 잤다.

7월 26일 수요일 아주 맑음

05:00 기상 – 13:00 댓새 – 18:30 두타산 – 20:30 무릉계곡 집결지 도착, 막영

【조장 천옥랑】

지환이 형이 오후 3시까지 가면 된다며 넉넉히 4시간이면 가겠다고 10시에 출발하잔다. 여유로움을 즐기려는 순간 차가 올라왔다. 오늘 배추밭에 농약하는 날이라 한다. 그 넓은 밭에서 하필 여기냐… 바로 출발하려고 짐을 싸는데, 주인이 일 좀 해주라고 해서 농약 줄을 잡아 주며 때아닌 농활을 하게 됐다.

끝나고 주인집에서 식사 후 댓새까지 차로 이동했다. 혹시나 C조가 지나갈까 하여 써 놓은 글이 그대로 있다.

두타산까지 올라가는데 별씨 긴장이 풀리는지 몹시 힘이 들었다. 집결지를 정상에서 무릉계곡으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야간산행으로 내려가야 했다. 드디어 끝났다는 생각이 든다.

【39기 이형관】

아침에 자고 있는데 배추밭에 농약 치러 차가 들어오는 바람에 배낭을 쌌다. 그러다가 그 사람들을 도와 같이 농약을 했다. 그 사람들은 1년에 4개월만 일하면 1년벌이를 하기 때문에 돈에 대한 걱정이 없는 듯했다. 트럭을 타고 계속 돌아다니면서 농약을 쳐주었다. 점심을 얹어먹고 댓새까지 트럭으로 갔다.

댓새에서 두타산까지는 생각보다 힘들었다. 형이 노래를 시켰다. 부르기는 싫었지만 마지막

이라 생각하고 열심히 불렀다. 두타산 정상에 가니 현성이 형과 양숙이 누나가 내려왔다. 두타산 정상에서 이상 없음을 보고하고 바로 무릉계곡으로 하산했다. 모두들 반가워하는 것 같았다. 빵하고 준연이 형이 술을 사 와서 먹는데 만철이 형하고 장민이 형 사이에 끼어서 바로 취해 꽂아 떨어졌다.

7월 27일 목요일 맑음

비상

【조장 천옥랑】

끝난 게 아니었나 보다. 새벽에 갑자기 비상을 걸었다. 기상인줄 알았는데 비상이었다. 덕분에 우리는 줄뺏다를 맞았다.

오늘 하루는 무릉계곡에서 노는 날이다. 잠만 많이 잤다.

【39기 이형관】

새벽에 갑자기 비상이라고 해서 나갔더니 준비를 제대로 안했다고 줄뺏다를 맞았다. 그러나 술기운 때문인지 아픈 줄도 몰랐다. 괜히 얻어맞고 잤다. 정말 미친놈들만 모인 곳이다.

아침 8시에 기상해서 2학년들이 밥을 하기에 설거지도 할 줄 알았더니 우리보고 설거지를 하라고 했다. 늦게 해왔다고 또 두들기는데 미쳐버리는 줄 알았다. 11시 30분에 계곡에 가서 수영도 하고 낮잠도 잤는데 정말 기분 좋았다. 오늘만 지나면 이 지긋지긋한 생활도 끝이다. 빨리 집에 가고 싶다.

7월 28일 금요일 맑음

무릉계곡 – 동해 – 서울 – 광주

차시간에 맞추기 위해 재빨리 짐을 싸서 무릉계곡을 빠져 나왔다. 차를 타고 동해시로 나왔는데 하계 내내 도균이가 그리워하던 도시는 하나도 안반갑다.

서울에 도착하니 용육이 형이 나와 계신다. 만철이 형과 나란히 서 있어서인지 더 하얗게 보였다. 광주에 도착해서 엄마에게 전화를 하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 하신다. 삼겹살을 무려 31만원 어치나 먹었다.

조장을 하면서 참 소홀히 한 것이 많았던 것 같다. 지환이 형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현준

이, 형관이, 도균이도….

6. 2002년 하계

– 김가영 (02학번)

- 기 간 : 2002. 7. 26 ~ 8. 15 (20박21일)
- 대상지 : 삽당령~설악산, 설악산 일원
- 대 원 :

7월 26일 하계의 첫날

정말 좋은 막영지는 시멘트 바닥이었다.

설렌 것도 아니지만, 그런다고 여유롭지는 않았던 하계의 준비가 끝나고 우리 A조는 백봉령을 향해 지도를 보며 달려가고 있다. 서울 강남에서 다시 동해로... 두 번의 버스를 갈아타고 지금은 텐트 암! 호상이가 성필형과 종천형의 갈굼을 당하고 있다. ㅋㅋ 마지막 도로를 따라 연주 언니 뒤를 쫓아갈 때 드디어 내 짐의 무게가 이정도구나. -- 하는 걸 느꼈다. 두렵다. 내일은 도로가 아닌, 이렇게 가파른 산길을 올라가야 한다는 것이.

7월 27일 하계의 둘째 날 – 드디어 하계의 첫 산행의 시작(배낭 속을 깨끗이!)

어제는 차편 때문에 출발 지점인 백봉령에 못 갔지만 오늘은 꼭 산에 올라야 한다. 5시 기상 7시 버스 오르기 실패! 다시 강릉으로 가서 버스를 타고 할 수 없이 삽당령으로 갔다. 삽당령 가기 전 도로 건너에 물 뜨는 곳이 있어서 연주 언니와 피트 한가득 물을 채웠다. 오전 늦게 출발한 산행이었지만 하계의 첫 산행다운 산행을 했다. 약간의 잡복들이 나를 다시 오월의 춘계 산행으로 가게 했다. 대간이라고는 하지만 토요일 날 갔던 지리산 길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호상과 1m 간격을 유지하며 걷고 또 걸었다. 손톱에 낀 흙들하며, 호상이의 암기실력이 내 가슴을 아프게 하네... 비가 온다. 째--하게 내리는 비에 우리 조는 귀신이야기 보따리를 풀어 놓는다. 내일은 내 무거운 짐이 조금은 나아질 수 있을까?

7월 28일 하계 셋째 날 – 드디어 힘든 하계 (화란봉 – 닭복재 – 고루포기산)

배낭 무게가 갑자기 늘어났다는 것에 민감한 나머지 마음만 급하고 밥은 안나가고... 우리 조는 대장조니까 빠세게 일정대로 가야하는 거다. 종천형한테 갈굼 당할까봐 눈치를 본다. 밥 남겼다고 코펠을 저 구석으로 던진다 그덕에 다행이 남은 밥은 안 묵었지만... ㅜ.ㅜ 왜 이렇게 오늘은 힘들었는지 모르겠다. 빨리 잘 생각밖에 안든다. 형들은 밖에서 라디오 틀고 모기장 치고 잔다. 옷통도 벗는다. 부럽다.

7월 29일 하계 네 번째 날 – 대관령서 반나절 예비일

햇빛이 짹쨍 내리친다. 헥헥. 드디어 대관령 휴게소. 앗싸~ 근데 뭐지, 이 분위기는? 문닫았단다. (더 이상 가면 저 쓰러집니다.) 다행히 휴게소 적당한 곳에 짐을 풀고, 햇빛에 배낭 속 짐들을 말렸다. 매트리스에 연주 언니랑 쓰러졌다. 깨고 보니 형들이 우유랑 맛난 고기를 사오셨다. 그 때 우유는 정말 맛있었다. 호상이는 옷을 잘 안 벗는다. 몸통 구조가 남들과 다르게 생겼나보다. 우리는 게임도 하고 즐겁게 보냈다. 호상이가 준 만원으로 캔맥주에 반찬거리를 사려갔다. 덕분에 바나나 우유도 사먹고... 고기도 꿔먹고, 술도 마시고, 밤에는 별도 보며 술에 취해 샤워도 하고...

7월 30일 하계 다섯 번째 날 – 19km 종주 (대관령 – 매봉 – 소황병산 – 노인봉)

으하하!

기록에 남을 만한 산행을 했다. 대관령 어제 반나절 예비일을 하고 거기서부터 진고개까지 23.xx km! 어떻게 이렇게 갈 수가 있나? (자화자찬 --a) 정말 나에 대해서 감회가 새롭다.ㅋ 대관령은 참 멋있다. 넓게 뻗어 보이는 능선길하며, 들판에 홀로 서 있는 나무하며. “알핀!”을 몇 십번 부르다 복이 새버린 종천형은 다시는 우리조와 떨어지지 않는단다. 호상이가 바둥바둥 잘 걷질 못한다. 발이 무지 아픈가 보다. 잘 가야 할 텐데... 오늘 무리를 했나? 오늘은 성필형 안경이 깨져서 갈굼을 많이 당했던 날이다. 결국 그 범인은 연주 언니였다.ㅋㅎㅎ 저는 절대루 안깼어요. 글구 처음으로 떼거지로 몰려있는 젖소도 보고 산돼지 소리도 들었다. 꿀꿀! 우리는 맘속으론 졸았지만 나름대로 크게 보일려구 일렬로 덕지덕지 붙어갔다. 찌는 날씨에 살이 많이 탔지만 풍경도 좋고, 산행도 많이하고, 빼냈지만 참 좋았다. 내일도 이만큼씩 열심히 산행해야지...

7월 31일 하계 옛새째 – 아름다운 밤이예요 –> 술에 취해... (진고개-두로봉-신배령)

아침부터 이상한 할아버지가 오셔서 폴대를 빼간다. 지금 시각 5시, 이 시간에 순찰 도는 할아버지 대단하고, 그 시간 전에 아침밥을 후딱 먹어치운 우리는 더 대단하다. 진고개 휴게소에서 쉬는 동안 형들은 다시 back 해서 폴대를 찾아오셨다. 호상이는 참 꼬불쳐 놓은 돈이 많다. 나는 돈 한푼 안가져 갔는데 말이야... 그 돈으로 바나나 우유를 사줬다. 연주 언니랑 맛나게 꿀꺽! 오늘은 정말 좋은 날이었다. 겁나게 가파른 산길을 웃으면서 간것도 처음이고, (형들을 내가 간 봤던 것일까?) 호상이가 퍼진 것도 처음이고... 텐트속 분위기도 정말 좋다. 나는 무조건 집의 냉장고를 생각하면서 무조건 앞을 향해 돌진했다. 목적지인 신배령까지는 못 갔지만 정말 좋은 산행을 한 것 같다. 날마다 까는 소주 1피트에 난 꽂아 떨어진다.

8월 1일 일곱 번째 날 – 마음만 빽빽했던 산행 (신배령 – 응복산 – 약수산 – 구룡령)

신배령 백두대간 코스라고 표지판도 붙여져 있고 큰 쓰레기 봉지도 있다. 거기다가 쓰레기 버리라고. 구룡령까지 열심히 갔습니다. 휴게소 내려갈 땐 조심히 내려가야 합니다. 안 그러면 돈을 무니까요. 우리는 카메라를 피해 구석지에다가 비박 장소를 정했습니다. 내려가서 화장실 서 행전을 빼는데, 아저씨가 머라 그립니다. 더러운 등산화를 신고 화장실 들어오지 말라고 쫓겨났대요~ ㅜ.ㅜ 노인봉 산장 할아버지랑 한통속 같아요. 막판에 호상이는 물피트 내기를 했습니다. 어디서 또 꼬불쳐 놓았던 만육천원빵 내기를... 그걸로 또 맛난 걸 사먹을 수 밖에요^^ 허나 도중 일이 발생했습니다. 수낭 사건! 그렇게 뒤지고 두리번거리려도 없던 수낭. 따끼리 씻고 연주 언니가 피트 세 개를 구해 올 때까지 없어졌던 수낭... 그게 있답니다. 허허... 허탈할 수밖에. 오늘은 身적으로는 안 힘들었지만 心적으로는 힘든 하루였습니다. 내일은 반나절 산행을 하는군요, 히히... 모레는 현조령이 들어온답니다. 기대되는군요. 왜냐? OB는 무조건 좋은거니까!

8월 2일 여드레... – 예비일다운 예비일.

Full로 쉬는 예비일도 괜찮은 거구나!! 아침에 일어나 수박을 먹고, 저녁에는 후르츠 파인애플까지 터버렸다. 정말 짱인 하루구나! 감기 기운만 조금 없었더라면... 운행 중에 아무리 나를 갈구더라도 아무리 빡센 산행을 하더라도 울지 않던 내가 아플 때나 울 줄이야...

침낭을 뒤집어 쓰고 옮다 지쳐 잔다. 흑흑흑... 왜 꼭 예비일날만 퍼지는 것일까? 호상이는

참 힘들겠다. 복희랑 갔음 널널하게 갔을텐데. 게임만 하면 호상이는 눈에 생기가 돈다. 하늘에 뜬 별보다도 더 반짝거린다. 우리조 주된 챈은 [자기소개] 게임이다. 성필형과 종천형이 또 기숙사 츄리닝을 햇깔려한다. 그러다 형들이 소주 1피트 다 마셔버렸다. 흐흐 역시 성필형은 나랑 하면 안된다니까... 조가는 [그땐 그랬지]로 결정난 것 같다. 멋있는 조가를 만들어야지~ 호상이가 연주언니 보듬어 주며 잔댄다. 나는 누가 그렇게 해주나? --; 호상이의 코고는 소리에 잠을 이룰 수 없다. 내일 산행도 열심히 해야겠다. 이번 하계를 다녀보며 느낀 게 암벽만이 재미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다. 종주도 참 재미있는 것 같다.

8월 3일 9일째다. 종주가 언제 끝나려나- 쉰 내가 물신 풍기던 날.(구룡령-쇠나드리)

윽! 이게 무슨 냄새지? 호상이 뒤를 열심히 따라가던 나는 쉰 내 나는 까리한 냄새를 맡고... 이자식 냄새 참 많이 나는군. 호상이가 발이 너무 안 좋아 성필형과 구룡령으로 다시 나갔다. 아직도 나는 까리한 냄새. 윽! 이건 내 냄새였단 말인가? 비도 한참 내렸던 오늘. 여태껏 목욕 한번 제대로 해 보지 못한 나한테서 나는 냄새. 정말 싫다. -.- 쇠나드리까지 가는 도중 연주언니 독도 주의! 웬 놈의 길이 짧게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다. 생각에 몇십 번은 한 것 같다. 죽을 뻔했다. 현조형이랑 성필형이랑 호상이가 보인다. 되게 반갑다. 쇠나드리 근처에서 막영지가 좋은 곳이 있다더니 눈 씻고 찾아봐도 보이질 않는다. 이상한 조그만 모기들이 나를 끈다. 이것들은 모기장도 뚫고 올 정도로 작아 보인다. 역시 OB선배님은 먹을 것을 많이 가져오신다. 수박에다 맥주랑 된장 푼 오이냉채. 정말 맛있다. 역시 난 하계를 먹으러 온 것 같다. 넘넘 좋다.

8월 4일 종주 10일 – 단복령에서 처음 보낸 날 (조침령 – 북암령 – 단복령)

털보 아저씨가 텐트로 내려오기 전까지 우리는 또 포식을 하고 말았다. 단복령에 먼저 도착했던 종천형이랑 현조형이 어디선가 닭을 구해 왔나보다. 닭털을 처음 뜯어봤다. 처음으로 계곡에서 나름대로 깨끗하게 씻어도 보고, 첨으로 닭칼국수란 것도 먹어보고, 모든 게 처음이다. 도중에 비가 와서 약간 아쉬웠다. 안 그랬음 시원하게 밖에서 별보며 술파티 했을텐데...

종천형이 그렇게 말하던 털보 아저씨를 보았다. 사람을 뚫어지게 쳐다보던 그 큰 눈이 맘에 든다. 또 노래부르라고 성필형은 같군다. 할 수 없이 부르고 수박을 배 터지게 먹었다. 그게 잘 못이었다. 이 날 나는 텐트 안을 붉은 국물로 가득 채웠다고 한다. 여기서부터는 호상이의 말을

믿어야 할 것 같다. 난 전혀 생각이 나질 않아...

8월 5일 열 한번 째 날 – 텐트를 3번이나 치네 (단복령 – 점봉산 – 오색)

점봉산 오름길은 또 왜 이렇게 가파르나? 오르다 퍼진다. 헥헥... 가는 길도 좀 무섭다. 위에는 비바람이 불고 있었다. 쇠못같은 비가 얼굴을 내리칠 때는 죽을 맛이다. 혁!! 내려가는 길에 호상이는 거의 정신을 잃은 것 같다. 넘 잘 간다. 그 이유는? 뒤에서 성필형이 스틱으로 두들겨 패기 때문이다. 그러지 않으면 잘못가나 보다. 내려가는 도중에는 배낭을 하나씩 내려야 하는 곳도 있었고, 나뭇가지 같은 내리막 사다리도 타야 하고, 줄잡고 내려가는 길도 있고, 여간 까다로운 게 아니다. 나는 또 웃지 않아야 할 곳에서 웃다가 팔굽혀펴기를 한다. 하나, 둘, 셋... 한계령 내려가는 곳에 매표소가 있었다. 거기를 무사히 내려와야 하는데, 호상이가 너무 커서 걸려 버린 것 같다. 키 큰게 죄인가? 국립공원 차가 어렵히 와서 태워다 준다. 근데 끝까지 아줌마처럼 재잘재잘거린신다. “미안합니다” 6번에 한 사람당 50만원씩의 과태료가 해결됐다. 대단하신 형들이다. 오색으로 가서 텐트를 치는데도 그 아저씨가 재잘거린다. 맛난 졸면을 먹고 잘 자고 있는데 그 아저씨가 새벽 3시쯤에 또 깨운다. 비가 온다고. 텐트를 걷으라고... 비상 연습 제대로 했던 날이랄까?

8월 6일 종주 열두째 날 – 설악산 BC가 눈에 보인 날

별 일 없이 슈퍼 앞에서 버스를 타고 설악산 베이스캠프로 왔다. 힘든 일도 없이 텐트 속에서 만 지낸 오늘은 정말 예비일 같은 날이었다. 현조형이 안 가셔서 우리는 멋있는 밤을 보낼 수 있었던 것 같다. 옆 조대 텐트랑 같이 밤에 노래도 부르고, 성필형도 노래를 연달아 3곡이나 뽑으셨다. 역시 짱이다.

8월 7일 설악산 1일 째 – B조와 만나다.

현조형과 헤어지는 대신 B조와 만났다. 우리 조는 할 일이 없어서 아침부터 한따가리를 하고 술 한 피트를 마셨다. 헐, 이러면 안되는뎅. 비틀거리며 속초까지 가서 안경을 맞추고 돌아왔다. 그 정신으로 PC방 가서 카페에다 글을 올렸다니, 친구들이 미쳤다고 할게야.

지환이형 계신 B조가 와서 넘 반가웠다. 전대 의대의 현식이 형이랑 같이 맛난 통닭도 먹으며 재미있게 놀았다. 나보고 박경림이라고 한다. 각진 내 턱을 보고... 서럽다. 내일 뭘 할지는

모르겠다. 비가 오지 말아야 할텐데...

8월 8일 설악산 둘째날 – 예비일의 극치

용주는 아침부터 깨어나지를 못한다. 그 놈의 술 때문에 어제 돌아버렸나? “오늘은 곰탱이”란 말을 수도 없이 외친다. 느끼한 눈웃음을 지으며... 어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난다고 발뺌을 하고 있다. 믿어야 할지... 하긴 나도 단복령 때 일이 생각나질 않으니까. 흐흐

잠도 많이 자고, 복희랑 합세해서 성필형 맛사지도 해 주고 고스톱도 친다. 예비일 날은 이제 설악산에서 살 정리정돈을 하는 날이다. 부족한 간식도 보충해주고, 먹거리도 푸짐하게 해 놓는다. 나는 또 기분이 좋다. 먹을게 많으니까!

8월 9일 설악산 셋째날 – 노적봉 1피치

첨으로 조금 개인 날씨를 보고 드디어 우리는 암벽을 하러 나간다. 첨엔 까리한 길 때문에 대체 뭘 보고 가고 있는건가 했는데 도착해보니 갑자기 입가에 미소가 돈다. 드디어 내가 좋아하는 암벽을 할 수 있다니 기뻤다. 또 이 놈의 방정 맞은 웃음과 실수 때문에 성필형한테 얼차례를 많이 받았다. 복희를 도우려다 오히려 화만 사고... ㅜ.ㅜ 어찌해야 할지! 노적봉 1피치. 드디지 어렵지는 않았는데 비가 계속 내려서, 복희가 하던 도중에 하강해야만 했다. 비룡폭포에서 사진도 찍고 비선대로 돌아가 OB선배님들을 뵙고, 맛있는 부침개도 배터지게 먹었다. 비야 제말 오지 마라. 그래야 내가 장군봉, 천화대에 피어있는 에델바이스를 볼 게 아니냐! 오늘 밤은 땀 뻘뻘 흘리며 바위하는 내 모습을 꿈꿔야겠다. 오늘은 저녁이 참 한가하다. 항상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8월 10일 설악산 네 번째 날 – 슛~ 골인!

오늘도 비가 내린다. 우리는 또 발목이 불참혀 산에 못가는 건가? 아침 일찍부터 일어나서 밥을 먹고, 과자도 먹고, 경환형이랑 도균형이 와서 넘 기분이 좋았다. 매듭법 강의를 신나게 하시는 경환형이 멋져 보인다. 팔자매듭에서부터 푸르지크 매듭, 사각매듭, 보울라인이랑 이중 피셔맨즈 등등 복습도 철저하게 했다. 라면도 맛나게 먹고, 전대 의대팀과 축구하러 초등학교 운동장으로 갔다. 추운데 웬 축구야... 첨엔 싫었는데 하다보니 왜 이렇게 재밌는 건가? 여자 4명이서 수비를 얼마나 잘 했는지!! 모두들 치를 떨었을게야. 나도 호상이의 몸놀림에 치를 떨었

지. 도균형의 멋진 어시스트에 제가 처음으로 한 골을 터뜨렸습니다! 넘넘 기분이 좋았다. 의대 형들 이름은 잘 몰라도 수비하며 많이 친해진 것 같다. 저녁에 먹은 카레도 맛있었다. 내일 비가 안 와서 설악산 어디든 갔으면 좋겠다.

8월 11일 설악산 다섯째 날 – 대청봉을 찍다.

드디어 설악산을 정복한 날이 왔다. 근영이 형도 오셔서 같이 설악산에 올랐다. 첨엔 아무 말없이 비선대까지 빽세게 올라가더니, 양폭을 지나 희운각에 올라가면서 용주와 내가 종주 때 갈고 닦은 솜씨로 멋지게 [싸가]를 불렀더니 형이 반했나보다. 희운각 산장에서 차랑 음료수를 쏘셨다.^^ 희운각에서 소청봉까지 올라가는 길은 참 재미있었다. 짹이 가볍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렇게 산행을 즐길 수가 있다니 놀랍다. 헉헉.. 복희가 콧물 흘리는 모습을 보고야 말았다. 3단계까지 안가서 다행이다. 소청봉에 올라 라면을 끊여 먹었다. 한 따끼리 밖에 못 먹어서 조금은 배고팠다. 대청봉 올라서니 운해가 조금씩 걷히더니 동해가 한 눈에 보였다. 정말 멋졌다. 오색으로 떨어지며 음미하는 하계시, 설악시도 그렇게 운치있을까? 내려오며 [산새 날아]라는 산가를 배웠다. 좋은 노래인 것 같다. 퍼질 대로 퍼진 나는 말없이 묵묵히 내려간다. 짜장 카레에 먹었던 한 따끼리의 밥도 참 맛있었다. 내일은 천화대 뒷지를 하려 간다. 기분 좋다.

8월 12일 여새 째 – 맑았다 다시 흐린 어느날

아침 빽센 산행 준비로 한바탕 욕설을 치르고 올라선 비선대. 정말 빽세더구나!! 호상이가 발이 아픈데도 정말 잘 갔다. 나는 성필형이랑 도균형이랑 그 때의 월출산 조로 출발했다. 이런 우연이!

50cm 사이를 두고 좌우로 떨어진 절벽드은 나를 미치게 했다. 2번이나 트래바스로 넘긴게 아쉬웠다. 그곳이 가장 난코스라고 했는데... 나로선 다행이었을까? 하강을 두 번 정도 한 것 같다. 내려오는 길에 흑범을 잡고 있는 B조의 알핀 소리를 들었는데, 빨리 끝내고 같이 저녁을 먹을 수 있으려나? 매운탕을 잘 끓이려고 했는데 물을 어떻게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 밤에 비가 오는데 B조가 고생을 많이 했다. 경환형이 들어간 조는 죽음의 조가 된다는 걸 새삼 느낀다.

8월 13일 일곱 번 째 날 – 용아 장성에 올라

비선대까지 올라가서 가파른 오르막을 쭉쭉 오른다. 준철형도 같이 올랐다. 마등령을 지나

오세암을 지나... 멀리서 본 오세암은 정말 멋있었다. 점심을 빨리 먹어서 그런가? 엄청 배가 고팠다. 먹어도 먹어도 끝이 없는 배고픔... 수령동 계곡에서 발 담그며 잠시 쉬고, 사람들 몰래 오른 가파른 능선길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것 같다. 용아장성 첫 어프로치는 왜 이렇게 힘든거야? 호상인 그럴 때마다 성필형의 갈굼을 당한다. 조용히 가야할 곳에서는 항상 목소리가 우렁차진다. 새로운 마음으로 드디어 용아장성에 올라 2시간 쯤 걷다 비박지를 정했다. 용주랑 복희는 칠형제봉에서 어떤 모습을 하고 있을까? 별들도 많이 떴다. 하계의 하루하루가 너무나 아쉽다. 알찬 내일을 만들어야지.

8월 14일 8일 째 – 이게 릿지냐, 종주냐?

성필형과 배낭커버에서 자다 질식할 뻔 했던 나는 어제의 비박을 땀나게 보냈다. Full로 용아장성을 뛴 날이다. 가다가 단국대 예비역 2명이랑 아저씨를 만났다. 같이 도와가며 개구멍을 통과했다. 그 사람들은 어택을 메고 가는 거라 우리랑 같이 도와가며 통과했다. 까리한 곳이라고 오르던 그 곳을 별로 힘들지 않았는데 먼저 오르던 단국대 아저씨는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봉정암에서도 보이지 않은 걸 보면 혹시 무슨 일이? 아무 사고 없이 잘 갔어야 할 텐데... 그 때의 축구로 인해 도균형 발이 많이 아픈가보다. 희운각에서부터 내려올 때 성필형이 무섭게 해 가지구 좀 힘들었지만 비선대서부터 부르는 호상이의 [밤바라바라바밤 클라이머의 기쁨] 때문에 정말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길이 되었다.

8월 15일 오늘도 예비일!

형, 언니들이 밥 먹으라고 깨운다. 우왕... 이런 날도 있구나! 닭도리탕에다 고등어조림에다가, 넘 좋다. 4시 정도에는 지환형이랑 속초 해수욕장에 놀러갔다. 물가에서 놀기엔 너무 추워서 우리는 모래 속에 파묻힌 지환형의 머리에 공찍기 놀이를 시작했다. 용주랑 내가 같은 편이고 복희랑 성필형이 우리의 적이 되었다. 생쑈를 하며 열심히 했건만, 결과는 우리가 쳐서 핫도그를 사야 했지만, 정말 재미있었다.

정말 아쉽습니다. 하계의 끝이란게... 정말 아쉽습니다.



제 4장 해외 원정등반

제1절 해외원정과 히말라야 등반사

1. 60, 70년대 : 여명기로 꿈을 키우다
2. 80년대 : 해외원정의 시동기
3. 주춧돌을 놓은 89년 에베레스트
4. 90년대 초오유 등정과 알피니스트들의 황금기
5. 2000년 에베레스트등정과 이현조의 출현
6. 향후 계획과 과제

제2절 마라도에서 백두산까지

제3절 '91 전남대학교 신악회 일본 북알프스 동계 원정등반대

제4절 '93 전남대학교 알프스 3대 북벽 원정대

제5절 전남대학교 개교 45주년 기념 '97 한국 초오유 원정대

제6절 전남대학교 개교 55년 및 총동창회 창립 50주년 기념 2006 전남대학교 초모랑마(에베레스트) 원정대

제7절 전남대학교 산악회 창립 50주년 기념 2008 한국 전남대학교 가셔브룸 I, II 원정대



夏季詩

(설악시 변형)

한창균 (94학번)

나는야 산이 삶더라
파란 하늘이 노랗게 보이는 나는야 산이 삶더라
가도 가도 끝이 없는
하, 하계, 하계가 삶더라

산에서는 물, 간식, 잠, 아무런 자유도 없어, 법도 없어
천하게 한따라 할 수 있는 원상 그대로의 폭력이 있다
나는 고래고래 비명을 질렀다
고래고래 비명을 지르기 위하여 여기에 왔는지도 모른다
하늘과 땅이 뒤바뀐 듯
그 틈에 퍼진 나는 하늘처럼 무한대처럼 마구 개길 수 있는 것을
아! 정말 회비 12만원이라는 것 아무것도 아닐 수 있는 것을
점봉산 오름 길에 다리쉼 하노라면
내게 한껏 남는 건
케이블카로 정상을 오르고 싶다는 황당한 욕망 뿐
찢어진 청바지처럼 흘러진 심마니 전설이 있는 곳에 어둠이 내리고
청테이프로 뱡구를 틀어막은 에코로바 텐트에는
눈탱이가 빨간 채로 소주잔을 들려앉아
몽둥이로 후배를 물고간다는 어느 선배의 작별 하계얘기가 익어 가는 것을
아! 정말 이런 밤엔 도망이라도 가면 더욱 좋은 것을
두로봉 가는 길에 진드기 있다 했다
그 진드기를 잡아다 술안주로 먹자 했다
진드기사를 잡아 술안주로 먹자던 선배가 또 하나의 진드기가 된 것처럼
후배를 갈아 마시자 했다
나는야 산이 삶더라
파란 하늘이 노랗게 보이는

나는야 산이 삶더라
가도 가도 끝이 없는
하,
하계,
하계가
나는야
삶더라

제4장. 해외 원정등반

제1절. 해외원정과 히말라야 등반사

창립50주년을 맞은 본회는 그간 등산학교 개교 등을 통해 지역 산악문화의 토대를 마련하고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을 통한 해외원정등반을 주도했다. 본회 자체적으로 꾸린 해외원정등반은 82년 하계 일본북알프스, 91년 동계 일본북알프스, 93년 알프스3대북벽, 97년 초오유, 2006년 초모랑마, 2008 가셔브룸 I, II 등반 등 6차례에 지나지 않는다. 8천미터 이상 히말라야 등정자는 박현주(에베레스트 초오유) 이현조(초모랑마 마칼루 브로드피크 시샤팡마 낭가파르바) 이형관(초모랑마) 김성석(초오유) 등 4명이며 14좌 가운데 6개봉을 등정했다. 장대한 역사에 비해 초라한 결과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실상 본회의 해외원정사는 그 의미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본회가 이 지역 히말라얀들을 발굴하며 키우는데 큰 뜻을 했고 학생연맹을 통해 히말라야라는 미지의 세계를 활짝 열어젖히며 히말라야등반가들의 저변을 확대했기 때문이다. 본회의 해외원정사가 본회자체뿐만 아니라 광주전남지역의 해외원정사와 밀접한 관계를 갖는 이유이다.

1. 60,70년대 : 여명기로 꿈을 키우다

산악회 창립이후 해외원정 특히 히말라야등반은 회원들에게 꿈의 대상지였다. 지금은 누구나 맘만 먹으면 한달음질할 수 있고 발달한 장비와 수많은 정보 경험이 풍부한 히말라얀들이 많지만 가겠다는 20대가 없어 고민인 시대인 반면 당시에는 가고 싶어도 또 갈 수 있다고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곳이 아닌 금단의 땅과 같은 존재였고 선택받은 산악인만이 갈 수 있는 곳이었다. 히말라야등반을 다녀온 사람은 사회적으로 존경과 추앙 부러움을 사는 것은 물론 최고 산악인으로서의 반열에 오르는, 훈장을 다는 것과도 같은 대상으로 여겨지던 시대였다.

60년대는 그야말로 산악회의 기반을 다지던 시대였으며 히말라야등반은 남의 나라 얘기였다. 1970년 전남대학교 OB산악회원 신귀현이 대만 옥산을 등반함으로써 회원최초의 해외원정 등반으로 기록된다. 그러다가 최창돈 회원이 71년 서울신문사 주최 제1차 마나슬루 원정대에 참여하면서 본회 최초 히말라야등반가가 된다. 그는 개척자적인 정신으로 히말라야에 눈을 돌렸으며 스위스 인스브룩 등산학교를 수료하고 로체을 원정하는 등 당시만해도 지역에서는 거

의 독보적인 등반을 했다. 이후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후배산악인 양성에 힘쓰며 1990년 낭가파르밧 원정대장을 맡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쳤다.

‘열혈청년’ 김하경은 국내최초로 꾸려진 77한국 한국에베레스트 원정대(대장 김영도)의 훈련대원으로서 전 훈련과정을 마쳤다. 77원정대는 당시 전국에서 최고의 기량을 자랑하는 내로라하는 산악인들로 꾸려져 김하경의 열정을 짐작케한다. 하지만 김하경은 대원으로 선발되지 못했으며 에베레스트에 대한 한을 곱씹은 지 12년만에 89-90 광주전남 동계에베레스트를 원정대장으로 이끌며 한을 달래지만 등정에는 실패한다. 하지만 그는 본회 OB회장으로 재임시 전남대학교 산악회 초모랑마 원정대를 꾸려 2명의 대원을 정상에 서게 해 삼고초려 끝에 세계 최고봉 에베레스트와의 질기고도 보람된 여정에 종지부를 찍는 집념을 과시했다. 2006년 초모랑마 원정발대식에서 그는 “등정은 용기가 필요하다. 하지만 살아 돌아오는데는 그보다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며 눈시울을 붉혀 대원들에게 용기를 불어넣기도 했다.

2. 80년대 : 해외원정의 시동기

81년 정순택회원이 제5회 고자이쇼다께 전일본암등경기회에 참가하고 북알프스를 등반해 해외의 등반사조와 등반기술을 접하고 돌아와 국내에 전해 많은 도움이 된다. 그 이듬해 전남 대산악회 자체로 꾸려진 최초 해외원정등반이 시동을 건다. 82년 8월 일본 북알프스 원정대(대장 박명선)가 창립 4반세기만에 시나브로 해외등반에 첫발을 뗀 것이다. 박명선, 조선행, 양일승, 임우근 대원 등 4명으로 꾸려진 소규모 원정대는 일본북알프스를 등반하면서 본회자체적인 해외원정등반의 서막을 연다. 해외여행자체가 생소하던 시절에 행한 해외원정등반이라는 점에서 그 의미는 심대하다. 이 등반은 이후 재학생 자체적으로 꾸려진 91 동계북알프스 등반으로 바통이 이어진다. 박명선은 이후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회장 재직시 전무이사인 오성개와 함께 92년 영호남합동 천산산맥 최고봉 포베다 칸텡그리 등반과 광주전남초모랑마 원정등반을 성공시켰다. 당시의 원정대는 89-90동계에베레스트 원정대의 한을 풀기위해 꾸려졌으며 국내에서는 2번째 북사면 에베레스트 등정이었다. 본회에서는 고 최행준 박현주대원이 참가해 활약을 펼쳤으며 학생산악인들이 학교를 떠나 뜰뜰 뭉쳐 화합의 한마당이 된 원정대로서 대학산 악운동이 활짝 꽂피운 시절이었다. 원정을 성공으로 이끈 뒤 발간한 보고서는 향후 중국히말라야 등반의 교과서로 이용될 정도로 귀감이 되기도 했다. 당시 학생연맹 회장 박명선의 의지와 열정이 있었기에 가능한 결과였다.

이밖에 83년 2월 한라산에서 실시한 '86한국 K2 원정 훈련대에 김인주, 오성개, 조선행 회원이 참가하여 고산 원정에 필요한 많은 등반 지식을 배워오게 되었다. 회원들은 등반대원으로는 선발되지 못했지만 혼난한 훈련과정을 겪던 생생한 경험담은 후배들에게 히말라야원정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했다.

86년에는 또 김하경과 윤석기가 히말라야 랑탕리릉을 정찰하였다

또한 89년 원정대장 박향식 등반대장 신한봉 학술조사 김재률 장비 차운재 기록 유종태 의료 최대원 사진 김창래 식량 한규성 등으로 구성된 동계백두산 원정대는 '마라도에서 백두산까지'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국토 최남단마라도와 남한 최고봉 한라산의 흙 돌맹이 물을 백두산 백암봉에 합토하는 의식을 치르고 백두산사진전시회를 개최해 전남대학교 산악회의 통일 의지와 국토애를 되새겼다. 당시 백두산등반은 중국과 아직 개방되기 전이어서 입국과 입산등 출국에서 귀국까지 전 과정이 당국의 감시아래 시행되던 시절이어서 큰 이슈가 됐다. 또 통일과 백두산이라는 언어자체가 생소하고 용공분자로 몰리던 시절이어서 큰 용기를 필요로 한 원정이었다. 분단조국의 아픔을 되새기며 눈을 뜰 수 없을 정도의 강풍과 영하 30도의 혹한을 뚫고 백두산 백암봉정상까지 등반한 원정대는 전남대학교 산악회의 국토사랑과 통일의 염원 달성이이라는 커다란 가치관 제시에 큰 뜻을 했다. 또 90년에는 대만 옥산을 등반(대장 최동식, 박향식)하기도 했다.

3. 주춧돌을 놓은 89년 동계 에베레스트

89~90년 동계에베레스트등반은 열악한 지역 여건속에서 불모지였던 광주전남지역에 히말라야등반이라는 황무지를 개척했다고 평할 수 있다. 70~80년대까지만 해도 자체원정대로서 히말라야등반은 이 지역에서는 꿈의 무대였다. 예산도 예산이거니와 히말라야를 경험한, 하얀 산에 다녀온 인적자원이 희박했던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순택고문과 김하경원정대장 이정옥등반대장의 3인방이 된 89~90 광주전남 동계에베레스트 원정은 본교산악회는 물론 지역산악계에 히말라야등반의 신기원을 연 기념비적 등반이다. 히말라야등반역사상 최다인 원인 무려 28명이라는 대원을 이끌고 2년여의 준비기간과 1백20여일간의 사투 그리고 그들의 영광과 좌절을 담은 '우리들의 에베레스트'라는 당시만 해도 보기 드문 보고서는 홀륭했다. 본교에서는 이들 3명외에 정태영 등반부대장 김인주 선발대장 이연근 임우근 한민수 최행준회원이 대원으로 참가해 활약했다. 이 등반을 통해 광주전남지역은 히말라야등반시대로 접어들었

으며 당시 배출한 원정대원들은 저마다의 산악부에서 히말라야등반의 서막을 열고 활발한 활약을 펼쳤다. 지역 히말라야 등반의 물꼬를 터 이후 광주전남산악운동은 히말라야등반 봇물시대로 진입하게 된다. 아득하고 혐난하게만 느껴졌던 히말라야등반을 접한 수많은 대원들이 각 학교로 돌아가 도전이라는 꿈을 확산한 것이다. 확실히 다진 주춧돌들이 시금석이 돼 90년대 이지역은 히말라야등반의 황금기를 구가했으며 2000년대 이를 기반으로 각계각층으로 진출해 한국을 대표하는 산악인을 배출하는 원동력으로 작용하는데 정순택과 김하경 이정옥은 아름다운 꽃씨를 뿌린 장본인이 됐다. 그들은 이후에도 에베레스트 정상등정의 한을 이야기하며 후배들의 히말라야등반을 열정적으로 뒷받침하고 독려했으며 마침내 본교 자체적으로 구성된 97년 초오유 2006년 에베레스트에서 각각 2명의 대원을 정상에 서게 했다. 89년 에베레스트 등반 당시 등반대장이었던 이정옥은 8천미터 정상등정이라는 숙원을 이어받아 본회 최초 히말라야 원정대인 97년 한국초오유 원정대장을 맡아 박현주 김성석대원이 정상을 밟았다. 이정옥은 본회 히말라야 등반가들의 대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후배들이 각 원정대에서 기량을 발휘하도록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모두가 89년 동계에베레스트의 연장선에서 탄생한 산물들이다. 본회 회원들이 주축이 돼 전개된 지역 학생산악운동도 89동계에베레스트 92천산 최고봉 포베다 칸텡그리 93초모랑마원정으로 이어지면서 황금기를 구가한다. 광주전남 20여개 대학산악부가 너나없이 한팀처럼 활동하며 원정을 떠나던 아름다운 시절이었고 그 중심에는 정순택 김하경 박명선 이정옥 등 본회 회원들이 있었다.

4. 90년대 초오유 등정과 알피니스트들의 황금기

본회는 90년대들에 본격적으로 전문적인 해외원정등반을 시작한다. 먼저 91년 재학생자체적으로 등반대를 꾸린 91동계 북알프스 종주등반을 통해 히말라야를 향한 용트림을 시작한다. 당시만 해도 동계 북알프스는 일본내에서 히말라야원정등반을 위한 관문으로 꼭 거쳐야할 과정이었으며 국내에서는 생소한 대상지였다. 최행준대장을 위시로 백두인 박현주 조양택 유명희 최지환 김지형 이현 그리고 OB로서 현지 합류한 조규상 등으로 구성된 원정대는 최행준 박현주 최지환대원이 폭설과 강풍을 뚫고 오수고악 정상등정에 성공한다. 여세를 몰아 본회는 93년 알프스 3대북벽 원정대를 조직해 장일선단장 임우근원정대장 최행준부대장 백두인 고일주 문귀현 등 7명의 대원이 알피니즘의 시원인 알프스 3대북벽에 전남대학교 산악회 깃발을 꽂는다. 백두인대원과 문귀현대원은 등반도중 낙석과 벼락으로 죽음일보직전까지 갈 정도로 악전

고투했으나 정상등정을 이끌어냈다. 암벽등반에 남다른 강점이 있는 백두인은 각종 암벽대회에 출전했으며 이후 2006년 초모랑마 원정대장이라는 중책을 맡아 원정을 성공시키는 일등공신이 된다.

알프스 3대북벽등반으로 기술적인 면에서 한층 전진한 본회는 마침내 97년 개교45주년기념으로 히말라야 초오유원정대를 꾸린다. 당시 신문기자였던 박현주는 진홍건설을 스폰서로 섭외해 자금면에서 큰 힘이 됐으며 회원들은 십시일반해 8천미터 정상등정의 염원을 구현하고자 했다. 김훈봉 고문 정순택단장 이정옥원정대장 서은호 등반대장 장희 최행준 박현주 원정일 김현준 김성석 대원으로 구성된 원정대는 박현주 김성석대원이 정상에 올라 본회 처음으로 8천미터 등정자를 배출한다. 김성석대원과 서은호등반대장이 동상으로 손가락 일부를 절단해야 했지만 단일팀 특유의 단결력과 화합으로 시종 아름답게 등반을 마친 멋진 원정대였다. 특히 초오유원정보고서는 당시 국내 유일의 보고서로서 기록되기도 했다. 김훈봉고문은 이후 2000년 대한산악연맹 7대륙최고봉 킬리만자로 원정대원으로서 아프리카 최고봉에 오르는 기염을 토한다. 그는 본회 최고선배로서 후배들의 도전정신에 용기를 불어넣으며 히말라야 원정때마다 지원을 아끼지 않는 정신적 지주이자 대부로 자리하고 있다.

90년대는 본회 자체 원정대외에도 국내정상급 기량을 갖춘 알피니스트들이 등장해 국내를 대표하는 각 원정대에 파견돼 눈부신 성과를 거두는 해이다. 고 최행준 박현주 유명희회원등 이른바 386산악인 삼인방은 전남대학교 산악회의 위상을 널리 알리는데 일조한다.

먼저 최행준은 89-90동계에베레스트 등반을 통해 히말라야 등반에 매료된 뒤 91년 재학생 대장으로 동계북알프스 원정대를 꾸려 당시 국내에는 거의 알려지지 않았던 동계종주를 감행한다. 더구나 당시 원정은 재학생들이 40만원씩 공사장 막노동으로 각출한 비용으로만 떠나 초저예산 알파인 스타일 등반으로 의미가 크다. 최대장은 이후 93년 알프스 3대북벽 등반을 다녀온 뒤 귀국과 동시에 광주전남 초모랑마 원정대에 등반부대장으로 합류한다. 그는 등반 막바지 폭설로 등반이 교착상태에 빠졌을 때 눈사태의 통로를 깔고 캠프4까지 복구하는 무서운 등반력을 발휘해 등정을 이끌어낸다. 97년 본회의 초오유원정대에서도 서은호등반대장과 함께 후배들에게 정상등정의 영광을 돌려 미담이 됐다. 하지만 그는 불의의 교통사고로 생을 달리해 당찼던 등반욕구를 채 꽂피우지 못해 아쉬움을 남겼다.

서은호는 초오유원정 등반대장을 맡아 원정을 훌륭하게 성공시켰으며 이후에도 본회 히말라야원정을 성사시키기 위해 부단히 노력한다. 또 2000년에는 엄홍길과 함께 남미최고봉 아콩카

구아 정상에 올랐으며 광주전남산악연맹 사무국장으로 재임하면서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오고 있다.

박현주는 91년 동계북알프스 등반에서 2백미터를 추락해 죽음을 경험한 이후 히말라야를 꿈의 목표로 삼고 젊음을 매진한다. 광주전남학생산악연맹 학생위원장이던 92년 영호남합동대로 꾸려진 구소련 천산산맥 포베다 칸텡그리 연속등반대에 참여해 당시 K2세계최연소등정이후 한국산악계의 기둥이었던 장병호와 함께 칸텡그리봉 한국초등을 달성한다.

이어 93년 광주전남 초모랑마원정대에 참여해 3차례의 정상등정을 감행하지만 악천후로 실패하고 만다. 그는 96년 조선대 에베레스트 로체 원정에도 취재기자로 참여 했지만 정상등정 기회는 잡지 못했다. 타원정대에서만 활동하던 그는 97년 전남대학교 산악회 자체적으로 초오유등반대가 꾸려지자 과감히 회사에 휴직계를 내고 무릎 인대수술의 깁스를 풀자마자 원정대에 합류해 한국 초오유 최연소등정자로 기록된 김성석과 함께 정상에 선다. 이어 2000년에는 뉴밀레니엄 프로젝트로 기획된 대한산악연맹 새천년 7대륙최고봉 원정대 에베레스트 원정대에 선발된다. 93년 96년에 이어 에베레스트만 3번째 도전하는 영광을 안은 그는 마지막 4차공격에서 모상현대원과 함께 세계최고봉 뉴밀레니엄 초등의 기쁨을 누리며 평생의 숙원을 이룬다.

유명희는 대한산악연맹에서 한국최초 여성에베레스트 등정자를 배출하기 위해 조직된 93년 여성 에베레스트원정대에서 발군의 실력을 발휘한다. 정찰등반성격으로 떠난 92년 로부체 임 자체등반을 통해 고산체질이라는 능력을 인정받으며 93년 본등반에 출진한다. 그녀는 지칠줄 모르는 체력으로 7천3백미터까지 진출했으나 정상등정 기회는 얻지 못한다. 이후 그녀는 박영석팀과 함께 활동하면서 95년 동국대의 시샤팡마 초모랑마 원정등반에 나서 초모랑마 세컨스텝 직하인 8천7백까지 진출했으나 로프가 떨어지는 바람에 정상등정 기회는 갖지 못했다. 히말라야등반을 하면서 단 한번도 고소증상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강철체력의 소유자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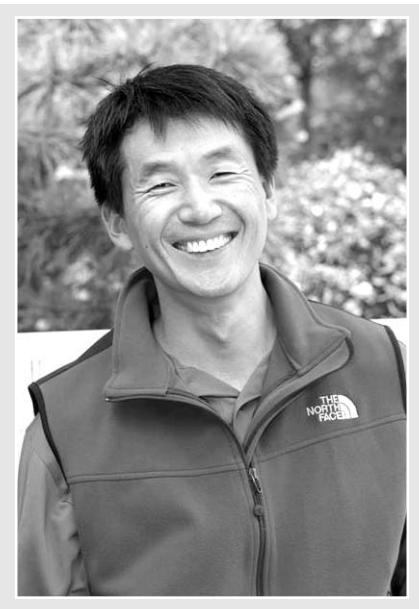
또 이에앞서 일찌감치 히말라야와 암빙벽등반 등 전문등반에 눈을 돌린 ‘선구자’ 오성개는



90년 최창돈대장이 이끌던 낭가파르밧원정대에 등반대장으로 참여한다. 당대최고의 대원들을 꾸려 정상에 오른다는 당찬 계획으로 매섭게 훈련한 원정이었지만 정성백대원의 사망으로 실패로 끝나고 만다. 그는 이후 50을 넘긴 나이에도 후배들과 설악과 한라산 등에서 암벽과 빙벽 등 전문등반을 함께하면서 최첨단 기술을 전수하고 고산등반에 대해 조언하며 후배들의 히말라야도전에 큰 힘이 되고 있다.

5. 2000년대 에베레스트 등정과 이현조의 출현

2000년대 들어 본회는 97년 초오유원정이후 무려 10년만에 2006초모랑마 원정대를 출범시킨다. 본교 총장으로 부임한 강정채회원을 비롯 전회원들이 개교 55년 기념에 맞춰 세계최고봉 정상등정의 쾌거를 거두자며 또다시 십시일반하며 한마음 한뜻으로 뭉쳤다. 정순택 추진위원장 김하경 OB회장 이정옥 훈련대장 등이 원정성사를 위해 진두지휘했으며 영원무역 신갑웅회원이 5천만원 상당의 장비를 협찬했다. 미국에 거주하는 박상규회원은 1천만원을 쾌척했고 강정채 총장과 이계윤단장 등이 자금확보를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했다. 1년여의 훈련과정을 거쳐 이계윤단장을 비롯 백두인 원정대장, 김영필 원정부대장, 이현조 등반대장, 식량 김용욱, 장비 이형관, 수송 김현준, 의료 윤현식, 기록 김가영, 등으로 구성된 원정대는 50일만에 이현조 이형관 대원을 정상에 올리는 낭보를 전한다. 이형관 대원은 2005년 코시어스코등반으로 실전 경험을 쌓은 뒤 첫 히말라야원정에서 세계최고봉에 오르는 영광을 안게 되며 본회의 희망으로 급부상한다. 또한 부대장으로 참여한 김영필은 2008 가셔브롬 I, II 원정대장을 맡아 김하경 이정옥 백두인대장에 이어 본회 히말라야 원정대장의 계보를 이으며 확실한 일꾼으로 자리매김한다. 아무도 원정대장을 맡지 않으려는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원정대장을 맡아 계획단계에서부터 진두지휘하는 모습은 향후 히말라야등반에 큰 힘으로 작용하고 있다. 가셔브롬 I, II 등반은 본회창립 50주년을 기념하기 위한 등반으로 20대 재학생들이 대거 참여하는데 의미가 깊다. 작금의 국내 히말라야 등반가들은 모두 30대후반 이후가 대종을 이루고 있으며 20대 알피니스트들은 거의 없는 상황이다. 또한 광주 전남은 물론 전국의 대학산악부가 대부분 회원확보부재로 문을 닫는 현실에서 20대재학생 4명이 참가하는 이번 원정은 침체일로인 대학산악부는 물론 국내 산악계에 오아시스같은 등반으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 열혈청년회원들이 히말라야이 됨으로써 본회가 50주년을 넘어 1백주년을 향해가는데 아카데믹알피니즘이라는 정체성 구현에도 큰 동아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000년대는 본회 출신의 결출한 산악인 이현조가 혜성과 같이 나타나 국내 산악계는 물론 세계산악계에 큰 족적을 남겼다. 93년 알프스3대북벽 원정대에 참가했다가 훈련도중 발목부상으로 등반을 접어야했던 그는 등반가의 꿈을 버리지 못한다. 이를 안타까이 여긴 이정옥과 유명희는 이현조를 당시 8000미터 14좌 레이스중이던 박영석캠프에 합류시킨다. 이현조는 박영석과 함께 2000년대를 풍미하며 국내 최고의 등반가로 발돋움하며 전남대학교 산악회의 위상을 만천하에 알린다. 이현조는 99년 마칼루 등반에 실패한 뒤 이듬해 5월 재도전해 등정에 성공한데 이어 7월 브로드피크 10월 시샤팡마 등 8천미터 자이안

트봉 3개를 잇따라 올라 한국산악계의 차세대주자로 급부상한다. 이어 2001년 남미최고봉 아콩카구아 등정, 함경준과 함께 한 알프스 아이거와 그랑드조라스(4,208) 등정 등 지칠 줄 모르는 등발력을 과시한다. 계속해서 박영석과 산악그랜드슬램(세계최초 히말라야14좌와 남북극도달)레이스를 함께하면서 2003년 2월 북극점(90°N) 원정에 이어 2004년 5월 남극점(90°S) 도달이라는 금자탑을 쌓는다. 그의 등반은 세계최장벽으로 라인홀트 메스너이후 35년동안 난공불락이었던 낭가파르밧 루팔벽을 오르면서 정점을 찍고 찬란한 꽃을 피운다. 2005년 7월 서울 시립대 김창호와 함께 오른 루팔벽 등정으로 그는 국내최고의 산악인으로 확실히 자리매김했으며 히말라야 거벽등반이라는 머메리즘에 입각한 고난도 등반에 더욱 매진한다.

루팔벽등정으로 이현조는 2005년 월간 '사람과 산' 시상 '알파인클라이머상' 을 수상한다. 또 2006년에는 본회의 초모랑마 원정에 등반대장으로 참여해 후배 이형관과 함께 정상에 올라 그 해 대한민국산악상 '대상' 및 '고산등반상' 을 수상해 명실상부한 한국최고의 산악인으로 이름을 떨친다. 하지만 그는 2007년 5월 16일 박영석의 에베레스트 등정 30주년 기념등반에 참여해 에베레스트 남서벽 코리안 신루트 개척중 눈사태로 사망하고 만다. 이현조는 불꽃같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그가 남긴 족적과 도전정신은 찬란한 불길이 되어 한국산악사와 본회의 가슴속에 면면히 흐르고 있다.

6. 향후 계획과 과제

히말라야동반을 비롯한 해외원정동반은 기술과 자본을 필요로 하고 사람과 철학(이즘)이 관련이다. 기술적인 면은 차치하고 지금까지는 억대가 넘는 자금을 회원들이 각출하는 원정이 사실이었다. 때문에 어느 정도 등반전후의 불협화음이 있을 수 밖에 없었고 추후 원정추진에 걸림돌로 작용하기도 했다. 하지만 작은 문제점들이 본회의 근간을 흐르는 산악정신을 무너뜨릴 수는 없다.

2008 가셔브롬 I, II 등반은 향후 본회 해외원정과 히말라야동반의 기능자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97년 초오유 2006년 초모랑마원정이 정상등정을 이루며 대외적으로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냈지만 회의 단합과 대원들의 이후 활동상으로 볼 때 미흡한 감이 없지 않다. 이로 인해 회원들의 출혈을 감내하면서 까지 무리하게 히말라야원정을 감행해야하는데 이의를 제기하는 회원들도 많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원정을 통해 향후 1백년을 향해 전진하는 회의 결집력과 화합, 그리고 정체성을 담보해 낼 수 있어야 한다. 일단은 희망적이다. 50년이 넘은 대학 산악부에서 재학생들이 활성화되고 있는 곳은 본회 단 한 곳 뿐이라고 자신할 정도로 열정이 넘쳐있다. 재학생들은 과거 못지않게 산악인의 자세를 견지하고 있으며 히말라야를 통해 알파니스트로 거듭나기 위해 활화산같은 용기를 불태우고 있다. 그간 본회의 해외원정 등반현장에는 고최행준 박현주 유명희 이현조로 이어지는 면면이 있었다. 이번 등반을 통해 이현조 다음을 이어받는 정통 알파니스트가 등장할 수 있어야하고 이를 통해 본회는 대학산악부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담보할 수 있다. 또 지금까지 고산등반을 가능하게 했던 이면에는 김훈봉 정순택 김하경 박명선 정태영 이정옥이라는 든든한 베풀들이 있었다. 이번 등반을 통해서도 선배회원들이 그랬던 향후 50년을 견인하는 든든한 후배그룹의 베풀들이 대를 이어야한다.

또 이번 등반을 통해 아카데미 알파니즘이라는 대학산악부 본연의 철학을 담보하고 본회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 이음새역을 해야 한다. 매 5년마다 히말라야동반 또는 전문적이고 난이도 있는 해외원정동반을 통해 매너리즘에 빠질 수 있는 회의 청년성과 진정성에 채찍을 가해야한다. 아직도 원정타령이고 원정만이 전문산악이냐고 반문할 수도 있고 그것만이 대안일수는 없으나 가장 확실하고도 분명한 대안이 히말라야원정을 통한 알파니즘 구현임은 물론이다.

물론 꼭 히말라야동반이 전남대학교 산악회를 대표할 수는 없다. 하지만 전문산악인임을 자부하고 정통 알파니즘을 추구하는 대학산악부의 이즘이 도전이라는 명제임을 감안할 때 더 어렵고 더 다양한 루트로의 등반은 계속돼야 함은 자명하다. 국내 히말라야동반도 현재 담보상태

에 머물고 있고 더더구나 20대의 젊은 등반가들은 찾기 힘들 정도로 노쇠화 돼 있다. 히말라야 등반이 이름알리기식으로 실적과 성과위주로 치우치고 상업적인 목적과 맞물리면서 내실을 기하지 못한데 따른 감이 있다. 이제는 에베레스트가 훈장처럼 여겨지던 시대에서 벗어나 성별과 나이를 불문하고 누구나 맘만 먹고 돈만 있으면 갈 수 있는 동네 뒷산처럼 여겨지고 있다. 수많은 상업등반대가 가동되고 있으며 7천미터 카페까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앞으로의 히말라야 등반은 대외적인 성과에 연연하기보다는 회 자체의 내실을 다지고 회원간의 단결을 도출해낼 수 있는 방향으로 전개돼야한다. 작지만 아름답고 난도있는 등반들이 꾸준히 이어져야 한다. 단일대학산악부 세계최초 14좌완등 등 그 대상과 의미를 놓고는 회원들의 중지가 모여져야 함은 물론이다. 후배가 없으면 산악회의 대는 이어지지 못하고 자연고사하는 현실에서 회를 활성화하고 선후배간의 산악정신을 공유하는데는 히말라야만큼 좋은 장이 없기 때문이다.

창립30주년을 맞아 정순택회원이 약우9집에 기고한 글이 50주년을 맞는 지금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어 이를 통해 미래 본회의 발전방향에 대해 가늠해본다.

“활성화문제는 산악회 구성원의 양적인 면과 산악회 활동내용의 질적인 문제다. 조직은 구성원의 수가 조직 목적수행에 필요한 인원보다 적거나 기반이 약할 때 그 조직은 존재가치가 감소된다. 록 클라이밍 일변도의 교육에서 산악활동영역을 확대시켜 자기 개성에 맞는 산악활동의 분야를 선택할 수 있는 여지를 두어야 하며 해외원정의 추진이 필요하다. 기술과 자금에 의해서만 가능한 해외원정은 그 조직의 활동을 단적으로 대변해준다. 원정 그 자체보다는 원정에 이르기까지의 준비와 노력은 활성화에 기여하는바 크다.”

제2절. 마라도에서 백두산까지

1) 대상지

백두산 (2,750m)

2) 기간

1989년 11월 22일~11월 30일

3) 대원

원정대장 박향식, 학술조사 김재률, 장비 차운재, 등반대장 신한봉, 기록 유종태
의료 최대원, 사진 김창래, 식량 한규성

4) 등반기

“우리가 백두산에 오르고자 했던 것은 분단 조국의 아픔을 되새기며 통일에의 염원을 달래고자 하는 순수한 마음에서였다.”라는 깊은 뜻을 가지고 전남대학교산악회 창립 31주년 기념등반이 1년여 간의 준비 끝에 대원 8명(원정대장 박향식, 학술조사 김재률, 장비 차운재, 등반대장 신한봉, 기록 유종태, 의료 최대원, 사진 김창래, 식량 한규성)으로 꾸려졌다. 이 번 원정대는 우리의 작은 몸부림으로 통일을 이룰 수는 없지만, 분단된 조국의 아픔을 되새기며 우리나라 최남단 마라도와 한라산, 무등산의 흙 한 줌, 물 한방울, 돌멩이 하나라도 백두산에, 백두산의 흙 한 줌을 무등산에 묻음으로서 언젠가 하나될 수 있는 그날을 위해, 통일을 염원하는 순수한 청년들의 마음을 담고있다.

1989년 11월22일 평상복 차림의 대원들이 선·후배들의 전송을 받으며 김포공항을 출발하였다. 3시간여의 짧은 홍콩행 비행기 속에서 여러 가지 상념들과 그동안 준비를 위해 힘들었던 일들이 창밖의 짙은 안개와 함께 주마등처럼 떠오르며 8명 대원들의 마음을 착찹하게 만들었다. 지난 11월 10일 국토의 최 남단 마라도와 한반도 남쪽의 최고봉인 한라산에서 대원들이 직접 채취한 흙, 물, 돌멩이도 대원들의 짐속 깊이 고이 간직돼 있었다.

같은 시간, 아이스풀을 지나 전진캠프를 치고 있을 학생산악연맹의 에베레스트 원정 대원들을 떠올리며 “두 원정대가 모두 정상에 올라 세계의 용마루와 한반도의 지붕에서 내지를 함성

이 맞닫게 되기를 빈다”는 선배님들의 말씀도 가슴 뭉클하게 떠올랐다.

홍콩에서 중국 입국비자를 발급받고 등반에 필요한 일부 장비도 구입하는 등 백두산 정상에 오르기 위한 마지막 준비를 위해 하루를 머물렀다. 23일 오전 10시30분 중국 광주공항에 도착 후 심양행 비행기를 기다리며 고궁과 박물관등지를 견학하고 밤 8시 심양에 도착 후 여장을 풀었다. 24일 연길로 출발 할 예정이었으나 비행기가 이륙하지 않아 연길행은 다음날로 미뤄졌다. 우리를 안내하는 중국인을 통해 9월 이후에는 백두산 입산을 통제한다는 말을 전해 듣고 길림성 관광국에 가서 사정을 한 뒤 모든 책임을 원정대가 지기로 하고 어렵게 등반 허가를 얻어냈다.

25일 심양공항을 출발하여 우리 민족이 가장 많이 살고 있는 연길에 도착했다. 한글로 표기된 상가의 간판들과 사람들로 인해 잠시나마 고국을 떠난 향수를 달랠 수 있었다.

26일 이도백하로 가는 도중 윤동주시묘와 청산리유적 등 선조의 얼이 숨 쉬고 있는 용정마을을 방문하기 위해 아침 일찍부터 서둘러 길을 나섰으나 눈으로 용정으로 가는 길이 폐쇄되어 아쉬움을 뒤로하고 서남쪽으로 우회하는 길을 택했다. 노릇구진을 거쳐 만보향을 지나자 마침 조선족의 결혼식이 진행 중이어서 쉬어가기로 했다. 인절미, 집채등 우리 고유의 음식으로 대접을 받은 뒤 8시간동안 비포장 도로를 달려 이도백하의 미인송 호텔에서 여장을 풀고 내일 있을 백두산 등반을 위해 휴식을 취했다.

11월27일은 본격적인 등반이 시작되는 날이다. 오전 5시30분에 일어나보니 밝은 밤사이 내린 눈이 50cm가량 쌓여 있었다. 7시40분 호텔을 출발하여 장백산 입구 매표소에 도착하였다. 중국인들은 백두산을 장백산이라고 지칭한다. 그곳에서 천지를 오르는 데에는 2개의 길이 있는데 하나는 야외온천을 지나 장백폭포 아래까지 간 다음 폭포 오른쪽의 급경사를 오르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스키장 왼쪽 능선을 타고 풍구와 천문봉을 지나는 길이였다.

우리는 백암봉 등정을 하고 일몰 전에 다시 돌아온다는 계획을 세우고 장백산 초대소를 출발했다.

40~60도의 급경사에 허리까지 차오른 눈 속을 러셀로 해쳐 나가며 12시 즘 풍구에 오를 수 있었다. 얼마 전 서울에서 온 등산객 2명이 돌풍에 날려 추락사한 것을 증명이라도 하듯 강풍이 불어댔다. 얼마나 더 올랐을까. 구름이 걷히면서 저 멀리 푸른 천지의 모습이 다가왔다.

“아! 우리의 영산이여! 얼마나 보고 싶었던가!” 촬영을 위해 급히 카메라를 손에 잡았지만 구름은 다시 천지의 자태를 삼켜 버렸다. 9월초에 철수한 뒤 인적이 끊긴 기상대에서 중식을 마치

고 마침내 백암봉 정상에 도착하여 마라도와 한라산에서 채취한 흙, 돌 그리고 물을 조심스레 묻었다. 눈을 뜰 수 없을 정도로 불어오는 세찬 바람과 영하 30도까지 내려간 강추위로 카메라가 작동하지 않아 카메라를 품속에 넣은채 간신히 몇 장의 사진을 찍을 수 있었다.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우리는 백암봉에서 떨어지지 않는 발길을 돌려 아이젠을 착용하고 급히 하산을 시작했다. ‘언제 다시 오나’ 통일의 그날이 오기만을 기원하며 우리는 야간 산행에 들어갔다. 혹한과 강풍 속에 2시간 산행, 10분 휴식을 취하며 지친몸을 대원들의 노래로 달래며 6시간 만에 무사히 하산을 했다.

28일 어제와는 다른 장백폭포 길을 택해 다시 등정에 나서 오전 8시 야외 온천에 도착했으나 바쁜 일정 때문에 온천수에 손만 한 번 담근채 등정을 계속해서 10시께 장백폭포아래까지 오를 수 있었다. 장백폭포에서 시작되는 골짜기는 거대한 빙하를 방불케 했는데 가까스로 폭포 상단부에 접근한 뒤 자일로 거점을 확보하고 트레바스를 시도했으나 갑자기 일어난 눈사태와 거센 눈보라까지 몰려와 더 이상의 전진은 엄두를 낼 수 없었다. 대장님의 후퇴 명령에 따라 우리는 눈물을 머금고 하산을 했다. 백두산을 뒤로하고 2대의 차량에 분승한 대원들은 말없이 멀어져가는 백두산을 바라보며 다음번에는 제 3국을 통해서가 아닌 우리 국토를 가로지르며 백두산에 오를, 기약 할 수 없는 내일을 마음 한 구석에 다짐할 뿐이었다.

제3절. '91 전남대학교 산악회 일본 북알프스 동계 원정등반대

1) 대상지

일본 북알프스 오쿠호다카다케(奥穂高岳, 3,190m) 일대

2) 기간

1991년 1월 30일~2월 11일(12박 13)

3) 대원

대장 故최행준(화공 85학번), 운행 백두인(조경 85학번), 장비 박현주(무역 86학번), 회계 조양택(수의 86학번), 식량 유명희(지리 89학번), 식량보 김지형(축산 90) 의료 이현(수의 90), 행정 최지환(기설 90), 고문 조규상(국문 80)

4) 등반방식

알파인 스타일

5) 소요경비

4백만원 (대원분담금 40만원)

6) 등반추진 배경

9년전 박명선회원 등으로 꾸려진 하계 북알프스 원정에 이어 히말라야의 관문으로 불리는 동계 북알프스 등반을 통해 대학산악부 자체적으로 히말라야 등반의 교두보를 확보한다는 목표로 추진됐다. 당시 고 최행준 재학생회장은 89~90동계 에베레스트 원정이후 지역 산악계의 희망으로 자리매김으며 재학생 자체적으로 해외원정을 성사시킨다는 목표아래 최저예산 알파인스타일 등반을 계획했다. 그때만 해도 동계 북알프스 주봉 능선종주는 성균관대산악부가 감행한 것 외에는 국내에서는 거의 등반한 팀이 없을 정도여서 제대로 된 지도나 현지 정보 등반루트에 관한 자료 등이 부족해 악재로 작용했다. 현지유학중이던 조규상회원이 일본공항에서부터 합류해 등반 내내 함께 하며 지도와 조언을 했던 게 많은 도움이 돼 등반을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 북알프스 니시호다카다케(西穗高岳)능선은 동계 때는 입산허가가 나지 않으며, 현지 산악인들도 동계 때는 주저하는 난코스로 첨단장비로 무장된 지금에 와서도 트레킹상품으로 각광받는 하계와는 달리 동계등반은 혐하기로 정평이 나있다.

강풍과 폭설이 쉴새 없는데다 계속 암릉등반을 해야 하고 등반도중 탈출로가 없으며, 계곡탈출은 눈사태의 위험성을 감수해야만 했다. 실제로 호다카다케(穗高岳)산장에서 계곡으로 탈출하다 대원들이 잦은 눈사태로 위험천만한 상황이 연출되기도 했다. 요새도 간혹 동계북알프스 조난사고가 국내에 보고되고 있는 현실이 동계 북알프스 등반의 가치를 시사하고 있다. 91 동계 북알프스 등반은 지금까지 막연하게 생각되어 왔던 재학생만의 히말라야, 알프스 원정이 어느 정도 현실성있게 다가왔다는 점에서 의미있는 등반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재학생만으로 꾸려진 금번 원정대는 모든 식사를 국내에서 공수해간 맘모스제과점 빵으로 해결할 정도로 형그리 등반을 했다. 현지에 대한 정보부족에서 오는 온갖 시행착오를 조규상회원이 해결할 정도로 미숙했지만 재학생들이 아르바이트로 꾸린 예산으로 장비들을 선배들에게 빌려 등반하는 등 산에 대한 열정만으로 꾸린 원정대다. 명품으로 무장한 작금의 원정대와 비교할 때 순수 아카데미즘에 더 가까웠다고 말할 수 있다.

7) 등반일정

1월 29일 : 광주-서울

1월 30일 : 김포-나리따(조규상회원과 조우)-마츠모토(松本)

1월 31일 : 마츠모토(松本, 장비구입)_가미코지(上高地, 택시이동)

2월 1일 : 가미코지(上高地)-나카오네노미즈(中尾根의 水) 지난 평지

2월 2일 : 니시호(西穗)山莊

2월 3일 : 니시호(西穗)山莊-獨標 전의 피라미드봉 안부

2월 4일 : 폭설과 강풍 등 악천후로 전진 포기하고 예비일(텐트 설동)

2월 5일 : 심한 눈보라로 텐트 1동 매몰, A조:공격조 3명(최행준 박현주 최지환) 정상등정시
도, B조는 후퇴 결정.

2월 6일 : A조:C4-텐구(天狗), B조:C4-니시호(西穗)山莊

2월 7일 : A조:텐구(天狗)-호다카다케(穗高岳)山莊

2월 8일 : A조:호다카다케(穗高岳)山莊-호다카히라대 피소(穗高平小屋) B조:호다카다

케(穗高岳)山莊-호다카히라대피소(穗高平小屋)

2월 9일 : 호다카히라대피소(穗高平小屋)-다카야마(高山)-민오오다-동경

2월 10일 : 동경

2월 11일 : 동경-나리따-김포

2월 12일 : 서울-광주

8) 등반기록

당시 1학년으로 첫 동계등반에 참여한 최지환 대원의 등반기록중 일부

2월 6일

: 6시에 정상을 향해 출발하기로 했으나, 1시간 늦은 7시에 동료들의 조심하라는 당부와 함께 1박2일 예정으로 간단한 식량, 비상식, 장비 등을 챙겨 텐트없이 설동을 구축할 예정으로 출발했다.

긴장과 함께 몸이 풀리지 않아 출발한지 얼마되지 않아 익숙지 못한 아이젠으로 인해 커니스를 끊고 눈속에 머리를 치박으니 숨이 막혀 죽는 줄만 알았다. 행준형은 안경의 습기를 닦아내다가 오른쪽 오버미톤을 날려버렸다.

긴밤에 별이 보여 맑을 거라는 기대와 달리 강한 바람과 눈보라가 진행을 방해한다. 도중에 하루 먼저 출발한 제주 설암산악회팀 3명을 만나 짐을 정리중이라 먼저 출발하기로 하고 계속 나갔다.

현주형, 지환, 행준형 순으로 아직은 안자일렌을 하지 않고 크러스트된 급경사의 너덜지대를 아이젠과 피켈을 이용해 올라갔다. 현주형이 도중 군데군데 바위가 있어서 잡고 올라가려고 바위를 잡는 순간 바위가 뽑히며 바로 뒤의 내 옆을 지나 제동할 겨를도 없이 잠깐 사이에 골짜기 쪽으로 굴러 사라져 버렸다. 손을 쓸 수 없어 굴러가는 것을 쳐다만 보다가 당황해서 행준형을 쳐다보니 행준형은 침착하게 배낭을 나에게 맡기고 현주형을 찾아 150미터 가량 내려가더니 이내 사라졌다. 혼자서 꼼짝 못하고 배낭을 붙잡고 있자니 추워지고 옆으로 조금만 이동하면 그래도 조금은 안전한데 무서워서 움직일 용기가 나지 않는다. 약 30분간을 꼼짝 못하고 있으니 저 아래에 희미하게 눈보라 속에서 행준형이 올라오는 것이 보였지만 아무리 보아도 현주형이 보이지 않았다. 걱정과 절망감 속에 계속 지켜보니 20미터쯤에 현주형이 올라오는 것이 보여

비로소 안심되었다. 헌주형은 별일 없다는 듯 웃지만 표정이 밝지 않았다. 아무래도 불안해서 헌주형이 먼저 올라가 자일을 설치하고 주마링을 해서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번에는 눈이 두께 가 앎아 바로 위에 있던 행준형이 아이젠이 걸리지 않아 미끄러져 내려오더니 내 무릎을 밟고 멈춰섰다. 결국 내 오버트라우저가 약간 찢어지고....

꼭대기에 올라가니 제주도팀이 기다리고 있어서 6명이 함께 등반을 하게 되어서 안자일렌으로 나아갔다.

칼날같은 능선에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람이 불어대니 능선 왼쪽은 크러스트된 눈으로 한번 미끄러지면 수백미터를 미끄러져 나가 떨어져야 되고 오른쪽은 커니스가 발달해서 떨어지면 눈속에 파묻혀 죽을 것만 같다. 6명이라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1번 하강한 것 빼고는 웬만한 하강코스는 위험하지만 아이젠과 픽캘을 믿고 왼쪽으로 약간 돌거나 그대로 내려 갈 수 밖에 없었다. 도중에 몇 번 위험한 고비가 있었지만 운이 좋아서인지 사고는 생기지 않고 BC에서 정상까지의 3분의 2쯤되는 지점에 설벽을 구축해 놓은 흔적이 있어서 3시가 조금 지나 그곳에 설벽을 더 쌓고 제주도팀 텐트를 치고 6명이 정상공격 하루째의 밤을 보내게 되었다.

산행 도중 곳곳에 쇠사슬이 연결되어 있어서 어느 정도 이용할 수 있었지만 위험한 코스가 많았고 강풍에 텐트가 이리저리 흔들려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발 뒤크치가 까져서 양말을 벗으니 양말에 피가 번져 있었다. 지금쯤 호다카다케(穂高岳)山莊에 있을 B조가 부럽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우리가 있는 이 막영지는 몇주전 일본인 등반팀 3명이 낙석으로 사망했던 곳이었다.

2월 7일

: 아침에 일어나니 바람은 여전히 심하지만 눈은 멎어 능선왼쪽은 파란 하늘이 보이는 데 오른쪽은 뿐연 안개로 대조적이었다. 안자일렌으로 계속 나아갔다. 올라갈수록 눈이 적어지고 바위조각 투성이로 진행하기가 불편하다. 바위에 박은 동판도 보였다.

정상이 보일만도 한데 여전히 정상은 보이지 않는다. 어느 정도 익숙해져 있어서 별 탈없이 나아가다 어느 순간 한 봉우리를 올라서니 저멀리 정상이 보인다. 꼭대기까지 올라가지 않고 옆으로 트레바스를 했다. 몇시간 이내에 정상에 올라설 수 있을 것처럼 보였지만 3,163미터 지점에서 하강하느라 시간이 많이 걸렸다. 80미터 자일이면 한번에 충분히 하강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일단 하강을 하니 또다시 몇 개의 봉우리를 올라채야 할 것 같았으나 하나를 올라채니 독

립된 봉우리처럼 보였던 몇 개의 봉우리들이 표고차가 없는 능선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나머지 코스는 생각보다 쉽게 통과해 2시50분 드디어 정상에 올라섰다. 맑았던 날씨가 갑자기 구름이 끼며 흐려져서 주위 경관을 찍지 못한 채 정상사진만 찍고 또다시 눈보라속에서 예정된 탈출구를 찾아 하산하기 시작했다.

산행이 모두 끝난 느낌이 들어 기분이 좋아졌다.

4시에 호다카다케(穗高岳)山莊에 도착하여 이틀째 밤을 보냈다.

양말에 찢긴 살조각이 묻어 나온다.

2월 8일

： 훌가분한 마음으로 짐을 챙겨 호다카다케(穗高岳)山莊 왼쪽 골짜기로 들어서니 태어나서 맞아본 적 없이 강한 눈보라에 눈은 커녕 정신조차 차릴 수 없다. 엄청난 바람에 얼음이 다된 눈조각들이 사정없이 얼굴을 후려친다. 오버트라우저 모자가 벗겨지니 목출모는 무용지물이 되고 말았다. 바람이 너무 심해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었다. 그렇게 몇 백 미터를 내려가니 바람은 조금 약해지고 눈속에 발이 빠지기 시작한다. 어느새 눈은 내려갈수록 무릎에서 허벅지까지 심한 곳은 허리까지 차올랐다. 내려갈수록 점점 깊어지는 데 경사가 심한 골짜기라 곳곳에서 눈사태가 일어났다. 맨 뒤에 있던 행준형이 막 뒤쪽에 있어 나중에 이유를 알고 보니 눈사태가 바로 뒤에까지 덮쳤다는 것이다.

결국 도저히 위험해서 계곡을 따라 내려갈 수가 없을 것 같아 산허리쪽으로 간신히 올라채서 이동했다.

몇 시간을 내려가니 바람은 점점 줄어들고 경사가 어느정도 완만해져 눈은 내리지만 눈사태의 위험이 줄어들어 다시 계곡쪽으로 내려와 러셀을 해가며 나아갔다. 도중에 높이가 수십미터나 되는 빙폭이 나와 그대로 내려갈 수 없어서 오른쪽으로 돌아서 내려갔지만 위험하기는 마찬 가지였다. 조금 내려가니 경사도 덜 심한 작은 빙폭이 나와 그대로 빙폭 바로 옆으로 아이젠을 이용해 내려가는데 3명째부터는 무너지기 시작해서 어쩔 수 없이 빙폭을 타고 그대로 뛰어내릴 수밖에 없었다. 경사가 완만해진 대신 눈은 허리까지 차올라 약속장소인 시라데대피소(白出小屋)까지 러셀해 내려갔다.

몇 시간 후 콘크리트 둑이 나타나 왼쪽으로 올라가니 조그마한 산장이 나오는데 기대했던 동료들이 보이지 않아, 조금 내려가다 막영을 할 예정으로 러셀을 계속해 나가는데 100미터쯤 가

다보니 앞에서 에코 소리가 들린다. 반가움에 한참을 내려가니 규상형, 두인형, 명희 누나가 러셀을 하며 올라오고 있었다. 동기들은 보이지 않았지만, 그 반가움이란... 간단히 휴식한 후 러셀 자국을 따라 혜망산장으로 내려가는데 안심이 되어서인지 피곤해지고 배낭이 무거워진 느낌이다. 기진맥진한 채로 1시간쯤 야간 산행을 하며 내려가자 3일간 못 봤던 동료들을 모두 만날 수 있었다.

간단히 보고 후 짐을 푸는데 피곤해서인지 선배가 따라주는 위스키 한 잔에 정신을 못차리고 꾸벅꾸벅, 꾸중을 들었지만 도저히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한밤중이 되어서야 간신히 정신을 차렸다. 몰랐는데 3일간의 산행으로 눈보라 때문에 왼쪽 볼에 동상이 걸려 빨갛게 변해 있었다. 그래도 좋았다.

그 무섭고 힘들었던 산행이 모두 끝나서.

이젠 기차타는 일만 남았으니까.

제4절. '93 전남대학교 알프스 3대 북벽 원정대

1) 대상산

유럽 알프스 3대북벽

2) 기간

1993년 6월 30일-8월 6일(38일간)

3) 대원

단장 장일선, 원정대장 임우근, 부대장 최행준, 행정.기록 백두인, 장비 문귀현,
식량 고일주, 의료.촬영 문준연

4) 등반기

6월30일 이른 아침임에도 불구하고 O.B선배님들과 재학생 등 많은 사람들이 광주 공항에 나와서 약 40일간의 일정으로 알프스 3대 북벽 원정을 떠나는 대원들을 환송해 주셔서인지 대원들의 사기가 한층 고조됐다.

김포공항에서 원정대(단장 장일선, 원정대장 임우근, 부대장 최행준, 행정.기록 백두인, 장비 문귀현, 식량 고일주, 의료.촬영 문준연)와 함께 유럽에 가시는 이방기 지도교수님을 비롯하여 정순태, 신한봉, 송규호선배님들과 김영석 연맹부회장님등 8명의 선배님들 그리고, 이번 원정에서 우리팀과 함께 행동하게 될 대구영진전문대학 김종만대장과 김기범 대원을 만나서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기념촬영을 한 후 탑승수속에 들어갔다. 대원들 중에는 처음으로 해외원정을 나가는 대원도 3명이나 됐다. 91년부터 약 2년여 간의 훈련을 통한 원정의 기대감과 흥분 그리고 피곤함 속에 스위스 취리히 공항에 도착했다. 함께 오신 O.B선배님들과는 몇 일 후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고 헤어졌다. 밤 11시50분이 되어 도착한 로잔역 주변에는 배낭여행 족들이 땅바닥에 침낭을 깔고 자고 있었고, 모든 것이 생소하고 신기하기만한 낯선 환경 속에 스위스에서의 첫날밤은 그렇게 지나갔다.

역 벤치에서 자는 등 마는 등 뒤척이다가 오전6시40분 마르티니행 기차에 올랐다. 날이 밝아오니 어제는 잘 보이지 않았던 이국적인 경치가 눈에 들어왔다. 7시50분에 마르티니에서 등

산열차로 갈아타고 빠삐한 침엽수림들 사이로 힘겹게 고도를 높여가던 기차는 두 시간 후 목적지인 샤모니에 도착했다. 한국원정대들이 주로 애용하는 숙소인 샤모니아드 볼란트에 여장을 풀고 대원들은 업무 겸 관광차 샤모니시내로 나갔다. 보험가입하고 기상예보를 확인한 후 스넬 스포츠에 들려서 필요한 장비와 신형장비 몇 개를 구입하고, 슈퍼마켓까지 들려서 쇼핑을 마친 다음 숙소로 돌아왔다. 식사 후 대원들은 7시간의 시차와 여독을 이기지 못했는지 일찍 잠의 낙으로 깊이 빠져버렸다.

다음날 숙소에서 도보로 약 30분정도에 있는 가이앙암장으로 현지 적응훈련을 하러 갔는데 쏟아지는 졸음을 감추기가 힘들었다. 아빠의 가르침을 받으며 벽을 기어오르는 꼬마들과 자기 몸도 가누기 힘들 것 같은 아주머니가 오버행 길에 매달려 애를 쓰는 모습 등,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자일에 매달려 암벽을 즐기고 있는 모습이 아직은 대중적이지 못한 우리나라의 현실과 비교되어 놀라울 따름이다.

3일, 1박 2일 계획으로 몽블랑(4,808m) 등반에 나섰다. 마침 역 앞의 광장에 열려있는 벼룩 시장이 우리네의 5일장 같아 반가웠다. 버스로 오전 11시경 허쉬에 도착해서 라샤례테로 가는 케이블카를 탔는데 산악자전거를 즐기는 젊은이들인지 산악자전거를 가지고 케이블카에 오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다. 열차 시간이 맞지 않아 걸어서 등산열차의 선로가 끝나는 Aigle에 도착하니 벌써 오후2시다. 여기에서 외국인들이 장비를 착용하는 것을 보고 우리 팀도 빵으로 중식을 해결하면서 약간을 휴식을 취한 다음 장비를 착용하고 가끔가다 보이는 빨간 스프레이 표시를 따라 올라가자 점점 나무나 풀은 거의 보이지 않고 오직 돌과 바위밖에 없다. 로세산장에서 한병에 19fFr이나 하는 물을 두 병 구입하고 올려다 보이는 구테산장을 향해 출발했다. 고도가 높아짐에 따라 고소증세인지 머리가 땅해오고 한 걸음 한 걸음 가쁜 숨을 내쉬어야 했다. 앞서가던 백두인대원이 힘들어서 설악시를 외친 후에 약간의 율동을 섞어 산행가를 한곡 부르고 조금 쉬어 가려니 구테산장에서 사람들이 나와 우리 쪽을 쳐다보고 있고 헬기가 머리위에서 맴돌더니 한 사람이 자일을 타고 내려와 우리들을 구조하려는 행동을 취하는 것이 아닌가? 결국 백두인대원의 행동을 구조신호로 오인해서 일어난 해프닝이었지만 정말로 실감났다. 구조대원이 산에서는 조용히 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밤8시30분에 구테산장에 도착하니 남아 있는 침대가 없어서 어쩔수 없이 비싼 숙박료(101fFr)를 내고도 마룻바닥에서 자야했다. 심한 두통으로 가볍게 저녁식사를 마친 후 아픈 머리를 싸매고 잠자리에 들었다. 일찍 출발 준비를 하는 사람

들 소리에 깨어보니 새벽2시다. 그들이 떠난 후 우리들은 침대로 기어들어갔다. 그렇게 두어 시간 더 잔 후 일어나 라면을 끓여 먹고, 눈을 녹여서 수통에 채우고, 서로 안자일렌을 한 후 몽블랑 정상을 향해 출발하였다. 새벽이라서 그런지 공기도 상쾌하고 눈도 알맞게 얼어 있어서 걷기에 좋았다. 새로운 환경의 황홀함도 잠시, 발로 산장이 보이는 능선 상에 오르니 눈보라로 인하여 아무것도 보이지가 않았고 거기다가 이따금 불어 닥치는 강풍에 몸이 휘청거리고 심지어는 호흡이 곤란할 지경이었다.

발로산장에 도착해 꿀물을 한잔씩 마시면서 휴식을 취했다. 온도계 눈금은 -8° 를 가르쳤으나 체감온도는 -20° 는 되는 것 같았다. 날씨가 호전될 기미를 보이지 않자 12시에 대장님의 지시에 따라 출발을 했다. 눈보라는 정면으로 고개도 들지 못할 정도로 악화되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없었다. 10분마다가 10분 쉬기를 수십 번, 호흡도 가빠지기를 반복하다 보니 드디어 몽블랑 정상(4,808m)이다. 정상등정의 기쁨도 느낄 여유도 없이 서둘러 기념 촬영과 비디오 촬영을 한 후 발로산장으로의 하산 길을 재촉했다.

발로산장에서 에лев드미드로 가려던 진로를 변경하여 그랑률러 산장으로 하산했다. 보송빙 하지대는 크레바스가 매우 많아서 오후에 기온이 올라가면 매우 위험해져 현지인들은 새벽에 만 안자일렌을 하고 지나다닌다고 하는데 빙하지대로 들어서니 바람도 누그러지고 따뜻해져서 아프던 머리도 한결 나아졌다. 가도 가도 끝나지 않을 것 같은 지루한 빙하지대를 허기와 갈증 속에 괴로운 심정으로 케이블카가 지나는 곳까지 왔으나 오후6시에 떠난 마지막 케이블카를 아쉬워하기에는 너무도 늦은 시각이여서 저 멀리 보이는 샤파노의 불빛을 따라 꼬불꼬불한 길을 그냥 걸어서 내려와야만 했다. 밤 12시가 넘어 먼저와 기다리고 계시던 O.B선배님들과 맥주와 스테이크로 식사를 하고 담소를 나눈 후 무거운 몸을 이끌고 숙소로 돌아왔으나 빈방이 없어 각자 알아서 비박을 했다.

5일 아침 숙소 주인아주머니가 깨우는 바람에 피곤이 덜 가신 상태로 일어나 식사를 한 후 다락방에 자리를 잡고 각자 업무를 보러 샤파노시내로 나갔다. 저녁때 숙소 옆 잔디밭에 모여서 O.B선배님들과 함께 화기애애하게 반주도 곁들여 저녁식사를 했다. 식사 후 O.B선배님들께서는 시내 호텔로 돌아가시고 대원들은 그동안 밀린 기록장도 정리하면서 모처럼 여유 시간을 보내다가 모두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출국해서 처음으로 그리운 이들에게 엽서를 보냈다. 문준연대원은 컨디션이 좋지 않

아 누워있고, 나머니 대원들은 부족한 장비와 식품을 준비하며 제각기 분주한 하루를 보냈다.

7일, 드디어 ‘알프스 3대 북벽’의 첫 공격지인 그랑드 죠라스로 옮기는 날이다. 숙소에서 도보로 10여분 거리의 역이 길게만 느껴지고 거의 30kg에 육박하는 배낭무게는 어깨를 짓눌렀다. 역에 도착하고 두 명의 대원은 샤모니 시내로 날씨를 알아보려 갔는데 오늘, 내일, 모레아침까지는 맑고 모레 오후부터는 천둥 번개를 동반한 악천후라고 했다. 등산열차를 타고 몽땅베르역에 도착해서 대장님의 지시에 따라 백두인과 문귀현대원은 공격조, 최행준과 고일주대원은 지원조, 몸 상태가 좋지 않은 문준연대원은 임우근대장과 함께 이곳에서 머무르기로 하고 각자 맡은 역할에 따라 짐을 풀어 다시 정리한 후 공격조와 지원조는 정상공격을 위하여 출발했다. 공격조와 지원조 넷이서 지루한 빙하를 두어 시간 정도, 다시 모레인 지대를 두시간 또 렛쇼빙하를 한시간정도 걸으니 렛쇼빙하 끝부분의 절벽에 매달린듯한 콘테이너같이 생긴 렛쇼산장에 도착했다. 산장 아래에 텐트를 치고 식사를 한 후 내일 공격을 위하여 본부에 무전을 치고 공격조는 잠자리에 들어갔다. 지원조는 밤새 텐트 밖에서 자지 않고 기다리다가 식사를 준비해 놓고 공격조를 깨웠다. 맑은 하늘의 쏟아질듯한 별빛에 2시간 30분이나 걸려서 설벽 아래에 도착했다. 어제 정찰할때 멀리서 눈으로 확인하고 돌아온 것이 실수였다. 공격조는 지원조와 헤어져 설벽을 올랐으나 루트 파인딩 실패와 날씨에 대한 불안감으로 오후2시 과감하게 철수를 결정했다. 헬기가 나는 소리같은 낙석과 낙빙 속에서 긴장된 하강을 4시간 동안이나 하고 서야 겨우 설사면에 들어설 수 있었다. 다음날, 그랑드 죠라스 1차 공격 실패로 인한 무거운 발걸음을 재촉하여 몽땅베르 역에 들어서니 문준연대원과 대장님이 환영해 주셨다. 맥주 한잔으로 실패의 쓴맛을 씻어낸 후 등산열차를 타고서 이제는 내집같이 편안하게 느껴지는 샤모니의 샤모니아드 볼란트 숙소로 되돌아갔다.

10일, 하루를 쉬고 **11일**, 다시 그랑드 죠라스 2차 공격을 위하여 출발하였다. 기차역에서 어제 만난 석향 산악회 회원들을 다시 만났으나, 그들도 그랑드 죠라스 상태가 좋지 않아서 망설이고 있었다. 그래서 합동 정찰조를 만들어 몽땅베르까지 정찰을 보낸 결과 적설량이 많은 관계로 등반이 어렵고 상태가 좋아지려면 약 일주일을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대원들과 상의 결과 마티호른을 먼저 하기로 하고 그에 따른 준비물들을 보강한 후 브리그→비숍을 거쳐서 체르마트에 도착해서 보니 시간이 너무 늦어 케이블카를 탈 수 없게 되자 야영장에서 텐트를 치고

막영을 하기로 했다. 다음날 오전에는 시내구경도하고 날씨를 알아본 결과 이를 동안 눈이 내린다고 해서 오늘은 야영지에서 보내고 내일 이동하기로 했다. 점심식사 후 마더호른 공격조가 최행준과 고일주 대원으로 결정되었다. 13일 케이블카를 두 번 갈아타고 퓨리에 도착했다. 퓨리에서 훼른리 산장까지 걸어가는데 코앞에 보이는 산장은 가도 가도 거리가 좁혀지지 않고, 영하2?의 날씨지만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려니 덥기만 했다. 강풍과 눈으로 인해서 텐트치기가 여의치 않아 산장에서 머물기로 했다. 모두 이동하느라 피곤했는지 밤8시쯤 잠자리에 들었다.

14일 바위상태와 북벽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정찰을 나갔으나 눈이 많이 와서 그런지 초입 찾기가 굉장히 어려워 정확한 지점을 파악하지 못하고 내려왔다. 대원들 회의 후 내일 새벽에 공격하기로 하고 문귀현대원과 임우근대장 둘이는 자지 않고 아래 식당에서 대기했다. 새벽2시 문귀현 대원이 미리 준비해둔 식사를 마치고 공격조와 지원조가 출발했다. 어제 정찰해 두었던 초입까지는 모두 설벽이어서 안자일렌을 하고 연등하여 초입부분까지 도착하였으나 북벽은 두 겹 세 겹 운무의 휘장을 두른 채 우리의 눈길을 거부하고 거센 바람을 타고 싸락눈은 인정사정없이 옷깃을 헤집고 들어왔다. 설동을 파고들어 앉아서 지원조와 영진 전문대학 김기범 대원과 함께 가스 사이로 가끔씩 나타나는 환상적인 체르마트의 야경을 보면서 어서 날이 밝아 오기만을 기다렸다. 점점 희뿌연 여명은 밝아오고 바람은 여전히 거세였지만 마냥 기다릴 수 없어서 오전 6시경 지원조와 굳은 악수를 하고 600m 설벽에 핀켈을 힘껏 내려쳤다. 최행준대원이 먼저 오르고 사전에 약속한대로 고일주대원이 바로 뒤를 연이어서 설벽에 올랐다. 설벽은 낮은 기온과 강풍으로 인하여 찍고 올라가기 좋은 상태였다. 최행준대원은 양손에 든 아이스바일과 핀켈을 말 타고 질주하는 장수처럼 번갈아가며 휘둘러댔다. 두 어시간정도 해서 설벽 중간쯤의 섬처럼 톡 튀어나온 바위에서 비교적 신형의 하켄을 한개 본 이후로 고정자일이나 하켄 등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았다. 오로지 정적과 완벽한 백색의 통일감뿐이고 훼른리 능으로 등반하는 사람역시 없었다. 기상관계를 알아 볼때 훼른리 산장에서 등반이 불가능하다며 적극 만류하던 일이 생각났다. 짙은 운무로 인하여 전체적인 조망이 힘들어 본 루트를 벗어나 훼른리 능으로 올라서는 꿀르아르상에 서게 되었을 때의 난감함이란! 본부와 교신 후 최대한 제 루트를 찾아서 다시 등반을 개시했다. 믹스클라이밍을 하며 네 피치쯤 오르니 매끈한 바위에 실크랙이 간 7~8m의 오버행이 앞을 가로 막았다. 한 시간여에 걸친 루트 공작 끝에 인공등반의 정

수를 만끽하며 힘겹게 오버행을 넘어선 후 다섯 피치정도 끊으니 조그마한 테라스가 나타났다. 시간도 밤 10시가 다 되었고 짙어오는 어둠만큼이나 피곤도 엄습하여 이곳에서 비박을 하기로 결정했다. 허기진 배는 호박죽과 과일캔으로 대충 얼버무렸다. 이날 지원조는 많은 눈에 가로막혀 고전을 면치 못하고 원래 계획이었던 솔베이 대피소 반도 못가서 비박을 했다. 공격조는 추위 때문에 여명이 밝아오자마자 주위의 하켄을 회수하고 건망증 환자처럼 아침도 잊어먹은 채 계속 하켄을 치며 정상을 향해 올라갔다. 정오쯤해서 정상 밑에 도착하여 지원조와 교신을 했다. 도둑놈처럼 찾아드는 졸음을 쫓으며 회기를 가지고 오는 지원조를 두 어 시간 기다리다가 시간에 쫓기어 지원조가 정상까지 오는 것을 포기했다는 연락이 오자 장비를 챙겨들고 정상을 향해 나아갔다. 정상부근까지 깔려 있는 고정로프를 보며 자유등반으로의 엄청난 난이도에 입을 다물지 못하며 마티호른 북벽의 초등자인 에드워드 윌퍼가 이 산을 오르기까지 쏟아 부었을 각고의 노력과 수고에 고개가 수그러졌다. 시커먼 청동상을 지나 우측으로 칼날릿지를 2피치정도 트레바스를 해서 밤 8시 정상을 알리는 철십자가 앞에 도착했다. 담담한 마음으로 사진을 몇 장 찍고 하산 길을 재촉했다. 밤11시 드디어 지원조가 기다리고 있던 솔베이 대피소에 도착하여 백두인, 문준연대원을 만나자 오래된 친구를 만난 것처럼 반가웠고, 마티호른북벽 등정으로 알프스3대 북벽이 한 걸음 더 가까워졌다.

7월 18일 오늘은 원정을 떠나 온지 19일째로 정확히 반이 지나갔다. 워킹화를 신고 여전히 무거운 배낭을 짊어지고 채르마트, 비숍, 슈바르즈제를 지나 오후 4시반경 샤토니에 도착했다. 다음날은 한국으로 전화도 하고, 밀린 기록장도 정리하면서 특별메뉴인 닭찜도 맛있게 먹었다. 최행준대원은 부종으로 이뇨제를 한 알만 먹으라는 의료담당의 말을 무시하고 두 알을 먹더니 만 밤새도록 화장실을 들락날락 거리다가 마침내는 화장실 옆에서 잤는데 주인아주머니가 나와서 보고는 놀랐다고 한다.

20일 그랑드 죠라스 등정을 위해서 렛쇼산장을 향해 출발했다. 빙하지대를 지나가는데 비가 내리고 1차 공격의 실패의 부담 때문인지 대원들의 표정이 어두웠다. 렛쇼산장 주인인 장과 인사를 하고 저녁을 준비하여 같이 먹으면서 이야기도 나누웠다. 한국 차도 대접해 주었더니 ‘good’를 연발했다. 21일도 여전히 날씨가 좋지 않아서 하루종일 빈둥거리며 텐트 안에 쳐 박혀 있었다. 장이 무전을 듣더니 내일은 날씨가 오늘보다 더 좋아진다고 해서 내일 새벽에 출발

하기로 결정했다. 만류하는 장의 배려로 궂은 날씨로 텅빈 산장 안에서 출발준비를 했다.

22일 새벽2시 또 하나의 북벽을 향해 출발하였지만 온통 눈으로 뒤덮인 북벽에서 또 한 번의 좌절을 맛봐야만 했다. 오버행의 마지막을 넘어서려는데 몸체만한 바위가 깨져서 여러 조각으로 분해되어 문귀현대원과 떨어지기를 약35m정도, 자일은 손상되어 내피만 몇 가닥정도 남아있고, 문귀현대원은 안경이 깨지고 헤드랜턴도 날아가 버렸지만 약간의 찰과상과 타박상만 입어 불행 중 다행이었다. 우리와 출발점을 달리했던 대구팀도 더 이상 등반이 불가능 했는지 하산했다. 하산 후 전 대원이 모여 토의한 결과 대구 영진전문대 87학번 김기범대원과 백두인 대원이 영·호남 화합차원에서 한 팀을 이루어 내일 다시 한 번 재공격을 하기로 했다. 일정 때문에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합동 팀은 비장한 각오로 새벽4시 마지막 공격에 나섰고, 예상외로 컨디션이 좋았는지 꾸준히 올라갔다. 갑작스러운 일정 변화로 식량이 부족하여 고일주와 문준연대원이 샤모니로장을 보러갔고 담배가 모두 떨어져 장에게 담배를 빌리려 갔던 문준연대원은 장의 말을 잘못 알아듣고 담배를 가지고 가벼려서 하루 종일 장이 문준연대원을 찾는 혼프닝도 벌어졌다. 공격조는 해가 뉘엇 뉘엇 넘어가고 눈과 얼음에 젖어 발을 조여 가는 암벽화로 인해 본부와 교신 후 적당한 비박지를 찾아 하루를 마감했다. 호박죽으로 간단한 요리를 하고 북벽에 매달려 저 멀리 보이는 침봉들 사이로 빛나는 알프스의 별을 보고 있노라니 출발하는 날 그렇게 우시던 어머님 얼굴이 떠올라 가슴이 통클했다. 아침에 기상을 하여 산장으로 올라가 망원경으로 벽을 올려다 보니 백두인대원의 파란 아노락이 점으로만 관찰됐다. 가끔 헬기가 빙하지대를 통과하여 그랑드 죠라스로 날아가고 그럴 때마다 대원들에게 무슨 일이 있는가 싶어 걱정을 했다. 장을 통해 알아본 결과 프랑스 T.V방송국에서 오른쪽 꿀르와르 설벽에 새로 길을 내는 프랑스 유명 클라이머들을 취재하러 나온 방송국 헬기라고 밤이 되면서 날씨가 안 좋아지기 시작하고 눈이 내렸다. 바람도 심해지자 더 이상 전진을 못하고 다시 비박에 들어간다고 연락이 왔다. 험한 날씨 때문에 비박을 하며 고생하고 있을 공격대원들 생각에 B.C의 분위기도 심란했다. 25일 공격조는 얼굴을 마구 때려 앞도 제대로 안보이는 눈보라를 뚫고 계속 연등하며 오후 1시에 정상에 도착했지만, 정상에서 본부와 교신도 안되고 계속 내려치는 번개로 인하여 기념촬영을 하다말고 하산을 서둘렀다. 살아 돌아가고 싶은 간절함에 배고픔도 잊고, 바쁜 마음에 발걸음을 재촉해보지만 가슴까지 파묻히는 눈 때문에 하산 길은 애가 탈 수 밖에 없었다. 본부도 공격조의 정상등정을 확인한 후에 샤모니로의 철수준비로 분주했고, 정상에

선후에 연락하겠다는 무선을 마지막으로 공격조와 B.C의 교신이 끊어져 할수없이 공격조의 무탈을 바라면서 오후2시에 철수에 들어갔다. 본부조의 철수하는 상황도 심한 비바람과 천둥번개에 비브람은 젖어서 질퍽거리고, 손도 시려 얼굴을 들 수가 없었다. 그래도 정상공격에 나선 대원들 보다 나을거라는 생각에 아무말도 없이 북북히 앞으로 전진했다. 샤모니아드 볼란트 숙소에 들어가 조금 있으니 오후 6시경 백두인대원으로부터 오후 1시에 정상등정 후 죄라스산장에 무사히 도착했다는 전화가 왔다. 모두들 기뻐하며 저녁을 오랫만에 포식하고 내일 만날 공격조 생각에 들뜬마음으로 잠을 청했다.

26일 오후에나 도착 할 줄 알았던 공격조 백두인, 김기범대원이 오전 8시에 숙소로 돌아오자 모두 놀라워했다. 샤모니로 들어가는 차를 잡아 부탁해가지고 이렇게 빨리 올 수 있었다고 했다. 늦어진 일정 때문에 식사를 마치고 짐을 정리하여 아이거로 이동하기로 했다. 볼란트 숙소 주인아저씨가 짐을 여까지 차로 옮겨주었고 정들었던 샤모니를 뒤로하고 아이거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대 여섯 번이나 기차를 바꿔타며 너무 늦은 시간에 그린델발트에 도착하여 주차장에서 막영을 했다. 이른 아침 경찰이 와서 잠을 깨우자 짐을 정리하고 클라이네 샤이데크행 등산열차를 탔다. 아름다운 초원이 펼쳐져있고 소들이 풀을 뜯는 평화로 움 속에 마지막 종착역인 아이거북벽을 향해 6명의 사나이들이 비장한 각오를 다졌다. 북벽 밑의 낙석이 없는 곳에 ABC를 치고 임우근대장을 비롯하여 고일주, 문귀현대원은 식사준비와 공격조 식량을 챙기고, 최행준, 백두인대원은 북벽의 스타트 지점에서부터 픽스로프를 설치하기 위해 북벽을 올랐다. 초입에서부터 샤일 100m 한 동을, 그 위로 50m 한 동을 낙수에 젓지 않게 설치한 후 ABC까지 하산했다. 저 멀리서 히미하게들려오는 소떼들의 방울소리가 깊어가는 밤의 정적을 깐다.

29일 새벽 2시경 공격조인 최행준대원과 고일주대원이 지원 나온 대장님께 출발 보고를 하고 북벽의 입구 침니를 향해 출발했다. 공격조가 100m 픽스로프를 통과하자 지원조는 샤일을 회수하여 설사면으로 걸어서 내려왔다. 공격조가 제1설원을 넘어서자 지원조는 ABC캠프를 철수하여 클라이네 샤이데크에 있는 B.C까지 돌아왔다. 공격조가 어제 정찰해둔 T설계(Triangular snow Slop)까지 오르니 날이 밝기 시작했다. 밤 11시경 공격조는 람페초입에서 무전기를 통해 들려오는 B.C 대원들의 요들송을 들으며 운 좋게 빗겨간 낙석과 눈덩이들을 떠

올리며 아이거북벽에서의 첫 비박에 들어갔다. 다음날 밤9시경 드디어 공격조는 우리들의 마지막 목표였던 아이거 정상에 섰다. 온통 새하얀 짙은 안개와 어둠 때문에 정상에서 300m 내려온 지점에서 두 번째 비박을 결정했다. 공격조는 한참을 자다 말고 귀청이 찢어질듯 울리는 천둥소리에 잠을 깼다. 주위가 온통 번쩍거리며 환했는데, 바로 머리 위쪽에서 번개가 떨어지고 있었던 것이었다. 공격조는 오전 5시30분경 눈에 덮인 비박색에서 기어 나와 정신없이 장비를 챙기고 밑으로 뛰다시피 내려갔다. 피톤은 여전히 보이지 않고 한참을 내려가다 천둥소리가 사라졌을 즈음 안개 속에 헤매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했다. 운무 속에서 더듬거리며 조심조심 11시간의 악전고투 끝에야 겨우 마중 나온 문귀현, 문준연 대원과 상봉의 기쁨을 만끽 할 수 있었다. 저녁에는 아이거 등반 성공과 더불어 '알프스 3대 북벽 등반성공' 을 축하하며 맥주파티를 했다.

8월 1일 아침 햇살이 텐트문을 비집고 들어와 모처럼 편안하게 잠든 대원들의 단잠을 깨웠다. 귀국까지 남은 5일을 관광으로 보낼 여유도 생겼다.

8월 6일 광주 공항에 도착하여 선배님들과 동기, 후배들의 환영을 받으며 40여 일간의 기나긴 '93 알프스 3대 북벽 원정' 을 성공리에 마쳤다.

제5절. 전남대학교 개교 45주년 기념 '97 한국 초오유 원정대

1) 대상산

중국령 티벳 자치령내 히말라야 제6위봉 초오유(8,201m)

2) 등반루트

북서릉

3) 등반방식

극지법 알파인스타일

4) 기간

1997년 8월16일~10월4일(50일간)

5) 후원

문화체육부 진홍건설(주) 전남대학교 대한산악연맹 광주전남연맹

6) 대원

고문 김훈봉, 단장 정순택, 원정대장 이정옥, 등반대장 서은호, 의료 장희, 장비 故최행준, 행정 박현주, 기록촬영 원정일, 수송 김성석, 식량 김현준

7) 결과

97년 9월21일 12시 30분 박현주 김성석 정상등정 (김성석 서은호 동상으로 손가락일부절단)

8) 등반 추진배경

창립 이래 40여 년 만에 최초로 해외원정동반으로서 의미가 크다. 그간 연합대에 본회의 대원들이 파견돼 팔복할 만한 성공을 거둔 사례는 많았으나 호남지역 대표산악회라는 명성에 걸맞지 않게 히말라야원정을 꾸리는 데는 인연이 없

었다. 하지만 비록 늦은 감은 있지만 전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십시일반해 세계6위봉 등정으로 히말라야 원정등반의 서두를 장식할 수 있었다. 그동안 회원들은 개인자격으로 72마나슬루 등반 89-90동계에베레스트 등반 90년 낭가파르밧등반 93, 95년 초모랑마등반 96에베레스트등반 등을 통해 히말라야 레이스에 참가했다. 또 재학생들이 대거 참여한 91 동계 북알프스 등반과 93년 유럽알프스 3대 북벽 등반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히말라야로의 발걸음에 박차를 가했다. 당초 95년 1차 초오유계획을 추진했으나 여건이 허락되지 않아 연기되다 96년 12월 선후배들이 모여 파키스탄쪽 8천미터봉을 거론하다 97년 1월 초오유로 최종결정했다. 이번 초오유원정성공으로 본회는 8천미터봉 등반레이스를 시작했으며 그 바통을 이어 2007년 초모랑마등정 2008년 가셔브롬 1,2등반계획으로 구체화되고 있다. 자금모금과 대원선발 등반 귀국후 사진전 등 일련의 모든 과정이 전 회원들의 화합과 협력 속에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본회의 위상을 높이고 회원 간 단합을 도모하는데 기여했다. 특히 그동안 초오유등반보고서가 전무한 국내현실에서 알찬보고서와 사진전을 개최해 중국쪽 티벳방면 히말라야등반에 대한 정보제공에도 한몫했다.

9) 정상등반기(9월18일-21일)

9월 18일(목) ABC-C1

드디어 공격날이다. 공격조는 은호형, 행준형, 현주형, 나, 성석 이렇게 5명이다. 점심 먹고 1시에 출발했다. 오후 5시 C1 도착. 4시간만에 C1에 도착했다. 지금까지 최단 시간이다. 저녁 먹고 현주형의 노가리를 들으며 밤이 깊어가는 줄 모른다. 오늘따라 바람 한 점 없이 고요하기 만 하다. 정상공격할 때도 날씨가 좋아야 할텐데. 고요한 초오유의 밤하늘을 바라보며 대원 모두 정상등정을 굳게 다짐한다.

9월 19일(금) C1-C2

나는 처음으로 C2로 간다. 나머지 대원은 전부 전에 잔 경험이 있다. 약간은 부담이 됐지만 굳게 마음 먹고 따라간다. 바람이 유난히도 분다. 오후부터 눈발이 날리더니 날씨가 점점 험해진다. 등반속도가 점점 느려진다. 픽스로프 깔린 빙벽을 오르는데 미국녀석이 하당하다가 균형을 잃고 아이젠으로 내 허벅지를 밟아버린다. 순간 눈물이 앞을 가린다. I'm sorry를 연발한다. 말로는 괜찮다고 했으나 한 대 때려주고 싶었다. ‘죽일 놈’ C2 도착해서 텐트안에 들어가니 살

것 같았다. 부디 날씨가 좋아져야 할 텐데…

9월20일(토)C2-C3

몸은 약간 피곤하지만 컨디션은 괜찮다. C3까지 끊임없는 오르막길을 오른다. 몇 걸음 가다가 지쳐 숨 고르고, 가다가 숨 고르고, 이놈의 오르막이 끝이 없는 것 같다. 고소에는 적응이 된 것 같은데 호흡이 힘들고 고통스럽다. 그래도 정상을 향해 한걸음 한걸음 나아갔다. 내가 여기 와왔을까 하는 생각이 듦다. 기나긴 오르막 끝을 넘어서자 저 멀리 C3가 보인다. 텐트가 보이자 새로운 힘이 생긴다. ‘다 참자. 내일을 위해.’ 저녁을 먹고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장애물이 보인다는 것은 목표에서 눈을 돌렸다는 뜻이다.’ C3에서 정상공격까지 BC까지 내려오면서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 간간이 읽었던 책 속에 나오는 구절인데 등반기간 내내 나의 뇌리에 강한 인상을 새긴 구절이다. 등반을 하면서 고소를 느낄 때마다 몸이 피곤하고 지칠 때마다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상기했다.

9월 21일(일) 새벽 2시. 어제 저녁에 자면서 새벽 2시에 일어나기 위해서 마음속에 꼭 새기고 잤는데 그 영험인지 새벽 2시에 저절로 눈이 떠졌다. 어제 C3올라올 때보다 컨디션이 더 좋다. 고소 증세도 없고 머리도 가볍다. 어제 수통에 담아 놓았던 물에 비스킷으로 간단하게 배를 채운다. 많이 먹어서 배를 채우려고 했으나 생각보다 먹히질 않는다. 태산같은 무거운 바람이 텐트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는다. 장비를 챙기고 이중화를 신고 아이젠을 차느라고 가빠진 숨을 진정시키느라 잠시 앉아 있었다. 따뜻한 아랫복과도 같은 텐트를 뒤로 하고 최종 목표인 정상을 향해 발을 옮겼다. 어제 등반대장인 은호형이 새벽에 같이 출발하자고 했으나 등반속도에 있어서 타 대원과 차이가 났기 때문에 내가 먼저 출발하는게 나을 것 같아 먼저 출발하겠다고 했다.

나의 판단이 틀렸음을 깨닫기까지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다. 무릎까지 빠지는 눈을 러셀해 간지 1시간. 순가락과 발가락이 얼기 시작하더니 점점 감각이 없어진다. 날카로운 바람마저 사정을 봐주지 않는다. 원정 오기 전에는 원정 갔다와서 동상으로 인해 신체의 일부분을 잘라내야만 했던 이들을 이해할 수가 없었다. 자주 씻고 말리고 갈아신으면 될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었는데 막상 겪어보니 그게 아니었다. 푹푹 빠지는 눈과 강한 눈 바람으로 인해 나의 발가락 10개는 이미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다. 아직 가야할 길은 멀었는데…

주위의 눈을 쓸어내고 잠시 그대로 주저앉아 있었다. 바람이 봄시 강하게 불어왔기 때문에 바람을 등지고 앉았다. 손가락과 발가락을 쉬지 않고 꼼지락거렸다. 저 멀리 정상이 보인다. 몇 시간만 고생하면 될 것 같았다. 욕심같아서는 계속 올라가고 싶었다. 하지만 계속 올라갈 경우 나의 발가락 10개는 동상과 함께 절단하게 될 것이다. 마음 속에서는 계속해서 갈등을 겪었다. 정말이지 이대로는 죽어도 내려가기 싫었다.

그러나 결국 정상을 뒤로한 채 발걸음을 돌려야만 했다. 텐트로 돌아와서 장비를 벗으려고 했으나 손가락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는다. 판누르(셀파)가 일어나더니 나의 스페츠와 아이젠을 벗겨준다. 들어가자마자 가스버너에 불부터 켜고 얼었던 손과 발을 녹였다. 텐트안이 그렇게 포근하고 따뜻할 수가 없었다.

04:30 다른 대원들이 일어나서 아침을 먹고 출발했다. 그때까지 나는 몸이 얼어서 나갈 염두를 내지 못했다. 내가 판단을 잘못한 것 같았다. 다른 대원들과 같이 출발했어야 하는건데. 그로부터 3시간 뒤인 8시에 뒤늦게 나도 출발했다. 가는 도중 정상등정하고 하산하는 현주형을 만나고 게임 끝났단 걸 알았다. 역시 현주형이다. 불편한 다리로 정상까지 가다니. 그 누구도 예상치 못했던 일이다. 현주형은 등반기간 내내 특유의 입담과 리드로 대원들에게 큰 힘이 되어주셨다. 존경하는 현주형이 등정을 하게 되어 나 역시 무척 기쁘다. 처음이었던 해외원정, 내 자신에게 참으로 많은 것을 느끼게 해 주었다. 이제는 추억속의 한 부분이 되었지만 평생 잊지 못할 것이다. 끝으로 같이 울고, 웃고, 부대쳤던 대장님 이하 대원들께 깊이 감사드린다.

9월 21일(일) C3-정상공격.

등정기 04시 40분 출발, 12시 30분 서미트, 15시 30분 C3 귀환

고도 7,400미터의 C3. 영하 20도 침낭 하나에 3명의 대원이 옹크리고 있는 3인용텐트, 신발, 배낭, 식량 등이 여기저기 뒤죽박죽인 채로 널려 있다. 밤새 호흡곤란증으로 뒤척이다 새벽 2시께 정일이가 먼저 출발하는 소리에 눈을 뜬다.

바람이 텐트문을 강하게 때린다. 별이 총총하던 밤하늘이 새까맣다. 달빛도 희미하다. 옆 텐트에서 역시 침낭 하나로 뒤척이던 성석과 판누루 셀파가 스프를 끓인다. 베녀를 켜고 신발을 말린다. 침낭에 서리가 얼어붙어 텐트안은 냉기뿐이다. 오버슈즈 대신 스페츠를 찬 발이 마음에 걸린다. 모 양말을 몇 번 갈아신으며 무엇을 신을까 고민하다 결국 두터운 것으로 고른다.

온호형은 발이 두툼해 남들보다 발가락 동상이 고민이다. 양말을 껴신으면 신발이 들어가지

않아 얇게 신어야 하는 고충이 있다. 행준형은 교통사고로 다쳤던 무릎을 또다시 빼어 고통스럽게 운행한다.

정일이 2시간 후에 되돌아와 도저히 손발이 얼어서 갈 수가 없다고 한다. 그의 목소리가 바람에 갈기갈기 찢겨 쇳소리가 난다. 새벽녘이 될수록 바람의 강도는 더욱 세져 벼너심지가 춤을 춘다. 지난밤 고소증세로 한숨도 못자고 깜짝깜짝 놀라 기슴을 쥐어뜯으며 시달렸으나 용기를 낸다. 폭풍 속이라도 두렵지 않다고 몇 번을 되뇌이니 의지가 살아난다.

스폰지로 보온된 날진 통에는 조선대 김경자 누나가 준 매실차를 탄다. 정상공격을 위해 그동안 아껴두고 C3까지 가져왔다. 계란 2개와 감자 1, 미니쉘 초콜릿 3개가 배낭 속에 든 식량의 전부다. 그동안 효과를 본 사과는 얼어붙어 못쓰게 됐다. 카메라와 짓발을 담는다. 짓발 하나를 담을 때마다 그들의 염원이 묻어나는 것 같다. 텐트안이 훈훈해짐은 우리의 성공을 기원하고 있을 그들의 열망이 전해졌기 때문이리라. 성공하겠지. 그리고 무사하겠지.

새벽 4시 30분 온몸으로 바람을 맞으며 텐트문을 나선다. 천 하나를 사이에 두고 생과 사의 갈림길이라도 되듯 야차같은 바람이 금세 몸을 싸늘하게 만든다. 다시 돌아오겠지 하며 어둠 속에 잠긴 텐트를 돌아본다. 정일만 남겨두고 은호, 행준, 성석과 함께 정상 길에 오른다.

셀파 2명이 앞서 길을 러셀한다. 새까만 설원에 일렁이는 랜턴 빛 6개. 이태리대원 한 명이 우리 뒤를 따른다. 눈보라가 방향 구분없이 사방에서 길길이 날뛴다. 랜턴 불빛마저 희미한 정도다.

초반부터 길이 보이지 않는다. 아직 설원으로 접어드는 비상구인 록밴드도 찾지 못했는데 날씨가 의지를 시험한다. 등반을 포기해야 하는 날씨인데 하며 은호형을 돌아본다. 바람 때문에 의사소통하는 것은 포기한다.

긴장한 탓일까. 갑자기 큰일을 치른다. 눈구덩이를 파 바람막이를 한 뒤 우모복 지퍼를 열어 엉덩이를 들이밀고 앉는다. 엉덩이에 싸늘한 눈덩이가 부딪히지만 기분은 시원하다. 궤변은 좋은 징조다. 어둠 때문인지 두려움이 없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면서 앞사람 발자국만 밟는 심정. 갈 때까지 가 보자. 록밴드 밑에서 랜턴이 춤을 춘다. 길을 찾는 것이다. 매서운 바람이 귀를 감싼 우모복 모자를 때릴 때마다 큰소리가 나 눈사태가 아닌가 흄칫 흄칫 놀란다.

록밴드에 설치된 픽스로프를 발견하고 주저없이 오른다. 아뿔사. 쉽다는 말만 듣고 안전벨트와 쥬마를 C3에 남겨두고 왔는데 록밴드등반이 장난이 아니다.

중간에는 암벽까지 돌출돼있어 픽스로프를 잡고 기를 쓰고 오른다. 약 50미터의 록밴드를

올라서니 온몸에 힘이 빠진다. 아래서는 성석이가 등반완료여부를 묻는 다급한 외침이 메아리친다.

추위 속에 움직이지 않고 대기한다는 것은 큰 고통이다. 뒤이어 올라온 성석의 헐떡거림. 세상의 모든 산소를 다 마셔도 부족할 것이다. 이제갓 대학교 3학년인 그가 처음 대하는 히말라야를 어떻게 생각할지, 무슨 기분으로 지금 이 길을 오르고 있는지. 단지 묵묵히 제 할 일을 하며 따라다니는 모습이 대견하기만 하다.

앞서가던 판누루 셀파가 길을 찾느라 허둥댄다. 지난 19일 박영석팀이 처음으로 등정한 뒤 20일 프랑스팀이 같은 루트로 정상에 올랐으나 눈보라에 길 흔적이 모두 사라져 버렸다. 거의 70~80도에 이르는 절벽. 허리까지 빠지는 눈을 다시 뚫고 러셀한다.

셀파들이 앞서갔지만 이미 그들의 발자국도 금세 잡기고 말았다. 잡석지대에서 아이젠이 비끌려 머리가 쭈뼛하다. 아래를 보니 어둠속의 심연뿐이다. 굴러 떨어져도 상처는 없을 것이라는 말로 위안 삼는다.

죽음과 삶. 죽음은 등반기간 동안 늘 등반가와 함께 하는 동반자다. 그것이 친구로 함께 하기 때문에 외롭지 않은지도 모른다. 핏줄과 근육을 탱탱히 긴장시키는 그 위협 앞에 등반가는 새로운 도전 의욕을 느낀다. 발이 비글리거나 눈사태의 위험성이 있는 곳에서는 여지없이 아래가 빠진다.

생명에 대한 본능적 애착 때문인가. 떨어져도 눈이라 포근히 잡들겠지 하는 상시적인 위안보다 더 큰 위안이 있다. 죽음을 공유하는 이들이다. 어찌 보면 나만 죽나 같이 죽지라는 식의 패배주의가 되겠지만 등반기간 내내 외로움을 지탱시켜주는 큰 요소의 하나다. 이상한 사실은 좀체 그리운 이들은 떠오르지 않는다는 것이다.

다행히 랜턴빛은 1백미터 이상을 비추지 못해 고도감을 느끼지 않는다. 록밴드 위 설사면을 헐떡거리며 기어오르다 잠시 숨을 돌린다. 뒤편으로 초오유 원편에서 뻗친 빛의 갈래가 지상에 밝은 기운을 드러낸다.

태양의 용틀임이 시작되는가. 여명이 꽁무니를 쫓아온다. 아름답다. 아직은 붉은 빛보다 푸른빛이 강하다. 화살처럼 강렬한 빛살이 티벳 고원을 적시고 있다. 성석이와 함께 싸늘하게 식어버린 매실차를 마신다. 먹히지 않는 초콜릿 1개를 얹지로 입에 쑤셔 넣는다. 우모복 앞섶과 코는 고드름이 얼었다. 추위의 강도를 짐작케한다.

다섯 걸음을 걷지 못하고 헐떡거린다. 이젠 10분 간격으로 구역질을 해댄다. 숨을 헐떡거리

고 기침을 하다보면 마지막에 헛구역질을 해야만 호흡을 고를 수 있다.

오른쪽 엄지발가락이 이상하다. 감각이 무뎌지고 있다. 동상 징조다. 부지런히 발가락을 꼼지락거린다. 오버슈즈를 신지 않고 스파츠만 착용한게 화근이다.

고도 7,800미터. 어둠은 사라지고 여명이 산을 비추지만 머리에 착용한 팬던을 벗지 못한다. 고소에서 몸 하나 움직이기가 얼마나 어려운지를 실감한다. 배낭 속에 담는 것이 귀찮아 결국 정상까지 착용한 채로 운행했다. 뒤따르는 성석을 볼 때마다 머리를 설사면에 치박고 있다. 그때마다 지상의 모든 산소를 다 마실 것처럼 거친 호흡을 몰아쉰다.

정상 설릉으로 향하는 콧잔등에 올라선다. 경사 60도의 설사면. 셀파들과 멀어지면 러셀자국이 지워지기 때문에 간격을 유지하려고 애쓰지만 성석이가 자꾸 뒤쳐져 힘들어 한다. 왼쪽발 가락마저 동상 기운이다. 모 장갑에 우모 병어리장갑 등 3겹으로 감싼 손도 시려워 번갈아가며 우모복 가슴 주머니에 넣기를 반복한다.

갑자기 두려움이 엄습한다. 벌써 6시간 이상 눈 속에 치박한 발이 이젠 아무리 꼼지락거려도 느낌이 없기 때문이다. 병원 간판이 눈에 들어오고 쇠톱, 불구자라는 단어가 빠르게 오버랩된다. 포기하고 내려갈까 망설인다.

성석이는… 전날 C3운행도중 ‘형, 꼭 저 정상까지 데려가야 해요’라고 절박하게 속삭이던 그의 말이 쇠망치로 가슴에 와닿는다. 그래 가자. 어차피 나도 이 원정에 모든 것을 걸지 않았는가. 휴식에다 병신이 산에 간다는 소리까지 들으면서 감행한 원정인데 만약 실패라도 한다면 나의 짚음은 송두리째 고갈당하는데. 운명처럼 발걸음을 편다.

성석이 더 힘들어하며 뒤쳐진다. 은호형과 행준형은 더 아래쪽이라 신경 쓸 겨를이 없다.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그들은 러셀자국이 지워져 앞서가던 셀파들을 계속 무전으로 찾았지만 교신이 안됐다는 것이다. 1명의 셀파는 내려 보냈어야 했는데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지 못했다.

콧잔등에 이르니 원편으로 가파른 설릉이 계속 이어진다. 바람의 세기가 더욱 심해진다. 이젠 방금 지나간 발자국도 금세 지워진다. 산에서 발자국의 의미는 많은 것을 내포하고 있다. 생존과 현실을 의식케 한다. 발자국이 있고 없고에 따라 등반가가 느끼는 공포는 큰 차이다. 때문에 화이트아웃 현상이 발생할 때 발자국은 생명선이나 마찬가지다. 누군가 지나갔으니 나 또한 지나갈 수 있다는 안전의 표시다.

앞서가던 셀파의 발자국이 무거워진다. 갑자기 다시 커다란 쇠톱이 눈에 들어온다. 병원 영안실에서 부검할 때 보았던 전기 드릴의 모습도. 이를 눈치챘는지 바람은 몸뚱아리를 송두리째

유린한다. 곧 비출 것만 같던 태양은 산아랫녘에 머물러 있어 온기를 느낄 수 없다. 딱딱한 빙
벽이 아이젠에 부딪친다. 계속해서 눈속에 치박혀 있던 발을 공기중에 노출시킬 수 있어 위안
을 삼아본다.

한치앞을 못내다볼 정도의 눈보라가 휘몰아치는 가운데 앞서가던 락파 셀파의 등불기에 광
채가 휘날린다. 설연 속에서 빛나는 광채의 찬란함. 처음으로 맞이하는 태양이다. 일출이 시작
되었다. 나는 히말라야 초오유 정상에서 온몸으로 일출을 맞이한다. 무지개를 찾아나선 소년처
럼 태양이 나를 비추는 것이 아닌, 만년설 너머 존재하고 있는 태양을 찾아낸 것이다. 고글을
썼지만 정면으로 태양을 쳐다볼 수 없다. 설릉에 올라서며 온몸을 서서히 태양에 내던진다. 아
정상으로 접어드는구나. 락파의 긴 그림자가 시야를 가린다. 흡사 시뻘건 짐을 매고가는 설인
같다. 태양은 정말 거대했다. 히말라야에서 맞이하는 일출답게 웅장했다. 동상의 두려움도 잊
을 수 있다. 지구상의 모든 산소를 촉매로 삼았는지 용광로처럼 시뻘겋다.

호흡은 더욱 가빠져 이제 한 발자국 옮길 때마다 기침과 헛구역질이다. 온몸의 기관 기는 다
빠져버리고 내장마저 쓸어버리지 않을까 두려울 정도다. 중력의 돌덩이를 떨친다는 것. 8,000미
터의 그 생과 사의 갈림길에서 한없는 오름짓을 계속한다는 것. 그 거친 숨소리만큼이나 절박
하고 처절한 삶의 몸부림이 있을까. 단언컨대 결코 없다. 그 숨소리에는 젖먹던 시절부터 현재
까지의 모든 에네르기와 철학과 애착이 담겨있다. 거친 숨소리를 멈춘다는 것은 좌절을 의미한
다. 그것은 곧 생의 종말. 태양의 시뻘건 광채 속에서 그 이글거림만큼 더욱더 거친 호흡을 토
해낸다.

아 정상인가. 잠시 정상등정의 착각에 빠진다. 그러나 원편으로 한라산 백록담같은 봉우리가
눈높이에 자리하고 있다. 저기를 올라가야한단 말인가. 도저히 엄두가 안나 그만 주저앉고 만
다. 그제서야 정상설릉에서 1~2시간을 더 가야한다는 말이 생각난다.

락파셀파는 주저앉고 더 이상 못오르겠다며 두통을 호소한다. 그를 달랠 기력조차 없다. 가
자는 시늉에 계속 고개를 젓다 결국 하산하고 만다. 판누루 셀파는 실루엣처럼 빛살너머로 사
라진지 오래다. 그만 주저앉고 싶다. 온몸에서 핏기가 빠져나간다. 현기증이 인다. 뒤를 돌아보
니 성석이 일출 속으로 들어온다. 정상까지 동행하자던 그의 말이 다시 쇠망치로 정강이를 두
들긴다. 그래 여기서 물러서면 나의 짊음도 무너진다. 스키스톡의 고삐를 바짝 쥔다. 봉우리와
구릉사이로 무기력한 발길을 돌린다.

원편으로 완만하게 설면이 이어진다. 1시간여 뒤 다시 오른편으로 더 높아보이는 언덕이다.

티벳사이드의 전망이 훌륭하다. 뒤따라던 이태리인은 그곳에서 정상등정기념사진을 촬영하고 하산길에 오른다. 고만고만한 높이에 초모랑마쪽은 온통 구름에 휩싸여 있다. 앞서가는 판누루 셀파를 부른다. 아무데서나 정상등정사진을 찍고 하산하고 싶은 마음뿐이다. 성석도 더 이상 운행하지 못하고 주저앉았다. 탈진으로 잔뜩 웅크린 모습이다. 한 발자국을 더 빼는 것이 꼭 죽음속으로 빨려들어가는 것 같다. 죽음을 의식한다는 것은 힘이 남아있다는 증거다.

갑자기 판누루의 모습이 시야에서 사라진다. 꽃종이가 초오유정상에 휘날린다. 세 차례에 걸쳐 하얀 설원에 흩뿌려지는 꽃종이. 판누루가 정상 등정의식을 치르고 있는 것이다. 끊다르다. 마지막 힘을 내 능선에 올라선다. 더 이상 오를 곳이 없다. 주변이 온통 눈아래다. 판누루가 초모랑마가 있는 곳을 손짓한다. 하지만 온통 구름뿐이다. 티벳쪽으로 열린 하늘틈을 배경으로 자리를 잡는다. 판누르는 어디서 주워왔는지 스키스톡 한 자루를 자랑스럽게 흔들며 여신의 선물이라고 한다. 지난 19일 등정했다는 박영석팀의 것이다.

성석은 오른손에 심각한 동상을 입고 있었다. 그때까지 아무말도 않고 있었다. 전남대, 산악회기, 태극기, 진홍건설, 연맹기를 차례로 찍게 한다. 다행히 열린 하늘 틈으로 시샤팡마의 위용이 보인다. 해가 머리꼭대기에 있지만 장갑을 벗을 수 없다. 바람이 더욱 길길이 날뛴다. 이젠 됐으니 어서 내려가라는 듯이. 그만큼 허락했으면 됐지 더 이상 여신의 신성을 빼앗길 수 없다는 듯이 바람이 밀쳐낸다.

이번에는 내가 기를 듣다. 털모자로 감싼 카메라를 성석에게 건넨다. 그의 사진찍는 품이 엉성하다. 셔터를 제대로 누르지 못해 여러번 손동작이 이어진다. 불과 1분 사이도 되지 않았는데 온통 가스에 휩싸여 아무것도 보이지 않게 돼 버렸다. 마지막으로 우모복 앞가슴에 갈무리한 사기를 꺼내 찍는다. 그리고 성석과 함께 기를 들고 찍는다. 판누르도 태극기를 들고 찍어 주었다. 이젠 더 이상 머무를 수가 없다. 그 많은 깃발들이 갖는 사연은 제각각일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따뜻한 사진 한 장을 보면서 혹독한 이 순간을 느낄 수가 있을까. 단지 따뜻한 느낌이겠지. 아이러니다.

무전을 날린다. ABC와 C1은 응답이 없고 BC와 연결된다.

난데없이 임상해통역관의 목소리다. 그가 먼저 흥분해 축하를 전한다. 제3자의 관여. 여지껏 나 자신과의 싸움과 도전, 운명이었는데 최초로 3자가 관여한다. 이상하게 울컥한 것이 치밀어 오른다. 역시 혼자서 독불장군일 수는 없는 것인가.

오후 1시에 하산을 시작한다. 이젠 한치앞을 분간하지 못할 정도로 눈앞이 가스에 휩싸였다.

저앞에 도망치듯 내려가는 이태리인이 길 안내인이 돼버렸다. 판누르도 힘드는지 몇걸음 걷지 못하고 고개를 땅에 치박는다. “앞사람 발자국을 절대 놓치지 말아라.” 성석에게 주의를 시킨다. 발자국을 잊으면 끝장이다. 사방을 분간하지 못하는 상황에서 발자국은 이정표와 생명선이다. 기력이 다했는지 자꾸만 발을 헛디뎌 넘어지기 일쑤다.

한참 뒤에 정상설릉에 접어들고 있는 은호형과 행준형을 만난다. 러셀 때문에 이만저만 고생을 한게 아니다. ABC의 대장님과 교신중이다.

그때까지 계속 정상공격조를 관측하던 대장님은 공격조가 설릉에서 사라진지 2시간이 지나도록 연락이 없자 애간장을 태우셨던 모양이다. 원정대장을 맡아 흰머리가 잔뜩 늘더니 공격조가 정상을 등반하는 내내 몇 년은 더 늙어버리신 모양이다. 더구나 눈보라와 구름으로 시야까지 가렸으니. 등반내내 대원들을 친형처럼 아버지처럼 보살피시며 안전한 정상등정을 위해 애간장을 태우셨다. 다시는 원정대장을 맡지 않겠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지만 정말 존경스러운 분이다.

행준형과 은호형은 더 등반하고 싶어했으나 날씨가 워낙 협한데다 시간도 이미 2시에 접어들고 있어 불가능하다. 더구나 새로이 길을 낸만한 힘조차 없다. 짙은 설원 속에서 무사히 C3 까지 내려가는 것도 힘든 상황이다. 행준형과 은호형도 정상등정을 도전해 보고 싶었으나 후배들에게 모든 영광을 양보하고 하산결정을 내린다. 대학산악부 단일팀특유의 미덕이다.

전진캠프의 대장님께 더 이상 등반은 불가하며 귀환하겠다고 보고하고 하산한다. 그토록 아수라처럼 오르던 오르막길을 단숨에 내지른다. 8,000미터를 내려서 콧잔등 부위에 접어들자 잠깐 시야가 트인다. 안심이다. 깎아지른 설벽을 내려서 바위지대에 들어서 한숨을 돌린다. 살았다는 안심에 마음이 놓였던지 다리가 풀린다. 판누르가 배낭을 대신 짊어진다. 성석과 형들은 글리세딩이다. 미끄러져도 당장에 이 피로만 헤어나면 된다는 표정이다. 눈사태의 위험이 있어 글리세딩을 금지시킨다. 졸음이 쏟아진다. 깜박 잠들었다가 깜짝 놀란다. 몸을 잠깐 균형을 잊기만 해도 천길아래로 추락인데 롤밴드위에서 정일을 만난다. 미안하다. 꼭 그도 정상에 데리고 가겠다고 약속했는데. 함께 하산한다.

C3에 돌아오는 길이 그토록 멀 수가 없었다. 힘을 소진했다. C3에 도착. 셀파들이 주는 따뜻한 물 한잔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엉망이다. 셀파들은 C2까지 하산하고 우리는 C3에 머물기로 한다. C2까지 가야하는데 한 발짝도 뗄 수가 없다. 그보다 살아있다는, 해냈다는 안식을 느끼고 싶었기 때문일 것이다.

또다시 혹한 속에서 침낭 하나로 3명이 불면의 밤을 보내야 하는 고통이 뒤따르거늘 순간의 안락이 좋았다. 잠속으로 빠져들고 싶으나 그럴 수도 없다. 이젠 이곳 식량도 바닥인 상태다. 있다 해도 먹지도 못하겠지만, 재빨리 신발을 벗고 주무른다. 다행히 심하지 않다. 뒤따라 대원들도 하나둘 텐트속으로 기어들어온다. 여전히 날씨는 개판이다.

배낭과 신발을 아무 곳에나 밀쳐놓고 휴식에 빠진다. 고도 7,400미터도 안식처로 느껴지다니. 당초 정상등정후 C2나 C1까지 하산할 계획이었으나 탈진해 대장님께 C3에서 자고 가겠다고 말한다. 무릎수술 후유증으로 하산때는 거의 기어서 내려왔다.

마지막 스프를 마신 후 성석이 부른다. 손을 내민다. 오른쪽 중지 2~3마디가 동상에 걸렸다. 장갑이 문제였다. 모 장갑이나 우모 장갑을 끼었어야 하는데 오지장갑을 두 개 끼어 등반기간 내내 손이 시렸다고 한다. 미지근한 물에 찜질을 하도록 한다. 은호형도 원손가락 2개가 동상으로 시커멓다. 행준형은 발가락. 등반후의 처절함 투성이다.

저마다 말을 잃었다. 무의식적으로 물을 끓이고 벼너에 손을 찌고 침낭속으로 몸을 밀어넣을 뿐이다. 말없는 C3에 바람만이 시간의 흐름과 생존사실을 느끼게 해준다. ABC와의 저녁 교신이 유일하게 정적을 깐다. 生의 세계를 이어주는 물건이 전파라니. 단지 그것에 위안을 받다니. 행준형은 밤새도록 신음을 토한다. 나는 두통 때문에 1분간격으로 머리를 쳐들고 일어서 호흡을 고른다. 아스피린 1알을 먹고 우모복을 벗어버린 다음에야 새벽녘에 잠이 듈다. 폭풍은 여전히 기승을 부린다.

9월22 일(월)

햇살이 C3를 비추지만 모두들 몸을 꼼지락거리지 않는다. 동면하고 있는 짐승들처럼 의식적으로 아침이 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눈을 뜨면 성애가 잔뜩 낀 침낭으로 고개를 내밀어야 하고 한 바가지나 되는 눈을 뒤집어써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ABC까지 하산해야하기 때문에 또다시 무감각적인 동작을 반복한다.

몸을 웅크리고 벼너를 켠다. 텐트에서 서리가 떨어진다. 아무렇게나 팽개친 신발을 말리고 언 몸을 말린다. 텐트 2동을 철수해야 하는데 바람이 너무 세서 텐트 안에서 벨트를 착용하고 신발을 신고 배낭까지 맨다. 밖으로 나왔지만 도저히 텐트를 철수할 엄두가 나지 않는다. 어서 빨리 고도를 낮춰 추위와 바람에서 벗어나고 싶다. 그냥 두고 가자는 의견도 나왔으나 7,400미터에서 이를밤을 보냈으니.

꽁꽁 얼어붙은 텐트고정로프를 칼로 자르고 플라이를 언 채로 배낭 속에 집어넣는다. 얼음까지. 텐트 폴이 얼어붙어 분리가 되지 않아 그대로 배낭에 매단다. 순간적으로 손이 얼어붙어 재빨리 텐트속으로 들어가 가슴속에 넣고 주무른 뒤 모 장갑을 낀다. 동상은 순간이다. 93년에는 인도대원 3명이 C4를 설치하다 단체로 동상이 걸린 적도 있다.

도망치듯 C3를 탈출했다. 500미터의 설벽에서 달음질치듯 내려왔다. 나머지 대원들은 글리세딩이다. 정일이가 상태가 좋지 않은지 한참을 뒤쳐진다. C2도 바람이 잦지 않았다. 셀파들이 우리 텐트를 철수하고 장비를 성대 에코로바 텐트에 데포해 놨다. 그 곳에 들어가 바람을 피한다. 재빨리 버너를 피우고 발가락을 말린다. 동상 때문이다. 차례로 대원들이 눈을 한 움큼씩 안고서 텐트 안으로 밀쳐 들어온다. 휴식이다. 모두들 밖으로 나가고 싶지 않은지 발길을 빼지 않는다. 몸 안의 기력이란 기력은 모조리 빠져 나가버린 듯한, 흡사 연체동물을 연상케 한다.

비로소 간식을 꺼내 먹는다. 간식이라야 사과 한 조각씩과 사탕이 고작이다. 극심한 피로로 먹는 것조차도 귀찮을 지경이다. 그냥 이대로 실컷, 원없이 자고 싶은 생각뿐이다. 한참을 쉰 후 다시 C1으로 하산하기 시작한다. 이제 내려가면 다시는 이 길을 오를 수 없다는 감상적인 생각이 들기도 했으나 어서 빨리 하산해서 쉬고 싶다는 욕망이 우리의 의식을 지배하고 있다. 경사진 곳에서는 주저앉아서 글리세딩도 해보지만 눈이 뭉쳐지는 바람에 글리세딩조차 뜻대로 되지 않는다. 하산 길에 실족사하기 쉽다는 형들의 말이 이제야 실감이 난다. C1에 도착했을 때 모두들 여기서 자고 내일 하산했으면 하는 눈빛들이다. 400미터만 내려가면 따뜻한 물과 음식을 가지고 온 장희형과 현준이를 만날 수 있지만 대장님께 여기서 자고 내일 하산하겠노라고 연락한 뒤 모두 끓어 떨어진다.

**제6절. 전남대학교 개교 55년 및 총동창회 창립 50주년 기념
'2006 전남대학교 초모랑마(에베레스트) 원정대**

1) 대상산

중국 티벳자치령내 초모랑마(에베레스트) (8,850m)

2) 등반루트

북릉-북동릉

3) 등반방식

극지법 알파인스타일

4) 기간

2006년 3월25일-5월 29일(67일간)

5) 후원

전남대학교, 전남대학교 총동창회, (주)영원무역, 스포츠토토

6) 대원

단장 이계윤, 원정대장 백두인, 원정부대장 김영필, 등반대장 이현조, 행정.의료 윤현식, 장비 이형관, 기록촬영 김가영, 수송 김현준, 식량 김용욱

7) 결과

2006년 5월 16일 11시 30분 이현조 이형관 정상등정

8) 정상등반기 (5월 15일-17일)

2006. 05. 15.

밤새 물었던 산소를 내려놓고 물과 간단한 식사를 마친 후 다시 산소통을 메고 C3로 출발했다. 출발시간은 9시였다. 산소를 마시며 등반을 시작하니 약간 무겁긴 하지만 호흡이 편하다. 힘도 덜 드는 것 같다. 5시간 만에 C3에 도착. 물을 만들고 간단히 알파미와 라면으로 요리를 하고 22시까지 취침하기로 했다. 자정에 출발하기로 결정하고 서둘러 잤다.

2006. 05. 16

22시에 정확히 일어나 준비를 마치고 정상공격에 나섰다. 제주3, 설암1, 전남3, 셀파8명이 준비되는 대로 순서와 상관없이 바로 출발했다. 나는 폐메와 짹을 이루고 등반을 하기로 했다. 산소 게이지를 3으로 맞추고 출발하는데 기상정보와는 달리 눈보라가 불었다. 다행히 심하지는 않았지만 정상공격 날씨로 괜찮은가 의심이 살짝 들기는 했다. 그러나 눈보라에 비해 기온은 꽤 높은 편이었다. 초모랑마 능선에 불기까지는 3시간이 소요됐다. 한참을 올라가는데 현식이 얼굴이 하얗다. 눈보라가 약간 습설이어서 안경에 달라붙는 것이다. 고글을 쓰면 어두워서 순간하기가 힘들고 안경을 벗으면 30cm가 한계라니... 난감한 일이었다. B.C에서의 무전은 30분만 기다리면 눈보라가 걷힌다는데 그럴 기미는 보이지 않았다. 어쩔 수 없이 따시락파에게 현식이를 맡기고 눈보라가 잦아들면 쫓아오라고 했다. 그때의 그 착잡함이란... 날씨가 좋아지면 따라오라고 말은 했지만 가능할까? 그 동안 같이 운동하고 준비하며 고생했던 순간들이 떠올랐다. 미안하고 안쓰러웠지만 앞으로 나아갔다. 주 능선에 올라서니 현조형이 보였다. 장갑 색이 이상하다. 왼손은 뺨강, 오른손은 검정, 올라오다가 미튼 한쪽이 날아갔단다. 한쪽의 미튼을 나눠서 끼고 있었다. 나도 여벌이 없는데... 동상에 걸릴텐데... 어떻게 도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 현조형마저 내려가면 어떡하나? 형은 손가락을 움켜쥐고 천천히 올라왔다.

제주, 설암, 부산, 대전, 전남 이렇게 5개 팀 대원에 셀파들까지 너무 수가 많다. 퍼스트, 세컨드스텝을 오르는데 대기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린다. 세컨드스텝 올라서기 전에 산소통을 하나 교체했다. 대부분의 대원들이 여기서 교체를 했다. 날은 서서히 밝아오고 있었다. 세컨드스텝 앞에 가니 외국대원 2명이 스키를 매달고 오르고 있었다. 앞서가는 한 명은 빠르게 올랐는데 그 다음 녀석이 기운 빠지게 했다. 주마질도 서툴고 힘도 없어서 끌어당기지도 못하고 옆의 로프나 바위를 이용할 줄도 모른다. 보다 못한 제주셀파 하나가 올라가 도와주지만 제 몸도 제대로 못 가눈다. 보고 있으면 욕밖에 안나왔다. 1시간 40분을 기다려서야 내 차례가 되었고 올라갈 수 있었다. 날은 이미 밝아 버렸다. 눈보라는 그쳤으나 새벽녘이라 더 추웠다. 기다리면서

계속 손발을 꿈틀거렸다. 써드스텝을 넘어서고 정상 바로 밑의 설벽을 힘겹게 오르고 나서야 멀리서 먼저 오른 제주팀 형들이 보였다. 형들이 손을 흔들어 주는데 자꾸 눈물이 맺혔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무언가가 자꾸 눈물을 만들었다. 정상에 서서 주위를 둘러보는데 남동릉과 주변 경관이 장관을 이루고 있었다. 날은 어찌도 그렇게 맑고 깨끗한지 주위가 또렷하게 다 보였다. 잠시 후 현조형이 텔렌이랑 올라오고 우리는 기쁨의 포옹을 나눴다. 서로 마주 보고 또 다시 눈물을 글썽였다. 두인형과 무전을 교환하고 기념촬영 후 우리는 무사히 하산을 했다.

2006. 05. 17.

7700m C2에 도착했다. 잠시 눈을 붙인다는 것이 2시간을 자버렸다. 그사이 제주 경만형과 대량형, 상수형이 왔고 조금 후 현조형이 도착했다. 모두들 피곤해 보였다.

이제 이 높이에서는 고소적응이 됐을 거라 생각했는데 답답했다. 누우면 다리가 육신거리고 잠도 오지 않았다. 물을 거의 먹지 못해서 갈증은 점점 심해져 왔다. 내려오면 고통은 더 이상 없을 거라 생각했으나 이보다 더한 고통은 없었다. 목은 타들어 갈 거 같고 누웠다 일어났다를 밤새 반복하고 있으니 머리는 깨질 듯이 아파왔다. 옆의 대량형도 잠 못자고 같이 일어나 있는 데 다른 형들은 곤히 잘 잔다. 경만형은 산소를 어디서 구했는지 마시면서 자고 있었다. 상수형 수통의 물이 조금 남아있었는데 땅땡 얼었다. 갈증을 해소할 방법은 이것 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품고 녹였다. 몇 분이 지나야 한두 방울이 떨어졌다. 미칠 것 같았다. 옆에 현조형이 물을 줬다. 내가 텐트에서 졸고 있는 사이 경만형과 물을 만든 모양이었다. 별컥별컥 마시고 나서야 잠을 좀 잘 수 있었다. 그런 갈증과 고통은 지금까지 처음이었다.

7시경에 일어나 물을 만들고 준비가 되는대로 하산을 시작했다. 다리가 무거웠다. 다리의 앞 뒤가 전부 근육통이다. 하산하는 도중 현식이가 준 택사를 다리에 꽂았다. 효과가 있을까 했는데 2시간 정도 흐르니 근육통이 어느 정도 가라앉고 힘도 났다. 노스콜에 내려와 그 곳에 있던 과일 깽통 캠들을 모두 비우고 ABC로 하산 했다. 용육형과 현준이, 현식이가 나와 있었다. 그들을 보고 포옹을 하는데 또 눈물을 글썽거렸다. 그렇게 우리는 무사히 ABC에 도착할 수 있었고 고통을 잊을 수 있었다.

제7절. 전남대학교 산악회 창립 50주년 기념 '2008 한국 전남대학교 가셔브룸 I, II 원정대'

1) 대상산

대히말라야산맥 中 파키스탄 카라코람산맥 가셔브룸 I (8,068m), 가셔브룸 II (8,035m)

2) 등반루트

가셔브룸 I 북서릉, 가셔브룸 II 남릉

3) 기간

2008. 6. 10 – 8. 8 (60일)

4) 대원

단장 김재률, 부단장 이정옥, 원정대장 김영필, 등반대장 김미곤, 장비 이광복, 수송.포장
김가영, 행정.회계 손용주, 전기.통신 임성근, 식량 문석민, 의료 곽새미
동행대원 : 이형모(관동대OB) 강기석(안동대OB) 김영미(강릉대OB)

5) 결과

2008. 7. 19. 김미곤, 링마셀파 G I 6,900m(C3) 도달 후 강풍과 폭설로 후퇴

2008. 7. 28. 김가영, 이형모, 김영미, 팜바셀파 G II 7,600m 도달 후 강풍으로 후퇴

6) 등반기

원정 1일째 : 6월10일(화) 맑음

광주- 인천공항-방콕

아침 7시, 전 대원들 원정대 사무실에 집합 완료. 개인 짐과 공동장비가 든 25kg의 카고백들을 차에싣고 전남대학교 평생교육원 앞으로 이동하였다. 김재률 단장님과 이정옥 전남대OB산악회 회장님 등 많은 선후배님들의 환송을 받으며 전남대학교 버스에 올랐다. 이제 드디어 장도에 오른 것이다.

지난 2년여의 준비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간다. 많은 분들의 노고와 도움을 안고 출발한다. 버스에는 인천공항까지 배웅을 위해 김재률 단장님, 이정옥 OB회장(부단장)님, 백두인 OB 운영위원장님, 김용숙 OB총무님 등이 동승하였다.

인천공항에서 이형모, 강기석 형과 김영미 누나가 합류하였고, 버그하우스와 노스페이스 팀의 김한구 형도 배웅을 위해 나오셨고 우리 원정대의 국내 대행사를 맡은 카일라스투어의 전종열 팀장님이 오셔서 출국 수속을 도와주셨다.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버그하우스, 노스페이스 관계자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경남연맹(코오롱팀)의 김재수 대장님과 고미영 씨도 우리와 같은 편으로 출국하게 되어 동행하게 되었다.

서울 회원들을 대표하여 이 광호 서울지회 회장님과 김용석, 한규성, 유명희 선배님께서 공항까지 오셔서 잘 다녀오라고 격려해 주셨다.

환송객들을 뒤로 하고 오후 5시35분 대한항공편으로 방콕을 향해 출발하였다.

방콕 현지시간으로 21:10에 도착해서 약4시간 정도 공항 내에서 방황하며 시간을 보냈다.

원정 15일째 : 6월24일(화) 맑음

샤그린 – BC

약간의 고소 두통증세가 있는 대장님은 샤그린과 BC 사이에서 혼자 하룻밤 더 자고 다음날 올라오기로 하고 다른 대원들은 아침 일찍 출발하였다.

오전에 도착하여 포터들에게 임금을 지급하여 돌려보내고 적당한 장소를 ?아 BC설치를 시작하였다. 가장 먼저 식당텐트와 본부텐트를 설치하고 대원들이 잠잘 텐트와 화장실텐트를 설치하였다.

원정 16일째 : 6월25일(수) 맑음

BC 정비

대장님이 예정대로 오전에 BC에 도착하였고 식량과 장비를 점검하고 장비텐트 등을 설치하였다. 외국 원정대의 등반 상황에 대한 정보도 현지 스텝들을 활용하여 체크하였다.

총 5명의 대원으로 구성된 정승권 등산학교팀이 우리보다 약 일주일 정도 먼저 BC에 입성하여 C1까지 진출해 있었다.

원정 17일째 : 6월26일(목) 맑음

운행 : BC 정비

어제 못 다한 BC정비에 들어갔다. 무전기 안테나와 증폭기를 설치하고 본부텐트와 식당텐트에 등 작업을 했다. 다른 대원들은 식량텐트의 식량을 분류했다. 점심을 먹고 개인 장비들을 점검했다. 베이스가 정리가 되니 이제 진짜 등반 시작이다.

원정 18일째 : 6월27일(금) 눈

운행 : 대원 BC-5,400m-BC 고소적응

: 셀파 BC-C1-BC 짐수송

첫 운행을 나갔다. 김미곤 등반대장님을 중심으로 대원들 모두 아이스풀 1/5정도 정찰을 하고 돌아오니 2시간여가 흘렀다. 꾸물꾸물하던 날씨가 오후부터 눈이 오기 시작한다. 내일 운행이 걱정이다.

원정 19일째 : 6월 28일(토) 눈

운행 : 대원 BC-5,800m-BC 고소적응

: 셀파 BC-C1-BC 짐수송

C1으로 운행을 나갔다. 대원들 모두 약간의 고소증세가 있는 것 같다. 셀파들은 C1으로 짐을 수송했다. 어제 운행 때는 보이지 않던 G2를 처음으로 보았다. 정상 부근 선명한 피라미드. 가슴이 설렌다. C1 한 시간 거리를 남겨두고 BC로 철수하기로 했다. 철수하면서 김미곤 대장님 이 G2 등반루트를 알려주었다. 내려가는 도중 용주형이 빙하계곡에 빠졌다. 다치지 않아서 다행이지만 모두를 놀라게 한 아찔한 순간이였다.

원정 20일째 : 6월 29일(일) 눈

운행 : BC

진눈깨비 눈이 내린다. 솔라판 충전이 안 될까 싶어 쌓인 눈을 벌고 테스터기로 찍어 봤더니 조금씩 충전이 된다. 햇빛이 없어도 빛만 있으면 전기가 만들어 지나보다. 우리 쿡인 상계가 염소의 간과 내장을 삶아왔다. 대장님이 좋은 안주거리에 대원들 모두 진도 홍주 신활력사업소에 근무하시는 이종호 선생님이 지원해준 진도홍주를 마셨다. 감사함을 느끼며 맛있게 먹었다.

원정 21일째 : 6월 30일(월) 눈

운행 : BC

운행이 없는 날이다. 맘이 편하다.

형들은 어제 포카를 늦게까지 쳐서 피곤해 보인다. 빨리 돈을 입은 나는 좀더 잘 수 있었다.

포카 열풍은 한동안 계속 될 것 같다. 날씨가 추워진다.

원정 22일째 : 7월 1일(화) 눈

운행 : 셀파 BC-C1-BC 짐수송

BC텐트 주변으로 얼음을 깎고 돌을 날라서 작은 공터를 만들었다. 앞으로 여기서 새천년 건강 체조를 할 계획이란다. 점심을 먹고 BC주변에서 가져온 공동 깃발과 개인 깃발을 촬영했다.

촬영이 끝난 후 대원들 모두 모여 내일 운행에 대해 회의 했다. 이제 침낭이랑 개인 짐을 날라서 C1에서 자고 온다. 부담을 느낀다.

원정 23일째 : 7월 2일(수) 맑음

운행 : BC

새벽에 눈이 와서 운행이 취소되었다. 약간 허탈감이 든다. 그동안 밀린 빨래를 하고 텐트에 들어가 푹 쉬었다. 내일 운행이 기대가 된다.

원정 24일째 : 7월 3일(목) 맑음

운행 : 전 대원 C1진출, C1구축

C1으로 대원 모두가 운행을 나갔다. 모두들 긴장한 모습들이다. 크레바스의 위험 때문에 안자일렌을 하고 운행했다. 먼동이 트고 해가 뜨면서 점점 뜨거워지기 시작한다. 경험 없는 대원들은 더 힘들어한다. 역시 경험이 중요하다. 아이스풀을 지나고 설원 지대에 도착해서 한 시간 여를 가니 멀리서 C1이 보이기 시작한다. 안도감에 눈물이 날 것 같다. C1에 도착하니 머리가 아프다. 김영미 누나의 능숙한 텐트 생활 솜씨 덕에 많은 걸 배운다. 내일은 C2다.

원정 25일째 : 7월 4일(금) 맑음

운행 : C1-바나나릿지-C1-BC

머리가 아프다. 멀리서는 작게 보이던 산이 가까이서 보니 엄청난 크기로 다가온다. C1에서 나와 C2 올라가는 길을 보면서 가고 있는데 바나나릿지 부근에서 눈사태다. 바나나릿지에는 강기석형과 용주형이 올라가고 있었는데 눈들이 그 옆을 쓸려 내려간다. 다행히 아무도 다친 사람은 없었다. 다행스럽다. 바나나릿지를 넘어서니 오전이 다 지나갔다.

태양 때문에 날씨는 덥고 눈이 부셨다. 너무 많은 힘을 써버려서인지 머리는 더 아프기 시작했다. 석민이와 안부 근처에서 잠시 쉬기로 한계 한 시간 넘게 쉬어버렸다. 김미곤 등반대장님과 김영미 누나가 C2에서 실종 된지 알고 급히 내려왔다. 당장 C1으로 하산하라고 명령하신다. 많이 걱정 하신 듯 하다. 죄송스럽다. 결국 C1에서 강기석형 석민이랑 BC로 하산했다. 다른 대원들은 C2를 찍고 C1으로 하산하여 내일 C3로 올라간다.

원정 26일째 : 7월 5일(토) 맑음

운행 : C2 구축

본부텐트에 앉아서 무전기로 다른 대원들의 소식을 들으니 모두들 C3까지 올라갔다고 한다. 나는 여기서 뭐하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하며 나를 책망하며 하루를 보냈다. C3를 올라갔던 대원들은 C2로 내려왔다. 형들 볼 면목이 없다.

원정 27일째 : 7월 6일(일) 흐림

운행 : BC

모두들 BC로 무사히 내려왔다. 모두들 고생한 얼굴들이다. 내일 운행인데 이번에는 실수하지 말아야겠다.

원정28일째 : 7월7일(월) 흐린 후 비

운행 : BC-C1-바나나릿지 초입-C1

기석형, 형모형이랑 석민이랑 4명이서 C1으로 출발했다. C1에 도착하여 눈을 녹여 물을 만들고 점심을 먹고 휴식을 취한 후 C2로 출발했다. 바나나릿지 초입부근에 도착하자 오던 눈발이 굽어진다. 기석형과 형모형의 약간의 의견차이로 의견을 조율하고 있는데 BC에서 C1으로 내려가라는 무전이 왔다. 그래서 C1으로 내려왔다.

원정 29일째 : 7월 8일(화) 흐림

운행 : C1-C2

기석형이 30분정도 먼저 출발하고 형모형이랑 석민이랑 3명이서 텐트 뒷정리를 하고 C2로 출발했다. 고된 오름길을 계속하다보니 어느덧 바나나릿지를 넘을 수 있었다. 저번과 마찬가지로 어지럽고 힘이 없었다. 하지만 저번같이 사고치기는 싫었다. 결국 형들이 20분 거리라고 했지만 한 시간이 걸려서야 C2에 도착 할 수 있었다. 먼저 도착해서 나를 반겨주는 형들이 너무 고마웠다.

원정 30일째 : 7월 9일(수) 흐림

운행 : C2-C3-BC

C2에서 자고 일어나니 머리가 많이 아프다. C3로 출발하기 전 형모 형은 몸이 좋지 않아서 내려가고 기석형과 같이 C3로 출발했다. C3까지는 계속 경사진 오르막길이고 달리 쉴 곳도 없어서 천천히 계속 올랐다. 올라가면서 점점 고도감 있어지는 주변 경치에 높이 올라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다. C3에 겨우겨우 올라가니 기석형이 반겨준다. 내가 힘들어하자 C3에서 다른 팀 텐트에 20분정도를 누워있었다. 아직 C3에는 우리 텐트는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C3에서 서로 사진 한 장씩을 찍고 기석형과 BC까지 내려왔다. BC에 도착하니 안도감에 긴장이 풀려버렸다. 머리도 아프지 않고 편안함에 맘을 놓고 푹 잤다.

원정 31일째 : 7월 10일(목) 흐림

운행 : BC-C2

BC에서 나는 쉬고 다른 조가 운행을 나갔다. 등반대장님, 광복이형, 영미누나, 가영이 누나, 용주형 이렇게 다섯 명이서 정상을 목표로 운행을 나갔다. 오늘은 C2까지 오를 계획이다. 좋은 결과가 있어야 할 텐데… C2에서 영미누나로부터 가영이 누나가 구토증세를 보였다고 무전이 왔다. 걱정이다.

원정 32일째 : 7월 11일(금) 맑음

운행 : C2-C3

C2로 올라갔던 대원들은 C3로 운행을 나갔고 나는 BC에서 내일 운행을 준비했다. 운행 조

는 무사히 다들 C3에 도착했다. 모두 몸 상태는 괜찮은지 걱정이다. K2 BC에서 김재수 대장님과 고미영씨가 우리 BC로 놀러오셨다. 산지에서 이름만 듣던 분들을 첨으로 보니 반갑고 신기했다. K2를 써미트 하면 가셔브룸으로 올 계획이라고 했다. 저녁을 먹고 개인짐을 다 챙기니 공허함이 밀려왔다.

원정 33일째 : 7월 12일(토) 맑음

운행 : BC-C2

석민이가 아침에 몸이 안 좋아 운행을 하지 못하고 기석형, 형모형과 함께 운행을 나섰다. C2가 목표이다. C1까지 가는 것은 자신이 있었지만 언제나 C2로 올라갈 때 바나나릿지에서 너무 많은 힘이 든다. 바나나 릿지 중간 부근에서 물을 마시려다 정상 공격 때 사용할 장비주머니를 떨어뜨렸다. 우모장갑과 모양말과 인너장갑이 들어있었는데… 결국 어두워져서야 C2에 도착할 수 있었다. 한편 다른 운행조는 C3에서 가영이 누나, 용주형은 C1으로 내려오고 등반대장님, 광복이형, 영미누나는 오늘 저녁 정상 공격을 위해 대기했다.

원정 34일째 : 7월 13일(일) 맑음

운행 : C2-C3

새벽에 무전이 들렸다. 등반대장님, 광복이형, 영미누나가 정상공격을 하고 있었다. “광복이형, 저는 G2에 다녀왔기 때문에 형이 가지 않으시면 우리에게는 의미가 없습니다. 그리고 영미도 가게 되면 맹마랑 가게 될 텐데 아마 영미도 가지 않을 겁니다.” 뭔가 상황이 급박함을 느낀다. C4 넘어에서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기석형, 형모형이랑 C3에 도착하니 영미누나가 있었다. 다들 정상을 뒤로 하고 내려오셨다. 영미누나는 고소적응 하려고 C3에서 대기하고 등반대장님과 광복이형은 BC로 내려가셨다. 영미 누나는 어제 정상공격의 여파인지 무척 피곤해 보였다. C3에 올라오니 머리가 더 아프고 힘이 없다. 저녁때가 되자 형들이 정상공격을 두고 회의를 한다. 결국 10시에 날씨를 보고 결정하자고 결론이 났다. 바람이 불고 눈이 왔다. 결국 정상 공격을 하지 못했다.

정상공격… 내가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C3로 올라오는데도 이렇게 힘에 부치는 데…

원정 35일째 : 7월 14일(월) 눈

운행 : C3-BC

우리 조는 결국 C3에서 BC로 내려왔다. C2를 내려가는데 두꺼운 장갑을 끼고 하강기를 만지다가 아래로 떨어져 벼렸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대기하고 있다가 영미 누나에게 하강기를 떨어뜨렸다고 말하니 자기 하강기를 선뜻 내어 주었다. 고마웠다. 기석형과 안자일렌을 하고 C1에서부터 BC까지 내려왔다. 기석형을 따라가는 게 왜 이렇게 힘든지. BC에 도착하자 다리가 풀려버렸다. 진이 다 빠져 벼렸다.

원정 36일째 : 7월 15일(화) 맑음

운행 : BC

피곤해서인지 아침을 먹고 하루 종일 텐트 안에서 자버렸다. 하루 종일 잤어도 저녁이 되니 다시 잠이 온다. 피곤하긴 피곤하나 부다.

원정 37일째 : 7월 16일(수) 차차 흐림

운행 : BC-C1

G1을 목표로 운행을 나갔다. 등반대장님, 용주형, 석민이랑 4명이서 운행을 나갔다. 하루밖에 쉬지 못해서 몸이 무겁다. 보통 때보다 몸이 일찍 지치기 시작한다. 숨이 턱에 차서 머리가 아프다. 크레바스가 발달해서 아이스폴 지대를 지나 설원지지대에 길이 처음보다 많이 달라지는 걸 느낀다. C1에 끝자락에서 정승권 선배님이 고맙게도 텐트에 들어와 차 한 잔 마시고 가라고 하셔서 그렇게 했다. 그렇게 따뜻하고 맛있을 수 없었다. 너무나 감사했다. 몸이 안 좋아 G1-C2에 갈 수 있을지 모르겠다.

원정 38일째 : 7월 17일(목) 맑음

운행 : C1-C2(G1)-C1

등반대장님과 석민이가 공격조를 하고 용주형과 나는 G1-C2까지 산소와 텐트를 날라주는 써포터 역할을 하기로 했다. 아침에 출발할 때부터 몸이 으슬으슬 춥다. 등에서 식은땀도 나오 속도가 나지 않는다. 같이 아침에 출발했던 석민이에게 미안하다. 결국 다른 대원 속도보다 한참을 더 걸려서야 C2에 도착할 수 있었다. C2의 전경은 판판한 설원이 끝없이 펼쳐져 있어서

텐트를 치기 딱 좋은 장소였다. 사진으로 본 제페니스 끌르와르의 엄청난 크기에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오후 4시에 C1으로 용주형과 하산을 시작 했다. C1에서는 더 이상 머리가 아프지 않아서 다행이다. 어느 정도 고도에 적응하는 것 같다. G1등반은 성공해야 한다. 기회가 오기를 맘속으로 빌었다.

원정 39일째 : 7월 18일(금) 눈

운행 : C1-BC

BC 내려오면서 길을 잊을까봐 계우산악회, 수원대학교 선배님들이랑 안자일렌을 같이 하고 C1에서 BC로 출발했다. 아이스풀 지대를 거의 다 통과해서 크레바스 위험이 없는 지대에서 안자일렌을 풀고 용주형과 둘이서 같이 걸어 내려왔다. BC에 도착하니 광복이형 생일날이다. 계우산악회 막내인 종철이도 생일이다. 스텝들이 만든 케이크를 가지고 계우산악회로 이동해서 생일 파티를 했다.

원정 40일째 : 7월 19일(토) 맑음

운행 : BC

등반대장님과 석민이는 C2(G1)에서 C3(G1)로 이동하기로 하고 형모형과 가영이 누나는 C3(G2)에서 대기 그리고 나머지 대원들은 베이스에서 휴식하는 날이다. 등반대장님이 무전을 했다. 눈보라를 해치고 C3로 올라왔으나 빌려 쓰기로 했던 계우산악회의 텐트가 없어 우리에게 무전을 보냈다. 용주형이 계우산악회에 알아보니 대포만 시켜놨다는 것이다. 다행히 텐트를 찾아 설치하고 휴식에 들어갔다.

텐트를 못 찾았다면 비박을 할 작정이었다니. 휴~~

BC는 날씨가 좋은데 캠프는 날씨가 좋지 않다. 날씨가 좀 도와 줘야 할 텐데.

원정 41일째 : 7월 20일(일) 맑음

운행 : BC-C1

BC에 남았던 전 대원이 C1으로 운행을 나갔다. 아이스풀지대도 크레바스가 많이 발달했다. 처음과는 많이 달라진 느낌이다. 새미와 안자일렌을 같이 하고 가는데 새미가 힘든지 많이 쳐진다. C1가는 길에 이번에도 정승권 선배님에게 차 한 잔 얻어먹었다. 매번 신세를 지게 된다.

고마운 마음뿐이다. 이번 운행이 마지막 기회가 될 것 같다. 모든 걸 짜내야 한다. 등반대장님과 셀파 맹마와 함께 G1-C2에서 C1로 내려오셨다. 많이 힘드셨는지 설파 만파는 복이 다 쑬어 버렸다. 등반대장님의 아쉬워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옆에서 보고 있으니 나도 안타깝다.

원정 42일째 : 7월 21일(월) 맑음

운행 : C1

용주 형과 새미는 등반대장님이 G1-C2 텐트와 장비를 철수하라고 하셔서 G1-C2로 올라가서 내일 복귀하기로 하고 등반대장님, 광복이형, 영미누나랑은 C1에 대기하기로 하였다. 등반대장님이 내일 날씨를 보고 운행을 결정하기로 하셨다. 밥을 하고 물을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C1에서 생활하는 게 익숙해져서 힘들지 않았다.

원정 43일째 : 7월 22일(화) 맑음

운행 : C1

정상 부근의 날씨가 좋지 않다. G2는 간간히 정상을 보여주지만 G1은 구름에 가려 있다. 등반대장님이 G2에 흘러가는 구름이 저 정도면 정상에서는 강풍이라고 알려주신다. 역시 경험이 중요하다. 용주형이랑 새미가 C1으로 복귀했다. 형들은 그제서야 안심이 되었다. 저녁을 맛있게 먹고 이야기를 하며 시간을 보냈다. 잠자리에 들기 전 영미누나가 바나나 릿지에서 이상하게 계속 한곳에서 깜박거리는 렌턴 불빛을 발견했다. 등반대장님과 나는 구조신호로 알고 알아보려 기기로 했다. 배낭에 물과 간식을 조금 챙기고 운행에 나섰다. 눈이 많이 와서 픽스로프도 묻혀있고 길도 나있지 않아서 많아 위험하였다. 앞에서 러셀을 하고 가시는 등반대장님이 고생하셨다. 폴란드팀에서 구조신호를 보냈는데 등반대장님이 확인해보니 바나나릿지 초입에서 텐트를 치고 있었다. 구조신호가 아니었다. 걱정이 되서 위험을 무릅쓰고 온 사람들에게 폴란드팀의 반응은 고마워하지도 않고 시큰둥해서 팸한 일을 한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다. 외국의 산악문화는 다 그렇게 개인주의인가?

원정 44일째 : 7월 23일(수) 맑음

운행 : C1

오늘도 날씨는 우리를 혀락해주지 않는다. 오전에는 맑다가도 오후부터는 계속 눈이 오는 날

씨다. BC에서 형모형이랑 가영이 누나가 C1으로 G2를 공격을 위해서 올라왔다. 하지만 날씨가 좋아질 것 같은 짐새가 아니라서 등반대장님은 과감하게 전 대원 BC철수를 결정하신다. 대장님과 등반대장님은 회의 끝에 하행카라반을 조금 늦추고 정상공격을 한 번 더 하기로 결정하셨다. 한국으로 돌아가는 항공권의 날짜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하행카라반은 도보로 하지 않고 헬기로 하는 방안과 항공권의 날짜를 늦추는 방안이 거론 됐다. 정부연락관인 안와르가 헬기를 섭외해 보기로 했다.

원정 45일째 : 7월 24일(목) 맑음

운행 : BC

BC에 오래 있다 보니 텐트 자리가 많이 놓아서 쌓아놓은 돌들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본부텐트의 짐들을 다 빼내고 텐트 자리를 다시 손봤다. 안와르가 헬기를 섭외했는데 8,000달러를 예상했으나 20,000달러란다. 예산이 없어서 헬기를 포기하고 항공권을 뒤로 미루는 것도 포기했다. 하행카라반의 시간을 최대한 줄이는 수밖에 없다.

원정 46일째 : 7월 25일(금) 맑음

운행 : BC-C1

기석형, 용주형과 새미는 BC에 남아 철수준비를 하고 전 대원 C1으로 올라갔다. 마지막 기회다. 형들의 기대감에 어깨가 무겁다. C1로 올라가는 중에 힘이 들었다. 형모 형이 운행 중에 물도 더 자주 먹고 간식도 자주 먹으라고 한다. 그리고 싶은데 나에게는 그런 여유가 없다. 형들 따라가는 것도 벅차다. 형들의 체력이 부럽다. 내일은 C3까지 올라가야 한다. 솔직히 부담스러운 거리다.

원정 47일째 : 7월 26일(토) 맑음

운행 : C1-C3

날씨가 좋다. 좋은 징조인 듯 하다. C2를 철수했기 때문에 쉴 곳이 없다. C3까지 바로 가야 한다. 광복이형이 내가 C2에서 C3으로 출발할 때 쯤 바나나 있지를 넘고 안부에서 몸이 좋지 않아 C1로 철수 하셨다. 내 뒤에 따라와 주는 광복이형이 있어서 든든했는데 올라가면서 나 혼자라는 생각이 들어 외롭고 불안하였다. 속도가 너무 느려 C3 올라가는 중에 날이 어두워져 벼

렸다. 추워지기 시작하였다. 더구나 바람이 불어서 쌓인 눈들이 날리기 시작하였다. 오버 글러브를 껴도 손 시름이 없어지지 않아 우모장갑으로 바꿔 끼었다. 그나마 낳아졌지만 손 시름은 가시지 않는다. 춥다. 머리도 아프고 감각이 무뎌진다. 내 뒤에는 한명도 없다. 불안하다. 내가 할 수 있는 거라고 오로지 발걸음을 폐는 것뿐이다. 12시간을 걸려 결국 C3에 올라섰을 때 살았다는 안도감에 눈물이 날 것 같았다. 나보다 먼저 도착한 형모형, 영미누나, 가영이 누나와 펠바가 따듯한 차를 주며 반겨주었다. 산행도 못하는 못난 동생을 반갑게 맞아주니 너무 고마웠다. 너무 지친다. 한편 등반대장님과 석민이는 G1을 공격하기 위해 C2(G1)으로 올라갔다.

원정 48일째 : 7월 27일(일) 맑음

운행 : C3-BC

조장인 형모형이 어제 C3에 도착하니 내 상태는 정상공격하기에는 무리라고 BC로 내려가라고 했다. 짐작은 하고 있었지만 C4는 올라갈 수 있을거라 생각했기에 아쉬움이 많이 남는다. 늦은 아침을 먹고 BC로 하산할 준비를 했다. 텐트 밖에는 강한 바람에 쌓였던 눈들이 훌날리고 있다. 영미누나가 기념이니 사진이라도 찍으라고 해서 G2 정상을 배경으로 사진을 찍고 인사를 드리고 혼자 내려왔다. 올라가는 거와는 다르게 내려오는 건 하강을 해서인지 너무 빨리 내려오는 것 같아 허무하다. C1에 도착해서 광복이랑이랑 기상이 좋지 않아서 내려온 등반대장님과 석민이랑 BC로 하산하였다. 등반대장님은 버그하우스와 계약해서 처음 가는 원정이고 해서 중요한 등반이였는데 정상을 써미트를 하지 못하고 내려오셔서 많이 아쉬워 하셨다. G2 C3에서는 밤 10시 경에 날씨를 보고 정상을 공격한다. 마지막 희망이다. 제발 성공하기를…

원정 49일째 : 7월 28일(월) 맑음

운행 : 고소캠프 철수

어제 밤 10시 30분에 G2에 있던 공격조가 공격을 나갔다. 모두들 본부텐트에서 성공을 기원하며 다음 무전을 기다렸다. 새벽2시쯤에 C4에 도착했다. BC에 있던 대장님과 대원들은 그제야 안심을 한 모습이다. 차이나릿지 쪽에서 바람이 너무 강해 등반이 어려워 C3로 복귀한다는 무전이 왔을 때는 모두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한동안 침묵했다.

이렇게 끝이구나. 2년 동안 같이 준비한 원정인데 이렇게 끝났다는 생각에 마음이 착잡하다. C3에서 휴식을 한 공격조가 BC로 귀환하기 시작한다. 형모형이 5시에 내려오시고 C1에서 영

미, 가영 누나가 철수 중이란다. 누나들은 밤 10시가 넘어서 BC로 복귀했다. 형모형은 정상공격 중에 크레바스에 빠져서 겨우 나오고 영미, 가영누나는 크레바스를 돌아서 오느라 많은 체력을 소모하고 모두들 지치고 고생한 모습들에 마음이 안 좋고 미안하다. 그래도 무사히 돌아와서 다행이다.

원정 50일째 : 7월 29일(화) 맑음

운행 : BC-콩코르디아

오후 점심을 먹고 원래는 BC에서 짐정리를 하고 쉬려고 했으나 하행카라반 일정이 너무 빠져해서 오늘 콩코르디아까지 내려가기로 했다. 아… 잘 있어라. 얼마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어느 새 하산일이 됐다. 포터들의 짐 분배를 하는데 이번에는 짐이 별로 없어서 그런지 마찰 없이 출발 할 수 있었다. 고소적응이 된 까닭인지 내려갈 땐 별로 힘이 들지 않았다. 단지 성공을 못해서 그런지 마음 한켠이 무거웠다. 내려가다가 샤크린에서 계우산악회 트레킹 팀을 만날 수 있었다. 감사하게도 차를 얹어 마실 수 있었다. 잠시 담소를 나누고 아쉽게 작별인사를 마치고 내려가다 보니 K2가 보였다. K2가 보이고 부지런히 내려가다 보니 콩코르디아가 나왔다. 아직 고도가 있어서 그런지 밤은 무척 춥다.

원정 60일째 : 8월 8일(금) 맑음

운행 : 인천공항- 광주

인천공항에 내려 짐들을 찾아서 출구로 빠져나오니 새벽 6시인데도 많은 선배님들과 후배들이 마중나와 주셨다. 정말 고마웠다. 광주에서 오려면 새벽부터 출발해서 힘들었을 텐데 김재률 단장님, 이정옥 OB 회장님, 장희 훈련대장님, 백두인 OB 위원장님, 김용욱 OB 총무님, 유명희 선배님, 광복이형 가족 분들과 친구 분들. 효준이, 주현이, 민의, 한올이, 아름이 너무 감사하다. 박영석 대장님도 공항에 오셔서 우리를 환영해 주셨다.

전남대학교에서 대절해준 학교버스를 타고 광주에 도착해서 복날이라 삼계탕을 먹었다. 박상수 광주학생산악연맹 회장님도 오셔서 우리를 격려해 주셨다. 학교에 도착하여 원정대 사무실에 짐을 풀고 대원들은 김재률 단장님에게 간단한 귀국 보고를 하고 각자 집으로 헤어졌다.

원정을 가기 전부터 원정기간 그리고 원정이 끝날 때 까지 주위의 도움이 없었으면 가능하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한다. 후배들을 위해서 물심양면 도와주신 모든 선배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 5장

우리들의 이야기

산악회 창립 50주년에 붙여
(나는 왜 산에 오르는가?) 정부홍(70학번)

시 : 섬진강 은어 떼 김현곤(前 지도교수)

킬리만자로 등반기 | 김훈봉(59학번)

산이란 나에게 무엇인가? 김나연(69학번)

시 : 애 무등산 조규상(80학번)

시 : 우리들의 여행 김광미(85학번)

가장 기억에 남는 산행 임도균(95학번)

추모시 : 故 이현조 서정연(82학번)

나의 첫 산행 정효준(03학번)





제5장. 우리들의 이야기

산악회 창립 50주년에 붙여

정부홍 (70학번)

나는 왜 산을 오르는가?

산을 가는 사람들은 적어도 몇 번씩 자문자답을 하는 명제일 것이다. 만일 누가 나에게 당신은 왜 산을 가십니까? 하고 묻는다면 선뜻 대답하기 곤란하여 망설일 것이다. 그것은 언제, 누구와, 어떤 산을 무슨 목적으로 가느냐는 등 여러 가지 정황에 따라 달라지는 대답을 한마디로 표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 화두에 대한 유명한 선문답 사례는 어느 중년 부인의 질문과 조지 말로리의 답변에서 찾을 수 있다. 1924년 미국 뉴욕에서 영국의 3차 에베레스트 원정대의 대표대원격인 말로리의 초청강연이 있었다. 강연 도중 어떤 중년부인이 일어나서 화가 잔뜩 난 음성으로 “복수를 걸어야 하는 위험밖에 없는 산을 왜 가야만 하는 겁니까?”라고 거친 항의 같은 질문을 던졌다. 걱정으로 가득 찬 어머니 같은 질문이다. “산이 거기에 있으니까”로 대답하지 않았다면 그 대화는 끝없이 길어졌을 것이다. 내 경우도 “힘들게 올라가서 내려가야 할 산을 왜 오르는 거냐?”는 주위의 비판을 일축하기 위해 자주 인용했던 대답이다.

산업혁명에 성공한 영국은 많은 부를 축적했으며 그 넘치는 힘을 미지의 세계로 향하는 에너지로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영국은 알프스를 대상으로 한 등산을 선택하여 국력을 과시하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되었으며 초창기 등산 역사의 주역이 된다. 알프스의 미답봉들이 없어지자 영국은 1951년 11번째 실패를 딛고 세계의 정상인 에베레스트를 등정하여 전 세계에 그 위용을 떨친다. 그 후 에베레스트 산군은 서구 열강들의 국력을 시험하는 무대가 되었다.

물론 그 중에는 순수 등산의 의미를 부각시킨 경우도 있다. 1954년 히말라야 8000미터 가운데 하나인 마칼루(Makalu, 8481m)를 초등한 프랑스 등반대장 이었던 장 프랑코(Jean Franco, 1914~?)의 “등산은 스포츠요 정열이며 탈출이고 때로는 하나의 종교이다.”라고 정의했다. 등산의 내면적인 성격을 잘 묘사한 말로 여겨지며 지금까지 내가 신봉하고 있는 나의 등산관이다.

오늘날에는 등산이 우리들의 생활 일부로 그 연장선상에 있다. 그러함에도 등산을 영국식으로 알프스 산군과 같이 표고 3000~4000미터의 고소의 산을 오르는 행위로 표현하기는 곤란하다. 등정주의 만을 고려한다면, 2000미터가 넘는 고지가 없는 우리의 입장에서 등산이 인간 능력의 한계를 확인하거나 극복하는 대상일 수는 없을 것이다. 그렇다고 등산을 가벼운 기분전환이나 유흥행위로 여길 수는 더욱 없다.

나는 1969년도에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1970년에 전남대학을 들어갔지만 나의 이상과 현실을 타협하지 못해 학교에 정을 붙이지 못하고 방황했던 것 같다. 이 때 나에게 다가온 산은 비전을 제시해 주는 소중한 친구가 되었다. 속세로 내려오면 다시 만나게 되는 현실의 문제들은 다시 나를 구속했다. 반항의 수단으로 많은 술을 마셨고 주말이 되면 다시 이상향 같은 산을 찾은 시절이 대학 산악회원 시절이다. 말없이 나를 반기는 산이 좋아 산을 다녔고 악우들의 이해 타산이 배제된 무조건의 정이 그렇게 좋았다.



1972년 설악산 하계등반



1972년 추계 훈련등반

나는 6년간 다닌 대학을 졸업하고 군복무 후, 3년 동안 광주 직장생활을 한 후 고향을 떠나 지금까지 타향생활을 하고 있다. 지금도 고향인 광주에 가면 '70학번 14기 정부홍'이 나의 자리이고 그 때 맺은 형들과 아우들은 지금도 변함없이 나의 악우들이다. 그들과 같이 있다보면 타향살이 30년 공백을 어느 틈에 뛰어넘는지 모른다. 30여 년 전의 얘기를 어제 일 같이 말한다. 산을 중심으로 한 마음의 고향이 아니라면 어찌 그 같은 일이 가능할까?

그 때가 엊그제 같건만 산악회 창립 50주년 원고를 쓰고 있다. 내가 재학생시절로부터 40여 년 가까운 세월이 흘렀고 주변의 산에 대한 정서 역시 많이 변했다. 지금까지 전남대학교 산악회와 광주와 서울의 전남대학교 OB산악회원들인 나의 선·후배 동료들이 초모랑마(에베레스

트) 등정을 비롯한 한국의 등산역사를 장식할 수많은 업적을 쌓았다.

전남대학교 산악회는 대학을 모태로 성장해온 모임이다. 마땅히 젊은 자성인들의 모임으로써 추구해야 할 방향을 설정하고 수시 점검하여 모든 등산 인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것이다. 산은 모든 것을 수용한다. 나무의 종류를 봐도 그렇고, 산에 사는 동물들을 봐도 그렇다. 하물며 인종을 차별하고 지위의 높고 낮음 그리고 부의 있고 없음을 따지던가? 그러나 산은 냉엄하다. 준비되지 않는 자나 자기를 낮출 줄 모르는 자들은 거절당하기 일쑤이다. 그래서 산은 우리의 도장이고 시험장이다.

나무의 새순은 가지의 끝 성장점에서 나오고 용수철의 고정변화 변화는 임계점을 넘어야 한다. 진정한 자아를 만나고 나를 확장하고 싶다면 나와 내가 아닌 경계선에서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고 극복하는 과정을 거쳐야하지 않을까 싶다. 이런 점을 우리는 알피니즘 변천과정의 역사 를 통해 간접적으로 배우고 협난한 고산 등산을 통해 실제로 습득하게 된다.

대학산악부라면 머메리즘의 등로주의에 입각하고 ‘by fair means’에 부합한 정신과 기술을 함양하여 등반기술 또한 선진국 대열에 올려놓아야 할 의무가 있을 것이다. 그렇다고 반드시 히말라야나 오대양 육대주를 누비는 가시적인 면에 너무 치우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등산은 경쟁이 아니라는 말들을 수 없이 들어왔지만 산의 화려한 이력과 경력에 의해 계급이 결정되는 사례 또한 많이 봤았기 때문이다.

나는 30여 년 세월을 대전에 살면서 나와 집사람 2명이 총원인 전남대학교 OB산악회 대전 지부(?)를 만들어 우리나라 산 중 1000미터 가 넘는 산이란 산은 거의 섭렵했다. 실제로 지도에 다녀온 산을 투명 펜으로 표시했더니 거의 150여개 산이 표시되었다. 여러 번 다녀온 산을 감안하면 적어도 300회 이상 등산을 했다고 생각된다. 이 때 우리는 산을 가는 목적이 특별한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건강, 스트레스해소, 정신적인 자유 등 그야말로 생활의 일부였다.

이러한 과정 속에서 자연스럽게 히말라야를 그리게 되었고 2006년 후배들의 초모랑파 등반 시 편승할 기회를 많이 기다렸지만 네팔의 국내사정 때문에 무산되었다. 다음 기회를 기다렸으나 나는 2007년 1월1일 뇌출증으로 입원하였다. 지금은 거의 회복되어 내년에는 못 이룬 꿈을 실현한다는 기대에 부풀어 있다. 재활치료 때에도 ‘산에 가고 싶다.’ ‘가야한다’는 의지는 많은 도움이 됐다고 생각한다.

국내의 높지 않은 산이지만 대상산을 선정할 때는 언제나 미지의 세계에 대한 설렘이 일었고 산은 언제나 내가 준비해간 그릇에 맞춰 보답을 담아 줬다. 큰 그릇 일 때는 크게 작은 그릇 일

때는 적게 채워줬다. 나와 집사람은 산을 통해 자신들과 대화에 친숙해졌으며 자아를 찾아가는 훈련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50년 대 연륜을 쌓아온 전남대학교산악회 이니만큼 외적 성장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내적 성숙도 간과할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되어 평소 산에 대한 나의 견해를 두서없이 피력해 봤다.

〈가르왈 히말라야〉를 쓴 임현답은 자연(산)을 통하지 않고는 자기를 만날 수 없다고 단언했다. 동감이다.

蟾津江 은어 떼

김현곤(前 지도교수)

方丈 넓은 산 깊은 산 높은 산은
他化自在 天神이 놀다 가는 灵山...
푸른 산 거울 보는 수정 강물 속
더욱 푸른 산자락 주름주름 만져보다
강물을 모아내는 골짜 골짜 흥얼거리다
숲 위를 나는 은어 떼와 노나니
은어들 구름 탄는 푸른 하늘 나느니.
아, 저 생지옥 검은 廢水
이 蟾津 蟾津에도 스미려나.
목숨들 상하면 이를 어이 해!

모래 자락 가는 주름 산을 돌아 굽이치며
굽이마다 하얗게 반달 뜨는 비단 폭은
맑은 물도 씻어내는 淨土 산 속자락.
잔물결 속살속살 적시고 적시다가
강심에 달이 떠 꿈속이 달빛인데
아, 저 생지옥 검은 廢水
이 蟾津 蟾津에도 스미려나.
목숨 살아 상하도록 썩도록 흐르려나.
떼죽음 가슴 치는 통곡 하나 없이
검은 강물 희끗희끗 주검들 흐르려나.

킬리만자로 등반기

김훈봉(59학번)

등반기간 : 2000년 6월 24일~29일 (5박6일)

대상지 : AFRICA Tanzannia

Kilimanjago (5,895m)

Kim Hoon Bong

새천년(2000년) 특별기획으로 대한산악연맹이 추진한 세계 7대륙 최고봉 원정대 중 아프리카 킬로만자로 원정대 대원으로 참여하였다. 지난 기억을 더듬어 자료를 정리하기가 여간 쉬운 일이 아님을 느끼면서 원고를 내주게 되어 그런대로 위안은 되지만 보는 이의 느낌이 어떨지 (?)... 넉넉하게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6월 24일 (마랑구 게이트~ 만다라)

새벽4시에 잠에서 깨었다. 밖에는 비가 오고 있다. 서울을 출발하던 날(6월22일) 아침에도, 아프리카케야의 나이로비공항에 도착한 어제 아침에도 비가 왔다. 이제 그만 와야할텐데...

6시 비는 개이고 맑은 하늘이 보이지 않는가, 하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어제 밤에 짐을 정리는 해놓았는데도 다시 확인해보고 싶었다. 오늘 산행에 필요한 것만 챙겨서 9시 모쉬의 래오퍼드호텔(Moshi Leopard)을 버스로 출발했다.

차창 밖으로 마하라기(콩) 콘마힌리(옥수수) 썬플라우어(해바라기) 등 낯설지 않은 우리의 농촌 그대로다.

10시 20분 킬리만자로 국립공원 마랑구게이트(1850m)에 도착했다.

입산수속을 마치고 도시락과 가이드를 배정받았다. 나와 같이 할 가이드는 민자란다.

활달하고 웃는 얼굴이어서 마음에 들었다.

11시30분 만다라산장을 향해 출발했다. 킬로만자로의 초입이어서인지 등산로답지 않게 넓고 잘 정리된 길이다. 길 양옆은 이끼와 덩굴식물로 뒤덮인 울창한 수림사이를 걷고 있다. 뒤에서 폴래폴래 소리가 들린다. 가이드인 민자의 목소리다. 그는 우리말로 천천히 천천히 한다. 이 친구 봐라, 우리말도 하는가보다하고 뒤를 보니 씩하고 웃어보인다. 아. 이게 마음이 통하는 것

이구나.

13시30분 턱자와 의자가 붙은 통나무로 만든 쉼터가 길양쪽으로 1조씩 있다.

여기서 가져온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고 쉰 다음, 다시 걷기 시작했다. 아열대 우림지역 정글 속으로 속으로 한없이 걷는다. 원숭이도 이름모를 세소리도 우리를 반긴다.

15시30분 우리일행은 만다라산장(2750m)에 도착했다.

약12Km를 4시간에 고도 900m를 올랐다.

4인1실을 배정받아 짐을 정리하고 18시에 빵과 과일, 커피 서울에서 가져온 햇반으로 저녁 식사를 했다.

우리들은 고소약인 다이아복스(Diamox)1알과 마라리아 예방약 1알씩을 복용하고 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밖에는 영하로 떨어지는데 소변은 왜 그렇게 자주 보아야하는지 다음 기상할 때 까지 4회나 된다.

6월 25일 (만다라~호름보)

아침 6시에 일어났다. 아침식사를 하고 녹차와 다이아복스(Diamox) 1개를 복용하고 마우병에 따뜻한 물을 채웠다. 그리고 1.8ℓ 물병 2개를 더 준비했다.

8시30분 만다라산장을 출발한지 30분쯤 지났을까. 옆으로 마웬지봉(5149m)이 앞으로는 하얀구름인지 하얀 눈인지 어렵프레 보이는 것이 있다. 처음으로 우리에게 킬리만자로를 보여주지 않는가. 야, 킬리만자로다. 함성이 터져 나왔다. 여기서 사진을 찍으며 휴식을 취했다.

풀래풀래를 중얼대며 이름모를 들꽃사이를 걸으면서 저 킬리만자로를 완등해야 한다고 다쳐 본다.

12시30분 길게 뻗은 능선중간쯤에 식탁과 의자2개조가 있고 화장실도 있다. 여기서 점심을 먹고 휴식을 취했다.

15시30분 호름보산장(3720m)에 도착했다.

약 15km를 7시간에 고도 970m 올랐다.

방 배정을 받고 짐정리를 한 다음, 주위를 살펴보니 선인장처럼 생긴 시네시오 군락이 장관을 이루고 옆 계곡에는 맑은 물이 쏟아지고 있었다.

18시 식사를 마치고 전병만 대장(전북대학교 교수) 방으로 갔다. 방 앞에 대원들이 모여 식후 불연이면 소화불량이라 한대하고 싶었는데 전 대장이 권하지 않는가. 3모금쯤 했을까. 골(?)을

때리는데 아, 큰일이구나. 방으로 돌아왔다. 방에는 양하선대원(제주연맹 전회장), 장윤근대원(부산연맹 부회장), 전수석대원(영남연맹 이사)이 바둑판이 한창이다. 그 좋아하는 바둑도 팽개치고 자리에 누웠다. 속이 매스껍고 머리는 아프고, 이제 올 것이 오는구나.

돌파리 처방이 시작된다. 다이아복스, 우황청심원, APC 등을 복용하고 물을 마시기 시작했다. 새벽 1시쯤에는 속이 울렁거리며 구토직전이다. 아, 이것이 고산병시작이구나. 다시한번 놀랐다.

6월 26일 (호름보~지브라)

새벽 5시쯤 깨었는데 기분이 좋을리 없다. 우선 오천택 대원을 찾았다.

히말라야 원정을 2번이나 한 젊은 친구다. 현재의 상태를 설명하고 자문을 구했다.

오늘은 마웬지봉(5149m)까지 고소적응 훈련을 하는 날이다. 아침을 먹고 10시10분 출발이다. 나는 아직 머리가 아파 쉬기로 하고 방으로 돌아왔는데, 내 가이드인 월리엄이 와서 가자고 졸라댄다. 폴래폴래 천천히 걷기 시작했다.

11시40분 지브라(Zebra, 4000m)에 도착했다. (지브라의 지명은 얼룩말이라는 뜻인데 큰바위에 흰색과 검정색이 선명하게 얼룩말처럼 새겨져 있다.) 우리는 여기서 휴식을 취하고 호름보산장으로 하산했다.

점심은 산장식이다. 토스트 찐방에 콩조림, 찐감자와 홍차다. 찐감자는 우리 것고 똑같아서 맛있게 먹었다. 오후에는 각자 휴식으로 컨디션조절을 하도록 되어 있다.

아직도 머리는 아프지만, 어제보다는 아주 양호한 편이어서 바둑대회에 참가기로 했다.

6월27일 (호름보~키보)

잠을 푹 잘 잔 것 같다.

6시쯤 일어났는데, 몸이 가볍고 아주 상쾌한 아침이다.

아, 이젠 괜찮구나. 키보로 갈 수 있다는 생각만해도 흐뭇하다.

밖에는 안개가 끼어 앞이 보이지 않는다. 8시15분 천천히 출발.

9시10분 MAUA강(3940m)에 도착했다.

9시45분 키보 남쪽 써키타(4000m)를 지날 때 안개가 걷치기 시작했다.

10시25분 라스트워터포인트(Last water point, 4100m)에 도착했다.

이제 이곳이 마지막 물이 있는 곳이다. 우리는 여기서 쉬면서 수통에 물을 채웠다.

주위에는 에버래스팅(Ever Lasting) 꽃들이 하얗게 되어 군락을 이루고 있다.

11시55분 이름모를 바위밑(고도계4280m)에 바람을 피한 채 도시락으로 점심을 먹었다. 주위는 검붉은 흙과 바위들로 마치 사막과 같은 황량한 길을 걸어야만 했다. 거센 바람과 휘날리는 모래는 눈을 뜰수 없을 정도로 몰아 불였다. 정말 지루하고 피곤해 지칠대로 지친상태다 말그대로 낙타등을 한없이 걸어왔다.

15시40분 키보산장(4750m)에 도착했다.

약 15km를 7시간30분에 고도 1030m에 올랐다.

우리는 잠깐 쉬었다가 18시경 저녁을 먹는단다. 새벽0시에 정상으로 출발한다니 저녁은 든든하게 먹어야 했다. 평소 내가 좋아하는 라면국물에 햇반으로 식사를 하고 회의가 시작되었다. 새벽 0시 출발예정 기온이 영하 20~30° 가 예상되므로 보온에 필요한 장비 및 행동구 등 점검을 마치고 잠을 청했다.

6월 28일 (키보~우후르~호름보)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잠을 깨었다. 11시30분 기상시간이다. 밖으로 나와보니 칠흙같은 어둠 속에 웬바람이 그렇게 세찬지 추워서 겨우겨우 볼일을 보고 들어왔다. 아침생각이 날리 있겠는가. 그러나 그냥 갈수는 없지 않은가. 미숫가루를 라면국물에 타서 한그릇 마셨다.

그리고 마우병 2개에 따뜻한 물을 채우고 출발준비를 시작했다.

우모복에 방풍의를 입고 방안모 장갑 등 준비해온 장비들을 촘촘히 챙겨 출발준비를 마치고 산장 앞에 모였다. 렌턴불빛만 움직일 뿐 대원들을 분간할 수가 없다.

원정대장의 산행준비 완료와 ‘우리는 하나다’ 구호를 외치며 새벽 0시20분 우리는 킬리만자로 정상을 향해 힘차게 출발했다. 어둡고 세찬 바람과 추위를 이기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저 앞사람 불빛만 보면서 너털도 아니요 모래밭도 아닌 길을 지그재그로 오르고 또 오르고 계속 올랐다. 지쳐서 숨을 몰아쉬고 있으면 추위가 몰아치고 그러면 걷기 시작하고 하기를 3시간여만에 핫스마이어 동굴(5151m)에 도착했다. 우리는 여기서 따뜻한 물과 간식을 먹었다. 그런데 갑자기 렌턴이 꺼져 버린다. 아, 헤드램프를 짠 것을 준비해서 그렇구나 하고 비상용 손전등을 꺼내 출발했다.

이거도 오래가지 못했다. 여기서 받는 정신적 갈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다. 징조가 안좋

다. 불안하다. 하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 그래도 가는 수밖에. 올라갈수록 경사는 심해지고 화산석과 화산재 모래는 미끄러지기 안성맞춤이고 찬바람은 거세지면서 코를 애어가고 손발은 감각이 없어지기 시작하고 숨은 가빠오고 목은 마르고 몸은 지쳐 있으니 정말 고행 중 고행이다. 불가에 선승들의 고행이 이러했을까? 뒤에서 뿔래뿔래소리만 들려온다. (※영하10℃이하가 되면 건전지 성능이 40%이하로 떨어짐)



이젠 렌턴이 없어도 되는구나. 밝아오기 시작한다. 시계는 6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여기서 일출을 보다니, 아!

모두들 쉬면서 일출을 기다리고 있는데, 해는 보이지 않고 하늘이 붉게 변하면서 밝아왔다.

내려다 보니 저길 내가 왔나, 저 길을! 앞사람이 한 발 걸으면 먼지가 얼마나 될까. 캄캄한 밤이라 모르고 그걸 다 마시며 왔지 않는가! 끔찍했다.

드디어 길만포인트(5685m)에 도착했다 (7시25분)

내가 해냈구나! 전대원이 태극기와 연맹기 그리고 표지판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였다.

그리고 내가 키보산장에서 우모복속에 넣어 왔던 카메라를 꺼냈다. 그리고 몇장 더 찍었다. 약 6km를 7시간4분에 고도 935m 올랐다.

나는 여기서 또 갈등을 느꼈다. 우후르봉을 갈 것인가(?) 물어봤다. 나는 하산하기로 결정했다. 내일을 위하여. 동쪽에 아침햇살을 받으면서 하산을 시작했다. 부근에는 상승기류가 생기고 태양의 직사를 받는 일이 많아 선크림을 발랐어야 하는데 선크림이 없다. 처음 준비부터 나는 선크림을 빼뜨렸다. 다행인 것은 얼굴에 화상을 입지 않았으니 말이다. 내려가는 길이라 발걸음은 빨랐다. 화산재 속으로 경사가 40~50° 되는 내리막길을 미끄러지면서 9시 한스마이어에 도착했다. 발에 힘이 없고 후들후들 떨린다. 잠깐 쉬고 천천히 키보산장으로 내려가기 시작했다. 10시 키보산장에 도착했다. 정명수(조선대학교체육과교수)대원과 정미경양이 반갑게 맞이해 주었다. 정양이 어느새 미숫가루를 타서 가져왔다. 단숨에 다 마시고 침상을 찾았다. 13시가 넘어 잠에서 깨어보니 우후루(5,895m) 팀들이 도착하기 시작한다. 짐심을 먹고 13시 40분 키보산장을 출발했다. 지친 몸에 황량한 화산모래길이 그렇게도 가도가도 끝이 없는 사막에 길

이 아니던가. 세들을 지나 라스트 워터 포인트에 도착해서 쉬었다. 모두가 지친 몸이다. 좀 더 쉬어 갑시다가 터져 나온다. 우리는 한참 쉬었다. 그리고 또 걷기 시작했다. 5시 5분 호름보에 도착했다.

6월29일 (호름보~만다라~마랑구게이트)

내가 광주에서 출발하기 전 한국다원에서 녹차와 말차(녹차분말)을 지원해 주어서 가져갔다. 고맙다는 흔적을 남겨야겠다고 사진과 VTR 몇 ~~장~~을 촬영하고 9시 10분 호름보 산장을 출발했다. 부슬비가 내리고 있다. 11시 50분 만다라산장에 도착해서 짐심을 라면으로 간단히 하고 커 피한잔으로 안정을 취했다. 13시 10분 출발하여 마랑구게이트에 14시 47분 도착했다.

오후 5시 전대원과 가이드 포터들까지 한자리에 모였다. 전대원은 그들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했다. 그리고 전병만 대장이 노고를 치하하고 금일봉을 전달했다. 지난 24일 이곳을 출발할 때 우리를 환영해주었던 모이라나씨(국립공원소장)가 직접 등정증을 수여하고 등정을 축하해주었다. 우리는 저 킬로만자로 대자연의 섭리속에서 5박 6일동안 순응하고 조화와 균형을 이루며 거북이처럼 곱처럼 공격도 정복도 아닌 정상등정을 마쳤음을 여기 남기고자 한다.

산이란 나에게 무엇인가?

김나연(69학번)

내가 처음 산을 맞이한 것은 어릴 적 시골에서 할아버지를 따라 산소에 간 것이 처음이고 그 다음은 외할아버지를 따라 외갓집을 가는 길에 넘어야 하는 아주 힘든 산이었다. 그리고 대학을 입학하여 공부에 흥미를 잃고 재수한답시고 순천 철도 관사에 6개월 남짓한 생활 속에 자주 올랐던 순천만 바다가 보이는 봉화대 터가 있는 이름 모를 산이었다. 재수를 포기하고 다시 복학하였으나 학업에는 더 흥미가 없어 과 친구들을 선동하여 당구를 치거나 막걸리를 마시면서 가방만 학교에서 집으로 운반하는 비싼 포터였을 뿐 이였다. 그 때, 학생 상담지도소에 중학교 역사 선생님이시던 김용선 교수님이 계셨고 거기에 성진기 선생님이 계셔서 자주 들리게 되었다. 아마 그 시절 산악회선배님들이 종종 거기를 들렸던 것 같고, 그래서 신입생 환영등반 대회에 형렬이와 같이 참석한지 않았나 생각된다. 거기엔 또 우리과 동기인 현문 형도 있었고, 향식 형도 있었던 것 같다. 그래도 좀 아는 사람이 있어서 좋았고 사람이 무지하게 많아서 술도 많이 먹고, 아무리 소리쳐도 신경쓰는 사람이 별로 없어 그저 그런 서클인가 하면서 몇 번 산행에 참석하였는데 산이란게 별로 씩 마음에 와 닿지는 않았다. 그러나 훈련등반에서 후배 노릇하면서 밥하고, 설거지하는 것이 꿈에도 상상하지 않았던 일이라 당황스럽고 탐탁하지 않았지만 그런대로 재미가 있었다. 그러나 입에서 거품이 나도록 구보를 하면서도 선배들이란 놈들(?)에게 발로 차이면서 끝까지 목적지에 도착해야 한다는 협박에 난생 처음으로 많은 땀을 흘리면서 내가 이런 고생을 왜 하나 하는 회의가 들었지만 반은 오기로 반은 무의식적으로 옆에 뛰는 놈들이 있으니 뛰지 않을 수 없어 목적지에 도착은 했다. 훈련등반을 마치고는 상당한 고민에 빠졌다.

뭔지 모를 매력이 있기는 있지만, 과연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까? 중도에 그만 두느니 지금 그만 두는 게 낳지 않을까? 더 좋은, 더 재미 있는 서클은 없을까? 고민을 하다가도 주말이 되면 또 산을 따라나서게 되었다. 산이 좋아서라기 보다는 산행을 끝내고 내려오면 기다리는 공짜 음식과 술이 있었고, 산에서는 알 수 없는 자신에 대한 울분을 토해낼 저 아득한 산봉우리가 있었기 때문이었느지도 모른다. 또 아무 목표도 없고 공부에 취미도 없는 나에게는 대학생활의 권태를 죽이는 유일한 수단이기도 하였다.

맨 처음 산악회에 애정을 갖기 시작한 것은 아마 “‘밝아오는 아침 해를……’”로 시작하는 산

악회가를 정옥이와 함께 작사하여 외국 곡(아마 Captain Kelly?)에 붙여 부르기 시작하던 때가 아닌가 한다. 그전에는 많은 요들송과, 팝송, 패러디나 개사한 여러 즐거운 노래들 – “Cotton field” “역마차” “하숙생”(백화형 전용), “껴안아 주세요, 갈비뼈가 화 뿌리지도 륙…….” “아빠를 잡으로, …….”,, “밟았네 밟았네, 무엇을 밟았나…….” 등을 즐겁고 신나게 부르고 있었다.

또 이 때 꽤나 어여쁜 여학생들이(내 눈에는 정말 이쁜 산 아가씨들이였다) 산에 다니기 시작하여 한 번 더 보기 위해서 산에 가는 시절이었던 것 같다.

두 번째 계기는 아마 “‘팔공산 국회의장기 쟁탈 등산대회’” 참가 후가 아닌가 한다. 이정옥, 박관영, 양형렬, 고명권, 내가 참가하여 수많은 에피소드를 만들어 내고 두고 두고 술안주가 되었던 – 구보 중 정신 대신 탈출한 형렬이의 금니를 주워 들고 온 아주머니, 춘화누나의 바늘과 고명권이의 가짜 기절, 16킬로미터 구보 전, 털어낸 등산화 바닥에 낀 흙과 손톱 밀 때, 등등.

3박 4일이였지만 많은 것을 느끼고, 자신을 시험에 들게 하고, 교수님과 선배들의 따뜻하고 훈훈한 마음, 또 한편으로는 상당히 차갑고 냉정한 의지들을 느끼고 배웠던 시절이였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희범 형과 한 조가 되어 월출산 암벽에서 난 사고였지 않나 생각된다.

나는 지금도 앵커가 빠지고 희범형의 거대한 체구가 낙화처럼 아니 영화의 슬로모션처럼 천천히 떨어져 바위 위에 부딪치는 것을 똑똑히 기억하고 아 형이 죽었구나 하는 생각이 온 몸을 엄습하여 어찌할지를 모르는데, 한봉 형인지, 현문 형인지가 나를 끌고 내려가 시체처럼 누워 있는 희범형을 안고 있는 바위까지 내려와서 넋을 놓고 앉아 있는데 형의 머리에서 솟구친 피가 바위 위에 국화 모양처럼 뿐려진 것이 뇌리에 선명하게 박히는 그것을 분명히 기억한다. 나는 또 세컨하나 제대로 보지 못하여 아까운 사람하나 죽이는 못난 후배를 원망하는 듯한 선배들의 그 모습이 지금도 생생하다. 아 나의 실수로 인해 희범 형이 죽는구나, 살아도 바보가 되거나 기억상실 증에 걸리는 것은 아닌가, 희범 형이 병원에 가는 차 속에서 “‘오늘이 며칠이냐’” “‘오늘이 며칠이냐’” “‘오늘이 며칠이냐’” 고 똑 같은 질문을 수십 번 반복하였을 때 “‘정말 살아도 온전치는 못하겠구나’” 하는 생각 밖에 들지 않았다.

그런데 희범 형은 고맙게도 몇 번의 수술과 입원을 반복하면서 완치되었다.

그 후로는 산에 가면 모든 것이 아름답고, 즐겁고, 신나는 시절이었던 것 같다.

지라산 칠선계곡에서 하염없이 쏟아지는 별을 쳐다보며, 노고단의 불타는 철쭉과 설악산의 불타는 단풍의 차이를 알려고 노력하면서, 땀방울이 송송한 여학생의 불그레한 볼에서 사랑을

느끼면서, 천년의 보드라운 물이 조각한 12 선녀탕의 청아한 아름다움을 답사하면서, 포항의 그 저격수 같은 왕모기의 표적이 되면서, 포항서 울릉도까지 달과 바다가 어우러진 갑판 위 철학과 시와, 술과 정이 얹힌 백야를 지새면서, 그렇게 ~~진짜~~ 산과 정과 친구와, 선배와 교수님들에게 빠져들어 갔다.

그러다 쌍권총을 차고 더 이상 학업을 계속하기 어려워 입대하게 되었다.

나에게 군대는 남들처럼 힘들지는 않았다. 군대의 기합과 훈련은 산 선배들의 아귀 같은 목소리와 등산화 발자국보다는 훨씬 부드럽고 나긋나긋하였다. 고된 행군도, 야간 매복도, 쪼구려 뛰기도, 매일 아침 8킬로미터 구보도 견딜 만 했다. 또 가까이 형렬이가 있어 더 포근했는지도 모른다.

3년 동안 군대 생활은 나에게 많은 것을 가르치고 배우게 하였다. 나는 역시 촌놈이였고, 아는 것도 정말 없었고, 집안도, 돈도, 학교도, 축구도, 배구도, 남보다 잘하는 것도 없고, 내 놓을 것이 없다는 걸 알게 되었다. 오로지 완정군장에 8키로미터를 뛰는 구보 만은 자신이 있었다. 그것이 내가 그들보다 잘 하는 유일한 것이였고 그래서 그냥 자존심을 구기지 않고 군대생활을 하게 되었다.

또 한편으로는 산에 대한 생각을 좀더 가다듬을 수 있는 기회도 가졌고, 산이 내 인생의 전부가 될 수 없었고, 산을 다니기 위해서는 적절한 직장과 돈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다. 내가 진정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다는 것도 그 때 알았다. 그 전엔 그게 사랑이라는 건지 알지 못 했다.

군대가 나를 나도 모르게 성숙하고 철들게 한 것이다.

복학 후에는 쌍권총을 내려 놓기 위해, 졸업을 하기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산보다 먼저 학생이었다. 그 전처럼 산에 자주 갈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다. 또 술과 당구도 가까이 할 형편이 아니었다. 나는 복학생이라는 딱지를 겸허히 받아들일 수 밖에 없었다. 급우들이 수업에 빠질 때도 나는 가능하면 출석하는 치사하고 복학생 다운(?) 방향으로 행동했다. 그래서 지금도 대학 친구가 나에겐 별로 없다. 아무튼 나는 착실한 복학생 역할을 한 덕택으로 입학 후 8년 만에 간신히 졸업을 하게 되었다.

졸업 후에는 용우형이 추천한 도청 공무원 직을 뿐리치고 운 좋게 합격한 강원도 산골로 취업하여 4년 동안 거의 두더지 처럼 살았다. 그 곳에는 또 대학의 유일한 선배이자 산악회 선배인 정호형이 나를 반겨 주었다. 또 하늘이 3천평 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산골 중의 산골이었다.

이 땅에 광부들이 시체가 되어 나오면 그 상가에 가서 밤새도록 통음하면서 인생의 허무와 운명을 이야기 했다.

그래도 아무도 그 곳을 힘이 들어 떠난다고는 않았다. 하루 하루가 삶과 죽음의 경계선에서 지내지만 가족을 위해, 자신의 미래를 위해 열심히 살아가고 있었다.

난 여기서도 일이 힘들거나 고되다고 생각지는 않았다.

이때 나는 정말로 많은 것을 정호 형에게 의지하며 또 배우고 살았다.

여기서는 일과 후 포커, 당구, 마작이 주 스포츠였고, 그 중 최상이 테니스였다. 당구가 끝나면 술집으로 향했다.

산속에 둘러싸인 계곡이라 산이 싫었다.

그러나 술과 당구와 포커가 싫증이 나면 난 가끔 일요일에 혼자서 빵 한 조각과 물 한 통을 배낭에 넣고 기차나 버스를 타고 태백산, 소백산, 설악산을 쏘다니기도 했다.

혼자 가는 산을 두렵기도 하고 무섭기도 하였다. 한번은 오색 약수 뒤 산을 오르다 길을 잘못 들어 하루 종일 사람 하나 구경하지 못 한 적도 있었다. 이 때 넘어져 굴러 떨어지면 꿈쩍없이 죽겠구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들었다.

그나마 내가 알고 있는 건전한 스포츠는 등산 밖에 없었다.

그 시기엔 후배들이 있는 경포대에 기차를 타고 찾아가 2번인가 조우한 것이 전부인 것 같다.

후배들과 만 난 후 출근을 위해 새벽 달빛을 벗삼아 정호형과 태백산 줄기의 능선을 넘어 직장으로 돌아가는 길이 아직도 눈에 선하다.

다시 직장을 서울로 옮겨 10년,

그 시절은 모두가 너무 바쁘고 일들이 많았다. 월, 화, 수, 목, 금, 금, 금이란 말이 이때 생겼다고 생각한다. 수출을 위해 아니 달러를 벌기 위해 모든 걸 내다 팔았다. 또 바이어를 신처럼 모시고, 상사를 또 신처럼 모시는 시절이었다. 여기서도 그리 힘드는 줄은 몰랐다. 모르는 걸 배우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몰랐다. 또 상사를 아주 삼아, 지방대학 출신인 것을 한탄하며 술 마신 적도 많았다., 여기서도 술은 여전히 공짜인 게 많았다.

나는 아마 산악회 시절 힘들고, 어렵고, 고통이 따른 것들을 이미 다 체험했는지도 모른다.

이 회사에서 사내 산악회를 조직하여 5년 동안 이끌고 사내 후배에게 물려준 것이 기억에 남는다.

회사생활을 정리하고 조그만 구멍가게를 시작한지도 17년,
지금도 힘들지만, 초기에는 너무 힘들어 혼자 소주 한 병에 새우깡 하나 들고 구룡산에 올라
서울 시내를 바라보며 한 없이 소리 내어 운 적도 있었다. 아마 이때가 나에게 제일 힘들었던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된다. 항상 내가 힘들고 괴로울 때 산이 옆에 있었던 것 같다.

나는 그 30여 동안을 10여년은 지리산의 포근함과 교수님들의 사랑으로, 10여년은 설악산의
정기와 선배들의 보살핌으로, 10여년은 한라산의 냉철함과 후배들의 후원으로 살아왔다고 믿
는다.

앞으로 10년은 선배들을 위해, 또 10년은 후배들을 위해 내가 얻고, 받고, 입은 은혜와 사랑
을 갚도록 노력하며 살려고 다짐해본다. 선배님들을 찾아뵙지 못하는 것이 죄송하고, 아직도
후배들이 불러주어 고맙고,

““펴가도 퍼가도 전라도 실핏줄 같은 개울물들이 끊기지 않고 모여 흐르는 섬진강””처럼 우
리 전대산악회의 정과 정도 끊기지 않고 모여 강을 이루고 바다를 이루어 전 세계로 도약하는
산악회가 되는 것을 기대하며 …… 그러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닌가.

아! 무등산

조규상(80학번)

태고의 어머니 품!
입석 서석의 우뚝 섶
장불재 규봉암 중머리재 바람재의 수려함
안기고 싶은 그곳!
말없이 내려다 보면
빛고을의 울분!

새인봉 의상봉 선비바위
산사나이의 외침
함성, 그리고, 요들
면면히 이어 내려온
발자국 따라
오늘도 가고 싶은
아! 무등.

우리들의 여행

김광미(85학번)

자!

어디로 떠날까?

우리들 청춘의 꿈과 사랑과 진리가 춤을 추는 곳

어디든 우리의 이상을 묻고 꽂피우고

아! 흐트러지게 청초한 안개꽃 보이잖니

좋아 어디든 떠나자구

출발!!

안온한 실내를 박차고

맺찬 겨울바람 부는 검은 공기를 달려서

밤기차의 불꽃을 앞세우고

언덕을 돌아 기적을 울리자구

검은 포도위에 꽂처럼 피어나는 연기

잠깐,

내 상한 목청을 돌구고, 신바람나게 휘파람 불고

어떠니? 뭘 준비할까?

시간이 급해

어서어서 우리의 주머니를 풍성하게 하자구

그래, 맞아. 우린 지금 바쁘지만

결코 조급하지도 성급해서도 안되.

그건 우리의 인생이 그 중에서도

우리의 빛나는 은칼같은 청춘이 아름답고 소중한 때문이지.

뭐라고?

세상을 밟힐 성냥 꼬투리를 준비하자구!

물론 좋아. 그리고 소금 한 종지도 준비하자구.

그리고는 원고뭉치와 시집도 준비하기로 하고

벗이야 항상 아침으로 태양은 떠오를테니까

자! 이젠 떠날 준비도 끝나고

우리들의 여행

새벽녘에 흰 씨주를 준비하고

우리들의 여행을 축복할 건배! 건배! 건배!

갈매기 두 마리.

가장 기억에 남는 산행

임도균(95학번)

배낭이 어깨를 짓누른다. 몇 계단 올랐을 뿐인데 별씨 숨이 차다. 머리가 아프다. 그만 가고 싶다. 그러나 가야만 한다. 흡사 뱀껍질을 연상케 하는 줄과 생전 처음 보는 쇠고리 등을 짚어지고 나는 월출산 시루봉을 향하고 있었다.

워낙 힘들게 올라와서 그런지 목이 마르다. 수통을 꺼내어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물을 먹었다. 한 모금 마시기가 무섭게 옥랑이 누나가 “형들에게 물어 보고 먹어야지!” 하면서 뭐라고 한다. ‘별것 갖고 다 트집이네. 먹는 물 가지고 말이야. 널린 게 물인데’ 이렇게 대꾸하려다 말았다. 지금 같으면 어림도 없겠지만 어쨌든 나는 선배님들이 해주는 대로 가랑이 사이로 벨트를 차고 안전모를 썼다.

여기 오기 전까지만 해도 나는 암벽이라는 게 그 뱀껍질 같은 줄만 잡고 올라가는 걸로만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 순전히 자기 힘으로만 올라가는 것이었다. 충격이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무섭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진영이 누나가 나보고 쪼그려 뛰기를 시킨다. 자일을 밟았나… 어이가 없었다. 그것 좀 밟았기로서니 쪼그려 뛰기를 100개씩이나 하라니 어쩔 수 없이 100개를 했다.

조금 있으려니 내 차례가 되었다. “전남대학교 산악회 임도균 39기 등반준비완료!”, “전남대학교 39기 임도균 출발준비완료!” 등 이 짧은 문구를 못 외워서 또 쪼그려 뛰기를 했다.

바위에 첫걸음을 내딛고 무작정 올라섰다. 조금 올라서니 잡을 데가 한 군데도 없었다. 그러나 앞을 보니 쇠고리가 하나 박혀 있었다. ‘아! 이것을 잡고 올라가라고 박아 놨구나, 고맙기도 해라.’ 하고 쇠고리를 잡고 올라 채니 현성이 형이 갑자기 자일을 풀라고 한다. 쇠고리를 잡았다고… 이럴 줄 알았으면 안 들키고 잡을 수도 있었을 텐데 들켜 버린 것이 너무도 아쉬웠다.

처음으로 슬립이라는 것을 먹었다. 조금 아찔한 것은 둘째치고 가운데 다리가 너무도 아팠다. 슬립을 먹어서는 안되겠다는 생각을 본능적으로 습득했다.

어떻게 올라갔는지도 모른다. 올라와서 또 보고를 잘못해서 쪼그려 뛰기 추가. 나 같으면 올라오느라고 수고했으니 쉬라고 가만 놔두겠지만 이건 도무지 가만히 있는 꼴을 못 본다. 노래 불러라, 뭐해라. 정말 가만 두지를 않는다.

이제 2피치를 올라야 하는데 도저히 용기가 나지 않는다. 정말 너무나 가기가 싫다. 처음에

슬립을 많이 먹었다. 내려오라고 할 줄 알았지만 아무 말도 없다. 어쨌든 슬립과 자일당겨를 수 없이 외치면서 2피치를 올랐다.

확보를 하고 있으려니 이제는 날 갈구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 웬걸 현조형이 오시더니 확보를 보라고 한다. 올라오느라고 힘을 다 써서 힘도 하나도 없는데… 확보 보는 것도 올라오는 것만큼 힘들었다.

경준이가 올라와서 확보 보는 것을 교체하고 앉아 있으려니 이제 2피치는 장난이 아니었다. 너무도 무서웠다. 꼭 떨어질 것만 같았다. 눈발이 훌날리고 너무도 추웠다. 괜히 왔다는 생각은 이미 했지만 이제는 진짜 내려가기만 하면 집에 보내 주라고 말하기로 다짐하고 또 했다. 우리 조가 다 올라와서 하강을 했다. 처음 하는 하강이어서 그런지 하강도 그렇게 무서울 수가 없었다. 내가 하도 무서워서 왼손에 힘을 주니 왼손을 놓으라고 한다. 왼손을 놓으면 옆으로 넘어질 것 같아서 그래도 꽉 쥐고 내려갔다.

어떻게 하강을 해서 그토록 그리던 흙을 밟았다. 너무도 안정이 되었다. ‘이제야 살았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배낭을 챙겨서 막영지로 왔다. 저녁을 먹고 나서 반성을 하는데 집에 보내 주라는 말이 차마 나오지 않았다. 은화는 사촌 결혼식 때문에 내일 가야만 한다고 한다. 너무도 부러웠다.

나도 정말 가고 싶었다.

저녁에 몰래 도망쳐야겠다고 생각하고 잠이 들었다. 그러나 누가 나를 막 깨운다. 일어나니 아침이다. 밥하라고 한다. 잠때문에 탈출계획은 수포로 돌아가고 말았다. 추워 죽겠는데 선배님들은 텐트 안에서 잠자면서 우리보고 밥하라고 한다. 너무나 억울해서 한마디 했더니 옥랑이 누나가 꼬우면 빠지라고 한다. ‘걱정 마쇼, 내려가기만 하면 남아 주라고 사정해도 내 남는가 보시오. 경찰에 신고 안하면 다행인줄 아쇼!’라고 속으로 삼켰다.

어제 저녁 먹은 술로 속이 느글느글하더니 기어이 토하고 말았다. 이제 나는 이런 상태로 도저히 암벽을 할 수 없을 것 같았다. 그러나 선배님들에게 이끌려 또다시 시루봉으로 갔다. 오늘은 현성이형, 용훈이형, 경환이, 나 이렇게 한 조이다. 용훈이형이 텁을 서서 올라가는 모습을 보니 언제 나도 저렇게 되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용훈이형 올라가고 나서 경환이와 나는 서로 안 올라가려고 하다가 쪼그려 뛰기를 했다. 결국은 가위 바위 보를 해서 내가 먼저 올라갔다. 용훈이 형은 줄을 위누 세게 당겨 주어서 너무나 좋았다.

어쨌든 1피치를 올라가고 2피치도 올라갔다. 이제는 3피치를 오를 차례이다. 내 딴으론 얼른

올라가서 쉬어야지 하고 생각하고 3피치는 내가 먼저 올라간다고 했다. 그러자 현성이 형이, “용훈이가 추우니까 니가 짹매고 올라가서 용훈이 웃줘라.”라고 말했다. 그냥 맨몸으로 올라가는 것도 힘든데 배낭 메고 올라가라니 어쨌든 까라면 까야지 어찌랴. 그래서 올라갔다. 초입이 어려워 보였지만 어떻게 올라 채니 오버행이 나타났다. 나의 시련은 여기서부터 시작됐다. 산에 간다고 해서 운동화까지 1개 새로 사서 신고 왔는데 바위틈에 발을 끼워 넣으면서 신발 옆에 평크가 났다. 이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지만 확보 보는 사람도 안보이고 정말 여기서 슬립 먹으면 엄청나게 떨어져 벼릴 것만 같았다.

몇 분이 흘렀을까? 아니 몇십 분이 흘렀나 보나 현성이 형이 고전하는 나를 보고 비녀에 슬링을 걸어 올려 보낸다. 거기에 발을 딛고 올라서라고. 그러나 그것은 도저히 불가능했다. 발을 넣고 올라서니 몸이 흔들거리며 아까보다 더 무섭고 힘들었다. 계속 시늉만 했다. 오늘은 여기서 만족하고 내려갔으면 하는 심정이 간절했다. 현성이 형이 갑자기 나를 부르더니 뒤로 돌아서 “나는 할 수 있다!”를 복창하라고 한다. 정말 이것은 나에게 너무나 큰 모험이자 시련이었다. 그냥 바위보고 하기도 싫은데 뒤로 돌아서서 하라니… 너무 무서웠지만 열 번을 복창했다. 그러나 계속 바위만 붙잡고 있었다. 몇 시간이 흘렀나보다. 현성이 형이 용훈이 형보고 자일을 늦추라고 한다. ‘아! 나를 하강시키려는구나.’ 3시간 동안 바위를 붙잡고 있던 내 정성에 드디어 현성이 감동하신 것이다. 기분은 엄청 좋았지만 이것을 표정으로 나타내면 안될 것 같았다. 2피치에 도착해서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그러자 경환이가 얼굴이 하얗다고 하면서 팬찮냐고 물었다. 내 연기가 정말로 리얼했나 보다.

어쨌든 나는 3피치 등정을 못하고 내려와야만 했다. 경환이의 표정 속에서 ‘니가 3시간 동안 투쟁한 덕에 내가 안 올라 갈 수 있어서 고맙다’라는 것을 읽을 수 있었다. 여자 동기도 3피치까지 올라갔는데 남자인 내가 못 올라간 것에 대해 조금은 자존심이 상했지만 그래도 기분은 좋았다. 이제는 산악회 빠지니까 이 무서운 짓거리를 안해도 된다고 생각하니 기분이 너무도 좋았다.

그러나 나는 아직도 산악회에 남아서 이 무서운 짓거리를 아직도 하고 있다.

故 이현조

서정연 (82학번)

- 2007년 5월 에베레스트 남서벽에 코리안 루트를 개척하다
스러진 이현조 님께 바칩니다

현조야! 현조야!

한 번도 만나지 않은 그대를
이렇게 부르는 걸 용서하세요
에베레스트 남서벽 캠프 4에서
눈사태로 하얀산에 묻히지 않았으면
그렇게 가시지 않았으면

곧 만나 그대는 “형” 나는 “현조야”
다정히 부르며 얼싸 안았을
내 사랑하는 아우야!

그깟 산이 뭐기에!
그깟 새로운 루트가 뭐기에!
그깟 등로주의¹⁾가 뭐기에!

용서하세요
그대의 산 사랑과
그대의 개척 의지와
그대의 도전 정신과
그대의 탐험 세계를 몰라서가 아닙니다

1) 등로주의 (Mummerism) : 등정이라는 결과보다는 절벽 등 어려운 루트를 직접 개척해 가며 역경을 극복해 나아가는 것에 참 뜻이 있다고 보는 등반 정신

등반은 목숨 건 게임에 몰입한 후
얻는 성취감이라 하셨지요
산을 오르는 것은 실력이 가늠하지만
생사는 그렇지 않아
운명이라 하나보다고 하셨지요
정현형 강식형2) 손가락 발가락을 보면
남 일이 아니라 내 일이 되어
가슴이 아프고 숨이 턱턱 막힌다고 하셨지요
원정 등반 배낭 꾸릴 때
그대 삶과 죽음도
함께 꾸렸을 것임을
그렇게 마음 준비하고 떠난 길임을 압니다

위험한 등반 그만 하고
여자 친구도 소개해 주고
가정도 꾸리고
가 봐야 할 산도
아직 해야 할 일도
우리 모두 술잔 기울이며
밤새 나눌 이야기도 많은데,

삶과 죽음이
그리 멀지 않은 길이라는 것을 압니다만
환히 웃는 그대 영정을 보면
그 모습 다시 볼 수 없다는 생각에 목이 맵니다

사람은 자신이 죽을 때를 선택한다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영혼이 깨달음을 얻기 위해서
죽을 때를 택한다고 합니다

2) 박정현 : 노스페이스 클라이밍팀
최강식 : 경상대학교 산악부

그것이 뜻하는 것을 다 알지는 못하지만
그대 가버린 지금, 그대가 남기신
죽음의 의미를 생각합니다

환히 웃는 그대 모습 보면서
그대가 그처럼 가고자 하신
산에 대해
그대가 그처럼
어려운 루트를 직접 뚫고자 하신
정신에 대해 곰곰이 생각합니다

꿈을 간직하고
간직한 꿈을 ?고
그 꿈을 이룬 사람
이현조

그대는
그대가 그렇게 사랑한 산에서
이제 편히 잠드시고
그대 영혼이
깨달음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부디

그대가
가 계신 곳까지 들리라고
목놓아 그대를 부릅니다

현조야!

현조야!

나의 첫 산행

정효준(03학번)

을 해는 2008년. 현재 난 재학생이다.

2007년도 전남대학교 산악회 51번째 회장을 마친 지금 그때를 되돌아보면 조금은 부끄럽기도 하지만 힘들면서도 뿌듯했었던, 순수하고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는 때라고 생각되어 진다. 그리고 이제 2003년도 그때의 나로 돌아가 내가 산악회를 단순히 산에 가기 위해서 아무것도 모른 채,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산악회의 문을 두드리면서부터 시작된 전남대학교 산악회 47년도 이야기부터 4월 초,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달콤한 향기로 유혹하는 때, 전남대학교 산악회에서 바위를 하기 위해 해마다 가는 월출산 산행 이야기를 하려 한다.

2003년 막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전남대학교에 입학하여 누구나 그렇듯 나역시 꽉 짜여진 고등학교와는 달리 대학생활의 낭만을 가슴에 품고, 전부터 꿈꿔온 자유로운 여행을 가기 위해 여행 동아리를 찾고 있었다. 여행하면 떠오르는 것이 산, 바다 그리고 해외였다. 난 그중에서 지금의 내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여행이 무엇일까 생각했다. 해외여행? 좋다. 하지만 돈이 넘 많이든다. 바다? 그것도 좋다. 그러나 난 수영을 못한다. 때문에 난 나에게 맞는 산으로의 여행을 택했다. 예로부터 우리나라에는 금수강산이라 칭할 정도로 빼어날뿐더러 많이 있어 친숙하지 않은가? 그래서 난 산으로 여행을 가는 동아리를 찾기 시작했다.

개강을 한지 2주가 지나고 어느정도 대학이 익숙해졌다. 이제 어느정도 여유도 생기고 해서 전부터 생각해왔던 산으로 여행을 가는 동아리로 가기로 했다. 2주동안 경영대 화장실에서 보아왔던 조그만한 스티커에 적혀있던 산악회 1생 400호라는 광고를 따라서.

제 1학생회관 4층 400호, 산악회 동아리방이 있는 곳. 난 그곳으로 가서 문을 두드렸다. 정말 그 곳이 단순히 산으로 여행가는 곳이라고만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면 너무나도 순진한 생각이었다. 문을 두드리자 한 남자가 나와 나를 맞이해주었다. 그가 바로 03년도 산악회 회장인 42기 김재우형이었다. 내가 산악회가 어떤 곳인가 설명을 들으러 왔다하니 일단 의자에 앉힌 후 앨범을 보여주며 설명을 했다. 2시간동안. 조금 지쳤는지도 모르겠다. 앨범을 보여주고 난 뒤 내민 입회원서에 그냥 적어버렸다. 그리고 이번주 수요일 저녁6시 회의 때 나온다는 약속을 하고. 내 대학생활을 송두리째 바꿔버릴 선택을 난 너무도 쉽게, 단지 설명을 듣다 지쳐서 정말 생각없이 해버린 것이다.

그리고 나의 첫 산행인 해남 달마산으로 신입생환영산행을 갔다. 정말 좋았다. 짐도 없고, 그리 높지 않아 오르기 만만한 산행코스, 풍족한 먹거리와 산악회 선배들과 동기들과의 즐거운 시간들. 그러나 나의 2번째 산행인 월출산 산행은 완전 정 반대였다. 난 속았던 것이다. 아니 극히 일부분만 보고 그것이 전부인지 알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이었다.

4월달에 가는 월출산 산행은 바위를 하려 가는 산행이다. 설레였다. 2시간동안 사진으로만 보아왔던 정말 해보고 싶었던 바위를 오르는 것이었기에. 하지만 웬걸. 어서 도착하여 사진으로만 보아왔던, 정말 해보고 싶었던 텐트를 치고 야영이라는 것과 암벽을 해보고 싶은 내 마음과는 다르게, 처음으로 커다란 배낭을 메고 영암 터미널에서 월출산 천황사 야영장까지 가는 길은 너무나도 멀었다. 약 30분 정도의 얼마 안되는 거리였지만 그 당시의 나에겐 과연 오늘 내로 도착할 수 있을까라는 의문이 드는 정말 먼 거리였다. 오리걸음과 빽... 걸음도 느리거니와 결코 줄어들지 않는 야영장 가는 길.

하지만 시작이 있으면 끝도 있는 법! 과정이야 어찌되었든, 오늘 내로 야영장에 도착하여 텐트를 칠 수 있었다. 그리고 간단히 일을 마친 후, 벌써부터 피곤한 몸을 가누고 잠자리에 들었다.

다음날 아침식사와 산행준비를 마치고 드디어 기다리던 바위를 하려 출발했다. 인원을 나누어 한 조는 전남슬랩으로 다른 한 조는 검정슬랩으로 향했다. 나는 검정슬랩으로 갔다. 검정슬랩을 처음 봤을 때의 느낌은 저걸 어찌 오르나? 뭐 잡을 만한 것도 없고 맨들맨들한 것이 엄청 서 있었다.

우선 2학년인 가영이 누나가 선등으로 올라 자일을 깼았다. 그리고 재우형의 리듬, 벨런스, 삼지점 확보라는 암벽의 3가지 요소를 배우고 바로 실전 투입되었다. 하라고 하니 그냥 했다. 개인적으로 가영이 누나가 오를 때 신었던 그 고무신같은 걸-나중에 알았지만 암벽화였다- 신고 오르고 싶었지만, 그 때 난 등산화도 아닌 운동화를 신고 있었다. 나뿐만 아니라 내 동기들도 다 운동화였다. 그리고 이 번 월출산 산행 이후 모두 운동화 새로 샀다. 밑창이 다 다라져서. 아무리 후등이라지만 첫 암벽에다가 운동화신은 나로서는 검정슬랩은 완전 헬스장의 런닝머신이었다. 아무리 뛰어봤자 제자리인. 내 마음은 이미 확보지점에 있었지만 내 다리는 검정슬랩 중간지점에서 제자리 뛰기만 했다. 그 모습이 불쌍해서였을까 재우형은 내려오게 해 주었다. 그리고 고무신을 신게 해주었다. 착용감이 달랐다. 완전 바위에 발이 붙는 느낌이다. 당연히 끝까지 아까보다 훨씬 수월하게 올라갔다. 이 고무신의 뛰어난 효능을 알기 위한 내 운동화의 희

생은 값진것 이었다.

그 뒤의 한 전남슬랩과 시루봉 1피치에서도 나와 우리 47기들의 운동화는 계속 희생을 하였고, 그 희생은 정말 거룩하고 값진 것이었다. 그리고 그렇게 월출산에서의 2번째 밤이 지나갔다.

셋째 날은 전월 시루봉 3피치까지 오르는 날이다. 이 커다란 바위를 오르는 것이다. 그것도 기어서. 설레였다. 드디어 나도 사진으로만 보아왔던 걸 제대로 해보겠구나. 그리고 과연 이걸 오를 수 있을까하는 두려움도 조금 들었다. 뭐 내 생각이 어떻든간에 등반은 시작됐다.

어제와 마찬가지로 2개조로 나뉘어 한 조는 A코스, 다른 한 조는 B코스로 시루봉 정상인 3피치까지 오르게 되었다. 역시 선등은 2학년인 용주형과 가영이이누나가 섰다. 난 거의 마지막으로 올라 2학년 형들이 오르는 걸 잘 못봤지만 정말 대단해 보였다.

난 B코스로 올랐다. 정말 다행히도 난 형들이 준 암벽화로 오를 수 있었다. 수량부족으로 내 동기중 운동화로 오른 애에 비하면 난 대단한 행운아인 것이다. 1피치는 그리 어렵지 않았다. 그러나 2피치부터는 고도감이 나를 아주 살 멀리해 해주었다. 짜릿했다. 어디가서 이런 걸 또 해보나. 그 살떨리는 짜릿함과 함께 난 3피치를 지나 시루봉 정상까지 올라갔다. 시루봉 정상에서 바라다보는 영암군의 경치란. 그것도 기어서 올라야하는, 일반 등산객은 올라올 수 없는 이곳을. 아직도 그 뿌듯함이 기억될 정도로 인상 깊었다.

정상에는 이미 올라온 사람들도 있었다. 그런데 표정이 어찌 얼른 내려가고 싶은 표정이었다. 비록 2개조로 나누어 올라 갔다지만, 10명이 넘는 인원이 정상까지 오르는데에는 많은 시간이 걸렸고, 정상은 너무 추웠기 때문이었다. 그리고 나 또한 그렇게 되는 시간은 얼마 걸리지 않았다.

마침내 마지막으로 재우형이 올라온 후 우린 단체사진을 찍고 바로 하강을 시작했다. 시간이 꽤 지났는지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거의 마지막으로 하강을 한 나는 랜턴을 켜고 하강했다. 오직 랜턴 불빛에만 의지한채, 한 줄 자일에 매달려 그 높은 바위에서 하강을 하는 것이다. 행복했다. 몸은 추위와 배고픔으로 피곤했지만 바위를 오르는 것보다 더 짜릿한 이런 경험을 한다는 것이 정말 좋았다. 그래서 신나게 하강했다. 1피치를 지나 바닥까지. 물론 걸으론 긴장한 척 하면서.

또 마지막으로 재우형이 하강을 완료한 후, 우린 짐을 챙겨 야영장으로 향했다. 먼저 내려온 사람들이 짐정리를 하고 있었다. 우리도 얼른 짐정리를 했다. 그리고 어둠속에서 달빛과 별빛

그리고 랜턴 불빛에 의지해 올라왔던 월출산을 그대로 그것들에 의지해 다시 내려갔다.

난 하강을 정말 좋아한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아마 1학년 그 때, 어둠속에서 랜턴을 켜고 하강할 때 느꼈던 감정과 기억들이 가장 큰 이유라 생각한다. 산이란 그 웅장함과 아름다운 이면에 고통과 무서움이 있다는 걸 깨닫게 해준 월출산 산행.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첫 산행인 월출산 산행. 그리고 그 때는 알 수 없었지만 나중에 내가 선배가 되서야 그 의미를 어느정도 알 수 있었던 ‘자일의 정’을 알려준 산행. 정말 잊지 못할 아름다운 산행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이 아름다운 기억 때문에 아직까지 내가 계속 월출산을 오르는 것일지도...



제 6장 부 록

- 제1절 전남대학교 산악회 회칙
- 제2절 전남대학교 OB산악회의 창립
- 제3절 전남대학교 OB산악회 회칙
- 제4절 전남대학교 산악회 역대 임원
- 제5절 전남대학교 OB산악회 역대 회장
- 제6절 전남대학교 산악회 회원 명단
- 제7절 전남대학교 산악회를 빛내주신 분





제6장. 부 록

제1절. 전남대학교 산악회 회칙

제 1장 총 칙

제 1조 : 본회는 전남대학교 산악회(CNUAC : Chonnam National University Alpine Club)라 칭한다.

제 2조 : 본회는 산악등반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의 보급과 알파니즘의 함양을 기하고 산악 등반을 통한 지도자적 인격의 형성과 회원 간의 친목, 심신 연마를 도모하며 등반을 통한 학술발전에 공헌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 3조 : 본회의 사무소는 전남대학교 내에 둔다.

제 4조 :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정기적인 산행
2. 산의 새로운 코스 발견 및 개척
3. 암벽과 빙벽, 등반 훈련 및 연구
4. 목적을 같이하는 타 단체와의 교류
5. 기타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 사업

제 2장 회 원

제 5조 : 본회의 회원은 본 대학 재학생으로 산악활동에 관심이 있고 본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 구성한다.

제 3장 임 원

제 6조 : 본회는 다음과 같은 임원을 둔다.

회장 1명, 총무 1명, 장비부장 1명, 기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임원

제 7조 : 본회의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괄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산행을 총괄한다.

2. 총무는 회장을 보좌하며 회무를 총괄하고 자금을 관리한다.
3. 장비부장은 산행에 필요한 각종 장비의 관리를 총괄한다.

제 8조 : 본회의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매년 2월 정기총회를 기하여 임무 교대 한다.

제 4장 신행 및 회의

제 9조 : 산행은 정기 산행과 비정기 산행을 한다.

제10조 : 산행을 위한 예비소집은 회장 발의로써 수시로 할 수 있으며 회장은 회의소집 수일 전에 회의 소집을 통보하며 모든 준비를 지시한다.

제11조 : 본회는 정기총회 및 주례회(매주 수요일)를 하며 회의 소집은 회장이 한다.

제 5장 재 정

제12조 : 본회의 경비는 다음의 수입으로 한다.

1. 학교 또는 사회단체의 보조금
2.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의 기부금 및 찬조금
3. 회비 및 기타수입

제 6장 보칙

제13조 : 회칙개정은 회장 또는 정회원 1/3 이상의 발의에 의해 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 : 본회의 회칙에 규정되지 않은 것은 관례에 준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회칙은 200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절. 전남대학교 OB산악회의 창립

- 1958년 6월 4일 전남대학교 산악회 창립
- 1974년 5월 1일 전남대학교 OB 산악회 창립

전남대학교 산악회 창립 후 16년이 지난 1974년 봄에 그때까지 광주의 일반산악회는 10여개 정도였다.

산악회를 졸업한 OB는 대부분 우리와 역사를 같이한 무등산악회에 입회를 하여, OB가 곧 무등산악회이던 시절에 왕성한 활동을 하였으나, 차츰 졸업한 회원수가 증가하면서 시대의 변화에 따라 OB산악회의 창립 필요성이 재기되었다.

이에 박향식, 김용우, 이정옥 등이 선배들의 뜻을 물어 회칙을 만들고 수정하여 1974년 5월 1일 총회를 실시하여 회의 명칭과 목적을 정하고 그날부로 정식 명칭으로 정하여 오늘에 이르렀다.

3절. 전남대학교 OB산악회 회칙

발효 : 1974년 5월 1일

1차개정 : 1995년 5월 5일

2차개정 : 1998년 5월 9일

3차개정 : 2000년 5월 14일

4차개정 : 2003년 5월 22일

5차개정 : 2004년 5월 15일

제1장 총 칙

제1조(명칭)

본회는 전남대학교 OB산악회(Chonnam National University Old Boy Alpine Club : 약칭 CNUOBAC, 이하 “본회”라 한다)라 칭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전남대학교 산악회 출신 산악인 상호간의 유대와 친목을 도모하고, 모교 산악회를 지원 육성하며, 자연보호정신의 함양 및 산악문화 창달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조직)

- ① 본회는 광주광역시에 본부를 둔다.
- ② 본회 회원 10인 이상이 거주하는 지역에 지회를 둘 수 있다.
-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지회는 지회의 조직 및 운영을 위해 지회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지회는 총회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⑤ 기타 본회 발전을 위한 소모임을 결성할 수 있다.

제4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회지발간
2. 정규등반
3. 해외원정
4. 모교산악부지원
5. 자연보호운동
6. 기타 산악문화발전을 위한 세미나 등 행사
7. 장학사업

제2장 회 원

제5조(회원)

- ① 본회의 회원은 각각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정회원, 준회원, 명예회원으로 구성한다.
1. 정회원 : 전남대학교 산악회 출신으로 정회원 2인 이상의 추천으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자
 2. 준회원 : 정회원출신으로 본인이 정회원으로 활동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본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자
 3. 명예회원 : 전남대학교 산악회 및 전남대학교O.B산악회 발전에 기여한 자
- ② 준회원의 자격은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결정한다.
- ③ 명예회원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총회의 승인을 얻어 회장이 위촉한다.
- ④ 준회원이 정회원이 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의 신청으로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⑤ 제1항제2호 후단의 ‘본회의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없다는 판단’은 운영위원회의 결의로 한다.

제6조(권리와 의무)

- ① 정회원은 회의 전반적인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② 준회원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없으며, 연회비납부의 의무가 면제된다.
- ③ 명예회원은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으나 피선거권 및 의결권은 없으며, 영구회비 및 연회비

납부의 의무가 면제된다.

제3장 총 회

제7조(종류 및 소집)

- ① 총회는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하고, 회장이 소집한다.
- ② 정기총회는 매년 1월에 소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임시총회는 운영위원회의 의결이 있거나 회원 1/3 이상의 요구에 의해 소집한다.

제8조(권한)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회칙의 개정에 관한 사항
2. 임원의 선출
3. 예산, 결산 및 사업의 승인
4. 회원의 제명
5. 명예회원위촉의 승인
6. 지회설치의 승인
7. 기타 회장이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부한 사항

제9조(의결)

- ① 회장은 총회의 의장이 된다.
- ② 총회는 회원 20인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되고, 이 회칙에 특별히 정한 외에는 출석회원 과반 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장 임 원

제10조(임원)

- ① 본회는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약간명
3. 감사 1인
4. 운영위원장 1인 및 운영위원 약간명
5. 지회장 및 지회 임원

- 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정회원의 자격을 가진 자 중에서 총회에서 선출한다. 다만, 부회장 및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총회의 결의로 회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 ③ 회장이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해 부회장 및 감사를 위촉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④ 운영위원은 회장이 위촉하고, 정회원 중에서 2기마다 1인을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와는 별도로 위촉할 수 있다.
- ⑤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 ⑥ 지회장 및 지회임원은 당해 지회의 규칙에 따라 지회에서 선출하되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11조(회장 및 부회장)

-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한다.
-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감사)

감사는 본회의 사업 및 회계를 감사하여 총회에 보고한다.

제13조(임기)

- ①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② 임원중 결원이 있을 때에는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제14조(총무,부총무)

- ① 본회의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총무 1인과 부총무 2인을 둔다.

- ② 총무 및 부총무는 회장이 임명한다.

제5장 운영위원회

제15조(구성)

-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회장, 부회장, 감사, 지회장, 총무 및 부총무는 당연직 운영위원이 된다.
③ 운영위원장은 운영위원회 의장이 된다.

제16조(운영위원회 회의)

- ①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회장 또는 운영위원 3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운영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운영위원회는 운영위원 5인 이상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운영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임무)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사업계획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예, 결산 심의
3. 총회의 소집과 총회에 회부할 의안에 관한 사항
4. 지회의 설치에 관한 사항
5. 제10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부회장, 감사의 승인 및 동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회장 및 지회임원의 승인
6. 정회원의 준회원가입 및 준회원의 정회원가입 심사, 승인
7. 회원의 징계 발의
8. 명예회원의 추천
9. 전남대학교산악회 지원에 관한 사항
10. 정규동반 및 기타 산악활동에 관한 사항

11. 영구회비 및 연회비 책정
12. 회칙개정에 관한 사항
13. 기타 회장, 운영위원장 및 운영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장 재 정

제18조(재정)

- ① 본회의 재정은 영구회비, 연회비, 산행회비, 임원분담금, 찬조금 및 기타 수입으로 한다.
- ② 영구회비, 연회비 및 임원분담금은 운영위원회의 결의와 총회의 승인을 얻어 결정한다.
- ③ 산행회비는 총무가 결정하되 운영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가 열리지 않아 사전에 승인을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사후에 산행결과보고를 하는 것으로 대신한다.

제19조(회계연도)

- ① 본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 ② 본회의 수입 및 지출은 회계연도마다 예산으로 편성하여 정기총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며, 수입 및 지출에 대한 결산은 다음해 정기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7장 보 칙

제20조(회칙개정)

이 회칙은 운영위원회 또는 정회원 20인 이상의 발의에 의해 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21조(회원의 징계)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운영위원회가 발의하여 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이상의 찬성을 얻어 제명할 수 있다.

부 칙

①(시행일) 이 회칙은 2004년 5월 15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규정) 이 회칙 개정전에 선출 또는 위촉된 임원 및 설립된 지회는 이 회칙에 의해 선출 또는 위촉되거나 설립된 것으로 본다.

제4절. 전남대학교 산악회 역대임원

대	재직 년도	회장	학번
		총무	학번
1	1958	신귀현	1957
		임춘재	1959
2	1960	기양도	1958
		임춘재	1959
3	1961	임춘재	1959
		김승철	1960
4	1962	김승철	1960
		장일선	1961
5	1963	남상만	1961
		정순택	1962
6	1964	정순택	1962
		김장영	1964
7	1965	김장영	1964
		장기수	1964
8	1966	박명선	1965
		김승옥	1965
9	1967	박종민	1965
		박명선	1965
10	1968	박향식	1966
		김재일	1967

대	재직 년도	회장	학번
		총무	학번
11	1969	김용우	1967
		박현문	1967
12	1970	최창돈	1965
		송희범	1968
13	1971	이정옥	1969
		김나연	1969
14	1972	김평중	1970
		심근	1970
15	1973	신갑웅	1971
		김부용	1971
16	1974	김영기/이교태	72/72
		김영재/김춘성	72/70
17	1975	최병호	1973
		송희태	1973
18	1976	김인주	1974
		김영배	1975
19	1977	김동신	1971
		김재용	1977
20	1978	박상규	1976
		김희영	1976

대	재직 년도	회장	학번
		총무	학번
21	1979	김용석	1977
		조선행	1978
22	1980	이홍재	1978
		윤미숙	1978
23	1981	최영수	1979
		이희재	1979
24	1982	양일승	1980
		정종혁	1980
25	1983	정권희	1981
		서옥원	1982
26	1984	윤성룡	1982
		이종호	1982
27	1985	반민환/이은수	83/81
		강미라	1983
28	1986	임우근	1981
		김민철	1985
29	1987	김민철	1985
		김양성	1985
30	1988	송여진/한민수	87/83
		김난식/조양택	87/86

대	재직 년도	회장	학번
		총무	학번
31	1989	고일주	1988
		문귀현	1988
32	1990	최행준	1985
		백두인	1985
33	1991	이광복	1986
		유명희	1989
34	1992	김지형	1990
		조경기	1990
35	1993	문귀현	1988
		고일주	1988
36	1994	정만철	1990
		최지환	1990
37	1995	김현성	1990
		최지환	1990
38	1996	노원기	1995
		천옥랑	1994
39	1997	원정일	1993
		김연정	1995
40	1998	한창균	1994
		임도균	1995

대	재직 년도	회장	학번
		총무	학번
41	1999	이형관	1995
		안선희	1998
42	2000	함경준	1995
		전현주	1999
43	2001	정종천	1996
		전현주	1999
44	2002	한성필	1996
		전현주	1999
45	2003	김재우	1998
		김가영	2002
46	2004	김가영	2002
		임성근	2003
47	2005	이재국	2004
		정선영	2004
48	2006	손용주	2002
		문석민	2005
49	2007	정효준	2003
		문석민	2005
50	2008	문석민	2005
		심우담	2007

제5절. 전남대학교 OB산악회 역대회장

대	입학년도	성명	출신학과	비고
1	1957	신귀현	문리과대학 정치학과	
2	1959	김훈봉	상과대학 상학과	
3	1960	김승철	법과대학 법학과	
4	1960	최동식	농과대학 수의학과	
5	1961	장일선	공과대학 금속공학과	
6	1962	정순택	농과대학 농화학과	
7	1964	김장영	공과대학 섬유학과	
8	1965	박명선	문리과대학 수학과	
9	1966	박향식	공과대학 광산과	
10	1968	김하경	의과대학 의학과	
11	1969	이정옥	농과대학 임학과	

제7절. 전남대학교 산악회를 빛내주신 분

NO	이름	학번	기수	약 력	작고 년도	비고
1	이방기	1953	명예회원	법과대학 법학과 전남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전남대학교 산악회 지도교수	2007.5.4	
2	김용석	1956	1	문리과대학 정치외교학과 장흥고등학교 교사	1984.7.10	
3	신귀현	1957	1	문리과대학 정치외교학과 호남대학교 교수	2002.11.12	
4	임춘재	1959	3	공과대학 오성신데라 대표	2004.7.12	
5	김승철	1960	4	법과대학 법학과 광주일보 편집국장	2004.3.15	
6	최행준	1985	29	공과대학 공업화학과 1991 북알프스 등반 1993 에베레스트 등반 1993 알프스 3대 북벽 등반 1997 초오유 등반	1999.7.29	
7	이현조	1992	36	인문대학 불어불문과 2000 마킬루, 브로드피크, 시사평마 등정 2001 알프스 3대 북벽 등반 2005 낭가파르밧 루팔벽 등정 2006 에베레스트 등정 2007 에베레스트 남서벽 등반 중 사망	2007.5.16	

50년을 되돌아보며

2006년 정기총회에서 창립 50주년 기념사업으로 가셔브롬 I, II 봉등반과 50년사 발간사업을 확정한 뒤 회원 개개인에게 공문을 발송하면서 전남대학교 산악회 역사에 큰 흔적을 짓는 대단원의 막을 올렸습니다.

정순택 추진위원장께서 큰 틀의 기획을 해 주셨고 편집위원회들이 자료와 원고수집을 위해 손품과 발품을 팔았습니다. 10기수 단위로 묶어 일일이 전화 통화 했으며 해당 회원들에게 사진과 원고마감을 독촉하며 한 장 한 장 50년사를 채워나갔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전남대학교에서 야간 편집위원회를 열었으며 최근에는 사무실에서 밤을 새우기도 했습니다.

당초 창립기념일인 지난 6월에 발간할 목표였으나 우여곡절 끝에 늦어졌습니다. 편집위원들이 직장문제로 바쁘고 게을러 지지부진해지기도 했습니다. 과연 50년사가 발간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몇 번의 고비가 있었지만 2년만에 결과물을 내놓게 돼 한편으로는 후련하고 한편으로는 감격스럽습니다.

편집위원장으로서 발간에 대한 의무와 산악회의 자서전을 쓴다는 사명감으로 임했습니다. 막상 처음 시작할 때는 엄두가 나지 않을 정도로 방대한 작업이었지만 빛바랜 사진과 먼지가 않은 계획서 등을 펼쳐보면서 소회가 남달랐습니다. 이번 50년사는 전남대학교 산악회를 태동, 발전시키며 거목으로 자리하게 해준 노선배님들께 바치는 현정의 의미가 깊은 까닭입니다.

노선배님들의 피땀이 서려있는 각종 자료들을 대할라치면 지금은 환갑이 넘으신 분들의 써렁쩌렁한 젊음이 고스란히 전달되는 느낌을 받기도 했습니다. 빨치산과 흡사한 복장과 장비를 착용하고 지리산 한라산 설악산 등을 누비신 개척자적인 모습 앞에는 경외감을 느끼기도 했습니다.

전사처럼 망치와 래더를 주렁주렁 매달고 바위에 매달리신 모습과 강철체력으로 팔공산 60km 극복동행대회를 달리신 열정, 인적조차 없는 지리산의 폭설을 뚫는 기상 등 전남대학교

산악회의 모태이자 시원은 역시 선배님들의 악전고투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50년이라는 세월은 정말 도도한 장강처럼 장대하고도 장대했습니다. 선배님들이 그간 걸어 오신 그 장엄한 물길 덕분에 후배그룹들은 너른 평원에서 처럼 맘껏 산행을 펼칠 수 있었고 전남대학교 산악회라는 이름이 지역사회는 물론 전국 어디에나 내놓아도 자랑스러운 이름이 되었습니다.

50년의 세월을 훑어 내리면서 청청한 기상으로 산하를 주름잡던 선배님들의 모습도 반백의 주름살로 변해가는 것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어제의 선배들은 바로 오늘의 우리가 돼 있었고 우리는 50년을 넘어 선후배로 한 마음 한 형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 50년사 발간을 계기로 후배들은 새로운 출발점에 섰습니다. 선배는 후배를 아껴주고 후배는 선배를 존경하는, 형제애로 똘똘 뭉쳐진 전남대학교 산악회, 50년사를 계기로 우리는 그간 불협화음이 혹시라도 있었더라면 뚱땅 던져버리고 50년전 창립당시의 마음으로 돌아갈 것을 다짐합니다. 산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설레임, 형제애보다도 더 뜨겁고 끈끈하다던 약우의 정으로 서로 얼싸안을 것입니다. 50년을 넘어 1백년을 향해가는 전남대학교 산악회는 더 향기롭고 더 단단한 아름드리가 될 것입니다.

그간 어려운 여진속에서도 50년사가 발간된 데는 끝까지 독려와 채찍으로 진두지휘하신 정순택 추진위원장님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경비마련에서부터 좌초의 위기때마다 용기를 불어 넣고 추진을 견인해주신 이정옥 회장님도 큰 힘이셨습니다.

그리고 중차대한 일을 맡아 경험 없고 준비도 안된 저를 돋느라 바쁜 직장일을 팽개치며 궂은 일을 도맡아하신 김용육총무님 박현주 김영필 김수영 한성필후배님께 겨우하게 술 한 잔 사고 싶습니다. 시간적 물질적 손해를 감내하며 오로지 우리 산악회를 사랑하는 마음 하나로 희생해 주신 후배들이어서 미안한 마음 그지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소중한 자료와 원고 등을 보내주신 김훈봉 장일선 정순택 김장영 박명선 이교태 선배님 그리고 전남대학교 산악회원의 이름으로 50년사 페이지 페이지를 가득 채워주신 2백여 모든 회원여러분께 50년사 발간의 영광과 기쁨을 모두 돌리겠습니다.

곳곳에서 나타나는 미흡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모두 저의 허물로 받아주십시오. 앞으로 진행 될 60년사 1백년사는 후배들이 더욱 멋지게 장식할 것입니다.

2008년 무자년 12월 함박눈이 평평 내리는 밤에

